



2003 여성연대 한판
 자매들,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

2003.. 여성연대 한판



자매들,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

> 2003 여성연대 한판 기획단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법대 여학생회, 석순, 숭실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여성자치 언론 투입술, 문
 파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주야쌍스,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 8월 1일 (첫째날)

14:00	집 합
14:00 ~ 15:00	한판 소개, 참가 단위 소개
15:00 ~ 18:00	반성폭력 학칙과 상담소 워크샵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21:00	레즈비언
21:00 ~ 22:00	휴 식
22:00 ~ 24:00	장애 여성

▼ 8월 2일 (둘째날)

09:00 ~ 11:00	일어나고, 아침 먹기, 체조
11:00 ~ 13:00	이주 여성 성매매
13:00 ~ 14:00	점심 식사
14:00 ~ 18:00	여성운동 길찾기 / 여성주의 매체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21:00	여성 노동
21:00 ~ 23:00	전쟁과 여성
24:00 ~	계속 놀기

▼ 8월 3일 (셋째날)

11:00 ~ 12:00	일어나고, 밥 먹기
12:00 ~ 13:00	평가
13:00	해산

※ 행사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contents

▶ '반성폭력 학칙과 상담소 워크샵 기획'팀	
다시,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을 고민하며 • 5	반성폭력 학칙, 내용 알아보기 • 8
학칙과 상담소 운영상의 문제 • 34	학칙, 지금 어디에 있는가? • 39
학칙의 빈자리 채워 나가기 • 42	
▶ 레즈비언팀	
레즈비언팀 여는글 • 49	[퍼포먼스 소개] '호모포비아, 난 니가 너무 지겨워' • 50
이화안의 호모 포비아 • 51	아웃팅에 대한 학내 단위들의 이해부족 증상이 심각하다!!! • 53
일개 레즈비언의 눈으로 이화를 바라보다 • 56	초보이반의 커뮤니티 찾아다니기 • 58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 57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걸 • 62
▶ 장애여성팀	
장애여성... 그녀들의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 • 65	장애여성의 독립과 사회적 권리 • 66
손바닥을 하늘 가리기, 이제 그만 • 70	장애 여성의 내적 독립과 정체성 찾기 • 73
▶ 이주여성성매매팀	
이주여성성매매, 그 고민의 시작 • 81	언론에서 다뤄지는 이주여성성매매 • 83
이주여성성매매의 역사와 현황 • 84	이주여성성매매의 배경 • 85
이주여성성매매의 구체적인 이주 경로 • 92	이주 성매매 여성 실태#1 • 96
이주 성매매 여성 실태#2-생존여성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 97	이주여성성매매 대안 논의 • 99
대학에서 반성매매 운동하기 • 102	
▶ 여성운동 길찾기팀	
왜 '길찾기'인가? • 107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 • 108
학생회, 그 '대표제'의 부족함에 관하여 • 111	함께 걷는 길에 대한 아쉬움 • 114
나와 그녀 / 그녀와 나 : 그 미묘한 평행선 • 116	여성주의 탄파라가 노래를 한다 • 118
▶ 여성주의 매체팀	
그녀, 그녀에게 말하다 - 여성주의 매체의 의의 • 121	학내 여성주의 매체의 역사 - 석순과 줘이핑크 • 123
학내 여성주의 매체, 그 한계를 넘어서 • 127	
▶ 여성노동팀	
여성노동, 여는 글 • 131	기간제 여교사 사건 • 132
용역직 호텔 룸메이드의 삶 • 134	대학, 여성, 비정규직, 시설관리용역 • 138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 141	
▶ 전쟁과 여성팀	
성별화된 폭력 • 143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 147
"전쟁이 싫은 한 평범한 레즈비언의 이야기" • 151	생존자의 증언, 어떻게 들을 것인가 • 154
▶ 정보 수집팀	
전국여성운동여성주의 모임 정리 • 156	여운단위 지난 활동 보기 • 158
학외 여성운동 단체 및 사이트 • 169	성명서 모음 • 172

자매들,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

2003년 여성연대한판에 여성주의자 여러분, 반가워요!!

여성연대한판은 한 해의 학내 여성운동을 총화하고, 여성주의적 고민으로 끊임없는 실천을 모색하고 있는 각 단위 혹은 개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뜻 깊은 행사가 올해로 벌써 여섯 해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자매들,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

각 지역에서, 각 캠퍼스에서, 그리고 각자의 일상에서 여성주의자들은 무수히 다양하고 가변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곳곳하게 싸워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주의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아우르기에 우리는 각자가 다층적인 관계맺음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고민을 가진 '차이'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직면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일수도 있고,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아닌 위치에 있는 자신을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직면하는 것은 이제껏 '가장' 올바르게 믿어왔던 자신의 운동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성은, 차이는, 다름은 '여성'이라는 이름과 '자매'라는 힘을 더욱 풍부하게, 더욱 강하게 하는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자매들,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

매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아쉬워했습니다. 왜 서로 연대의 가능성을 가지지 못했는지, 이렇게 다르면서도 닮아있는 문제들을 고민하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는지, 서로의 차이를 느끼면서도 매해 반복되어온 이런 바람은 아마 우리의 차이가 단지 서로 다름으로 흩어져 존재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함께 바라다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먼 길만으로 돌지 않는, 즉 간절히 살아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이번 여성연대한판은 사실 조금은 서로에게 불편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불편해질만큼 차이를 잘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함이 그 자체로 그대로 남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이 자리에서 조곤조곤 고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바라다'를 말하기엔 아직도 두려움과 떨림이 앞서지만, 한판을 통한 여성주의자들의 연대의 흐름을 이어온 우리의 지혜와 힘을 믿으며, 지금! 그 흐름을 풍성함으로 채우기 위하여, 그 흐름을 새롭게 함께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반성폭력 학칙과 상담소 워크숍 기획'팀

반성폭력 학칙의 현주소, 그리고 빈자리 채워나가기

- 화, 여망, 반짝, 세류, 이방, 늘

다시,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을 고민하며

올해도 여성연대한판을 준비하기 위해 각 학교 여성운동단위의 활동 주체들이 모여 앉았을 때 어김없이 쏟아져 나왔던 이야기 중 대부분은 골머리를 썩으며 처리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에 관련된 고충들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반성폭력 운동 자체는 조금씩 그 실 내용들을 축적해 왔지만 사건은 여전히 가장 적나라한 수준에서 사건 해결 주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신고된 사건이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일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들이 수 없이 반복된다든가 사건 처리 과정 중에 가해자를 지원하는 교수들의 입김이 작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조차도 어떤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들을 거듭 겪게 되는 사건 해결 주체들은 끝없이 막막하고 지쳐 가며 때면 외로움을 곱씹게 된다. 피해자 신분이 걱정되니 어딜 가서 마음 편히 의논을 청할 수도 없고 가해자는 만만한 사건 해결 주체를 제차 괴롭히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해결 주체인 나는 점점 더 고립된다. 어디 해당 사건의 피해자만름이야 하겠느냐는 나름의 학업이 있고 생업이 있는 활동 주체들은 괴롭다. 생활이 점점 파탄나면서 비터 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

특히 각 단위에 제정되어 있는 반성폭력 자치규약에 의거해 사건을 해결할 경우,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 미팅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문서 작성과 여타 크고 작은 업무들은 고스란히 사건 해결 주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일을 하게 되는 활동 주체들은 사건이 처리 될 때까지 평소의 두 세 배 이상 되는 일에 시달린다. 심지어 많은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 결합하고 있는 활동 주체들은 해당 사건 자체와 별도로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을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 내 활동가들인 우리는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상담 전문가는 결코 아니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혹은, 언제 신고될지 모르는)성폭력 사건에 상시 대기할 수도 없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고되는 사건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이것저것 손 댈 일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치규약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단위임에 반해 실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수위의 가해자 처벌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게 마련이고 이 때 강제력이 있어야만 그러한 처벌의 집행이 가능하기에 이 지점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불가피한 한계라 하겠다.

자치규약 제정의 애초 목적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각각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사실상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규약 제정 운동의 초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상당수의 과/반 단위, 단과대 단위 등의 여운단위 또는 학생회 단위에서 규약 제정 운동을 벌여냈고 (물론 지역별, 학교별로 편차는 있다) 그를 통해 남의 일로만 여겨지고 금기시 되었던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의 유통을 가능하게 했던 것만 생각해 봐도 성과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현실 판단을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치규약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자치규약이 그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든 자기 생활 단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학 내에서 이미 그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전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관계맺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자치규약 제정 운동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현재, 이상적인 의미의 공동체는 많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단위 공간-즉, 과/반, 동아리 등의-으로써의 공동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던 바 있다. 그런데 자치규약에 근거해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고 (글내 아무런 해결도 보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있다.), 그러면서 자치규약의 한계들을 여실히 느꼈을 지금으로써는 이 이유를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다. 현실이 그러한 것이다.

단적으로, 글쓴이가 활동하고 있는 단위에서는 이제 누/구/도 어떤 피해자도 성폭력 사건의 자보화를 원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 공개 대자보와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문이 줄줄이 게시되었던 게 겨우 삼 년 전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해결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캠퍼스를 지나다니는 학우들 눈에는 예전처럼 성폭력 사건 관련 자보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의 의대 교수 사건 정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학교 병원 노조와 학생 공대위가 공론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과연 글쓴이의 학교에서는 더 이상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다. 지난 학기만 해도 여운단위 인자들은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 신고를 받았고 여러 건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해결했다. 그러나 어떤 사건도 캠퍼스 차원에서 회자되지 않았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공개를 꺼렸다. 애초부터, 사건 공개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사건 해결 주제건 피해자들이건 사건의 공개가 결코 바람직한 공론화로 이어지거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지한 주의 환기를 촉진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경험상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간의 반성폭력 운동은, 일정 정도, '사건'을 매개로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다. 사건이 공개되고 그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글이 제출되고 그에 덧붙여 때로는 피해자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여운단위들의 지지 성명까지 게시가 되면, 성폭력 개념 정의의 문제에서부터 가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온갖 말들이 오고 갔고 여성주의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끝없이 싸웠던 것이다. 규약 제정 이후의 반성폭력 담론이 '사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사건 공개가 없게 된 시점에서 운동 주체들은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내 반성폭력 담론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쥐 죽은 듯 고요한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신고되는 상황.

모여 앉은 여운단위 활동가들은, 새로운 방식의 '운동' 과 좀 더 섬세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 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 만들어져 있는 반성폭력 학칙과 그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에 눈을 돌렸다. 새삼 눈을 돌렸다가보다는 자치규약과 여운단위 그리고 학칙과 상담소가 지금까지 서로서로 엮여온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라도 그것이 불가피하다) 모양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고자 결심했다는 말이 보다 정확하겠다. 자치규약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학칙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 질 게 현실이고, 단지 자치규약이 담보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한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 학칙의 독자적인 역할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작업은 시급한 것이다.

서울대 신정후 교수 사건 이후로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온 여성운동 단위들은, 학생 사회의 공동체적 성찰과 성폭력의 자치적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던 자치규약 제정 운동과는 또한 별도로 학교 당국이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학내의 성을 매개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킬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해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진행했다.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뿐 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성폭력 학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학칙이 제정된 학교보다 (그러한 학교도 세부 항목 상에 있어서 여운단위와 학교 당국이 어느 정도 타협안을 만들어 내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 부분 생기게 되었지만) 이후 교육부의 권고로 인하여 날림으로 학칙을 만들어 통과시킨 학교가 훨씬 더 많게 되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지면 개

정이 쉽지 않은 학칙의 특성으로 인해 학칙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성폭력 사건들에 있어서 처리 과정 상 난항을 겪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개념 정의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에 이르기까지 허점이 발견되는 곳은 많다. 이 기획팀에서 조사 분석한 것들 중에서도 해도 다양한 유형 부형의 성폭력을 포괄하지 못하는 개념으로만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거나 피해자 보호 규정은 없이 가해자 보호 규정만을 하고 있는 학칙들이 여러 개다. 게다가 교수 성폭력 피해자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조항도 없다.

그리고 학칙에 근거해 (그나마 독립적인 상담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학칙도 많다) 설치된 상담소가 아예 유명부실하기도 하고, 제도 기관으로써 관료화되어, 피해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전적으로 피해자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다루지 못한다거나 상담소의 도움이 절실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역시 수도 많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피드백해야 할 상담소와 학내 여운단위가 부족한 의사소통과 서로의 방식 차이로 부딪치게 되기도 한다.

이번 '반성폭력 학칙과 상담소 워크숍' 이 이후의 학칙 개정 운동과 상담소와 여운단위의 원활한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게 기획팀의 바람이다.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다시금 힘차게 진행되기를.

反성폭력 학칙, 내용 알아보기

학칙 분석한 학교들

강리고신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고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원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삼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시립대학교, 서강대학교, 영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고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배재대학교, 인천교육대학교, 중앙대학교

1. 총론

1) 학칙 전반 개념상의 문제

아직 대부분의 대학들이 성희롱/성폭력 개념을 이원적으로 구별함으로써 법의 보수적인 관점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피해자의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 기준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대한 물이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현행법은 가해자의 성기 삽입 유무를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의 '정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칭을 개정하기는 했지만) 그런 법 체계 하에서 피해자의 '신체'는 단절적이고 파편화되어 다뤄지고 있고 피해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여기서 파생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요한 법익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다뤄진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성폭력의 상황에 대한 맥락을 전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의 형식적 저항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한다. '정조'를 지키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이 있었는가라는 지극히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폭력 행위를 재단하고, 사법 절차 내에서 반복적인 제 2차 성폭력에 피해자를 노출시킨다.

한편, 우리 법은 애초에 피해여성 대 가해남성의 구도로만 성폭력 문제를 사고할 뿐, 동성 간의 성폭력 문제를 아예 법으로 다룰 여지를 배제시켜버린 큰 허점을 가지고 있다. 동성 간 성폭력을 법적으로 다루는 수단을 극도로 배제한 것은(군형법 상의 처벌만 있을 뿐)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극단적으로 양분화하여 피해/가해로만 협소하게 한정시킬 뿐 아니라, 성소수자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부인하고 그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폭력 자체를 비가시화하는 큰 문제를 갖는다. 이것은 현행법에서 성소수자의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예이고 그 기저에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국가 규제주의의 발상이 깔려있다. 나아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위와 맥락의 '성'폭력을 공식적인 법 체계에서 여남 간에 '한정시킨다'는 것은 현재의 법이 얼마나 경직된 관점 속에서 움직이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학칙에서 이런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따다 씌으로써 그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한 예들이 다수 있었다.

90년대 대학가에서 활발히 벌어졌던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은 이러한 보수적 담론들과 현행 법체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출발했다. 적어도 대학 내에서만이라도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에 의거하여 성폭력 사건이 공동체의 문제로 사고되어야 함을,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엇이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렷다. 그리고 성폭력의 일상성과 그 맥락의 연속성, 학내에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의 고발,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반성폭력 자치 내규가 제정되기 시작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인 공개실명사과의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측과 학칙 제정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동안 교육부의 명령에 의해 베껴먹기 식으로 졸속 제정된 학칙의 예가 많아서인지, 각 학교에서는 이런 반성폭력 학칙 운동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아직까지 반성폭력 학칙 운동

의 기저에 깔린 주요 원칙들-피해자 중심주의와 사건처리 후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건공개의 원칙 및 실명공개사과의 공식적 여론화를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 학칙들을 보면서, 지금이 대학 공동체 내에서 왜 반성폭력 학칙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들었다. 성폭력의 개념 문제는 그만큼 절차 내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대학공동체 내에서조차 기존의 보수적 담론과 차별화된 규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과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로 지금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2) 피해자 보호 규정

대부분의 학칙에서 아직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다. 현재 대부분의 전형적인 피해자 보호 규정은 원칙적인 수준의 의미 선언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나마 각 학교끼리 서로 베껴먹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똑같은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 보호의 핵심인 특징인 관여 배제나 위원에 대한 기피 조항이 없는 학교도 다수였다. 심지어 피해자 보호가 피신고인(가해자) 보호보다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사건 비공개주의와 조사 위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만 달랑 써놓은 학칙도 꽤 되었다. 가해자를 위한 답변 거부권이라는 조치를 준 학칙은 간혹 있어도, 피해자를 위한 증인 소환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까지 나아간 학칙은 한 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학칙이 전부하다는 것, 이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이 현실적 난관에 부딪힐 때 그다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닐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건 해결과정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풀려야 할 문제이다. 자칫 공허한 당위로 그치기 쉬운 이 원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피해자 인권 보호의 현실적 필요이다. 성폭력 해결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2차 성폭력으로 번져서,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생시키거나 매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술한 교수 성폭력 사례나 직장 내 성희롱 법정 투쟁에서 보았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 경험을 상가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린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2차 가해에까지 노출되게 되면 피해자는 고통받는 것을 넘어서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의지 자체를 잃을 정도로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 대 피해자의 첨예한 대립으로 번지기 쉽고, 이런 경우 가해자의 반복적인 2차 가해는 흔하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실제 이러한 '예견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대부분의 학칙에는 고민의 흔적조차 없다. 원칙만 달랑 명시되었지, 실제 사례들을 해결함에 있어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극히 적고, 그것은 학칙의 미비한 점만 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그 집단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자기정당화를 위해서 가해자 측근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여성이 남성 가해자보다 권력적으로 열위에 놓일 때가 많기에 피해자를 따돌리는 일은 쉽게 일어난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성적 가치 규범을 지닌 공동체의 문화에 의해서 발생함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런 집단의 공격에 취약함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렇게 집단일 때, 가해에 대한 주변인의 방조가 있을 때, 취약한 지위에 놓이는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학칙에 의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면, 이런 집단 성폭력이나 가해 사실 방조 등을 한 제 3자에 대해서도 사건 조사를 확장시키고, 소환시킬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해자의 제 2차 가해의 태도가 징계 수위에 쉽게 반영할 수 있는 항을 두어야 하고, 집단 성폭력의 경우를 재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근거를 학칙에 두어야 한다. 부산대의 경우, 이례적으로 2차 가해 간주 조항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철저하다. 방조 등의 경우 처벌하는 예나 제3자 소환 규정이 몇몇 대학에 있으며 이런 예를 점점 넓혀나가고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 제법시 가중 징계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바로 징계 수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적극적 보호 조치로서의 공개실명사과의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사건 처리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원칙적 공개주의 규정 도입의 필요를 짚어보자. 90년대 반성폭력 학칙 운동에서 여운단위가 알려진 것은 성폭력 문제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범죄자의 문제)로 사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우리 사회에

서는 성폭력을 입은 피해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억압 기제를 통해 피해자를 입담게 함으로써, 문제 자체를 은폐하고 비가시화시켜 왔었다. 피해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폭력적 남성 색취열리트를 조장하는 문화에 대한 반성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는 이러한 문화를 용인하는 공동체의 문제이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폭력의 맥락에서 읽혀질 수 있음을 반성폭력 운동은 알려냈고 그 성과로 공개실명사과의 원칙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라는 원칙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보장이 철저해야 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받아내는 실명공개사과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이기도 하다. 공개적으로 여론화함으로써 피해자 자신의 공동체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성찰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같이 치유해가는 작업을 시작하고 그런 조건을 마련해 나가야만 피해자는 제대로 그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닌 덮어두고 쉬쉬 하기 식의 학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더 큰 문제의 씨앗을 남기며 피해자를 희생자화시킴으로써 은폐된 공간에 영원히 피해자만을 가둬 둘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비공개주의를 전제하는 학칙 규정들은 이런 의식들을 받아들여 공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비공개로 할 것을 강요하는 기이한 사례들을 낳고 있다. 이것은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과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실명공개사과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조치일 때가 많다.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의 비공개주의 원칙과 함께 사건 처리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공개주의 및 공개실명사과의 원칙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 보호 조치와 함께 공동체의 문제로 성폭력을 사고하는 방향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3) 가해자 징계 관련

대체로 학칙들이 가해자 불출석시 제재 규정 및 실효적 제재를 가능케 할 강제적인 출석 요구 조항이 없다. 그럼으로써 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 조사위는 어쩔 수 없다며 손놓고 방치하는 경우조차 자주 생긴다. 가해자들은 "배재라 나는 불려도 안간다"는 배항을 보일수록 징계를 쉽게 피해갈 수 있음을 알고, 강제 소환 규정이 없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모르되 피신고인에 대해서 좀 더 불출석을 제재하고 절차를 진행시킬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면 피신고인들의 불협조로 조사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학칙은 이런 문제를 '가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서인자 하나같이 외면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보호에 대해서 더 신경쓰는 학칙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물론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가해자 인권 보호는 형사 절차의 이념이지 학내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시해야 할 원칙이 될 수 없다. 형사적 불이익에 비하면 학내 사건은 징계나 불이익의 정도가 훨씬 경미하고, 실제 피해자가 요구하는 제재도 형사적인 것과 전혀 다른 방향(공개실명사과문의 자보화라든지) 대부분이다. 그러한 학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가해자 보호의 중요성보다는 피해자 보호 원칙의 실효화가 훨씬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해자 보호 원칙은 원칙만 밝혀놓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간혹 학칙에 나와있지 않은(때로는 한양대 학칙과 같이 피신고인의 답변거부권을 주는 학칙 규정에 의하는) 친절한 과보호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성평등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것이다. 근래에는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공격하는 예는 잦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가해자를 손들어주는 듯한 규정의 태도는 이러한 적반하장격의 가해자들이 조사를 회피하고 사건을 질질 끌며 신고를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악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칙에서 가해자 2차 가해 시 가중 징계에 관한 규정 없는 학교에는 빠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학교일지라도 가중 징계의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은 것을 고쳐서, 가해자의 태도를 징계 수위에 바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탄력적인 절차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아까 언급했듯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 3차 지속되는 반복적 가해 속에 노출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는 사건 해결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가중 징계를 통해서 피해자 보호의 여지를 넓혀야 한다. 덧붙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들에 대

해서도 제재하거나 이행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개의 학칙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성폭력 사건의 특례에서 함께 처리되지 않고 경미한 것만 조사위원회(대책위원회)에서 다루고, 중한 것은 일반적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하도록 한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복잡한 절차를 경유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게다가 그 경한 것과 중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힘든 학칙도 간혹 가다 있는데, 조사위원회의 교수들의 보수성이 이런 규정의 문제와 겹치게 되면, 피해가 심각한 데도 제재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는 쪽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또다시 징계 위원회로 가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전혀 새로운 사람에게(보수적인 교수 군일 때가 많다) 또다시 힘든 조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투쟁에 가까운 험난한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아가 이런 절차는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고하는 것조차 힘들게 한다.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운용과 성폭력 사건의 경우 조사위에 권한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징계 권한이 집중된 대책위여야 가해자들의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는 더욱 그렇다.

4)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가 전반적으로 불분명한 것이 큰 문제이다. 특히 교수 성폭력의 경우 적용되는 지 여부가 아예 명기가 안되거나 교묘히 이를 피해가면서 말바꿈을 해놓은 학칙도 간혹 있다. 그리고 교직원이라고만 추상적으로 명시해놓거나 본교 구성원이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씌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학칙도 많았다. 교직원 적용 범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고, 교수 성폭력의 특례가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에 대해 전원이 공감했다. 교수 성폭력이 주로 문제되는 여대의 경우, 불성실하고 모호한 학칙 규정들이 아직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것도 교수 성폭력 학칙 특례를 만들 때 예상되는 교수들의 집단적 저항을 미리 볼 수 있는 대목인 듯하다.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에 인대를 해온 각 학교 여운단위에서의 노력이 학교 측에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것은 비단 학칙 규정만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도 그러하다. 교직원이 추상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교수들로 이뤄진 대책위가 과연 사건 해결에 제기능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 내 학생간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 지도 교수들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데(실제 사례),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과연 비공개주의를 택하는 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날 것인지 학생들이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 결과의 실효적 집행 여하는 대체 누가 감시하는가?

학생인 경우는 일방만이 본교 학생일 때 학칙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지가 명시되지 않은 학칙이나 휴학생일 경우 어떠한지 규정 없는 곳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 학칙이 사건 신고 후 신분 변동의 경우 사건 조사에 장애 사유로 작용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조사에 회부된 후 학교를 그만두는 악용 예들을 차단하도록 개정되어야겠다. 대학원의 경우 명시적으로 적용 배제되지 않지만 박사 과정 마지막 학기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이, 규정은 모르되 '사실상'의 적용이 힘들도록 된 경우도 실제 사례에서 많다. 종합해서,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되, 적용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무 기준이나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할만큼 아리온 적용상 문제가 많은 파트이다. 개념에서 언급된 바처럼 동성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적용범위에 당연히 포함시키도록 실제 법조항을 그대로 따온 경우에도 해석을 넓히고, 또 그것이 학칙에 의해 다룰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5) 학생위원회와 여성위원

학생들과 연관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학칙에 의해 사건을 처리한다고 할 때 학생들의 참여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는 학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자치성을 보장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 가해자에 동일시하기 쉬운 교수들만의 결정으로 피해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위원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고 그러하기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칙들에서 학생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것을 보면 학생위원의 존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공주교대와 같이 교직원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아예 학생위원의 참여가 막혀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생들의 참여가 인정되고는 있으나 교직원과 학생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못해도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닌 경우도 비밀비재하였다. 이런 경우는 아예 학생들의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위원의 참여가 의무사항인 학칙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상에 따라 관여의 정도가 달라진다. 상담소 운영위원회에만 학생 참여가 의무화된 경우에는 실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어서 피해자 지원이나 가해자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 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기구에 학생위원이 배정된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위원회 내에 학생위원의 수가 명시되고 실제 사건 처리에 관여를 하게 되더라도 학생위원의 수는 한 두 명 혹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정도로 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교수들이 학생위원을 자신들과 동등한 위상과 결정권을 가진 위원으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으로 보는 상황에서 학생위원의 발언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을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학생위원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학칙에서는 학생위원의 자격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교직원이 추천을 하거나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생위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불명확하다. 그나마 총학생회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장 나은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칙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적절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징계를 위해서 여운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학생위원으로 일정 정도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물론 이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학칙과 성폭력 상담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처리 과정의 결함이 여운단위 사람들에게 떠넘겨져 여운단위가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운단위가 학칙으로 처리되는 사건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으려면 우선 학칙과 상담소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학칙으로 꾸려진 기구는 학교 내의 독자적인 처리 기구로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사건의 조사 등에 있어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고 여운단위는 일련의 과정을 견제하면서 사건의 처리 및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학칙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꾸려진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이다. 이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기에 여성이 보다 피해자에게 감정이입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구도가 아닌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기가 보다 쉽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그런 관점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들만을 위원으로 삼았을 때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학칙들을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을 규정해놓지 않은 규정에서부터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이어야 한다는 규정까지 다양하다. 비율을 명시해놓지 않은 학칙도 문제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두 명 혹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정도로만 보장해 놓은 학칙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여성 의무 비율을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6) 상담소의 구성 및 권한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가 학칙에 보장된 내용에 의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 학내의 성폭력 상담소이다. 대부분의 상담소 설치 규정에서 명기하고 있듯이 상담소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그리고 피해신고의 접수를 위해 마련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만큼 상담소가 미비한 경우 피해자가 도움을 얻을 만한 마땅한 곳이 없다는 점에서 상담소가 학칙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처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 그러나 실제 각 학교에서 상담소가 설치되는 과정은 그 중요성에 비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하기에 독립적인 구성을 갖추기보다는 기존에 성별화되지 않은 채 상담 업무를 진행하던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기관 내에 상담소 혹은 상담실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기관에 성폭력 피해 상담 업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형태의 상담소에서는 학생생활연구소장이나 기존 기관의 장이 상담소의 장을 겸임하고 다시 상담소의 장이 사건 조사나 가해자 징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상담소의 성폭력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상담소가 학교 내에서 어떠한 조직 구성에 위치해 있는가는 단순히 조직 구성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학내에서 성폭력이 여타의 업무와 얼마나 구별되어 사고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폭력 상담소가 학생생활연구소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역할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못한다. 이는 별도의 상담소라 하더라도 상담소장을 기존에 상담을 맡던 기관의 장이 겸임하거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는 일반 교직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는 규정들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를 만나 상담할 상담원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 지원에 별 무리가 없겠지만 상담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학칙은 아주 드물다. 그것도 전문상담원이라는 규정 자체도 없고 소장이 상담을 하거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상담교수를 두거나 기존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원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다수를 차지한다. 별도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상담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관련 분야 전공자를 포함시켜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으며 다른 분야의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상담원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그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특히 대부분의 학칙에서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징계 요구 여부를 상담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원의 전문성은 피해자들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칙에 성폭력 전문 상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2. 학칙 세부 분석

1) 학칙 전반 개념상의 문제

① 법률 상 정의되는 그대로 성희롱·성폭력 범죄로 분류하는 경우 / ② 법률 정의대로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나누지만 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 ③ 법과 관련 없이 '성폭력' 개념 정의 / ④ 동성 간 성폭력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개념 규정

2) 피해자 보호 규정

① 원칙 명시 안된 경우 / ② 원칙은 명시된 경우 (전형적인 경우) / ③ 피해자중심주의까지 추가로 밝힌 경우 / ④ 공개실명사과 내지 사건 처리 후 원칙적 공개주의 밝힌 학칙

3) 가해자 징계 관련

① 징계 절차의 구조 / ② 가중 징계와 2차 가해 징계 여부 / ③ 재심의 요청 가능 여부 / ④ 가해자가 불이행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유무

4) 적용 범위

① 교직원 범위 구체적 명시 여부 / ② 학생 범위 구체적 명시 여부 / ③ 가해자 피해자 일방에만 해당하는 경우 / ④ 기타 '구성원 간에'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5) 학생 위원과 여성 위원 참여

① 학생위원 / ② 여성위원

6) 상담소의 구성 및 권한

① 별도의 소속 없이 존재하는 경우 / ② 학생생활연구소 혹은 유사 기존 학내 상담 기구 내의 상담실인 경우 / ③ 상담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에서 관할하는 경우 / ④ 상담원 자격 요건이나 교육 이수 여부 규정 유무 / ⑤ 기타 특기 사항

1) 반성폭력 학칙 전반 개념상의 문제

① 법률 상 정의되는 그대로 성희롱/ 성폭력 범죄로 분류하는 경우

: 그러나 개념 구별과 무관하게 성폭력, 성희롱 양자를 학칙에 의해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학칙문구 예) 1-1 공주대학교

제 2 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거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성적, 학위, 진학기회, 고용, 인사, 취업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 ②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학칙문구 예) 1-2 서울대학교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예) 서울대, 삼척대, 서원대, 공주교대, 계명대, 단국대, 고려대, 금오공대, 부경대, 서원대, 이대, 건국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창원대, 한밭대, 호서대, 호원대

② 법률 정의대로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나누지만 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 경희대 예와 같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라고 칭하는 등 학칙 명칭 상의 성폭력이 제 2조 개념 규정의 성희롱 포함하는 의미로 되어 있는 등의 경우이다. 1)과 실제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

학칙 문구 예) 2 경희대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행위

나. 성 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 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 범죄"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예) 동국대, 경희대 한세대

③ 법과 관련없이 '성폭력' 개념 정의

: 이원적인 성희롱/성폭력 개념 구별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유무라는 피해자의 시민권을 중시하는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에서 학생들이 주장했던 견해가 반영된 규정들임. "범죄 구성요건과 관계 없이"라고 보통 명기된 경우이나 가끔 부산대처럼 구체적 예시도 있다.

학칙문구 예) 3-1 경일대학교 학칙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칙문구 예) 3-2 부산대학교 학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에 관한 일체의 행위와, 성범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든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①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일
- ② 상대의 신체에 강제적이고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 ③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전을 빌미로 간음, 강제추행, 강간 또는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 ④ 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 ⑤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⑥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 등을 보내거나 보여주는 것
- ⑦ 사이버 공간에서 텍스트 및 이미지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하는 것
- ⑧ 기타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자율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

(2)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업평가, 고용,인사등 공적생활에서 성차에 따른 부당한 차별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예) 상명대, 경일대, 군산대(사이버공간 포함 규정), 목원대, 부산대(법률 언급하지만 별 의미없음), 연세대, 영산대, 원광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경산대, 경상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로 칭함), 한신대, 한양대

④ 동성 간 성폭력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개념 규정

: 사실 동성 간 성폭력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는, 학칙이 제정될 시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녹여내지 못했기에 특정 학교의

1) 그러나 동국대는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유무로 보는 관점 채택하고 법과 관련없이 성폭력으로 보는 점에서 3번으로도 분류 가능하다

학칙에만 해당된다기보다는 대부분 학교의 학칙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폭력을 현행법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성폭력 범죄'로만 한정하거나 '남녀차별'의 한 가지로만 보는 경우에는 동성 간 성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더욱 문제이다.

학칙문구 예) 4-1 삼척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문구 예) 4-2 고려대학교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7조와 동법 시행령 제 4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 그 외 특기할만한 학교 개념 규정

• 포항공대의 경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규정」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아예 성폭력 문제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 하루 빨리 개정 요한다.

• 감리교신학대학의 경우 성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성폭력 및 성희롱'이라고 일괄 정의하고 있다.

• 경성대의 경우 법 명칭이 「성희롱등남녀차별방지및처리규정」으로 되어 있음에서 볼 수 있듯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며 남녀차별 관점에서성희롱 문제를 접근한다. 그 와중에서 성폭력이란 아예 학칙 개념 상 없고 성폭력 문제를 축소 은폐시키거나 학칙에 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등 문제 소지가 너무 크다. 시정되어야 한다.

• 인하대의 경우 법 명칭이 「性 正體性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 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따온 것이 많아 문제가 크다. 성 정체성 보장이라 함은 문제 의식을 희석화시키는 문제성 있는 명칭이고, 학내 성폭력에 대해 대처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학칙문구 예) 5 인하대학교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인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내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피해자보호규정

① 아예 원칙 자체가 명시 안된 경우

• 피해자 보호 원칙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 비공개주의를 택하면서 가해 피해 쌍방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로 명시된 경우가 많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 사건 당사자의 보호라는 원칙만 밝히고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태도를 보인다. 제주대의 경우 외에도 사건 당사자의 답변거부권을 명기하여 피해자 답변거부권과 별개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결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칙문구 예) 1-1 경일대

제 4 조 (비밀의 준수)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던 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칙문구 예) 1-2 이대

제 12 조 (사건 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③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할 수 없다.

④ 제3항은 위반한 때에는 본교 규정에 의하여 징계한다.

학칙문구 예) 1-3 전북대

제 4 조 (사건당사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사건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 (생략)

예) 경성대, 경일대, 군산대(군산대는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총론에 언급 없고 보칙에 비밀 유지 의무는 나와 있다.), 동국대, 목원대, 영산대(군산대와 同), 동아대, 이화여대인하대(미결사항에 대한 유포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여론단위가 사건을 공개할 경우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된다), 감리교신학대, 경산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세대, 한신대

② 원칙은 명시된 경우 (전형적인 경우)

학칙문구 예) 2 경희대 학칙

제 5 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예)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금오공대, 단국대²⁾, 부경대, 서원대, 동국대³⁾ 서울대, 건국대, 조선대, 한국기술교육대, 위대 한밭대 호원대

③ 피해자중심주의까지 추가로 밝힌 경우

예) 부산대, 연세대, 원광대, 서울시립대(거의 모든 조항 동일하나 피해자 대신 '신고인'이라 칭함), 한양대, 호서대

게다가 부산대는 이례적으로 2차 가해 간주 조항을 통해 피해자의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주체성을 밝히고, 대리인에 대한 2차 가해까지도 성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확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피해자 보호 조치로 특기할 만한

2) 단국대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정한 관여 배제 조항이 없음이 특기할 만하다. 다른 학교의 경우는 대체로 있고, 조사위원 기피 제도도 있다

3) 동국대는 항목을 '피해자 보호 및 권리'와 '비밀 유지 의무'로 나누어 피해자 보호 목적을 분명히 하였으며 권리 조항에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과정과 처리방안 등의 내용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것은 타대와 같은 특정인 관여 배제 권리 외에 특정인의 소환을 요구해서 증언을 얻어낼 수 있는 권리를 근거화시킨 점, 그리고 피해자의 정보접근권까지도 학칙에서 상세화한 점이다. 원광대도 사건 공개 원칙 및 피해자 중심원칙을 밝히고 있다.

학칙 문구 예) 3-1 부산대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성폭력 행위의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피해자나 대리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① 특정인의 관여를 거부할 권리, 단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③ 기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2) 성폭력 행위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부당한 피해 역시 성폭력 행위에 의한 피해로 간주한다.

4) 성폭력행위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가 위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직접 회부,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

제13조(신고, 상담등)

3)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들이 자유스럽고 정당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거나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상담실은 조사내용과 처리방안등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학칙문구 예) 3-2 연세대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개실명사와 내지 사건 처리 후 원칙적 공개주의 밝힌 학칙

예) 원광대 부산대

학칙문구 예) 4-1 원광대 학칙

제 16 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일정기간 자원봉사

4.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5.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명령

6.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요구 및 발의

제 17 조 (사건공개 원칙) 위원회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일 주일 이상 학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칙문구 예) 4-2 부산대 학칙

제17조(사건 공개의 원칙) 위원회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일주일 이상 학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해자 징계 관련 사항

학칙 상 징계는 징계위원회로, 조사위원회나 대책위원회의 징계 권한은 제한적인 것이지만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내부 징계권으로 보유하는 학교가 대부분의 경우다. 이를 징계 이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위/운영위 이원화된 것들은 징계 발의가 한층 어렵게 되어 있어 징계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힘든 점이 있다. 그에 반해 성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특수 명칭 하(부경대의 경우는 아님)에 특별한 기관이 성폭력사건에 관한 모든 징계권을 보유하기에 실효적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징계 일원화로 부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실제 사건 해결에서 가해자 측이 조사 거부시에 불이익이 큼을 예견하기에 조사 자체가 잘 성사되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가해자 태도가 실효성 있게 제재 수위에 반영되는 면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기 쉬울 것 같다. 다만 가끔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하는 요청만 조사위가 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총장에게 징계 올라가기 힘든 학내 상황을 살펴볼 때 징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일 것이다. 총장에게 징계받아야 할 때 어떤 피해자가 학칙에 의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 조치 불이행 시 제재나 불복시 제심의 가능성 여부도 규정에 명기해두는 편이 실제 사건의 경우 원만한 해결을 할 것이다.

① 징계 절차의 구조

i. 징계 이원화된 경우

학칙문구 예) 1 경희대 학칙

제 2 절 성폭력 특별위원회

제 10 조 (설치 및 기능)

① 성폭력 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폭력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가해자의 징계 요구

예)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원광대 연세대 영산대(성윤리위원회나 이원화) 군산대(총장 소속하 성윤리위원회)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국대 부경대(성윤리위원회지만 이원화됨)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건국대 경산대 경상대 호원대 감리교신학대 한밭대(총장관여하긴 하나 2원 구조) 한세대 한양대 호서대 한신대(명칭은 성윤리위원회)

ii. 징계 일원화

학칙문구 예) 2-1 경일대학교

제 2 절 성 윤리위원회

제 8 조 (기능) 성폭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학칙문구 예) 2-2 부산대학교

제16조(결정 및 처리)

1) 위원회는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①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 ②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③ 가해자의 일정기간 자원봉사
- ④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 ⑤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

학칙문구 예) 2-3 조선대학교 학칙

제 10 조 (징계 및 조치) 총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피해자의 만행사상 구제에 필요한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징계
3.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교육, 배상 등의 지도
4. 가해자가 재범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 조치
5.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예) 경일대, 부산대⁴⁾, 동아대, 삼척대, 영산대, 인하대, 감리교신학대, 경산대, 조선대, 한국외국어대학(*특이하므로 아래 iv. 기타 특이 사항' 참조. 특별위원회가 자체 징계권이 집중된 형태로 바람직하다)

iii. 총장, 부총장 등이 관여하는 구조

예) 경성대(경성대는 이원화모델인데 징계 사유 있을 경우에 운영위가 총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징계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명대, 공주대, 군산대, 서원대, 인하대(부총장이 위원회 위원), 연세대(인하대와 동일) 서울대, 상명대(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총장에게 징계요구), 한세대(중한 것은 총장에게), 전북대(총장 소속하의 성폭력 성희롱처리위원회 설치), 전남대(아래 참조) 한밭대(총장에게 중한 징계 사항에 한해 올라감) 호원대(총장에게 중한 징계 사항 올라감)

iv. 기타 특이 사항

* 한국외국어대는 특별위원회가 권한 집중된 형태로 징계권을 실제로 장악하고 집행까지 담보해내고 있어, 외대의 특별위원회 구조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징계 일원화 중에서도 특이한 학칙이다.

학칙문구 예) 3-0 한국외국어대학교

9조 징계내용

징계 기준은 특별 위원회의 회의 결정에 따른다.

1항 상담실은 가해자의 지위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징계를 집행한다.

1. 다양한 형태의 재교육 프로그램 교양
2. 상담소 등의 성폭력 및 여성문제 관련 단체에서의 일정기간 봉사 활동
3. 대자보, 언론, 공문을 통한 경고
4. 대자보, 언론 등을 통한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5. 기타

2항 위의 상담실의 위상을 넘는 징계가 요구될 경우,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집행한다.

1.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
2.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 :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 등
3. 가해자가 명백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징계 불이행시 : 가중 처벌
4.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누범일 경우 : 가중 처벌

4) 부산대의 경우 공간분리 요구에 대한 피해자 권리를 반영한 점이 훌륭하다

5. 금전 배상 요구시에는 피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목원대는 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이원화인지 일원화인지 불분명하지만 내부징계권을 확대도출할 수도 있을 듯. 서울시립대(총장 직속 기구로 대책위가 설치되는 특이한 점. 징계에 관한 총장 관여가 아닌 것이 타대와 다르다)

* 전남대는 총장이 중한 사건 징계 여부 결정할 뿐 아니라 경미 사건의 재발방지조치까지 담당하여 대책위 권한 유명무실하고 징계 구조가 다른 학교와 다름.

* 서울시립대는 대책위가 총장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점이 특이하고, 징계에 관한 총장 관여가 아닌 것이 타대와 다르다.

* 인하대는 성 정체성 보장을 위한 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관할은 다른 학교 대책위와 다름 없는 것 같다. 명칭 개정 바람.

* 이대나 인하대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까지 징계 권한을 행사하는지, 징계 요구를 한다는 등의 구체적 명시가 없어서, 실제 적용에서 문제될 소지가 크다. 게다가 이대에서는 조사 사항 자체의 정당한 이유 유무나 적절성 유무를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조사위 자체에서만 판단하여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크다. 시정 권고라는 표현은 다른 학교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권고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불이행을 줄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교수성폭력의 경우 문제를 염두에 둔 듯 하다.

학칙문구 예) 3-1 이화여대 학칙

제 5 조 (성희롱심의위원회)

- ①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처장, 총무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심의
 2. 성희롱 사건의 조사, 심의 및 시정 권고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4.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 7 조 (성희롱 조사)

- ① 위원회는 성희롱에 관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성희롱에 의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2. 성희롱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접수된 성희롱 사항에 관하여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학칙문구 예) 3-2 인하대학교 학칙

제 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사건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가중 징계와 2차 가해 징계 여부

i. 2차 가해 징계 가중 조항 / 방조자 처벌 규정 있는 경우

- 2차 가해 가중 징계 조항 있는 경우

학칙문구 예) 1-1 경희대 - 그러나 재범시 징계의 수위가 높진 않고 방법 자체가 제한됨.

제 16 조 (결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 13조 제 2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5.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해당 성폭력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 일 경우에는 가중 징계하며 이 경우 반드시 대자보, 학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사과하게 함. 단, 피해자가 실명공개사과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실명공개사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학칙문구 예) 1-2 고려대 - 동조자 처벌 규정 특이, 외부인에 대한 징계 권고 특이

제 12 조 (징계) ... (생략)...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징계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할 경우에는 가중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④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 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예) 계명대, 고려대, 공주교대, 동국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부산대는 다른 학교와 달리 제 2차 가해 간주 조항이 있고, 집단형 성폭력의 경우에 대처 가능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모범적인 학칙을 보유하고 있다.), 연세대, 원광대, 서원대, 전남대, 조선대, 이대, 한밭대, 한양대, 호서대, 건국대 호원대

- 방조 및 제 3자 처벌이나 징계요구 등 확장조사 근거 규정 있는 경우

학칙문구 예) 1-3 부산대

제16조(결정 및 처리)

위원회는 피의자 외에도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나 증인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의자에게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직접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학칙문구 예) 1-4 전북대

제 11 조 (동조자에 대한 처벌)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고려대 전북대

ii. 2차 가해 징계 가중 조항 / 방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예) 경성대, 경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원대, 부경대, 영산대, 시립대, 이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세대 한신대 감리교신학대 경산대 경상대

③ 재심의 요청 가능 여부

대부분의 학칙이 피해자의 관점이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때 가해자도 이용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학칙이 대부분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 처리 과정 참여자의 교체 등의 세부 사항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학칙문구 예) 3-1 상명대

제 9 조 (이의신청)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칙문구 예) 3-2 서울대

제10조(재심의) ① 당사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i. 규정상 있는 경우

예) 상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운영세칙) 조선대

ii. 규정상 없는 경우5)

예) 경성대 경일대 계명대 동국대 단국대 동국대 경희대 군산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아대 목원대 부경대 부산대 삼척대 서원대 영산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호서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산대 경상대

④ 가해자가 불이행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유무

실질적으로 험난한 조사와 처리 과정을 거쳐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칙에는 가해자가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별다른 강제력이 없다. 물론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지만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i. 있는 경우

예) 단국대 부경대(위의 예2-3 참조) 부산대 연세대 원광대 서울대 연세대 조선대 이대 호서대

학칙문구 예) 2-1 단국대 학칙

제 13 조 (징계)

5) 입수한 자료로만 조사한 것이어서 세칙에 있는데 조사 못한 미확인 규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 ① 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징계하기에는 미흡한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성문 제출
 2. 가해자의 공개사과
 3.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 ③ 가해자가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 또는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학칙문구 예) 2-2 부산대

제16조(결정 및 처리)

- 1) 위원회는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④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5일 이내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3)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학칙문구 예) 2-3 부경대의 경우

제 15 조 (가해자에 대한 처벌)

-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징계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피해자 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할 경우에는 가중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④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ii. 없는 경우

예)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동국대 단국대 동아대 목원대 삼척대 상명대 서원대 시립대 영산대 이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한세대 한신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산대 경상대 호원대

단, 군산대 창원대 동아대 건국대(대책위에 통보)와 같은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 통보 규정(피해자 뿐 아니라 총장 등 권력기관에까지 통보하는 규정들)을 이용하거나 경희대와 같이 '기타 당해 사건 위해 필요 조치'를 조사위 내부권한으로 정하고 있어 그 규정을 통한 간접 강제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직접 근거 규정이 없을 때는 없다고 분류함.

학칙문구 예) 3 군산대 학칙

제 13 조 (결정 및 처리)

-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iii.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 힘든 경우

: 징계 거부 불가는 명시되어 있지만 강제는 규정 없음

예) 경성대

학칙문구 예) 4 경성대 학칙

제 14 조 (남녀차별사건의 처리)

- ③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위원회가 징계요구를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계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거부하지 못한다.

4) 적용 범위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하다. 다만 교원 명시 범위가 구체적인지 아닌 지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일방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형적인 학칙 문구 예) 1 고려대학교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및 본교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된 모든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교직원 범위 구체적 명시 여부

i. 교직원에 포함되는 것이 명시된 경우

예) 경성대 고려대 공주대 동국대 목원대 부경대 서원대 외 대부분의 대학

ii.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경성대의 경우는 교직원(강사계약일용직원 포함)이라 되어 있음
- 계명대의 경우 직원(임시직 포함)이라 되어 있음.
- 군산대는 교직원(시간강사포함)이라 되어있음.
- 단국대는 시간강사 포함이라는 표현.
- 연세대도 단국대와 같이 불분명. 영산대도 동일하며 기타 대학도 대동 소이.

iii. 구체적인 경우

부산대 학칙이 모범적이며, 전남대도 다소 구체적이다.

학칙문구 예) 1-1 부산대 학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피의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1) 교원은 전임교수, 시간강사, 조교, 촉탁직, 외인교수로 학생은 본교 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재학생, 연구생, 교환학생으로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기성회직, 일용직을 포함한다.
- 2)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칙문구 예) 1-2 전남대 학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이 대학교소속의 국가공무원
2. 이 대학교(각 대학원 포함)학칙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의 형태에 관계없이 교육연수를 받는 모든 학생
3. 이 대학교의 기성회직원, 소비조합직원, 시간강사, 계약직교직원 및 기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이 대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

4. 이 대학교에 재학시설·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

iv.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교원에 대해 아예 명시 없는 경우

예) 금오공대(다른 학교와 달리 교원 범위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명시가 아예 누락), 부경대, 서원대, 건국대(학칙 적용자라고 해서 교원 명시 있다 볼 수 있으나 불분명)

- 너무 광범위하여 불분명한 경우

'본교 구성원'이라고 하는 등 너무 광범위해서 논란의 여지 있는 것

- 부경대는 '본교구성원'이라고 되어 불분명.
- 서원대도 '서원대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이라고 하여 불분명
- 동국대는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학내구성원'이라는 표현 쓰나 역시 불분명.
- 영산대는 '영산대학교 총장이 지휘·감독하는 교직원'이라고 해서 불분명
- 인하대도 '학칙 및 정관 적용받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 있다.
- 전남대, 제주대 외대 등 다수대학들도 불분명

② 학생 범위 구체적 명시 여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범위로 교환학생 및 휴학생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학칙 적용받는' 학생으로만 명기했다. 모범적인 학칙 예로 부산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학칙문구 예) 2-1 공주교대 학칙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주교육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주교육대학교 교직원(외부강사, 기타 임시직 포함)과 학생(교환학생 포함)이 피해자 또는 피신고자로 관련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학칙문구 예) 2-2 부산대학교 학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피의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교원은 전임교수, 시간강사, 조교, 축탁직, 외인교수로 학생은 본교 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재적생, 연구생, 교환학생으로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기성회직, 일용직을 포함한다.

예) 동아대(연구원, 휴학생), 서울시립대, 공주교대(교환학생), 경산대(재적생, 휴학생), 조선대(재적생)

③ 가해자 피해자 일방에만 해당하는 경우

i. 일방만으로 적용되는 경우

예) 동국대, 목원대, 부경대, 삼척대, 서울대, 서원대, 연세대, 경성대, 고려대, 공주대, 조선대 한국교원대 한세대 한양대 호서대 호원대 경상대 외 대부분의 대학

ii. 일방만으로 사건의 적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예) 상명대 경일대 영산대 인하대 시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가해자 일방인 때는 적용되나 피해자 일방인 때는 불명시된 것으로 봐서 피해자만 본교생일 때는 적용 안되는 것 같다) 외대 한밭대 한신대 감리교신학대

학칙문구 예) 3-1 상명대학교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 포함), 조교, 학생, 직원(임시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iii. 피해자만 해당하는 경우

학칙문구 예) 3-2 서울시립대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본교의 교수(시간강사와 외국인 교수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및 학생이 신고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다른 학교 혹은 다른 단위의 피해자가 이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단, 이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다른 단위에 속해 있을 때는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해석할 수 있다.

④ 기타 '구성원 간에'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 이화여대, 경산대, 동아대, 감리교신학대, 충남대

학칙문구 예) 4-1 이대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본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적용한다.

1. 교직원
2. 시간강사, 연구원, 박사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및 기타 임시직
3. 학생, 교환학생
5. 특기사항- 구성원의 지위 변동

⑤ 특기 사항 - 구성원의 지위 변동

대부분의 학교에 구성원의 지위 변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시간 강사나 직원, 학생들처럼 변동이 많은 사람들의 가해에 적용하기 힘든 점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지위 변화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음. 한국교원대도 지위 변동 영향 없다는 규정 있다.

학칙문구 예) 5-1 목원대 학칙

제 4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모든 교원(시간강사 및 조교 포함), 직원(임시, 일용직원 포함), 연구원 및 학생(휴학생 포함)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성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학칙문구 예) 5-2 서울시립대

시행세칙 제2조(적용범위)

④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지위 변화는 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학생 위원과 여성 위원의 참여

① 학생위원

i. 학생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아예 위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나 위원 규정이 있더라도 학생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학생위원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 경성대, 목원대, 영산대(교직원 및 학생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이화여대(학생 언급 자체가 없음), 감리교신학대, 경상대, 계명대, 경일대, 전남대(규정 무), 한양대(규정 무)

ii. 명시적 배제

예) 공주교대(교직원으로 구성) 부경대(학생관련사항에만 참여하도록 제한) 한국기술교육대(학생관련사항에만) 호서대(아예 학생 언급 전혀 없고 학생관련 사항은 학생복지처장이 처리) 등

iii. 학생위원을 배정하는 의무규정이 있는 경우(수, 자격 언급)

- 교직원 추천

예) 경성대(학생지원처장 추천) 서울대(학생처장), 서원대, 금오공대(학생과장, 사안에 따라 제외 가능) 창원대(직원회회장 추천 2인)

- 총학생회 추천

예) 삼척대, 경희대(총여회장, 총여 추천 1인) 목원대 부경대 부산대 연세대(학생 참여 중 1/3) 원광대(회장 당연직 대책위 위원) 부경대(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부회장 당연직 대책위 위원) 시립대(학생참여 중 2/4 4인 중 2인 추천권-총여와 총여 학생회장 각 1인) 동국대(총여 회장,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 동아대(2인 이상), 목원대(총여 회장, 부회장만이 당연직 학생위원으로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가), 부경대(2인 이상), 삼척대(1인 이상), 감리교신학대(여학생회 추천), 경상대(총여 추천 1-2명), 경상대(총여 추천 3인 이내,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음) 조선대(1/2추천권 나머지 1인은 대학원생이라고만 되어 있음) 외대(2/3- 총여학생회장, 부총여학생회장 당연직) 한세대(여학생회장 1/2)

- 총학생회 추천

예) 경희대(총학 추천 1인), 단국대(학생사안만 참여 가능), 연세대(학생 참여 중 1/3 원총에서 1/3), 시립대(학생참여 4인 중 1/4) 제주대(3인 추천권 모두 총학) 창원대(학생은 1인 총학회장의 추천권) 충남대(총학생회장 추천 2인) 한국교원대(총학 추천 2인) 외대(3인 중 1인 총학생회장) 한세대(총학생회장 1/2) 한신대(총학 추천 2인 이내) 호원대(1인)

- 수 규정만 있고 자격 규정 없는 경우

예) 서원대, 군산대, 고려대, 계명대, 서원대(조사위원-총장이 위촉하는 인사), 서울시립대(학생대표 2인), 인하대(학생대표 2인, 학생관계사안만 참여가능), 건국대(3인 이내의 학생대표, 학생사안만), 군산대, 전북대(2인) 한국기술교육대(13인 이내 중 3인 이내) 한밭대(2인 이내)

② 여성위원

i. 비율이나 수 규정이 없는 경우

예) 경일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교대 목원대 부경대 서원대 영산대 인하대 동아대 이화여대 감리교신학대, 창원대, 충남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규정 무) 건국대

ii. 있는 경우

- 규정만으로는 불분명한 경우(그러나 규정만으로는 파악수 못미치는 경우가 예상될 수 있는 학칙)

경성대(10인내 중 3인 이상) 군산대학교(9인 이내 중 3인 이상) 상명대(9인 이내 중 2명 이상) 서원대(10인 이내 중 3인 이상) 연세대(13인 중 3인 이상) 목원대, 상명대, 서울대, 전남대(9인 이내 중 3인 이상), 전북대(1/3이상) 제주대(13인 이내 중 5인 이상) 조선대(1/3이상) 한국교원대(9인 이내 중 2인) 한국기술교육대(13인 이내 중 2인) 한밭대(9인 이내 중 3인 이상) 호서대(여교수 1인) 경상대(9인 이내 중 3인 이상)

- 2분의 1이나 과반수 육박하는 수준

경희대(8인내 중 4인 이상) 부산대(9인 이내 중 4인 이상으로 한다.) 원광대(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고려대(8인 이내 중 1/2은 여성으로) 시립대(1/2이상) 동국대(1/2이상) 부경대(9인 이내 중 4인 이상) 삼척대(9인 이내 중 4인 이상) 호원대(9인 이내 중 4인 이상)

6) 상담소의 구성 및 권한

상담소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 유무와 구성원 자격 유무가 중요하다. 학칙 상 상담소가 별도 규정 되어 있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랬지만 설치된 곳이 대체로 상위의 특별한 소속처가 있어서 그곳의 하부 기관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았다.(총장 소속이라든지 학생생활상담센터 소속이라든지)

① 별도의 소속 없이 존재하는 경우

학칙문구 예) 1 상명대

제 4 조 (성폭력 상담소)

① 총장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을 위해 캠퍼스별로 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예) 상명대, 서울시립대, 고려대(*여학생감이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되는데 적합한 자격 요건인지 의문), 서원대(학생생활연구소장이 상담소장)

② 학생생활연구소 혹은 유사 기존 학내 상담 기구 내의 상담실인 경우

: 많은 학교가 성폭력상담센터 등이 학생생활연구소 내에 있다. 그러나 상담소 독립성 유무와 전적으로 무관한 것 같다.

예)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공주교대 군산대 단국대 부경대 부산대 서원대 연세대(여학생처 내에 두는 점이 다른 학교와

다름) 영산대 인하대 동아대 원광대(학생상담센터 내 성문화 상담실), 인하대(학생지원처 산하 성문제 상담실), 감리교신학대, 경산대, 창원대(학생지원과 산하) 충남대(학생취업및생활지원센터 내) 한국기술교육대학 한세대 한신대(학생상담센터 내) 감리교신학대 건국대(종합서비스센터 상담실 내) 경산대(학생생활상담소 내) 호원대(학생지원처 내)

③ 상담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에서 관할하는 경우

예) 동국대(여학생실), 금오공대(학생생활연구소), 목원대(학생상담봉사센터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룸), 시립대(규정 무/대책위 구성 규정만 나와있음, 다른 학칙 미확인) 건국대(종합서비스센터 상담실 내에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전남대(상담소 별도 규정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 내에 상담원 둘 수 있는 형태로 불분명하게 규정됨) 제주대(상담소 별도 규정 있지 아니하고 대책위원회 내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위원회가 사건 조사시에는 대책위와 별도로 설치됨/ 그러나 상담봉사센터라는 명칭의 상담소 해당기관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됨) 조선대(여학생개발실에서 상담 업무 주관) 한양대(여학생부처 내 독자 설치) 호서대(고충상담원이 남녀차별에 관한 것과 성폭력에 관한 것 구별 하지 않고 담당함)

④ 상담원 자격 요건이나 교육 이수 여부 규정 유무

: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그나마 규정이 있는 학교가 좀 있지만 그것도 무슨 자격으로 할 것인지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다.

i. 전문상담원 규정이 없는 경우

: 대개 교직원, 상담 교수가 상담원 역할을 한다

예) 경일대(약간 명의 상담교수) 계명대(세척 제정된 경우에는 있을 수 있음, 세척 미확인) 경성대(아예 규정 없음) 공주교대(아예 자격 규정 없음) 군산대(아예 자격 규정 없음) 금오공대(자격 규정 무/학생생활연구소에서 처리하기 때문) 단국대(자격 규정 없음) 동국대(교직원 중에서 약간명) 동아대(전임강사 이상 교원 중) 목원대(*특수한 경우 자격 규정으로 자격 규정 없다고 봄이 적절 아래 설명 참조) 부경대(전임강사 이상 교원 중) 삼척대(아예 규정 없음) 상명대(규정 무) 서원대(규정 무) 이대(규정 무) 인하대(규정 무)

경산대(감리교신학대부경대영산대(상담교수-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영산대의 경우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고만 기재), 경산대(필요할 경우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전남대(관계전문 교수라고 되어있으나 연수 요한다는 규정 있음) 전남대(무) 제주대(무) 조선대(무) 창원대(무) 한국교원대(전임강사 이상 교원 중) 한국기술교육대학(무) 감리교신학대(전임교수 이상) 경산대(전임강사 이상 중 상담시엔 지정 교수제로) 호원대(전임강사이상 중)

등등 아예 별도의 상담원을 둔다는 규정 자체가 없고 교직원 중에 선출된 상담소장이 상담하는 경우가 다수

학칙문구 예) 1-1 동아대 학칙

제 7 조 (구성)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장과 약간명의 상담교수를 둔다.

1.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 소장으로 하고 상담교수는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담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상담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근자문위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학칙문구 예) 1-2 목원대 학칙 - 학생상담봉사센터가 아닌 위원회 내에 상담위원을 두고, 센터에서는 독립적인 업무 수행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 5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3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며, 직원위원은 직원관련 사안에만, 학생위원은 학생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2001. 9.19개

정]

② 위원장은 학생상담봉사센터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수, 교직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 학생과장 및 보건진료소 간호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단, 학생위원은 2인으로 하되, 총학생회장과 총여학생회 부회장으로 하여 당연직이 된다.[2001. 9.19개정]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사항에 관한 질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전문상담위원을 둔다.

⑥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성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 총장이 정하는 임시위원으로 대체한다.

학칙문구 예) 1-3 전남대 학칙

제10조(상담원의 구성)

① 상담원은 관계전문 교수 및 직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피해신고사건의 심각성 원만한 상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상담원의 연수) 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상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내의 성문화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ii. 상담원 규정이 있는 경우(+자격 규정 문구)

예) 경희대 고려대(*유자격자) 연세대(운영세척) 영산대(*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임/설계 두는 지는 모름) 목원대(위원회에 1인의 전문상담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 있으나 자격요건은 없음), 부경대(*전문상담원-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되었으나 해당분야 혹은 관련 분야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원광대(상담원은 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부산대(상근 상담원 1인-성폭력상담원교육을 수료한 자), 서원대(상담원과 직원은 관련전문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위대(상담전문가라고되어 있음) 한밭대(전문상담가라고만 되어있음) 한신대(*소정의 전문 교육 이수한 자) 한양대(자격 요건 세척에서 정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음)

학칙문구 예) 2-1 경희대 학칙

제 8 조 (상담위원의 자격) 상담위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 자질을 갖춘 자로 성폭력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하며 그 상담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학칙문구 예) 2-2 고려대 학칙

제 7 조 (구성) ① 상담소를 대표하고 상담소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상담소장을 둔다. 상담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총장의 명에 따라 여학생감이 겸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연구원 또는 전문상담원을 두며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상담소장이 위촉한다.

③ 그 외 상담소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행정조교 1인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담소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행정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학칙문구 예) 2-3 원광대 학칙

제 7 조 (구성)

④ 상담원은 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한다.

⑤ 기타 특기 사항

* 경성대는 상담소 명칭이 성차별상담소이다. 상담소장은 학생지도상담실 실장이나 제고의 여지가 있다. 원광대의 경우 특이하게 성 문화상담소라는 명칭임. 원광대는 명칭이 성문화상담실임. 특별히 하는 업무에 차별은 없는 것 같음.

• 상담대는 캠퍼스 별로 상담소 설치를 명기한 점이 특기할 만함. 다른 학교도 캠퍼스 별로 만들어서 상담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피해자 편의를 도모할 필요 있음. 연세대의 경우 캠퍼스 별로 따로 둘 수 있다고 명기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강산대 외 다수 대학에서 상담소 내에 독자적인 상담원을 두지 않고, 전임 강사 이상 중 교수가 담당하게 하므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우선적으로 교수가 상담만 할 뿐, 대책위 소집해서 회부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도 시정을 요한다.

• 이대는 '성희롱'만을 중심으로 규정에 의해 규율할 뿐 성폭력 개념을 의도적으로 명칭에서 쓰지 않았다. 그리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상담소는 그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는 규정이 있다. 교수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최대한 완화시켜서 표현하고, 위원회에게 판단 자체를 일임하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어 학생 의견이 무시되고 위원회에서 성희롱 사건을 '알아서 판단할' 위험성이 높다.

학칙문구 예) 3-1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 5 조 (성희롱심의위원회)

①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략)

④ 위원회는 성희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 피해신고의 접수 및 상담
3.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4. 기록보존
5.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

• 인하대의 경우 상담소 명칭도 성 문제 상담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아래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성폭력 문제를 관할하는지도 매우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학생 지원처 산하에 성문제 상담실을 둬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게 하나 학생지원처 산하에 둔다는 것은 체계상으로는 업무상으로는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고 학생 지원처 고유의 업무에 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규정상 학생지원처장이 실장 겸임하고 상담요원은 총장 임명하는 데, 이것은 업무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상담원 자격과 전문성을 의심케한다. 이런 상태로 피해자가 제대로 성폭력 상담을 하고 신고를 해서 피해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요식행위로 상담소를 설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학칙 규정이 대부분 법률 내용을 따왔으며, 성 정체성 보장을 위한 위원회라는 명칭도 큰 문제가 있다. 무슨 성 정체성을 보장한다는 말인가? 인하대 학칙은 문제가 너무 커서 하루 빨리 제대로 된 개정을 요한다.

학칙문구 예) 3-2 인하대학교 학칙

제 4 장 성 문제 상담실

제 5 조 (성 문제 상담실)

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이미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실을 설치한다.

② 상담 실장은 학생지원처장이 겸임하며, 상담요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상담 요원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본 대학교는 상담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신고, 운영할 수 있다.

• 나아가 대책위나 조사위의 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위원 전문성과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지만 압도적인 다수

학칙에서 위원의 구성만을 정할 뿐 교육 유무나 전문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예외적인 기능 세척에서 교육을 명시한 바가 있어 인용한다.

학칙문구 예) 3-3 서울시립대 학칙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세칙

1. 한 학기에 2회, 방학기간에는 연수를 통해서 위원회 내부 교육을 실시한다. 불참할 시에는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을 시에는 위원직을 박탈하고, 해당 위원은 위원직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 학교 언론사를 통해 사과한다.
2.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의무 교육 이외의 보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칙과 상담소, 운영상의 문제

#1. 반성폭력 학칙,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by 여량(연세대 총여학생회)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운영중이다. 학칙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는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중재,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잘 살펴봐야겠다. 이는 학칙 자체의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반대로 학칙이 훌륭하게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는 교학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여학생처장, 학생처장, 대학원 교학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리고 일반위원으로 총학생회장 혹은 추천 1인, 총여학생회장 혹은 추천 1인, 대학원학생회장 혹은 추천 1인, 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원 3인, 그리고 교수 3인이 관련 사안이 참여한다. 많은 수의 사건이 학생-학생의 사건이거나, 교수-학생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직위원과 일반직 위원 중 학생대표들과 교수 3인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된다. 학칙과 시행세칙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전적으로 위원들이 학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원회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에 의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원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 수준과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연직 위원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해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어려우며, 이는 일반 교수 위원³⁾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 자체의 많은 교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학내 성폭력 상담실의 상담원이 피해자의 면담을 비롯하여 사건과 관련

1) 우선 학칙 자체에 위원회의 규정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못하게 규정된 경우가 많이 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라는 명칭도 성윤리 위원회인 경우 '성폭력'을 '윤리'의 문제로 치환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것은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의 본질을 은폐 시킨다. 또한 성적체성 보장을 위한 위원회와 같은 명칭은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이름이다. '성폭력'의 문제를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성희롱 심의 위원회와 같은 명칭 역시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명칭이다.

2) 나는 총여학생회장으로 대책위에 소속된다. 그럼에도 제3자의 입장인 것처럼 서술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생위원'의 의견은 교수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지 않고 '참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반 교수 위원 3인의 경우 선정 기준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된 실무적인 일들을 모두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이 기껏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구성해온 사건이 위원회의 테이블로 넘어오면서 다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방학이면 교환학생 온 여자들이 벗고 다녀서 걱정이다'(웃음)

'동성간 성폭력이라니 이건 병이나 정신이상 아니냐'

'남자에 집에 꽃아간 여자에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와 같은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위원들이 최소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연세대학교 학칙에 의한 대책위원회의 자체 징계권한에는 가해자의 공개 사과와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가해자가 재범하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와 같은 것이 있다. 학칙에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징계는 이행하지 않거나 꺼려한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체 징계를 가해자가 응하지 않을 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부책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원장 스스로 위원회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 이 것은 또한 징계 결과에 대한 가해자(특히 교수일 경우)의 대응이나 반발에 책임지고 싶지 않음과 더불어 '성폭력' 사건을 경미하거나 사소한 일로 여긴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교외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학내 상담실에서 모든 사건을 상담원 1인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담원이 대책위원회 내에서 발언권이 없다는 점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더더욱 필요로 한다. 학칙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⁴⁾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⁵⁾. 하지만 이제까지 위원회 내에서는 자문위원을 고려해본 적도, 교외 기관에 의뢰한 적도 없다. 이는 단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결여를 넘어서서 '학내 문제는 어찌되었든 학내에서 해결해야한다'는 뿌리 깊은 생각이 바탕에 놓여 있다. 위원회는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학교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의 연장으로 위원회는 '사건 공개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위원회 내의 심의되고 의결된 내용을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⁶⁾과 처리된 사건의 공개⁷⁾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이다.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해결된 사건을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성폭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일이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큰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피해 받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무엇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지를 학내 구성원에서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학내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건이 공개되었을 경우 - 가해자의 실명 공개는 별도로 하고라도 - 가해자의

4)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5)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6)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제14조(징계 및 조치)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 [한판#1] 반성폭력 학칙과 상담소 워크숍

반발 역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성폭력에 대한 입장 없음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사회 통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하며, '학교 이미지 관리' 보다는 성폭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칙이 많이 부족한 학칙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부족한 학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한 '성폭력 없는 캠퍼스'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학교로 남게 될 것이다.

#2. 대학 내 성폭력 상담실과 여운단위 사이 소통의 부재 혹은 불능 - 힘 받는 곳인가, 힘 빼는 곳인가.

by 반작(이화 여성위원회)

학교마다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해 동안 가장 진을 빼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폭력 사건이다.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늘 그러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그때그때 마다의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학내의 성폭력 상담소를 자신 있게 추천하고 사건 중 일부라도 전폭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멀리 가지도 말고 남의 말 할 것도 없이 이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반성폭력학칙 개정 운동'에서 상담실은 중간자적 전달자의 위치인가?

지난 겨울 반성폭력학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 개정된 학칙은 과거의 것에 비해 약간의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심한 수준의 내용이었다.⁸⁾ 이에 여성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상담실과 만났을 때 상담실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상담실에서는 여성위원회에서 작성한 학칙 비판 글이 있으면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상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문제제기가 아닌 '학생들의 요구가 이리저리하다'는 전달정도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상담실이 독립된 기구가 아닌 '위원회'의 아래에 있는 기구라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러나 상담실이 왜 존재하는가를 따져보았을 때 학칙에 대한 상담실의 '중간자적' 태도는 사건 해결에의 적극적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왜 '성희롱 예방 캠페인'인가?

상담실에서 제안한 대동제 행사명에 관련한 이와 같은 질문에 상담실은 이것이 '학교 측 입장'을 의식한 '정치적' 명명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상담실의 정식 명칭이 '성희롱 상담실'인 것과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희롱'이나 '성

폭력'이나 보다 '예방 캠페인'에 있다. 이 '예방' 캠페인의 유일한 행사는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였고 이 것은 지금도 상담실에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다. 생리주기 팔찌를 만들고 자신을 긍정하는 일, 그래 좋다. 그러나 이것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페인'의 행사로 과연 적절한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생리주기 팔찌를 만들어 배란기에는 각별히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한 해 동안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반성폭력 운동'이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라는 것은 성폭력의 범위를 '강간', 그것도 '데이트 강간'에 맞춰온 상담실의 '일관성 있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은 학내의 여학생뿐인가. 그렇다면 정작 '예방' 대상이 될 만한 '동성간성폭력'은 왜 다루지 않았나. 학생들에게 '이것이 성폭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성폭력임을 엄연히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순서와 절차로 대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은 다음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성폭력 대처'는 순서를 지키세요?

상담실에서 제시한 '성폭력 대처'는 이렇게 매뉴얼을 보면 <순서>라는 굵은 글씨와 함께 각 항목의 맨 앞에는 차곡차곡 1번부터 번호가 매겨져 있다. 이 얼마나 친절한 안내인가! 먼저 그 자리에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싫어! 나 지금 상처 받았어! 등의 예까지 써 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 편지 등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그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상담실이나 여위에 상담을 요청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에 대한 문제제기로 여위는 <순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줄 것과 번호를 매기는 대신 백설표(*)나 샵(#)표시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순서>와 <매뉴얼>이 통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많은 경우 성폭력은 <매뉴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대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강의실 성폭력을 비롯한 교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폭 부러지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려는 학생에게 교수는 밥줄을 권 장본인이다.

나는 주위에서 수업시간에 교수의 말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학점으로 보복 당한 사례를 무수히 보아 왔으며 교수 성폭력에서 가해자가 매장 당하는 경우는 못 봐도 피해자가 갈 곳을 잃고 소외당하는 일은 흔하게 보아왔다. <매뉴얼>을 지키는 '주체적'인 피해자가 되려면 그러한 모든 것들 쫓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 같은 학생간의 성폭력에서도 권력 관계는 존재하지만 교수 성폭력에 있어서 그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상담실에서는 '주체적이지 못한 피해자'가 사건 내내 단위에 기대게 되는 경우 결국 끝에 가서 느끼는 허무함이나 상처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언급했다.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한 번쯤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강의실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고도 문제제기 한마디 못한 피해자가 참다못해 여위에 신고를 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문제제기가 아닌가. 그녀는 '주체적이지 못하게도' 여위라는 '권력'에 '의존'하게 되는 것인가. (이 이야기는 가해자에게서 종종 듣게되는 이야기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상담실이 '교수성폭력 뿌리뽑기'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위원회' 아래에 있는 상담실의 위치와 '위원회'에 '학생위원'이 없는 이대의 열악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여대라는 특수성 속에서 '피해자-학생, 가해자-교수'의 구도를 의식한 교수 사회의 반발이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의실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말라'거나 '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여위까지 개입하는 것은 일을 확대시키는 것'등의 논리가 개입하는 것이 '교수 성폭력의 정식'이다. 혹은 '이 정도에 상처받으면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못한다'거나 심지어 '여성주의자들이 강해져야 한다'고 피해자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나타난다.

'피해자의 주체성' 좋다. 그러나 각 학교 상담실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공식적인 대응'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개인 차원의 확고한 문제제기'가 먹히는 경우가 흔한가. 한 예를 들어보자. 자신의 학교 뿐 아니라 같은 전공의 타학교 대학원생, 교수, 강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술자리가 열린다. 술 먹기를 강요당하면서 쏟아지는 비난을 피해 자리를 뜨려하자 건방지다는 말이 날아온다. (이 때 성폭력적 농담들은 기본이다.) 하는 수 없이 자리에 엉겨주춤 앉아 있다가 '술을 먹지 않으려가

8) 학내 상담실에서 발행한 성폭력 예방 책자

9) 학칙의 내용 및 문제점은 학칙 부분에서 다루어 졌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든 노래라도 부를 것'을 강요받는다. (이 때 피해자가 노래를 할 때까지 나머지 여학생들이 '과도를 타며' 술을 마셔야 한다.) 자포자기 상태의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얼굴도 예쁜데 노래까지 잘 한다'며 '미스 춘향'에 나가보라는 아우성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 때 앞에서는 썩소라도 못하고 노래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을 여위에 접수시킨다면 그녀는 '주체적'이지 못한 것인가.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것이 성폭력임을 분명히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거부의 사' 못 밝혔다. 그들은 자신의 학업과 취업을 위박박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 그녀도 하고 싶다. 그들의 얼굴에 술잔이라도 던지면서 '나는 니가 지켜줘, 좀 많이'하고 싶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고 여위를 통해 제기를 하는 것은 혹시 여러 명중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기대로 용기를 내는,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 4학년의 '주체성'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상담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상담가 혹은 교직원으로서의 권위와 경험에 대한 자신감은 종종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무지비함을 낳는다. 이론에 앞서는 것은 경험이며 상담가의 경험에 앞서는 것이 지금 당장 눈 앞의 위협을 감수하고도 문제를 제기하고자하는 피해자의 의지이다. 더욱 당당 하라고 더욱 강해지라고 다그치지 말라. 당신이 학교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말이다.

1) 학교에 따라 반성폭력 학칙과 성폭력대책위원회 및 성폭력상담실의 공식 명칭은 조금씩 다르다.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많은 학교의 학칙에서 '성윤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규정화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실도 '성희롱상담실', '고충상담기관'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것들이 주로 폭넓게 통용되는 명칭이라 보고 반성폭력 학칙(혹은 학칙), 대책위원회(혹은 대책위), 성폭력상담실(혹은 상담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2) 물론 성폭력 사건에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처리되는 것인가 하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작성한 실명 공개 사과문을 자보화하여 학내 지정된 공간에 게시하는 것과 가해자의 재교육 이수... 이런 정도가 보통 현재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이미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사건에 교수가 개입될 경우, 피해자는 이런 '최소한의 것들'마저도 요구하기 힘들게 되고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3)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중

4) 학교에 따라서는 일단 접수된 성폭력 사건을 '반드시' 학내 상담실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성폭력 문제는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학칙, 지금 어디에 있는가?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학칙에서는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성폭력대책위원회와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 등의 임무를 맡아야 하는 성폭력상담실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학교에 성폭력상담실이 설치되었다-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1)

반성폭력 학칙 제정, 그 결과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 바람직한 것이었다. 학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학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던 여운 단위들에게, 그것은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낸 운동의 성과였던 것이다. 또한 이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고취시키고 성폭력이 만연한 대학의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이자 향후 학내에서 지속적인 반성폭력 담론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칙 제정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현재.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반성폭력 학칙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성폭력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감수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는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잘 보호되고 있는가? 대책위에서는 사건을 학칙에 규정된 절차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가?2) 상담실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학칙으로 인해 반성폭력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졌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가? ... 끝없이 쏟아지는 이 질문 앞에, 사건 해결의 주체들은 과연 몇 번이나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빈번히 일어나는 학내의 성폭력을 예방하자3)는 학칙 제정시의 취지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성폭력 사건이 상담실에 신고되면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4) 대부분의 대책위원회는 다수의 교수들과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되며 부총장 혹은 학생처장 등 다른 대책위원들보다 높은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가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다. 일단 사건을 처리해나가는 데 있어 '학칙'을 기반으로 삼게 되는 이상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학생들의 손에서 떠나 학교 차원의 일이 된다. '해결의 주체'가 되는 이들은 학생이 아닌 '교수들'인 것이다. -이는 곧 학칙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운 단위들이 별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그 과정은 잘못되었다고, 그 판단은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별 소용없다. 결국 학칙은 '학교의 규칙'이므로, 그것을 '교수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일.

1) 학교에 따라 반성폭력 학칙과 성폭력대책위원회 및 성폭력상담실의 공식 명칭은 조금씩 다르다.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많은 학교의 학칙에서 '성윤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규정화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실도 '성희롱상담실', '고충상담기관'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것들이 주로 폭넓게 통용되는 명칭이라 보고 반성폭력 학칙(혹은 학칙), 대책위원회(혹은 대책위), 성폭력상담실(혹은 상담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2) 물론 성폭력 사건에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처리되는 것인가 하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작성한 실명 공개 사과문을 자보화하여 학내 지정된 공간에 게시하는 것과 가해자의 재교육 이수... 이런 정도가 보통 현재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이미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사건에 교수가 개입될 경우, 피해자는 이런 '최소한의 것들'마저도 요구하기 힘들게 되고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3)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중

4) 학교에 따라서는 일단 접수된 성폭력 사건을 '반드시' 학내 상담실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성폭력 문제는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다.

교수-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문제 제기 되었을 때 학칙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더더욱 명확해진다. 매년 얼마나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불거지고 있는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K교수 사건과 동국대 K교수 사건을 비롯하여 지나간 민사 소송 끝에 올해 드디어 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연세대 K교수 사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분개하게 하였던 서울대 L교수 사건과 서울시립대 국문과 사건, 교원대 L교수 사건, 강릉대 O교수 사건... 최근 몇 년간 학내에서 또는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된 사건들 중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잡아 보아도 열 가지 가까이 된다. 특히나 서울시립대 사건과 교원대 사건, 강릉대 사건 등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에서는 교수들이 자신의 가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학생들에게 명예 훼손 운운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일삼음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교수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시립대 사건의 경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전공 교수의 상습적인 성폭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학생회 차원에서 전공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같은 과 교수들이 학생들을 비난하며 가해 교수를 옹호, '가해 교수'를 사이에 둔 교수 대 학생 간 일촉즉발의 대립으로 비화되기까지 한 바 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이 학교들이 '학칙 없는 학교'인가? 설마, 그럴 리 있겠는가! 분명히 학칙이 존재하고 있으며 학칙에 따라 대책위를 운영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나는 모른다, 그런 일 없다, 개가 이상하다'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가해 교수의 뻔뻔함과 주위 교수들의 침묵의 카르텔 혹은 가해 교수에 대한 지지 표명 - '평가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 은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그 끈끈하고 돈독한 동업자 의식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 하에 모인 학생들까지도 해답없는 블랙홀 속에 빠뜨려 버린다. '기껏 학생 주제에 감히 교수에게!'라는 패셔까지 덧붙여져서.

그렇다고 가해자가 강사일 때 문제가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 올해 연세대에서 발생한 P강사 사건과 K강사 사건⁵⁾의 경우가 이를 반증한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힘없는 시간 강사'라는 점을 들어 학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갔으며 수업시간에 언어화되는 모든 것은 '수업'이라는 맥락 하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성폭력을 정당화하려 노력하였다. 가해자의 발언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는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 들을 권리를 빼앗은 또다른 가해자'가 되어 버렸고 가해자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여운 단위는 '집단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일삼은 권력체'가 되어 버렸다. 이후 학칙에 의해 사건이 논의되자, 가해자들은 수업을 그만 두으로써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의 땀땀함과 결백(!)을 증명하려 하였다. 물론 학교측에서 강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나, 강사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 겉으로 드러난 사실-성폭력 가해자 한 사람이 학내에서 없어진다-만 본다면 '값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잘 된 것 아니냐?'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명확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가 학교의 구성원이므로 학칙에 따라 사건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가해자 징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 밖'의 사람이 된 강사에게 학교측에서 강제 혹은 요구할 수 있는 징계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성폭력 가해 강사가 학교를 그만 둘 경우, 학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사건의 실제 앞에서 이리도 무력한 학칙, 당연히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리가 없다. 벌어지는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무슨 예방을 할 수 있겠는가. 학칙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말이다. 학칙에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칙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정확히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자치규약이나 반성폭력 내규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언정 학교의 명의로 만들어진 '반성폭력 학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자치 규약의 경우 그것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교양을 실시하는 등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게나마 이루어지고

5) P강사 사건과 K강사 사건은 강사가 수업 시간에 상습적으로 성폭력적 발언을 일삼음으로써 문제가 된 경우였다. 문제 제기 이후의 언론 보도로 인해 사건이 폭해진 면이 없잖으며, 학칙에 의해 대책위에서 논의되었던 사건이라는 공통점도 있는 사건들이다.

있는 데 비해 학교 차원에서 학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기껏해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매우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수준의 '그것'을 '교육'이라고 이야기한다. 어쩌면 교직원들보다 교수들이 더 높은 수준과 강도의 교육이 필요할 텐데, 교수들을 피교육자의 자리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 바쁜 교수들을 언제 다 한데 모으겠느냐'는 항변에서 묻어나오는 궁색함, 비단 나 하나만 느끼는 것은 아니니라.

물론 학칙의 존재 외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학칙을 만들기 위한 여운 단위들의 노력과 운동 과정은 매우 가치있는 것이었고 반성폭력이 명시된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마저도 힘들던 시기에 비해본다면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저 '성폭을 얻어내었다'는 결과만으로 그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학칙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잘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으며 섬세하고 꾸준한 보완 및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할 표했던 이상, 학칙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학교의 것이니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는 것의 어리석음은,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학칙 개정과 적용에 있어 여운 단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팔방만 켜 채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은 곧 물러서는 것이 되어버리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나마 명시된 규정이나 '만들어 놓은 대로' 잘 하고 있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며 잘못된 점이 있을 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 그리고 좀더 나은 내용의 학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화제를 만들어나가고 지침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할 일이라면, 초라하고 부족하나마 대답이 될 수 있을까.

학칙의 빈자리 채워 나가기

by 한국성폭력상담소 성과인권팀 김김보연

90년대 중반부터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내 반성폭력운동은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으로 이어졌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교육부에 의하면 약 4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이 학내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고 학내 성희롱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가져온 하나의 제도적 성과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대학 내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성과이자,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 일련의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을 지원하면서 가진 경험들은, 학칙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학칙이 가지는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비하여, 실제적으로 현재 학칙이 가지고 있는 빈자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재 학칙의 빈자리들로 여러 가지 것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실제적인 사건지원상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1)교수 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학칙 신설의 필요성, 2) 가해자 징계권한 확보와 가중징계 조항 신설의 필요성, 3)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칙 개정의 필요성, 4) 피해자 권리구제의 다양한 창구 중 하나로서의 학칙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1. 교수 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학칙 신설 필요

학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 중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가해 교수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은 크게 네 가지 장에 부딪힌다. 첫째, 피해자가 교수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학점과 진학,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 둘째, 어렵게 피해사실에 대해 밝힌 다해도, 동료들간에 지지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동료들 역시 교수와의 관계에서 취약한 위치 때문에 선뜻 나서서 사건을 지원하는걸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교수성폭력 피해의 또 다른 특징은 사건 발생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교수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교수와 신뢰관계가 높을수록 더욱 교수의 행동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해"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행동을 한 교수는 "거부하지 않았다" 혹은 "몰랐다"는 말로 성폭력 가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넷째, 가해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교수에 대한 처벌이 일회적이거나 미약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보통 처벌은 감봉, 3개월 정직 등 가벼운 조치가 취해지며, 간혹 사퇴를 한다해도 성폭력 가해 때문이 아니라 일신상의 사유로 처리되어 다른 학교에서 임용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피해학우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을 문제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동료교수들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일련의 직간접적인 회유 및 압력에 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학위를 포기하게 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교수에 의한 성폭력의 판단범위, 가해 교수의 처벌 문제와 피해학우의 보호 문제에 대해 현재 학칙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 판단기준 : "거부나 동의 유무"가 아니라 "권력관계"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교수의 처벌이 경미하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성폭력 피해의 판단기준이 가해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수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수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 때문에 거부의를 강력하게 표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후 귀를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생간의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의 "거부유무" 혹은 "동의유무"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들의 책임을 다시 묻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수/학생간 피해는 사제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계와 권위성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이 요구되는 대학 사회에서 피해학우들은 가해교수의 성적인 언동이나 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갈등하게 된다.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믿음이라는 일반의 시각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학점, 졸업논문, 진로 등 사회적으로 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계와 신뢰관계'를 이용한 교수의 접근은 피해학우들로 하여금 사건당시에는 교수의 접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성폭력 피해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임을 인식하고 나서도 이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동의된 관계'라 간주되더라도, 애초에 동의자체가 불공평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동의자체가 무효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절대적 지위에 의해 접근할 때 피해자들은 신뢰와 존경 속에서 이를 믿고 따라가게 되기가 쉬워지고, 따라서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학교와 종교집단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이다. 따라서 동의하의 관계들도 단지 교수의 도덕성과 품위 훼손의 차원이 아니라, 성폭력적 특성으로 파악되고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며,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성적인 제안과 희롱을 했을 때 그것을 성폭력일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 가해자 처벌: 학교측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

두 번째, 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가해 교수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가지는 심각성과 그 영향이 대학내 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들보다도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대학 차원에서의 문제의식과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뒤에는 징계권을 가진 집단 역시 가해 교수와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는 교수사회라는 점 또한 존재한다.

일례로 교수 성폭력 사건 지원과정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조차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발언들 중 하나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간 교수로서의 업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말들이다. 이는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과 피해학우가 침해당한 교육권 및 인권의 중요성을 대학사회가 얼마나 경미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내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갖는 특수성과 이로 인한 일련의 문제점 및 어려움에 비하여, 현재 학칙에서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간의 폭력에 대한 정책이 그나마 조금 수립되어 있을 뿐, 교수나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대학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 외국 대학 학칙은 좋은 참고가 되어준다고 생각된다. 외국 대학에서는 대학내 성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성폭력 유형이 가지는 특수함과 문제점 그리고 각 유형별, 관계별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 및 의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교수 성폭력 사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가해 교수의 처벌과 그 과정에서의 피해학우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조문화시켜 놓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더불어 공인으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생과의 표면적인 관계와 구체적인 피해유형과 상관없이 해당 교수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대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현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에서 또한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별도의 유형화된 처벌 규정을 세분화시켜 명시해 놓는다면, 교수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대학 사회 내에서의 공감대 확산과 가해 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및 징계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직위에 의한 권력을 매개로 한 교수 성폭력은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가해 행위라는 점을 상기할 때, 반성폭력 학칙이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자리 학칙도 되지 못할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 및 정책은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 근절의 모든 차원에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대학 내의 위계나 권력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 및 강화 필요

교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의 문제와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문제이다.

현 학칙의 대부분에서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등 피해자의 신변보장과 보호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신분 노출로 인해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게 되거나 가해자 및 가해자 주변인들에게 노출되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중에서도 교수 성폭력의 경우, 다른 대학내 성폭력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문제제기 및 권리구제 청구 행위를 교수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일각의 교수사회 분위기로 인해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학우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학칙에 반영하고, 상담원은 이 같은 권리현장을 피해자에게 공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인지시킬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이 학칙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실을 접수받거나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한 대책위원들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처리 절차가 부당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혹은 위원 중 누군가에게 합의를 중용받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을 경우와 같은 2차 피해의 경우 이를 강제, 징계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2. 가해자 징계권한 확보와 가중징계

- 피신고자의 출석 강제권 행사의 필요성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중 또 하나는 바로 피신고자 혹은 가해학우에 대한 강제권을 제한 당하는 경우들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 학칙에서 피신고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어떠한 조문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신고가 접수되어도, 피신고자가 이를 무시해버림으로써 사건해결의 어떠한 절차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채 무력화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대학에서는 피신고자의 답변 거부권 행사까지 학칙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학 측에서의 입장은 피신고자의 출석을 강제할 어떠한 권한도 학교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측의 의지부족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미 학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하나의 규칙들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만일 성폭력 사건이 학내 상담실에 접수되고, 해당 학생이 이 사건의 가해자로서 지명되게 된다면, 학교는 사건의 적합한 조사와 해결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학생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칙에 명문화된 이러한 요구에 해당 학생이 불응한다는 것은 대학 공동체 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묻어지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고자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대학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권리침해라는 인식은, 그렇다면 현재 대학공동체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대학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학칙과 운영 규칙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학에 의해 해당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징계권 행사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되묻게 한다.

일례로 외국대학의 학칙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고 접수될 경우 이의 중재자는 긴급하게 가해자에게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절차정보를 알려주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공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받은 피신고자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신고자의 출석 강제권 행사와 함께, 만일 학교측의 요구에 피신고자가 불응할 경우, 이를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과 별도로 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 가중징계 조항 도입의 필요성

학교측의 출석 요구에 대한 피신고자의 불응과 유사하게, 가해사실이 인정되어 일련의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어떠한 조항도 현재 대부분의 학칙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징계내용이나 합의 내용을 가해자가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가중 징계 등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도 이러한 가중징계 방법이 고려, 도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가해자의 징계내용 위반이나 2차 가해에 대한 가중징계 조항의 도입은, 피해학우에 대한 보호와 또 다른 성폭력 발생의 가능성을 근절하고, 학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만 한다.

- 징계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 필요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방식들을 보면 많은 경우, 학사상의 징계(정학제적외학)와 같이 신분 유지와 관련된 제재방식, 봉사나 가해자 교육 이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사과나 배상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징계 방식들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다 다양한 징계방안들에 대한 고민의 부족은, 다양한 피해 유형과 상황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위와 같은 징계방식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징계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들을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신고자가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대부분 사건의 조사기간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피신고자는 졸업을 해버림으로써 어떠한 실질적인 징계도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와 같이, 졸업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교수나 강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징계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3. 대학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로 대학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책 문제가 존재한다.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련의 반성폭력 학칙 및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개개 사건의 사후적인 처리뿐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 가능한 토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발생 자체를 예방·근절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 및 정책이 대학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대학내 성폭력 재생산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이나, 개별적인 사건의 처리에 중점을 둔다면, 대학내 성폭력의 예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70년대부터 대학내 성폭력이 이슈화되고 제도화된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내 신고센터가 갖추어져 있다 해도 피해학우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Cairns(1997)은 이러한 문제들이, 신고센터나 개인 대상의 프로그램이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기술의 문제에서 성폭력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폭력의 처리를 개인적 대응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일은 성폭력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여성에게 남겨 놓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은 특정개인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성폭력 사건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치여서는 안되며, 공동체 내부를 성찰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내 성폭력 역시 다른 성폭력처럼, 가해자의 이상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사회구조,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성별 권력의 문제에서 기인한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성적 비하,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표시로 해석하고 공동체 내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문제제기하지 않는 대학의 분위기는 대학내 성폭력이 발생하게 하는 근원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할 때,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 및 정책에 있어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다.

특히 교수나 강사에 의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 및 강사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및 강화에 대한 요구들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에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질적 시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매우 회의스럽다. 사건지원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볼 때, 교수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은 극히 일부뿐이며, 시행한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보내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 대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교수들을 한자리에 모으기가 어렵다"거나,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은가"하는 것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토로는 사실상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거나 더불어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우선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북스러움의 토로는, 교수사회의 권위주의를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발생 토대가 되는 우리사회의 여성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가치관은 전문분야에서의 학식과 교양 등이 얼마나 풍부한 지와 무관하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대상에 교수, 학생의 구분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단적으로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수 성폭력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 양성평등지수 및 성희롱 지수의 의무적인 평가와 이의 교수평가제 도입 검토 필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실적인 여건상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는 다른 다양한 방법의 모색들을 통해 보완되어질 수 있다. 그 대안적인 방법의 한 예로서 미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미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해당기구에 처음 부임될 때뿐만 아니라, 2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양성평등지수 및 성희롱 지수를 측정 받게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만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한계점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평가들을 시행하고, 이를 교수평가에 반영한다면 교수사회 안에서도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대학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태도 및 역할에 대해서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지 않을까 한다.

- 대책위원, 징계위원 대상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별도의 교육 필요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언하고 싶은 것은, 대학내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위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시행하는 것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단지 성폭력 사건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해결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책위원회위원이나 징계위원회위원들은 학칙의 실효성을 일선에서 담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이들 위원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원들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사건 해결 자체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징계권을 가지는 위원들의 경우, 사건 지원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성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 피해 유형별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4. 피해자 권리구제의 다양한 창구 중 하나로서의 학칙 적용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다 보면, 많은 대학에서 대학에 신고·접수된 성폭력 사건이 민형사상 계류 중일 경우, 더 이상의 판단을 보류하고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학칙에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라는 조문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칙은 성차별적인 환경조성의 책임과 문제점 등 현행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대학 공동체 차원에서 적극적 의지와 노력으로 뛰어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대학에서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외국 대학의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대학 차원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소송할 경우 학교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 것이다. 이는 학칙을 통해 피해 사실을 다루고 입증하는 문제에 있어 소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사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중 삼중으로 자기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의미로서 사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마치며...

앞서 지적된 내용들 이 외에도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면서 가졌던 경험들 그리고 외국 대학 학칙들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제안들을 덧붙이고 싶다.

많은 대학에서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및 성희롱 상담실의 운영을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학의 기본적인 시각과 정책적 입장 그리고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대학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외국 대학의 경우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과 이해를 학칙에 구체적으로 포함하거나, 혹은 별도의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의 반성폭력 아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 입장과 이해의 표명은, 대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명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 학칙과 달리 대학구성원들에게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를 명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더불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구성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냄으로써 성폭력 예방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며, 학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해석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국 대학의 경우, 징계위원회 강령을 도입하여, 징계위원들 각각의 자세나 유념할 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 학칙들이 징계위원의 구성과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검토할만한 좋은 사례라 생각되어진다.

덧붙여, 일부 대학에서 위원회 구성 중 학생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거나, 학생위원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수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피신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교수들을 배제할 수 있는, 위원 제척 기피 조항의 신설 문제 등도 덧붙여 제안하고 싶다.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한 성과로서 반성폭력 학칙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의 의미와 실질적 효과성은 단지 학칙의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다. 학칙을 제정 하면서 대학과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이 본래적으로 의도했던 효과와 의미들은, 실제적인 사건지원과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학칙의 끊임없는 보완과 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학칙의 제정에서 더 나아가, 학칙을 통해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유도해내기 위해 학칙이 어떻게 더 보완되고,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와 개입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 본다.

'레즈비언'팀

레즈비언팀 여는 글

'레즈비언'은 <여성연대한판>에서는 처음 '큰판'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작년, <2002여성연대한판>에서도 '주제별토론' 시간에 '레즈비언 vs 레즈비언페미니스트'라는 제목의 발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레즈비언'이 짧은 시간과 한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소규모토론'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있어왔습니다.

<2003여성연대한판>에서는 언제, 어디서라도 한번쯤 이야기를 해보고 싶던 사람들의 답답함과 간절함이 모여 이번 팀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한판에서 그간의 고민을 모두 이야기하고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아직 믿는 우리에게 이 자리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거대한 담론과 논리보다 이 팀에 모인 한사람 한사람의 경험을 모아 이야기 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혀졌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제 목소리를 낼지 두렵기도 합니다. 결국, 이 팀에 모인 사람들은 가장 '이야기하고 싶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잘 하리란'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소소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억압의 고리들을 발견해 내는 일이 우리에게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과 그럼에도 하지 못했던 날들의 그늘에는 우리의 오만함이 자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만함을 버리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섬세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란 얼마나 쉽게 폭력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퍼포먼스 소개]

"호모포비아, 난 니가 너무 지겨워.."

토마 (이대여성위원회)

지난 5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첫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넌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2003년 여성연대 한판에서 재공연하게 되었다.¹⁾

내 안의 호모포비아를 진단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는 여성주의자도 마찬가지다. 여러명의 퍼포머들이 여성이며 동성애자인 그녀들에게 이야기한다.

"너 피임 걱정 안해도 돼서 좋겠다!"

(레즈비언이라고 밝히는 것이 곧 여성과의 섹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동성애자를 성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시선, 그리고 저 부러움을 가장한 '위로'의 태도 너무 지겨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남성 신이 두 팔을 벌린 채 이성애자만 품고 있나보다.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전통(?)을 신의 이름을 빌어 합리화시키는 태도 너무 지겨워...)

"남자맛을 못봐서 그래"

(이성관계를 위해 연습 삼아 여성을 사랑하는 거라구? -..- 지겹다-)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남자랑 사귀냐?"

(정치적으로 일동 올바른 성 정체성은 레즈비언인가? 그럼 레즈비언들은 다 페미니스트? 쿨~한 척은 이제 그만!)

"너네 때문에 인구가 줄어서 우리나라 발전이 없어" 혹은 "그럼 애는 누가 낳아?"

(바글바글한 인간 수 좀 줄어들면 뭐 어때. 지겹게도 인간중심적인 세상에서 말아야. 그리고 인구 수 늘리려고 여성들이 애를 낳는 거니? 여성동성애자에게는 한 번 더 가해지는 폭력. 아이를 낳는 존재로서의 내 몸. 거부할래.)

"그럼 너 개 알아?"

(어떻게 커밍아웃 했구만 무슨 레즈비언이 연예인이냐. 아니면 축구선수? 호기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렇게 묻지 좀 마.)

기타 등등

마지막 1분은 폭언 속에 괴로워하는 레즈비언(역) 퍼포머의 춤으로 채워진다. 나를 둘러싼 호모포비아와 내 안의 호모포비아로 곧 끊길 듯 천천히 이어지는 숨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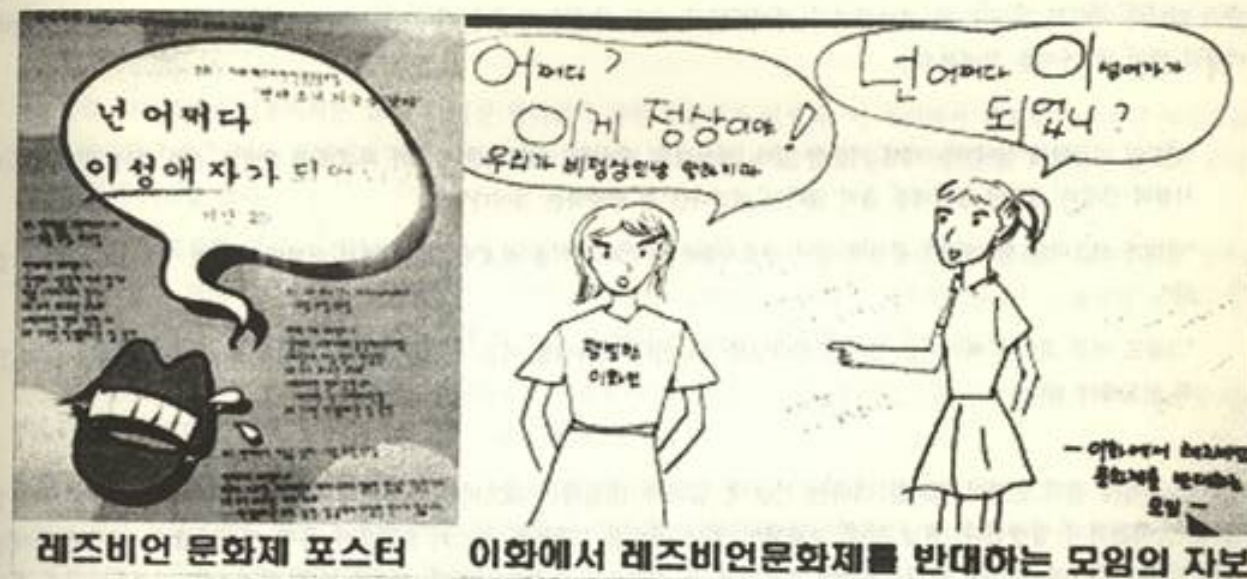
퍼포머들의 성 정체성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심각한 폭력임을 밝히며 이제 글이 아닌 몸 언어를 읽어보자.

1) 문화제는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주최였으며 드러내는 형식에 따르는 아웃팅 문제로 여성위원회에서 퍼포먼스를 담당했다.

2) 동성애 공포증

이화 안의 호모포비아

by 토랑(이화여성위원회)



- 출처: 사이버 여성주의 저널 「일다」 (<http://www.ildaro.com>)

이화여대에는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이하 변날)라는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동성애자인권운동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게이 중심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 학교는 여대라는 특수성을 토대로 일찍이 독자적인 레즈비언인권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변날은 지난 2001년에 처음으로 조직되어서, 2002년부터 정식 자치단위로 인준을 받아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2003년에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넌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라는 기초를 단 최초의 레즈비언 문화제가 공개적으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레즈비언이 판치는 물을 호모포비아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여대라고 해서 호모포비아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단지 다른 학교와 형태와 양상이 다를 뿐 많은 호모포비아들이 존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호모포비아 무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통해 판별해낼 수 있다.

첫째- 보수기독교를 믿는다.

둘째- 건전한(그러나 진정으로 건전한지는 알 수 없는) 보수주의를 꿈꾼다.

셋째- 자신들이 정상적이고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성경을 문자 그대로밖에 해석할 줄 모른다.

다섯째- 여러 가지 이름의 익명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를 좋아한다.

지난 5월, 이들은 레즈비언 문화제를 보고 기겁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 얘기가 버젓이 나돌다니. 그래서 이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화에서 레즈비언 문화제를 반대하는 모임'이라는 익

1) 이 기초는 동성애자들이 자주 받는 질문에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꾼 방어적 표현이다.(참고: 최 안드레아,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명 단체를 급조하였다. 그리고 이 단체의 명의로 변날의 전시물 위와 학생문화관 곳곳에 8절 도화지 크기의 그림 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 자보에는 한 여자가 "넌 어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²⁾라고 질문을 하자 '평범한 이화인'라고 쓰여 있는 다른 여자가 "어쨌다? 이게 정상이야. 우리가 비정상인양 말하지마"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첨부 사진 참고)

그 뒤 학생문화관 로비는 삼시간에 동성애를 둘러싼 찬반 자보와 낙서로 도배되었다. 이 자보전에는 자치단위나 동아리뿐 만이 아니라 개인의 명의로 된 자보들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 중에서 당시에 나왔던 호모포비아들의 명언 몇 가지를 적어본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엔 기준이 있다. 동성애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한번도 권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람의 양심과 생각이 동성애를 옹지 않다고 여긴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이대가 레즈비언 학교인가? 동성애 인권 옹호자들은 소수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이화인 다수의 권익을 묵살하고 있다."

"그들도 비록 죄악에 빠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러한 동성애 찬반 논쟁이 열기를 더하는 가운데, 급기야 16일에는 레즈비언 문화제를 주최한 변날 방에 누군가가 침입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변날 방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집 100부와 포스터 300부가 몽땅 도난당했고, 심지어 방에는 온통 기름이 뿌려져 있었다. 학생문화관에 걸려있던 긴 레인보우 플랜카드 또한 예리한 칼로 찢겨졌다. 이것이야말로 호모포비아의 극치를 명백히 보여준 폭력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학교가 한바탕 몸살을 앓은 뒤에야 레즈비언 문화제는 끝이 났다. 물론 이 문화제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것만으로도 꽤나 의미있는 작업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문화제를 통해 내가 절실히 깨달은 것은, 여전히 견고한 호모포비아의 성벽이었다.

2) 레즈비언 문화제의 기조를 따라함으로써 이를 비꼬려는 의도이다.

아웃팅에 대한 학내 단위들의 이해부족 증상이 심각하다!!!

- 이화 안의 아웃팅 사건을 중심으로

by 반짝(이화여성위원회)

지난 5월, 대동계에서 이루어지는 고사 및 영산 줄다리기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로 참가했던 여성위원회 1인이 발언하던 도중 다른 패널에게 '레즈비언이나'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할 것을 독촉받았다. 피해자는 발제가 끝나자 쉬는 시간에 자리를 떴다.

그러나 사건은 토론회 당시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가 끝나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건전한 보수주의를 꿈꾸는' 학생들은 자보로 피해자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레즈비언 논란'을 심화시켰고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별명 그리고 전공 학과가 거론되면서 '레즈비언인데 왜 아닌 척 하나'는 내용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총학생회 여성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해자들을 비판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에 오른 실명과 학과까지 거론된 인신 공격적 내용을 그대로 긁어 붙여 자보화하는 기염을 토했다.

학보에서도 토론회에 대한 보도 중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그대로 인용하며 '여성위원회 &&씨의 발언도중 '레즈비언이 아니냐'는 소란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맥락 없이 첨가되었고 이에 최초 가해자들이 '학보에도 거론된 이름은 자보화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비밀 언덕'까지 열게 된 것이다.

이번 아웃팅에서 실명이 거론된 사람이 실제로 레즈비언이거나 아니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의 혐의가 씌워진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는 동성애 혐의로 가득 찬 사회에서 구체적 폭력의 대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같은 학과 친구들과 후배들이 걱정과 놀람을 표현하는 것을 자주 겪어야 했다.

이에 <이화여성위원회>와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 날다>는 개인가해자와 자보를 작성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자가 속한 단위, 학보, 그리고 총학에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도착한 답변은 한마디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우선 총학생회는 그 자보가 '총학생회 전체 명의로 아닌 여성국 개인이 작성한 자보임'을 강조하며 이 사건을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총학생회에서 작성한 자보가 총학생회의 책임이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총학생회에서 나가는 자보를 일일이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총학생회의 책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여/성/국/이 아닌가!!!

학보 역시 수없이 독촉한 끝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팔박한 답변을 보내왔다. 심지어 당시에 나왔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아웃팅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인용한 '당시에 나왔다는 말'은 실제로는 토론회장에서 나오지 않은 말이었다. 그렇다면 학보는 추측기사를 쓴 것인가? 아니면 아웃팅 사건 자체가 워낙 하잘 것 없어서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답변한 것인가?

최초 가해자들과 그들이 속한 <고반추>, <새도위>등 '건전한 보수주의를 꿈꾸는' 단위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넋을 거론하며 '호적에 올라가는 이름이나'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는 식의 자보를 붙였다. 이에 피해자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던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일은 일파만파로 퍼져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운 자보가 붙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아웃팅 자체보다 아웃팅에 임하는 학내 소위 '진보스러운' 혹은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단위들의 태도이다. 학내 언론을 담당하는 학보의 오만하고도 관점없는 시선과 무지함은 학내에서 레즈비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반영한다. 여기서 학보의 입장을 한번 들여보자.

안녕하세요. 이대학보사 *** 편집국장입니다.

일단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글과 전화를 받은 이후 주간교수님을 포함한 많은 기
자들과의 논의 기간이 좀 길어진데다가 중간을 하고 중간 이후 이번 학기 평가를 하기 위해 내부 일정상 많은 회의들이 있
어서 좀 더 미리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문제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자보에 학보가 언급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기사자체에 대해서 이대학보사 이름으로 사과드릴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인의 성 정체성을 공개석상에서 따지듯이 묻는 것은 해당인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
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린 기사는 1, 2면에 있는 보도기사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잘못됐다, 잘못
다 라는 가치판단을 하기에 적절한 란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기사를 읽는 이화인 스스로
가 판단하기를 의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름 거론됨)씨의 이름의 경우, &&씨께서 '&&'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석상인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하였
고, 그것은 공식적인 명명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학보에 '&&'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했으며(저희는 통상적으로 공개토론회
등에 패널로 참여하신 분의 이름은 그 분이 그 이름을 공개하셨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기재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
게 해왔습니다), &&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저희는 지면을 통해 '따라서 &&은 레즈비언이다/혹은 아니
다'는 여지가 주어질 만한 내용을 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예를 들어 그 토론회에서 누군가가
'&&씨는 레즈비언이잖아요'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보도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2차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
지만 이번 사안은 제가 든 예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이 저희의 답변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오.

학보는 결국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자보에 인용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답변에서
역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고사하고서라도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필요이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
급하고 있는 입장글을 보라! 또한 '주간 교수님도 괜찮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교수
님은 사회학과 교수님이다.) 결정적으로 '&&씨는 레즈비언이잖아요'는 말은 토론회 도중 나오지도 않았다.

여성주의를 지향과 확산을 위한 부서라는 총학생회 여성국이 저지른 레즈비언 혹은 아웃팅에 관한 감수성 없는 폭력은 더
욱 충격적이다. 정치적 이익만을 계산하여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여성국'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느
나 말이다.

이후 총학생회장과 여성국과의 미팅을 통해 현재 총학생회 명의의 전체 사과문을 받은 상태지만 그 이외의 약속들(동성애
바로알기 교육, 나머지 가해자들과의 미팅 주선, 비대위로서의 적극적 역할 등)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건 당시 건물 안에 난립했던 자보들 가운데는 '여성주의적'으로 혹은 '진보적으로'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해자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알 것 같은 자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아웃팅, 이라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구체적 폭력이 있
는 사건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했다면 자보를 붙이기에 앞서 피해자의 입장을 묻는 예민함이 필요했을 수 있다. 또한
자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레즈비언'논란이 아닌 '레즈비언 감수성'이나 '아웃팅'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섬
세함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만약 이 사건이 아웃팅이 아닌 다른 사건이었다면 가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의 생떼를 쓸 수 있었을까? 학보에서
는 사안에 관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

'레즈비언'답론'이 소수자 답론에 떠오르면서 학내 진보 운동 단위, 여성 운동 단위에서는 반드시 안아가야 할 어떤 문제
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좋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성급하게 덤비기 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었으면 어떨
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고 망가진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들이 '긴박하다'라고 인식
한 상황은 피해자의 긴박함이었는지 아니면 학내 레즈비언 사안에 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박의 긴박함이
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레즈비언' 논의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답론의 홍수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무작정 헤
엄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동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볼 일이다. 고민해야 한다. 그래도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다.
물어도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귀기울여 보는 겸손한 노력이면 되지 않을까. 이해와 성찰의 바탕이 없는 '운동'
은 공허하고 또 오만해서 또 다른 폭력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일개 레즈비언의 눈으로 이화를 바라보다

유리반지

나를 명명하는 수많은 방법 중 내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이자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페미니스트'이다. 한편으로 나의 또 다른 이름은 '레즈비언'이다. 나를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레즈비언인 나'는 스스로에게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내 모습이다. 하지만 내가 페미니스트이고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내가 곧바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인 것은 아니다. '누구의 딸이면서 누구의 언니이고 동시에 누구의 친구인 나'처럼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이름이 아닌 많은 혼란과 고민 속에서 스스로에게 직접 붙인 두 이름이 함께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더군다나 레즈비언으로서의 나의 삶이 페미니스트로서의 삶보다 길었지만 드러내기는 더 어려운 이유로 두 삶의 모습은 닮은 듯 닮지 않았다. 나는 어떤 경우는 페미니스트, 어떤 경우는 레즈비언이다. 두 가지의 내 이름이 어디서 만나고 그 접점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일개 레즈비언'으로서, 학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받았던 느낌을 말하고자 한다. 호모포비아의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학내의 사건들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레즈비어니즘이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등등을 이야기하며 레즈비언에게 꺾이나 관대한 책을 하거나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여성주의의 울타리 안에 있지도 않았고, 페미니스트도 빛도 아니었으며 레즈비언 인권 운동가는 더더욱 아니었다. 단지 그 당시의 나는 두려움과 분노로 바들바들 떠는 '한 마리의 호모'였을 뿐이다.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이하 변날)'의 첫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소식을 접한 것은 학내 이반 친목 모임 사이트의 게시판에서였다. 그 공지가 오르고 나서 졸업한 언니들은 직장 관계로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아쉬움과 문화제가 열리는 뿌듯함을 동시에 내비쳤고 재학생은 재학생대로 아웃팅 위험으로 인해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행복한 걱정을 했다. 그리고 초·중·등 제도권 교육을 거쳐 오면서 절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한 주변인들에게 커밍아웃은 커녕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발화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나는 자유롭고 다양한 대학문화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유롭고 다양한 대학이 생각만큼 좋은 곳만은 아니었나보다. 레즈비언 문화제가 열리자마자 '너는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라는 문화제의 기조로 시비가 불기 시작했다. '이화에서 레즈비언을 반대하는 모임(이하 반대하는 모임)'은 두 명의 여자 중 한 명이 '넌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라는 질문을 하면 평범한 이화인이라고 쓰인 다른 한 명이 '어쩌다? 이게 정상이야. 우리가 비정상인양 말하지 마'라고 대답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자보를 냈다. 그들이 문화제의 기조가 역질문이었음을 이해하고 그런 자보를 낸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레즈비언 문화제 혹은 가시화된 변날의 존재가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역겹게 만들긴 하나 마땅한 논리를 찾을 수 없었던 수준의 그들이 쉽게 만지를 걸 만한 대상이 기조밖에 없었던 것뿐이다. '평범한 이화인 = (당연히) 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기조가 마음에 안 드는 모임'이 아닌 명백히 '이화에서 레즈비언 문화제를 반대하는 모임'이고 나아가 '레즈비언 그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모임'인 것이다. 그것이 나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다.

반대하는 모임의 실제 세력이 보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이화에서 레즈비언 문화제를 반대해야만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성서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레즈비언이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싫은 것이다.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갖는 폐해는 이미 그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반대하는 모임은 문자 그대로의 성경에 반하는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들일 조금의 가능성도 열어놓지 않고 있었다. 그들을 이해시키기가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은 레즈비언이 아직도 이해되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생각과 더불어 나를 조금 슬프게도 많이 화나게도 했다.

반대하는 모임의 그림 자보로부터 시작하여 며칠동안 치열한 자보공방전이 계속됐다. 내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한 명의

기독교인 친구는 반대하는 모임 때문에, 그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전체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것 같으며 속상해했다. 그녀의 생각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무턱대고 레즈비언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해서 레즈비언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자보에서도 그녀의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동성애자들은 보살피고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레즈비언들은 그 자보를 보고 더욱 뜨악해했다. 대놓고 동성애(자)를 욕하는 것이나 동성애는 병이니 고쳐주자는 것이나 레즈비언에게는 방법만 다른 같은 폭력일 뿐이다.

몇몇 단체 및 개인들이 반대하는 모임에 대한 반박자보를 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내 레즈비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학내 레즈비언들은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말이나 반박거리가 없었을까. 내가 아는 그들은 매우 분노하고 우울해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모임이 결성된 이후 변날의 자료집이 도난당하고 축제 관련 토론회에서 있었던 레즈비언 논란 - 나는 그녀가 실제 레즈비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이것은 분명한 아웃팅 사건이라고 본다 - 이 학보에 이름과 함께 보도되는 등의 일들이 계속되었으므로 학내 레즈비언들이 나서기는 더욱 어려워졌던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아웃팅의 위험은 학내 레즈비언들이 익명 자보 하나 쉽게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자보를 읽기 위해 자보공방전이 붙은 그 자리에 서있을 때마다 커밍아웃하지 않은 이성애자 친구가 와서 나를 아는 척 하지는 않을까, 나를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진 않을까 두려웠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리고 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서야 학내 이반 친목 사이트에는 반대하는 모임에 처음으로 반박자보를 걸었던 모 동아리 - 실제로는 동아리 이름을 걸고 개인이 낸 자보였다 - 에 감동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학내 레즈비언들은 그제야 농담처럼, 그 동아리에서 낸 자보를 지지하는 모임이라도 꾸리고 싶었다는 말을 꺼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난 레즈비언 문화제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그저 한동안 눈과 귀를 재밌게 해주었던 특이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심지어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했던 이들조차 그냥 한 때의 사건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고 지낼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 안의 호모포비아는 그대로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했던 학내 레즈비언들에게 이번 일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나쁜 기억은 빨리 잊는 편인 나에게도 이 글을 쓰기 위해 당시에 겪었던 폭력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을 통해 내 안에서 내재화된 공포는 언제든지 불쑥불쑥 얼굴을 내밀고 나를 위협할 것이다. 변날 측이 한 여성주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제는 동성애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시작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욱 직접적인 폭력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초보 이반의 커뮤니티 찾아다니기

by 셀물 (한판기획단 성 소수자 팀, 모 대학 2학년)

사실 처음 대학에 왔을 때는 스스로를 이성애자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있었다. '이성친구'만을 연애상대로 전제한, 심지어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물어보는 100문100답 따위를 보면서 느끼는 거부감은 있었지만, 그것은 '페미니스트니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당연한 자세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 정도의 감수성은 여성주의자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앗, 나는 이반이었던 것일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천천히 (계으른 성격 탓에) 이반 커뮤니티를 찾아나서게 된다.

끼리끼리나 TGnet 등을 찾는 일은 쉬웠다. 여성주의자로서 늘 드나들던 언니네의 링크를 따라 끼리끼리에 가고, 그곳의 링크를 따라 이곳저곳에 가입신청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던졌다. 이제 나와 좀 더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진다. 그래서 찾아간 학내 동성애단체 X.

이 사람들은 아직 동아리방도 없고 설령 동아리방이 있고 그곳을 알고 있다고 해도 불쑥 들어가는 것은 실례가 될테니 온라인 접촉을 해야 한다. X의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갔다. 그런데 공개게시판에는 대개 '남자 고르는 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들의 사랑과 삶에 대한 글들이 많았고, 여성 이반을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은, 공개게시판에 글을 쓰는 여성 이반이 없었다.) 이곳에선 이반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여성 이반은 몇 없겠구나 싶어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전에 아는 이반 언니가(다른 학교에 다닌다.) 언뜻 얘기해준 학내 친목 커뮤니티를 찾아보기로 결심하고, A대와 동성애를 가지고 카페 검색과, 클럽 검색, 커뮤니티 검색을 클릭해 보자 역시나 설명을 사용하는 클럽과 커뮤니티에는 아무런 검색 결과가 없고 카페에 딱 하나가 뜨긴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지방캠퍼스의 것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마치 이반이(특히 레즈비언은, 전.혀.) 없는 것 같다. 학생들이 미개한(!) 덕에 여운단위에서는 성폭력 사건 처리하기도 벅차고, 그나마 몇 개 있지도 않아 여성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동성애단체에 맡겨놓고 있다. 여성주의적으로 여성 성 소수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끔 여성주의 단체들의 세미나 자리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여성 성 소수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그녀들은 모두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몇 안되는 여성주의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조차 당연한 듯이 이성애 중심으로 대화가 흘러가곤 한다.

하기는 이 학교에서는 동성애의 ㄷ만 등장해도 자보는 뜯겨지고 피씨는 끈 잘리는 판이다. 동성애단체는 가끔 소책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외부 활동이랄 것이 거의 없고 (내부 활동은 나름대로 활발한 모양이다.) 아웃팅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나같은 초보 이반은 어찌나? 나도 같은 학교에 서식하는 여성 이반을 만나고 싶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 학내 호모포비아에 대한 단상

1. 캠퍼스 내 성적 소수자 모임, 운동은 어디에?

대학 내에서 성적 소수자 모임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있으리라는, 적어도 내가 몸소 경험할 수 있었던 연세대학교라는 공간은 그 척박함이 과히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인 듯 하다. '기독교 복음을 실천하는' 총학생회가 앞장서서 순결서약운동을 펼치던 시절¹⁾보다 그 농도(?)가 많이 얹어졌다고 해도 그놈의 '기독교 정신'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캠퍼스에서의 낭만이라는 것이 '이성교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남녀공학인데다가, 학교 이름만 가지고 '세련'입네, 워내하며 개방적인 척 온갖 거드름은 잔뜩 피우면서 실제로는 기만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들이 상당수 모여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 나름의 분석이다.

학내에 'Come Together'라는 이반 모임이 있으나, 현재까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최근 2, 3년간 눈에 띄만한 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활동이 있었는데도 기억을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신입생들이 막 입학할 즈음에 정문에 붙여졌던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이반 여러분, 반갑습니다'(확실하지는 않으나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쓰인 왕자보가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학내에서의 성적 소수자 모임 또는 운동은 드러나기도 어렵고, 드러나지도 않는 상황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학내 언론, 토론회, 강연 등)이 형성되었던 경우도 거의 없었다. 침묵.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다는 의미였고,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동성애나 성적 소수자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 후자의 침묵의 실체는 바로 호모포비아였다.

2. 너희 안의 호모포비아

프리퀄에 '연세대 정보공유(이하 연정공)'라는 커뮤니티가 있다. 커뮤니티 첫 화면에 쓰여있는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영이라도 하듯 실제로 그 안에서는 많은 정보가 오고 간다. 그 많은 정보 중에 내가 주관적으로 볼 때 유의한 정보는 반의 반도 안 될 것이다. 자유게시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게시판이 익명게시판(게시판의 수도 무식하게 많다)이기 때문에 흔히 보아오던 익명게시판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폭력들이 가지가지로 자행되고 있다. '뽕자'라고 자칭하는 우리 네티즌들이 어떤 사람들이던가,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 도배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주체가 아니던가. 연정공 커뮤니티의 주 활동 멤버도 그 네티즌들이다. 그들은 앞에서 말한 네티즌들의 특성을 굳건히 지니고 있으면서도 값싼 프라이드 따위를 내세우며 다른 네티즌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곤 하는 굴치 아픈 족속들이다.

6월 어느 날, 연정공의 어느 익명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남자친구 구해요'였다.

이상하게 생각하진 마시구요-
전 게이거든요...
장난 사절하구요...
##학번 남학생입니다.
177 71 20

1) 1997년 제34대 총학생회 '대학다움에 대한 진실'은 타락한 성도덕을 바로 잡고자하는 절제 운동과 순결 서약식 등의 운동을 펼쳤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2000, 동녘, '마야의 이야기' 참고)

원래 골격이 커서 그렇지 살이 찼거나 한건 아니에요.
그냥 스펀지 분과 좋은 만남이었으면 해요.
관심있으신분 리플 싸주세요.
이엘주소라도 교환하죠?
아차 전 여성스럽지 않구요
상대도 여성스런 사람은 싫어요..

이 글 밑으로 한글답변이 쭉욱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 답변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잠깐. 그 '한글답변'이라는 것이 무엇이더라. 가히 사이버 게시판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행자 네티즌들이 열광해마지 않는 대상이 아니던가. 굳이 '답글쓰기'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짧고 간단하게 글에 대한 실시간 논평 및 소통을 할 수 있고, 답변이 많더라도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다 볼 수 있으니 이것만큼 그들의 구미에 맞는 기능이 어디 있으랴.)

40개가 넘는 한글답변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자니 그 짧은 답변들 속에서도 여러 유형의 호모포비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씩 분석을 해보자.

1) 원색적 비난

이 글에 대한 한글답변은 단연 욕설로 시작되었다.

아...(6월): 이런 씨발놈

씨부릴팅팅부릴(6월): 이 새끼 꺼져 재수 없어 미친놈이 게시판에 이런 글올리고 지랄이야

대부분의 한글답변이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의 어조를 띠고 있기는 하나 정말 '욕다운 욕'을 사용한 답변은 저 두 가지였다. 나름대로 우회적 방법을 쓴 답변도 있었다.

미치겠다(6월): 정말 게이가 율학교 다닌다 알아요? 허허..미치겠다..게이도 공부좀 하나봐요?

이들에게 무슨 말을 더하랴. 그저 이들이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내뱉을 수 있도록 만든 한글답변 기능을 탓할 밖에.

2)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모든 것을 정상/비정상의 두 가지 범주로만 묶으려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동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고의 범위를 벗어난 일탈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기를 좋아한다.

동성애는...(6월): 정신병이라 생각되오 거참...동성애는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 아님 선천적으로 정신병자든가...대부분 전자일듯...

어떤 이는 글쓴이와의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하였다.

글쓴이님(6월): 자주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있단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어찌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동성애를 '잘못된 길'로 규정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글쓴이를 매우 안타까이 여기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추측건대 기독교인이 아닐까 싶다.

3) '동성애자는 변태성욕자이다'

호모포비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동성애자를 '비정상적' 혹은 '변태적' 성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동성애자는 변태성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존재일 뿐이다. 이성애는 로맨스

요, 동성애는 변태적 성관계로 인식되는 것이다.

씨박...(6월): 군대가면 대박이다. 아무나 뒤치기 하겠구만...-

넓게 보긴 개뿔..(6월): 그러다가 나중에 동물이랑 섹스하고 사랑하는 것도 성적 취향이라고 우기시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포비아는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성 동성애자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성 동성애자들이 덜 '변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결코 아닐 것이다. 동성애자 범주 안에 여성은 거의 포함되지도 않거나와 섹스라는 것이 남성 성기의 삽입으로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리라.

4) 과학적(?) 설명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바로 '에이즈'이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등의 과학적인 척 하는 설명들이 난무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38번(6월):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함으로 사회에 해악됨. (하략)

자자 여기서 제가(6월): 한마디 해야겠군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에이즈를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많냐구요? 그건 항문 성교를 하기 때문인데요. 항문성교시 상처날 가능성도 크고 윤활액이 분비되지 않으니~ 그래서 에이즈 걸릴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거랍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그 대상은 남성 동성애자이다.

5) 남성성의 강조

글에 달린 많은 한글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남성스럽지 못한' 글쓴이를 비난하는 답변이 있었다. 답변을 단 사람의 넋네임이 무척이나 심득하다.

男(6월): 난 하리수같은 놈이나 동성애질하는 남자는 죽어도 못본다! 남자라면 멋지게 살아라

남자로서 멋지게 산다는 것. 넘치는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사랑하는 여자(!)에게 매진하는 '멋진 남자'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가. 멋지게 살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있어 남성 동성애자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인 동시에 남성으로서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글쓴이는 한글답변을 통해 자신의 메일 주소를 밝혔다. 메일로까지 욕먹고 싶지는 않으니 장난은 삼가달라는 말과 함께, 글쓴이에게 어떤 종류의 메일이 전해졌을지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3. 만약 레즈비언이었다면?

상상을 해보자. 만약 글쓴이가 레즈비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긴, 이러한 상상조차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레즈비언도 연정공과 같은 공간에 저런 글을 쓰지는 않을테고 쓸 수도 없을테니 말이다. 위에서 나타난 포비아와는 또다른 폭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레즈비언이었다면, 그녀는 그 공간에서 온전히 '레즈비언'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저 다른 남성들의 성적 대상이 될 뿐이다.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상업 포르노 사이트에 레즈비언 콘텐츠가 존재하듯이 말이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레즈비언에 대한 환상을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레즈비언이었다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여성 동성애자를 사칭한 남성들로부터, 그 외에도 자신의 성적 권력을 과시하려는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가해될 엄청난 성폭력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만약 레즈비언이었다면, 아, 상상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괴롭다.

하지만, 나는 레즈비언인 걸

by 케이

• 양해를 구함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서술도, 촘촘한 인과관계로 짜여진 서술도 없는 뒤죽박죽인 글이다. 그건 아직 내 고민이 그 물줄기를 가지런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맞이하게 된 결과다. 그렇지만 각각의 소제목마다 달려 있는 몇 개의 문단들은 저마다, 고민의 한두가지 측면 정도는 담고 있다. 지금으로써는 그 측면들의 밑바닥에 흐르는 어떤 맥락을 읽는 이가 간파해주시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자꾸 드는 생각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부담스럽고 또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

• 어지러운 봄, 동아리 방을 찾아

대학에 입학한 봄 어느 사람 없는 날, 나는 조용히 마음을 먹고 혼자 학생회관을 서성었다. 학생회관이란 곳이 한층 석 딱딱 구획이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를 들면 2.5층 같이, 계단을 반층만 올라가도 또 복도가 있는 식의 복잡한 구조-, 아직 캠퍼스에 익숙하지 않았던 신입생은 한참 헤맸다. 그러다가, 한 쪽에는 열사 추모 문패가 걸려있는 자치도서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총학생회실이 있는 어느 복도의 벽 귀퉁이에서 빛이 바랜 무지개 깃발 그림을 발견하고, 텅 빈 복도에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걷고 있던 나는 순간 더욱 숨을 죽였다. 말로만 들던 이반 운동 모임 M의 공간이 근처에 있는 게 분명했다. 인터넷에서 이반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뜨던 대학가 최초의 이반 운동 모임 M. 합격 발표가 났을 때의 내 기쁨은 상당 부분이 M과의 접근도 상승에 있었다. 그리고 그 날 그 복도에서의 반가움은 버디 창간호를 손에 들고 두근거렸던 마음만큼 강렬했다.

당연히 눈길은 바쁘게 어딘가 있을 입구를 찾아 움직였다. 어딘가 모임 방을 알리는 표지가 있을 터였다. 그렇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M의 이름을 찾던 중, 드디어, 발견! 군데군데 칸막이가 쳐져 있는 크고 허름한 동아리방의 열린 문을 기웃거리는데 한쪽 구석의 벽에 M의 공간임을 나타내는 게시물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본 것이다. 그러나 그 즉시 나는 주춤했다. 한 발자국도 더 그 곳에 들어설 수 없었다. M방은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나 다를 바 없었다. 무작정 그 방을 찾아나선 내가 별 어려움 없이 금세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 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근처에서 수상하게 어정거리다가는 주변 동아리 사람들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아이로 비춰질 게 분명했다. 나는 이렇게 섬뜩한데, 대체 M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일까? 그들은 용감한 걸까 무모한 걸까. 그날 이후로 내 발걸음은 꽤 오랫동안 그 쪽으로 멀어지지 않았다. 나의 질긴 정체성 회피와 맞물려 그 곳은 내 관심사로부터 단절됐다. 중고등학교 시절 주기적으로 반복하던 고민이 또 한번 깊숙이 꼬리를 감추게 된 것이다. 못내 무서웠다.

• 정체화와 나의 변화

나는 레즈비언. (이 짧막한 문장을 쓰기 위해 자판을 두드리며 눈물이 난다.) 그리고 지금 학내 여성운동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 이상 정체성 고민을 미룰 수 없다는 느낌이 수그러들지 않았던 건 일년쯤 전이다. 유례없이 강렬하게 그런 느

낌이 들면서부터 나는 밤마다 머리털을 쥐어뜯다가 결국 지난 겨울의 초반에 고민을 일단락 지었다. 일단 긍정. 딱히 헷갈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시하려 하지 않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던 만큼 이제는 나름대로 확고하다. 자랑할 것도 없지만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다만 심리적 고립감이 주는 공포를 극복하는 게 관건일 뿐이다. 내면의 호모포비아가 스스로에 대한 긍정을 번번이 위협하지만 일단 인정을 하고 나니 한결 편안해진 면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정체화를 하고 난 뒤 전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부딪치게 되었다.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여운단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정체화를 계기로 나의 입장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혀 나의 정체성(혹은 그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지 않고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와 (같이 활동하는 이들 중에는 내가 커밍아웃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최소한 내 입장에서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정체화 전, 회피가 심할수록 말을 돌리거나 많이 타자화하며 성소수자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 옆에 앉아 같이 회의를 하는 친구가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전부 이성애자로 가정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고(이런 부분이 바로, 한 발자국도 더 M의 공간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개방된 공간에서의 아웃팅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지만 말이다), 성소수자 문제를 자신의 경험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어떤 것으로 여기고 아주 추상화시켜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오랜 친구인 나'를 똑바로 쳐다보게 한 다음 '너희들 곁에 있는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람이다' 하며 차갑게 뱉어주고 싶다.

침묵이건 지독한 이상화건(여성주의자인 친구들일수록 이 양 극단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간에, 그들이 내 문제를, '비밀상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대화의 여지는 적어진다. 그럴 때 내 쪽에 실리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공간에서 나는 이미 커밍아웃을 한 상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사람들이 '조심스러움'을 이유로 거의 어떠한 말도 하려고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어서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며 말끝을 흐리는 것을 매번 계속하거나 '여자와 사귄 수 있는(?) 것'을 그저 부러워할 뿐일 때 등 이 모든 경우가 나는 다 괴롭다. 말을 하지 않으면 대체 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혹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점점 불편해진다. 밀도 끝도 없이 부러워하기만 하면, 나의 고민이나 힘든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봤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부러움에 눌러버릴 거라는 느낌에 별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진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때 혼자 열심히 설명을 하고 화를 내야하는 순간 그 침묵의 두꺼운 벽을 느끼면 그냥 그 자체로 심신이 탈진해버린다. 그래서 나는 내가 덜 긴장하려면 무슨 말을 어디까지 할까에 대해 항상 계산을 하고 있게 되었다.

• 때로 후회 막심한 커밍아웃_차라리 묻어 두는 게 나았을까

일단 스스로 정체화(스스로 커밍아웃)를 하고 난 뒤 나는 대외적 커밍아웃의 범위를 선택해야만 했고 결국 같이 활동하는 주변인들과 가장 친한 친구 한두명 정도에게는 모두 말을 하고 말았다. 덩어리진 채 먹먹하게 뭉쳐 있던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심해진 것이 정체화와 커밍아웃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스스로도 회피하던 시절과 다른 점은, 말을 해도 억울하고 말을 안 해도 억울한 상황이 보다 적나라한 수위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도 둘러앉은 자리에 레즈비언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아주 당연히 이성연애만을 주된 화두로 삼아 대화를 끌고 나가 나 같은 아이의 말문이 딱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내 정체성을 털어 놓거나 머릿속으로 재빨리 소설을 한 편 써서 그걸로 버티지 않으면 그 대화는 지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머릿속으로 소설 쓰는 연습도 좀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정체성을 밝히자니 이 사람에게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해버리기에는 꺼림칙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그 화제를 벗어나려니 박탈감이 강해서, 어떻게 해도 억울한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굴 믿고 누굴 믿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언급한 케이스는 내게 있어 어찌 보면 가벼운 축에 속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 같은 때에 교수와 아이들이 합작으로 호모포비아 무리가 되어 사실 무근의 근거들을 갖다 대며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해 댈 때의 내 긴장도는 앞서 말한 것과

차원이 다르게 높다. 그럴 때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화난 김에 그 불특정 다수 앞에서 커밍아웃을 저질러 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곤 한다. 그 일련의 과정은 정말 심란하고 피곤하다.

차라리 정체화하기 전이 나았을까? 나 자신이 매개체가 되는 첨예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게 될 때 보다 숙련된 말과 행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계속 머리를 굴린다.

* 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중간 과정이 다소 생략된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 내가 우리 학교 이반 운동 모임 M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처음의 그 설렘과는 거리가 있다. 일단 홈페이지며 오프 모임에 게이들이 주로 북적북적하여 도무지 감수성이 맞지 않아서 친해지고 싶고 같이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 티지넷이나 엘비시티를 돌아다니며 가졌던 대략적인 느낌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M이 벌이는 활동들에 당연한 것처럼 관심은 가지더라도 커다란 흥미를 느끼거나 하지는 못 했다. 레즈비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M은 그러기에 그다지 적당한 곳이 아닌 듯 보였다. 또 입학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오다가다 알게 된 사람들이 이미 수두룩해진 상태다 보니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나 하고 싶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학내 이반 운동 모임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도 하다. 인터넷에 있는 우리 학교의 천목 카페에도 가입만 해 놓고 전혀 정보 등에 참여하지 못 했던 까닭에는 다른 데서 알던 사람 거기서도 마주칠까 봐 두려웠던 게 가장 컸다.

그렇다고 현재 내가 활동하고 있는 여운단위에서 레즈비언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니다. 여운단위는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지 레즈비언 운동을 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레즈비언도 분명 여성임에 틀림없음에도 이제껏 여성운동 진영에서 충분히 다뤘던 적도 없을뿐더러, 여성운동의 감수성 없음은 차치하고서라도 성소수자인 레즈비언의 이야기가 독자적으로 다뤄질 필요도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서술했던 것처럼 활동하는 이들 사이의 문제도 여운단에서 레즈비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이반 운동 모임도, 여성 운동 모임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야기가 되다가도 어느 구석에서 딱 막히는 느낌이 양자에 다 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레즈비언만의 모임을 만들어 볼까... 과연, 어떻게?

장애여성팀

- 꾸꾸, 고구마, 반짝, 토랑

장애여성...그녀들의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

by 토랑(이화여성위원회)

'자매들,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2003여성연대 <한판>의 기초이다. 그러나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는 건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다름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함께 바라다라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억압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름은 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는 그러한 다름을 없는 셈치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해왔다. 이는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카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렇듯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무조건 같다는 주장은 장애인이 가진 차이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비장애인의 사회를 획일적으로 강요한다.

반면 여성주의관에서는 이러한 다름을 무척이나 중요시 여긴다.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기까지 그들이 겪어온 과정과 경험이 워낙 다양하고, 그렇기에 생각과 고민의 지점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주의자들도 장애여성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좀처럼 장애여성을 가까이하기 힘든 사회에서, 비장애페미니스트에게 장애여성의 삶은 다분히 낯설고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다름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흐르는 것은 옳지 않다. 무관심 속에는 피억압자로서의 오만함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러한 오만함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기 이전, 내가 장애여성문제를 바라보던 시각은 정말 오만했다. '관심 없음' 혹은 '잘 모름'으로 일축되던 나의 생각. 그렇다면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새로이 갖게 된 후에는? 나는 여전히 오만하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혹은 '잘 모르겠지만...'의 정도랄까.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진정으로 다름을 바라보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며,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여성주의 내에서 종종 '성찰'이라는 단어로 너무나 쉽게 용서되어진다는 것이다. 그 안에는 깊이 있는 반성이나 부단한 노력이 없다. 단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 든다는 느낌이다. 과연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성찰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는 걸까.

'다름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나와 장애여성들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표면적인 의미만은 아니다. 내가 그녀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어디로부터 기인하지를 깨닫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깨달음의 기반 하에 장애여성들이 받는 억압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 마쳤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름을 볼 수 있고, 함께 바랄 수 있을 것이다.

2003한판에 와서야 처음으로 장애여성을 이야기하는 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 또한 장애여성이 함께 하기에는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힘든 자리가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부디 허울뿐인 성찰이 아닌, 마음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성찰이 되길.

장애여성의 독립과 사회적 권리

- 장애여성을 둘러싼 이야기와 그녀들이 원하는 것

고공(관악여성모임연대)

"내가 처음 독립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은 사춘기 때였다. 주변에서 보았던 가족들과의 갈등을 보면서 난 가족들에게 짐은 되기 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서 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나도 따라서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바보같은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것만이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경우라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번쯤은 모두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정영란(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나의 독립이야기>, 장애여성공감 주최, 장애여성의 인권확보를 위한 영상토론회 「장애여성 독립」 자료집

"저는 아들을 선호하는 집안에서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고 게다가 장애를 갖고 자라게 되면서 아버지의 미움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그야말로 병신의 막내 계집애로, 집안에서 아무 쓸데(가치)가 없고, 재수 없고, 보기 싫고, 남들 눈엔 창피해서 숨겨야 하는 존재였고, 아버지 오빠들 어머니에게 시시때때로 분풀이나 화풀이, 그리고 적당한 동정 베풀기나 짓궂은 장난기의 해소품 되는 대상이었기에 자리면서 만성적인 우울증과 공포감이 떠나지 않게 되었고 분노 또한 남몰래 차츰 키우게 되었습니다. ...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저 남존여비사상이 당신도 모르게 흡수되어버리셨는지, 아니면 제가 딸이라는 이유보다도 장애인이라는 이유가 더 작용해서인지 오빠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지만 저에게는 놀 가치 없게 여기시며 반대와 방해도 많으셨고, 결정적일 때는 언제나 폭,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는 위협으로 저의 판단과 목소리와 주장을 틀어막아 버리셨습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썼지만, 이 사회에서는 제가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더군요.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비장애인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을 알아봤지만 저 같은(뇌성마비) 장애인, 또 장애여성은 안 받아 주더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성, 그 안에 있거나, 혹은 그것에 근접할 쪽으로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력미달인 저는 어디 한 곳 설자리가 없었습니다."

- 고명숙(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회원), <장애여성의 독립생활>, 같은 토론회 자료집

누구나 자라면서 독립을 원하듯이 장애여성 역시 독립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 중심의, "정상" 중심의 사회에서 그녀들이 원하는 주체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서 그녀들은 너무 많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여성은 결혼은 못 하므로 불편한 몸이 가족이 보호해 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평생을 돌봐주어야 하는 존재로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이러한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은 장애여성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회적 서비스가 전무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장애를 가진 여성(그들은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므로)이기에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장애여성이 독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동안 페미니스트들은 가정 내에서 여성의 종속을 이야기하며 가사노동과 보살핌 노동과 같은 감정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들은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적 영역'에서의 배제로 인해 남성에게 의한 종속적인 상태가 지속된다고 밝혀냈다. 이런 억압적인 상태는 남성중심적인 조직구조와 가치체제로 여성들은 끊임없이 가치절하당하며, 사적 영역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했다. 장애여성들의 경우에는 비장애인,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좀더 복합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경험한다. 한 발짝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

에도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거나 외출했을 때에도 비장애인들에게 어린 아이 취급당하는 등의 성폭력을 경험하기도 하며 '밖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가족들 역시 장애여성의 외출을 막거나,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사회적인 접촉이 제한된 채로 장애여성들은 많은 사회적 권리를 누릴 기회를 잃는다.

교육에서 장애여성들은 특수학교의 절대적 부족과 일반학교의 장애차별적 구조(장애아동의 입학률 거부하거나 비장애인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건물구조가 맞춰져있는 것 등)때문에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에서부터 차별을 받는다. 게다가 가족들 역시 장애를 가진 여성인데 배워서 뭐하나, 집에서 살림이나 도와라라는 식의 사고를 가져서,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서도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실제적인 통계를 봐도 장애여성의 교육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남성에 비해서도 낮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68.5%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으로 남성장애인의 41.8%, 전국 여성의 29.6%와 비교하여 저학력 계층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장애인은 4.2%로, 남성장애인(11.2%)의 37.5%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여성(20.6%)의 약 20.4% 수준에 불과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경우도 37.0%나 되고 있어서, 남성장애인보다도 훨씬 낮은 것은 물론 비장애 여성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¹⁾

이러한 낮은 교육수준은 이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로 구분해서 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연보 자료와 비교하여 본 결과, 2000년도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4%인 반면, 장애인은 47.8%로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3.6%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참가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장애인은 59.4%, 여성장애인은 29.3%로서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30.1% 포인트나 낮으며, 약 1/2 정도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실업률에 있어서는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이 2000년을 기준으로 3.6%인데 비해서 장애인은 28.4%로서 약 8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는 남성이 26.8%, 여성이 33.6%로 여성의 실업률이 높았다. 아울러 일반 여성의 실업률 2.7%에 비해 12.4배나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케 하고 있다."²⁾

장애여성의 경제 참여가 제한된 것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정상"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의미는 한 치의 일그러짐이나 결함거름 없이 보기에 (비장애인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³⁾ 같은 시간을 일해서 비장애인과 같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며, 움직이는데 있어 비장애인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면 그 시간내에 점심을 먹고 잠시 쉬었다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 '성별'이 들어가면 문제는 약간 달라진다. 장애여성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이라는 측면까지 부여되면서 노동 시장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성성 역시 체득하기를 강요받는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은 보조적인 업무를 맡으며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을 하게 된다. 흔히 비혼 사무직의 경우 회사의 "꽃"으로 취급받는데, 고용 조건에 있어서도 외모에 대한 기준을 (비공개적으로라도) 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구조에서 남성들의 기준에서 '여성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장애여성은 고용에서 거부되며 장애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흔히 텔레마케터 같은 전화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동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용 관행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정상"의 기준에서 장애여성에게 효율적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장애인이 1시간에 10개 만들면 장애인도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수많은 장애인을 소외시키며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게다가 고명숙씨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상"과 "효율"의 기준 자체를 바꾸지 않은 채 장애인을 위한 직업시

1)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2003)>

2) 같은 책

3) 실제로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직장에서 직접 고적과 상대를 해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고객에 대한 불쾌감 조성 우려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장애인고용의무 업종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곳에 실제로 고용되었다하더라도 장애인들은 보기 좋지 않고 회사 이미지를 흐린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기를 요구한다.

설들을 만들기 때문에 좀더 경중의("정상"에 가까운) 장애인을 선호하게 되고 정작 직업이 필요한 장애여성들에게는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으로 장애남성보다도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원인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정적인 성역할 때문이다. 장애남성의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더라도 직업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족들 역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반해 장애여성들은 그러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측이나 장애인계 내부에서도 '여성은 결혼이나 하면 됐지, 얼마 없는 자리에 여자까지 받으면 어떻게 하나' 혹은 '결혼하면 아이를 키우고 가사 노동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그만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우선 주자'라는 식의 성별분업이 깔려있어 장애인직업장에서도, 민간회사에서도 남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어느 직업시설에서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장애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시설이나 장애인의무고용에서의 여성할당과 같은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하기를 원하는(이런 욕구에는 독립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장애여성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현재로서 찾을 수 없는 여성들에게는 장애연금의 형식으로도 독립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장애여성들이 독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양하다. 거주 가능한 주택 마련에서부터, 신변 처리에서 활동 보조가 필요하다면 활동보조 도우미가, 그리고 가사 도우미 혼자 사는 장애여성이 가사노동을 할 때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결혼을 한 장애여성의 경우에도 고정된 성역할은 강요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다 잘하는 '슈퍼장애인'이 되어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여성에게 가사 도우미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이다.

까지, 이러한 물적, 인적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이 단지 "제공"이라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도 장애여성의 주체성,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자신의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례로 활동보조 도우미나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인 양으로도 현재 부족한 실정이지만, 장애여성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도우미의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거나, 장애여성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애여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는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여성들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함께 담겨있지 않다면 그것은 장애여성의 독립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여성의 독립이 그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의 마련과 함께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종종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이 가지는) 또 다른 무력함의 표시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한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듣던 사회복지학 수업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이론을 공부하는 과정에 "독립"에 관한 논쟁이 일었다.(그 자리에는 비장애인들만 있었다) 논쟁의 중심은 "장애인에게 독립은 가능한가"였다.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장애가 중증이라 혼자 밥을 먹거나 신변처리를 하거나 옷을 입는 등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적으로 거의 없을 경우에도 '독립'(수업시간에서는 자립생활에 대한 것이었다)을 적용시키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독립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업을 할 당시에는 나 역시 독립이라는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자, 독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수업 시간에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독립"을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이면에는 장애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독립은 어떤 내용을 구성하고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가를 되짚어 봐야 한다. 장애를 가진 페미니스트 운동가인 제니 모리스는 『편견에 맞서는 자랑스러운 Pride Against Prejudice』라는 책에서 의존과 독립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정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⁴⁾

그녀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며, 의존이라는 단어는 무력함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와 의존할만 하다고 느끼는 대상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의존 개념을 따르다면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다하는 독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모리스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하고 편안한 환경, 적절한 기술, 인적 보조에 장애인이 의존한다는 것을 무력함과 종속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환경, 기술,

4) 『공감』 23p67-76, 장애여성공감, 1999

보조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혼자 모든 것을 완벽히 수행한다라는 허구를 벗어던지고 나면 독립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이다.

장애여성에게 독립은 그녀를 둘러싼 현재의 조건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흔히 생각하듯, 그저 그녀들에게 '좀더 (온정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실한 해결이 아니다.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차이에 대한 이해와 차이를 위계로 만드는 구조에 대한 저항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장애여성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즉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것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널려있다. 노동, 교육, 이동, 결혼, 양육 등 전 영역에서 차별로 만드는 기제들은 공고히 있다. "정상적인", "대부분", "일반적인", "효율적인"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더불어 차이를 위계화시키는 구조는 단지 추상적인 무언가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계단만으로 이루어진 건물에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다고 아무 생각없이 지나치는 당신일 수도 있고,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역치부리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 조금 다르게 걷고 말하는 것을 유심히 훑어쳐라보는 눈이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었나?"라는 식으로 어린애취급하며 쓰다듬는 손일 수도 있다.

장애여성들의 독립은 개개인들과 사회 전체적인 모든 변화를 요구한다.

장애여성들의 목소리로 요구하는 '평등'은 이제껏 이야기되어왔던 평등과는 다른 의미일 것이다.

글을 마치며...

장애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그녀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왔던 그녀들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의 글을 제일 앞에 넣은 이유도 장애여성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준비도 많이 안 된 이 자리에서 장애여성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느끼는 것은 힘들겠지만, 학교로 돌아가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그 고민의 시작에 이번 한판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이제 그만!

- 존재하지 않는 장애여성 정책, 존재하는 장애, 여성, 억압들.

반쪽(이화여성위원회)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시각은 더 이상 왜곡될래야 왜곡될 수가 없을 정도로 최악이다. 그것은 "병신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마치 속담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 유명한 한 마디로 정리된다.¹⁾

장애를 갖는다는 것, 즉

몸의 변화는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박탈한다. 그것은 비극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변화로서 받아들여진다.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왜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들을 빼앗겨야 하고 또 이것이 당연한 몸의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에서 비인간으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넘어가는 분기선에는 바로 사회의 협소하고 획일적인 몸에 대한 기준이 존재한다.²⁾

현재, 특히 우리나라 장애여성에게 있어 독립은 모순적 의미를 지닌다. 어느 누구에게 보다 '자립'이란 부담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애여성에게 독립이란 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할 수 없는 일로 치부되곤 한다. 물론 장애여성 가운데는 독립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독립을 원하는 원하지 않은 사회의 조건들이 장애여성이 독립을 하기 어렵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여성의 독립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독립, 즉 노동의 문제는 중층적인 억압이 존재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장애인성, 여성성을 고용하려면 비장애여성성을 고용하는 사회 구조는 장애여성이든 비장애여성이든 여성에게 기대되어지는 업무의 내용을 반영한다. 또한 같은 장애인이라도 남성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이라는 기대가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고용의 우선 순위 역시 이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여성의 현실이다. 모처럼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여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에 노출된다.³⁾

또한 '집안양산'이라는 말로 존재자체를 숨겨버리는 장애여성들은 말 할 것도 없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애여성은 대부분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직업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⁴⁾

1) 홍성희, 「다름에 대하여」, 『당대비평』 15 연속기획2 : 장애 여성의 등장, 그 정치적 의미

2) 김은정,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을 꿈꾸며」, 『당대비평』 15연속기획2 : 장애 여성의 등장, 그 정치적 의미

3)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양한 선택의 여지도 없을 뿐더러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으로서 우리 스스로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장애 여성으로서 직업을 가지려 할 때, 취약한 신체 구조와 이동성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기도 했지만, 사회에서 장애 여성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지도 알 수가 있었다. 취업할 기회가 있어 담당자와 만나기 위해 자원 봉사자와 함께 가면, 분명 일을 할 사람은 장애 여성인데도 담당자는 마치 봉사자가 보호자이기라도 한 것처럼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해 줄 사항이든 봉사자에게 이야기한다. (-박영희, '장애 여성으로 산다는 것', 『당대비평』 15 연속기획2 : 장애 여성의 등장, 그 정치적 의미)

4) 현재 우리 나라 취업 장애인 두 명 중 한 명은 농업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해, 세 명 중 한 명 가량이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 구조가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펴낸 「취업 장애인의 체계적 경력 개발을 위한 모형 연구」라는 논문은 따르면, 전체 취업 장애인 중 13.3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해 가장 많았고 단순 노무직 23퍼센트, 기계 장치 조작 등의 기능직 18.2 퍼센트, 서비스직 17.9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직 및 사무직은 9.4 퍼센트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이 전문직 및 사무직, 기능직 순으로 종사하는데 비해 장애인들은 단순 노무직이나 농업, 기능직 순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점자신문』 2001년 3월 12일자, 「취업장애인 절반이 농업·단순노무직」 기사참조

(<안은자, '노동자로서의 장애여성', 당대비평15연속기획2/장애 여성의 등장, 그 정치적 의미>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여성은 '집안에서 노느니 밥값이라도 해야 한다'는 안락의 시선을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하다못해 빨리 개기와 다림질처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장애여성은 가사노동의 일부를 전담하고 있다. 장애여성이 외출을 한다거나 해서 가사노동을 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해야 할 몫'을 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주위의 눈치를 받게 되고 본인 역시 위축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장애여성이 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는 끊임없이 폄하된다. 장애여성이 해 놓은 가사노동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하나마나 한 일'이라거나 '해도 비장애여성이 다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인 노동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심지어 장애여성의 '자립'을 위해 가사노동을 전담시킨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시혜 의식'으로 장애여성의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 경험을 무시하기도 한다. 장애남성의 경우 '자립'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할지라도'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반면 장애여성은 '가사'를 전담시키는 것이 '혼자 먹고살게 해주려는' 것이라는 데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억압의 정서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가사노동은 '밥값이라도 하라'는 시선과 '밥값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의 시선이 충돌하는 지점의 한 가운데 있다.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여성들이 많고 이는 우리 눈에 장애여성이 좀처럼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한다. 이것은 장애여성이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거나 '시설' 등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가족과 살지 않는 장애여성이 혼자 혹은 친구와 함께 독립해서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바라보는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와서 친구와 살아갈 경우 아무도 이러한 삶을 '공동체 생활' 혹은 '의존하는 삶'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경우 이것을 '독립'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장애여성들은 호주가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것 - 즉,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독세대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평수가 지나치게 작아서 여러 명이 생활할 수 없는 것이다.⁵⁾

이 밖에도 장애 여성이 독립해서 생활하는데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도우미제도'이다. 현재의 도우미제도는 구청에서 월급을 주고 '도우미'를 고용해 장애여성의 집으로 보내는 형태이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월급을 받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우미들은 장애 여성에 대해 '시혜'나 '봉사'차원의 접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여성은 '생존하는데 있어 절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아니면 도우미를 부르기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집 앞에 쇼룸 센터가 있지만 시내의 백화점에 가서 쇼룸을 하고 싶을 경우 그러한 이유로 도우미를 부른다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쉽게 벌어지는 것이다. 도우미들이 구청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장애여성의 집에서 '노동'이 아닌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게 할뿐더러 구청, 즉 국가는 도우미제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안심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현 제도에서 도우미의 서비스가 형편없다 해도 다른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는 일은 장애여성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도와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에서' '까탈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엄연히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으면서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장애여성이 집에 갈 시간만을 기다리는 '봉사자'로 스스로를 정체화한 도우미를 옆에 두고 편히 놀 수 있을까? '사소하게' 아프다고 생각될 때 병원에 가야하니 빨리 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편하고 편지 미안해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같은 '도우미제도'라도 실제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모순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같은 보수라도 우선 구청에서 장애여성에게 대할 일정액 이상을 지원하고 장애 여성이 도우미에게 직접 급여를 책정한다면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 장애여성의 만족도에 대한 고려 없이 구청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을 경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도우미의 능력과 성실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장애여성이 직접 평가하고 책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장애여성에게 직접 급여를 받는 '도우미'는 자신의 일을 '직업'으로 정확히 인지 할 수 있고 시간제 등의 급여제를 도입한다면 장애여성 역시 오랜 시간 걸리는 업무를 볼 때 도우미의 눈치를 볼 것 없이 '협상'하면 되는 것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독립의 길은 '결혼'이기 쉽다. 그러나 '장애여성에게 결혼이 과연 독립인가?'⁶⁾ 장애여성에게 결혼은 '처녀귀신은 면해야 한다'는 말로 '강권'되면서도 정작 장애여성

5) 우리가 살면서 결실히 실감하는 것은 주거 문제이다. 다른 집으로 이사해 보려 해도, 서울에서는 대개 임대료를 위한 방을 지하에 들이는 가족 구조라 거의 계단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의 임대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단독 세대나 호주가 같은 세대에만 입주 자격이 있고 우리처럼 호주가 다른 가구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살려는 의지가 있는 장애여성들이 많이 있다. 그런 장애 여성들이 우리처럼 한 가족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구성된 가족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여 가족에게 주는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 (-박영희, '장애 여성으로 산다는 것', 당대비평15연속기획2/장애 여성의 등장, 그 정치적 의미)

을 바라보는 시선은 물성적이고 무성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실제로 장애여성에게 관한 거의 유일한 복지(?)제도가 '결혼중매'에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장애여성은 스스로의 여성성을 무화시키기도 한다.⁷⁾

요즘의 언론을 보자면 장애여성에게 최고의 '영예'는 비장애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는 듯한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장애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 아닌 남성에 의한 '간택'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인간극장'에서는 끊임없이 장애여성과의 결혼한 비장애남성에 대해 조명하며 그의 '헌신적 사랑'과 '행복한 아내'를 조명한다. '장애여성인 아내'의 가사노동을 돕는 비장애남성에 초점을 맞추고 '아내 사랑'을 전하는 편지라도 한 통 곁들이면 그 방송은 성공이다. 장애남성의 경우 공익광고나 대체 등을 통해 '장애 극복의 신화'를 재생산하는 반면⁸⁾ 장애여성의 경우 가정 안에서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장애여성이 결혼해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 역시 끊임없이 폄하된다. 장애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아이들과 가족에게 언제나 '부족한 엄마'라는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든다. 엄마가 되어도 장애여성은 언제나 '미숙한 존재', '아이들을 보살피는 커녕 도리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미완의 존재'로 남는 것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의 무지는 이미 엄마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장애여성' 엄마들의 노동과 경험을 무시하고 가족들 특히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강요한다.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종종 장애여성을 엄마로 가진 아이들을 보도하는 데 있어 동정적 시선으로 일관하는 언론매체에 반영된다. 장애여성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가족들의 모습은 장애여성의 장애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특히 비장애남성을 통해 '정상' 혹은 '정상적 가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따라서 장애여성이 가지게 되는 장애로 인한 억압들을 효과적으로 무화 시키는 것이다.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장애여성의 노동과 결혼, 그리고 독립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시선이 반영된 제도들 역시 바뀌어야 한다. 장애여성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는 것, 장애여성에게 결혼을 신화적 억압으로 덧씌우는 것들은 모두 장애여성에 대한 문제들을 사회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 아내 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가족사로 혹은 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일은 사회의 폭력이다. 장애여성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는 폭력을 인정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이다. 장애여성이 존재하고 억압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눈감았던 사회와 우리, 이제 늦었지만 다름을 보았으니 함께 바랄 때이다.

불편한가?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다. 불편하다면 관심을 가지라. 관심을 가진다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⁹⁾

6) 2003년 6월 20일 장애여성공감 토론회, 박주희(장애여성공감 운영위원) 발제문 제목입니다.

7)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너 귀신은 면해야 한다"는 말을 하며 허를 찌른 듯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같은 장애 여성들의 한숨과 눈물을 보면서 그게 서야 알게 되었다. 그 말은 나 같은 종종 장애 여성은 결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이 사회의 의식은, 장애 여성을 한 가족으로(며느리든 아내로든) 기꺼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높은 담이었던 것이다. 그 높은 담을 장애 여성 혼자 넘는다는 것은, 자신을 만신창이로 망가뜨릴 수 있을 만큼이나 커다란 모험이고 고통이다. 나로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 어렵게나마 결혼을 하게 된 내 주변의 장애 여성들은, 남편의 집안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다. 아이를 낳을 때면 병원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상식적인 배려가 없어서 겪게 되는 마음 고생들, 가사 문제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결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예 결혼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성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게 되었다. 보다. 어쩌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여성성을 접었다고도 할 수 있다. 여성성을 의식하다 보면,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몸이 크고 활동적인 여자들이 가지는 중성적인 모습처럼 스스로를 마음이 넓고 이해심 많은 그런 여자, 주변 사람들의 해결사나 상담자 역할을 해주는 모습으로 만들어 갔다. 그 덕분에 나는 종종 장애라는 조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폭넓은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박영희, '장애 여성으로 산다는 것', 당대비평15연속기획2/장애 여성의 등장, 그 정치적 의미)

8) 장애 남성의 경우 언론에서 '휠체어 농구단' 등을 통해 비장애남성과의 농구경기를 통해 '코트에서는 평등한 혹은 심지어 우월한' 장애극복 신화를 재생산하곤 한다.

9) 홍성희, '다름에 대하여', 당대비평15연속기획2/장애 여성의 등장, 그 정치적 의미

장애여성의 내적 독립과 정체성 찾기

BY COUCOU(관악여성모임연대)

I. 내적 독립은 정체성¹⁾ 찾기의 문제이다.

장애여성의 내적 독립은, 장애여성이 독립하겠다는 결심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독립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독립은 장애여성 자신의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찾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장애인'이자 '여성'인, 덧붙여 '장애여성'이라는 정체성에 좌절하거나, 그것을 극복하려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심리적인 독립이라 부르기 어렵다. 사회가 짐 지우는 차별과 억압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한 후,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여성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은 단순히 체계 속의 고정된 위치로 환원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일성과 차이의 무한한 사슬 속에서 주체의 능동적 구성에 의해 임시적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몸은 그러한 동일성과 차이들이 거기에 각인될 필수적 정박지(anchoring point)로 기능한다. '내가 누구인가'를 구성하는 동일시들은 수없이 많고 다양하지만, 그것들의 일차적 출발점은 바로 '지금 / 여기 있는 이 몸'과 '나'와의 동일시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정체성의 일차적 근거라고 하겠다.²⁾

개별 주체의 정체성을 찾는 데에 일차적인 근거가 되는 몸은, 정치적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상징이자 은유의 장이기도 하다.³⁾ 여기에서 몸은 '여성의 몸이나, 남성의 몸이나'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몸이나, 비장애인의 몸이나'라는 물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자기 호명이 가능한 것인가. 최초로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을 펼친 어느 장애인 단체의 여성분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여성장애인은 의사, 학생 등의 단어에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여의사, 여학생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통 남성만을 지칭하는 단어 앞에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첨가시킨 것이다. 우리는 장애를 (중략) 본질적인 범주로 나누는 기준으로 보거나, 불편하고 영속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상태로써 제한점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이러한 제한점은 상대적으로 환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⁴⁾

1) "정체성 (Identity) 또는 자아정체성 (Self-identity)이란 간단히 말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규정'이다.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곧 정체성이다. 정체성의 개념은 자신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성찰성을 갖춘 주체를 전제한다. 주체들은 그러한 자기 심문 (Self-interrogation)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배은경, 「여성의 몸과 정체성」, 한국여성연구소, 『새여성학 강의』, 동녘, 1999, 135쪽.

2) 배은경, 위의 글, 137쪽.

3)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 (Mary Douglas)의 주장대로 몸은 강력한 상징이다. 즉 몸이라는 표면 위에 문화의 핵심적인 규칙, 위계질서, 형이상학적인 문화 참여까지 각인되며, 역으로 그러한 규칙, 질서, 문화참여가 구체적인 몸의 언어를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모은 또한 문화에 대한 은유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플라톤과 흄스에서 프랑스 페미니스트 루스 이리가라이 (Luce Irigaray)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에게 있어 몸에 대한 상상이 사회적·정치적 삶을 진단하고/하거나 전망하는 청사진의 기초가 되었다." 수잔 보르도 (Susan Bordo), 조애리 옮김,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 케티 콘보이·나디아 데디나사라 스탠베리 역, 조애리 외 번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117쪽.

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빗장을 여는 사람들, 《빗장소식》 창간호, 1997년 8월.

II. 장애여성으로서 정체성 갖기의 어려움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는 '여성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우'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자기 호명을 통해 언어가 가지는 정치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녀들이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은 장애의 범주와 여성의 범주로 정확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장애인으로 경험하는 차별과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의 합이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분명히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며, 여성인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여성으로도, 장애인으로도 - 장애인은 남성으로 대표된다 - 불리지 않는다. 5) 이렇게 장애와 여성,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외당하다가, 장애여성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우선 '장애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와 '성'이라는 이중의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강조했다. '장애여성'은, '장애인'과도 다르고 '여성'과도 다르며 이 사회에서 그 존재가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기도 했다."⁶⁾

1. 동등함과 다름의 경계에서

장애는 우리 사회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자 깊은 이질감의 원천이며 낮은 지위를 나타내는 징표이다.⁷⁾ 이렇게 장애인의 인간성과 인권이 부정되어 온 데 대한 비판으로서, 장애인은 단지 '동등하지만 다른' 존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장애인 집회에서 곧잘 쓰이는 "장애인도 인간이다"라는 구호는 단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벌이는 캠페인 역시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없애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장애에 부여되는 바로 그 부정적 편견에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⁸⁾ 문제제기는 '동등함'보다 '다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러한 다름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잣대를 비판해야 한다. 비장애인들이 만들어낸 '정상성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하려 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다른 몸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을 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등함을 드러내는 전략에서 다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의 선회는 마치 제1세대 페미니즘에서 제2세대 페미니즘으로의 흐름을 보는 듯하다. 앞선 세대의 운동이 장애여성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장애인/남성이 누리는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였다면, 앞으로의 운동은 장애여성과 비장애인/남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내부의 차이까지도 포함하는 다름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2.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장애와 성

장애와 여성에 대한 다음 두 텍스트를 비교해보자.

5) 김은정, 「정상성에 도전하는 여성들 - 한국 장애여성운동사」, 한국여성학의전환 역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999, 408쪽.

6) 홍성희, 「다름에 대하여」, 『당대비평』 2001년 여름호, 158쪽.

7) 홍성희, 위의 글, 154쪽.

8) 김은정,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을 꿈꾸며」, 『당대비평』 2001년 여름호, 184쪽.

장애에 대한 (사회에서 규정짓는)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장애를 특성(trait)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state)로 받아들이어야 한다. 장애는 특정 조건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한다. 즉 장애는 행위자의 능력과 환경의 상호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지금까지 장애를 능력 중심으로 바라보았지만 점차 환경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각종 인공 기술에 힘입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은 정치·사회적인 차원을 포함하므로 장애의 문제는 본질상 과정과 정도의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 구별과 낙인찍기의 문제이다.⁹⁾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말했다,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류 중 암컷이 사회에서 드러내는 모습을 규정하는 것은 무슨 생물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혹은 경제적인 숙명이 아니다. 남자와 여관 사이 중간쯤 위치한, '여성적'이라고 묘사되는 이 피조물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문명 전체이다."¹⁰⁾

장애를 가진 것의 경험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경험은 장애/성별을 형성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맥락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성별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시각은 기존의 병리학/생물학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하고, 정치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요컨대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장애/성별을 바라보는 것은 병리학에서 정치학으로,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정치학으로 담론의 장을 대치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다름'을 받아들이기 :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의 정치학

서구의 장애차별철폐운동(Disability movement)은 흑인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의 깨우침 속에서 '소수집단모델(minority model)'에 따라 자신들을 정체화하는 정치화된 담론들의 영향을 받았다.¹¹⁾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의 정치학(Positive Identity Politics)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종, 성별, 장애를 열등성으로 간주하는 압도적인 해석에 대해, 그러한 것들을 불합리하게 해석되어온 '체화된 차이(embodied difference)'라고 주장하였다.

1. 단순한 차이인가

소외와 억압을 권력 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파악하지 않고 단순한 차이로 이해하는 것은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같이지기 위한 투쟁'과 '갈게 만들기 위한 투쟁'은 중단되어야 한다.¹²⁾ "장애인도 인간이다"라는 구호가 혹은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와 같은 캠페인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의 '파이의 비유'를 통해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페닐로 참석했던 한 심리학자는, 극심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할 때 장애여성들이 가져야 할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르다'는 것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파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9) 정근식, 「장애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 문화 비판으로서의 장애의 사회사」, 『당대비평』 2001년 봄호, 256쪽.

10)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제2의 성』, 1952, 249쪽. 케티 콘보이·나디아 메디나·사라 스탠베리 역음, 앞의 책, 169쪽에서 재인용.

11) 김은정, 「장애여성의 몸의 정치학 - 직업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애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3쪽.

12) 홍성희, 위의 글, 161쪽.

다. '사람들 몇이 레스토랑에 모여서 식사를 한 뒤 디저트를 뭘로 할지 고르게 된다. 어떤 사람은 레몬 파이를, 또 어떤 사람은 바나나크림파이를 선택할 것이다. 어떤 파이는 선택되고 다른 것은 선택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파이가 다른 파이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이들은 서로 다르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것이다.' 이때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든다. 장애를 가진 중년의 흑인 여성이 논의를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려 놓는다. 그녀는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썩그러진 파이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용감하게 제기된 이 질문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겪는 경험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것이다.'¹³⁾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압과 차별의 근거가 되는 '다름'을 무마하는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름'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일이다. 위의 경우처럼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체화된 차이를 인식하는 일은 정치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자기심문(Self-interrogation)의 과정이 될 것이다.

2. 누가 정체성을 규정하는가

우리는 대개 진정한 친구라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난 너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라고 말해야 한다고 여긴다. 장애는 이런 방식으로 철저히 간과되고, 무시되고, 부정된다.¹⁴⁾ 또한 남자 스승이 능력 있는 여제자에게, 또는 남성 직장 상사가 능력 있는 여성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난 너를 여자로 보지 않아" 우리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렇듯 타인에 의해서 굴레이자 억압이라고 규정된다.

장애를 가진 페미니스트인 제니 모리스(Jenny Morris)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분명히 다르며 비장애인의 세계가 부여한 의미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삶이 균형적임을 보이기 위해 우리가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장애 경험의 부정적인 것들을 정의하는 사람이 의료 전문가, 건강 전문가, 사회 사업가, 부모, 다른 비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¹⁵⁾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가 지배 담론인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분명히 다르며 남성중심주의적인 세계가 부여한 의미들을 거부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 자신의 입에서 여성적 가치를 긍정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러나 또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억압과 소외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남성 (중심적인) 지식인, 남성 (중심적인) 기술인, 남성 (중심적인) 전문가, 가부장제적 가족이대올로기 안에서의 부모, 자녀, 남편, 섹스 파트너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함을 알고 있다.

차이와 다름은 정치적 소수자들이 가지는 정체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흑인들이 "검은 것이 아름답다"(Black is beautiful)와 같은 구호들을 통해 주장하는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의 정치학(Positive Identity Politics)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¹⁶⁾

13) Carol J. Gill, 'Becoming Visible : Personal Health Experience of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y : Achieving and Maintaining Health and Well-being》, 1996. 김은정, 앞의 글, 185-186쪽에서 재인용.

14) 홍성희, 앞의 글, 155쪽.

15) Jenny Morris, 'Pride against Prejudice : Transforming Attitudes to Disability', 1991. 김은정(2001), 앞의 글, 187쪽에서 재인용.

16) Roesmarie Garland Thompson, 'Redrawing the Boundaries of Feminist Disability Studies', 《Feminist Studies 20》.

IV. 장애여성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이 사회는 성별·계급·인종·나이·성적 선호·장애의 유무에 따른 배타적인 차별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억압과 차별의 기준은 근대성 혹은 합리성의 가면을 쓰고, 이른바 정치적 소수자(여성, 프롤레타리아, 유색인종, 어린이/노인, 성적소수자,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정치적 소수자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자기 심문의 과정과 정체성 형성의 과정은 부정적인 낙인찍기이다. 한 사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상(ideal)과 기준(norm)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장애여성이 자신을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몸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버리고, 다양한 몸의 조건을 수용할 여건이 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요소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문화적 이상(cultural ideal)과 정상성(normality)의 개념, 삶의 속도(pace of life), 독립성(independence)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의 획일적인 몸에 대한 기준이 인간에서 비인간으로, 남성에서 '비남성'(¹⁷⁾)으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넘어가는 경계를 결정짓는다. 장애여성이 '비남성'으로서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공고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가부장제, 성차별주의, 남성중심주의,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의 벽이 허물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이 '장애'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장애, 발달상의 지체, 청각과 시각의 감각 장애, 만성질환, 정신질환, 흉터 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억압인 장애차별주의(handicappism) 혹은 정상신체중심주의(able-bodyism)가 종식되어야 한다.¹⁸⁾ 문화적 이상(cultural ideal)과 정상성(normality)의 개념에 따라 사회는 표준이 되는 집단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¹⁹⁾

또한 영상물 <거북이 시스템즈>에서도 나타나듯이,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몸에 체화된 삶의 속도(pace of life)의 기준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과 달성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회 구성원을 구분짓는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삶의 속도가 증가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시간의 사용에 대한 기준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소수집단의 속도는 생산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다음으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independence)의 개념 또한 현재의 환경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여성을 의존적인 인간으로 규정하고 주변화한다. 비장애인이 모든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다. 이제 독립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장애여성이 언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권(자기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V. 장애인 인권과 페미니즘의 경계에서 : 장애여성이 여성 활동가로서, 여성주의자로서 살아가기란

이중의 소외를 경험하는 장애여성의 문제를 장애운동 내에서는 여성의 문제라고 떠넘기고, 여성운동 내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라고 떠넘겨 왔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어떤 범주에 우선적으로 속해 있는가에 대한 갈등은 관념적인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²⁰⁾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마당에 그나마 혜택이라고는 장애남성에게 돌아가고, 영구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원하는 장애여성에게 동사무

1994, no. 3. 김은정(2001), 앞의 글, 186쪽에서 재인용.

17) 이 발제문에서는 '비남성'이라는 말을 남성중심주의에서의 여성이자, 이성애중심주의에서의 성적 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18) 김은정(2001), 앞의 글, 178쪽 참조.

19) 김은정(1998), 앞의 글, 19쪽.

20) 김은정(1999), 앞의 글, 408쪽.

소는 장애남성과 결혼하라는 권고를 한 경우라든가, 장애여성의 노동권 문제에 있어서 여성고용에서 그 비율을 할당할 것인가, 장애인 고용에서 그 비율을 할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운동은, 장애여성을 이해하는 데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틀에 끼워 넣으려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들의 문제를 어느 것과도 관련 없는 것으로 지나치게 특수화하는 오류 또한 경계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²¹⁾

1. 장애운동 내에서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자신들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을 펼치는 장애여성들은 장애인 권리 운동의 남성중심성 또한 비판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장애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다른 양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의 차별 또한 장애로 인해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²²⁾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 등 상당 부분의 장애운동이 (사실은 모든 진보라는 이름의 운동이) 남성 중심적인 환경이다. 장애운동 내부에서도 여성들은 주변화되고 끊임없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장애여성들이 초창기 장애인 운동 시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기획에서 실무까지 다양한 분야에 장애여성들이 분포되어 있지만, 공식적인 발언권을 가지거나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장애남성이다. 게다가 장애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애여성 활동가들은 월경,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으로서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동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장애남성의 성은 장애남성의 재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지고, 이로 인해 의사들의 성재활 연구도 장애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폭력과 착취를 통한 성욕 해소를 당연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성폭력 가해자의 생산을 부추기며, 또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²³⁾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성적 기준의 논의 구조 속에서 장애여성의 성욕은 철저히 배제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 속에서 성매매 현장에 있는 장애여성 피해자의 문제²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와 반성매매 운동의 가치를 걸고 활동하고자 하는 장애여성의 움직임, 장애운동의 대의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여성들의 연대를 분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 여성운동 내에서

장애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의 접근이 시도되면서, 그동안 페미니즘 논의가 여성들의 차이 문제를 논함에 장애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애쉬(Adrienne Asch)와 파인(Michelle Fine)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아이젠슈타인(Eisenstein)이 "노동 계급/중산층 여성, 기혼/미혼 여성, 어머니/어머니가 아닌 여성, 레즈비언/이성에 여성, 유색인/백인 여성, 모든 나이의 여성을 통합하고 이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여성 관련 저술들에서 장애여성이 완전히 빠져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1) 김은정(1999), 위의 글, 409쪽.

22) 김은정(2001), 위의 글, 190쪽.

23)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자료집 - 지체장애여성을 중심으로』, 2003, 16쪽.

24) "일반적으로 젊고 예쁜 비장애여성들만이 성매매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현장에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를 가졌다는 취약점 때문에 감금당하고 화대 없이 성매매를 강요당합니다. 특히나 술 취한 손님이나 난폭한 손님을 받게 하여 더 심한 성적 착취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매매는 장애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자원 없음을 이용한 성적 착취인 것입니다. 얼마전 성남에서 장애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가 잡혀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여성신문 2003년 2월 7일자 참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위의 글, 31쪽.

동시에 장애를 가진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스트 연구들이 장애를 분석 과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여성의 경험을 배제해 왔다고 비판하였다.²⁵⁾ 장애를 가진 페미니스트인 제니 모리스(Jenny Morris)는 엘리자베스 스펠만(Elizabeth Spelman)이 여성들의 범주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그녀의 책 『Inessential Women(1990)』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집단을 빠뜨렸으며, 그것은 장애여성과 노령여성이라고 주장한다.²⁶⁾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자들의 일상적인 능력주의(meritocracy)가 장애여성들에게 적대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프랜 오데트(Francine Odette)는 지적하고 있다.²⁷⁾ 예를 들어, 비장애 여성주의자들이 장애를 가진 여성주의자에게 말할 때, "참 용감하시군요, 여기까지 나와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참 잘 됐어요"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장애여성을 동등하게 보지 못하는 능력주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로, 여성들의 모임이 대부분 장애여성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장애여성들은 여성운동과 여성학에 대한 접근권²⁸⁾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지체장애여성들의 여성운동과 여성학에 대한 접근권의 기초가 되는 이동권²⁹⁾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시각장애여성이나 청각장애여성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형식의 강의나 세미나도 문제가 된다. 많은 강의와 세미나에서 점자 발제문이 제공되지 않고 수화 통역사가 섭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비장애여성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으니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

3. 독자적인 장애여성운동

앞에서 살펴 보았던 것처럼 장애운동이나 여성운동 모두 장애여성의 경험을 공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장애여성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요구를 운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여성공감³⁰⁾이나 캐나다의 DAWN³¹⁾이 대표적인 장애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다.

25) Rannveig Traustadottir, 'Obstacles to Equality : The Double Discrimin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1991, 김은정(2001), 위의 글, 188쪽에서 재인용.

26) 김은정(1998), 앞의 글, 25쪽.

27) Pat Israel, Fran Odette, 'Disabled Women's Movement 83-93', 『Canadian Woman Studies』 Summer, 1993, (Vol. 13, No. 4), 김은정, 앞의 글, 189쪽에서 재인용.

28) "접근권은 학교·직장 등 물리적인 환경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뜻하는 '시설에의 접근권'과 무형물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뜻하는 '정보·통신에의 접근권'으로 쉽게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1983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제5조에도 나와 있다. '회원국은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을 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회원국은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정보와 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은 접근권의 개념 구분과 함께,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자료집 『2001 장애인이동권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2002.

29) "이동권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장애를 이유로 시간적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위의 글.

30) 장애여성공감은 1998년 2월에 창립되었다. 장애여성공감은 단체 소개글에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사회의 정상성의 제도와 기준 속에서 여러가지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이 가진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 사회의 주변부에서 장애를 이유로 분리되어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알리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장애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장애여성들이 가진 욕구를 표현하며, 장애를 가치절하하지 않고, 장애여성의 공통된 의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http://www.wde.or.kr>)

31) DAWN은 '캐나다 장애여성 네트워크 DisAbleD Women's Network Canada'(DAWN Canada)를 뜻한다. DAWN은 1985년 6월에 결성되었으며, 장애여성의 문제만을 따로 다루기 위하여 결집하고 조직활동을 하는 최초의 단체라는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와 장애여성의 행복한 만남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의 답변³²⁾을 들어보도록 하자.

장애여성 문제를 언급하면 비장애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잘 모른다, 어렵다, 두렵다, 반성한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장애여성의 문제가 기존의 페미니즘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장애여성운동은 더 이상 장애운동이나 여성운동을 기웃거리는 입장이고 싶지 않다. 장애여성 스스로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독자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되,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떻게 같이 나가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여성운동은 독자적 운동이다.

이제 장애여성은 억압과 차별의 사회 구조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장애여성만의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내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여성들의 공통된 경험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는 정치적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위한 것이다. 장애여성의 긍정적인 자아 찾기는 내부의 심리적 독립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에게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라는 외부적 독립의 요소와 파드백이 필요하다.

(http://dawn.thot.net)

32) 2003년 6월 20일 장애여성공감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장애여성의 인권확보를 위한 영상토론회"에서 박영희 대표에게 질문한 내용과 그 답변이다.

'이주여성성매매'팀

- 여랑, 니나, 땡땡소녀, 똑, 무명, 고굴, 토마, 아생, 루나

이주여성성매매, 그 고민의 시작.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성매매'는 그렇게 멀기만 한 주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성매매'에 대해서는 독립된 주제로 깊이 고민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근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완전 비범죄화론 속에서도,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센터 '새움터'와의 연대활동 속에서도 이주여성성매매는 '건너 들은' 이야기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더욱 멀게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노예노동'으로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주 여성의 문제, 이주 노동자로서 왔지만 성매매된 이주 여성의 문제는 그 곳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의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는 이야기 되는 방식인 '민족의 누이'로써는 기지촌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필리핀 여성을 비롯한 이주 여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주여성성매매의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피부로 다가왔다. 이제 여자를 꼬시려면 이제 러시아어를 배워야 한다며 허죽거리는 주변 남학생(성구매자)의 이야기로부터였고, 친절하게 '외국인 미녀'의 접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원색적인 신문기사들로부터였고, - 이주여성성매매로 단일하게 묶을 수는 없을지라도 - '베트남 처녀' 사라 가는 '한겨레 21'의 '가이드'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이주여성성매매의 문제는 한국 내에서 이주 여성이 성매매 되고 있다는 현실만을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왜 다른 나라로 여성들이 이주해오게 되는 가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관계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이주 여성들의 자국 상황도 알아야 한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이주해오는 과정에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국제성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는 그나마 많이 알려진 것이고, 그 외에도 E6비자가 아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주여성성매매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그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곳에서도 국제성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브로커와 연결이 되어있거나, 국제인신매매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채류 상태라고 모두 성매매 되는 것도 아니다.

불법채류 상태의 여성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현실이 있지만,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왔던지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을 성매매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여성성매매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성매매' 현실에 대해서 보다 가깝게 이해하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이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그 자리를 이주 여성들이 채우게 된다면 성매매 없는 세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다. 송출국이자 유입국이자 경유국인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주의자로서 이주여성성매매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한판에서 성매매 된 이주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존재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혹은 관심이 별로 없었던 이주여성성매매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제 이주의 배경과 유입되는 경로, 이주여성성매매의 실태와 구조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또한 별도로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성매매'에 대해서 학내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풀어나갔었는지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과 한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학내에서 '반성매매' 운동하기의 의의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언론에서 다뤄지는 이주여성성매매

언론에서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성을 비하시키고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흐리는 여러가지 용어들만 - 매춘, 율락 - 을 사용해오던 것에 비하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청소년 성매매만을 성매매라고 사용하거나, '성매매' 섹션에 분류된 기사에서 율락, 매춘, 사창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일관성 없는 행태는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안을 들여다보면 단어만을 바꾼다고 해서, 내용의 문제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준다. 사건보도에서부터 심층취재, 논평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들이 객관적인 양 생산해내는 글들은 여전히 '남성'의 시선으로 성매매와 성매매 피해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성매매의 실태를 알린답시고 오히려 성매매를 어디에 가면 할 수 있는지를 친절히 알려주는 듯한 보도에서부터,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인권에는 관심도 없는 기사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몇몇 괜찮은 기사를 발견할 때면 신문의 이름과 상관없이 여성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기고글인 경우가 많았다.

이주여성들의 성매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그 심각함을 자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이 수요가 되는 이주 여성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더불어, 피해자가 외국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되어서 정말 '자국 중심적인' 다시 말하면 '성구매 남성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굳이 스포츠 신문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마찬가지이다. 여성문제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는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인지를,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한겨레 21에 실린 국제매매론에 관한 기획특집은 그 기사의 적나라함에 그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었다. 최근 곳곳에서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기막힌 플래카드를 볼 수 있듯, 급증하는 베트남 국제매매론에 대해 한겨레21은 '노총각 기자'의 잠입취재를 통해 현실을 생생히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인륜지대사를 하루만에'라는 소재목에서도 보이듯이 그들의 문제제기는 국제매매론이 결국은 성매매의 또 다른 형태라는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멀고, 또한 한국 남성과 '계약'을 맺고 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에는 조금의 관심조차 없다. 철저히 한국 구매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 기사는 결혼을 신성시하며 그런 결혼이 너무 빠르고 낭만적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개탄하며 시작한다.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대상화와 환상화도 은근히 드러난다. 결국 마치 '어떻게 베트남 신부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친절할 일기식의 보고서 뒤에는 '구매방식의 합리적 변화'를 촉구하며 '선물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진지한 요구와 더불어 한국대사관과의 인터뷰까지 실어놓았다. 여기에서 한국 대사관이 대변해야하는 권리란 '사기당하지 않을 한국 남성의 권리'이다. 또한 E-6 비자로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녀들이 외국인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자유롭게 개방적인 타국의 성문화와 성의식 때문에 그녀들이 '쉽게', '즐거워' 성매매를 하는 것이라는 식의 기사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차라리 그들의 선정적이기 짝이 없는 '처녀결혼'을 내세운 기사 광고가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하려는 이유들은 하나같이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지만 그것은 한국 여성과 결혼할 여건이 안되는 '불쌍한 처지의' 남성들로서는 당연한 일로 쓰속 넘어가버리고 만다. 그리하여 그들이 만든 '순결하고, 다루기 쉬운' 우리보다 못 사는 이주 여성에 대한 판타지는 한국영화 <파이란>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나타난다.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 땅에서 위장 결혼한 농땡이 같은 한국 남자를 한번 보고는 마음속으로 의지하면서, 속아서 성매매를 강요당할 뻔 하다가 겨우 세탁소 일을 하며 착취당하고 있는 중국 여성은 거의 대사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하며 '남편'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키워나간다. 몽환한 스토리였다. 참으로, 착취 관계에 '사랑'을 집어넣고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 심지어 돈 때문에 위장 결혼한 한국남성을 아름답고 젊은 신부가 사랑하게 되는 설정은 정말 그들의 판타지답지 않은가.

언론에서 이주 여성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는, 피해 여성들의 법적인 권리 보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다룬다고 해도 가부장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인식에 기반한 경우도 많다. '당신의 딸이나 아내를 선진국의 남성들이 사간다면'이라는 구호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여성 인신 매매국이라는 오명을 씻자고, 우리가 인권3등국일 순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글에 이르기까지. 이주여성들의 피해 상황과 인권은 최악의 경우 '한국남성의 권익'에 가리거나 그나마 '한국 남성의 자존심, 명예'를 끌어내리는 국제적 수치일 뿐이다.

이주 여성 성매매의 역사와 현황¹⁾

• 이주 여성 성매매에는 한국 지역으로 국제인신매매되는 외국인 여성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성매매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한국여성도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주 여성 성매매의 역사와 현황에서는 한국 여성들 사례는 간략하게만 언급되는 것으로만 다뤄졌다. 최근까지도 이주 성매매를 하고 있는 한국 여성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인 연구자의 연구 활동이 미약한 상태로 남아있다.

수많은 한국여성들이 1950년의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제적 성매매로 내몰려 왔다. 전쟁과 가난, 외국군대의 주둔 등의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을 성매매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심각한 가부장적 남녀 불평등 때문에 한국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고, 이러한 저학력과 성차별은 시장경제에서 여성들을 철저히 소외시켰다. 또한 의화회득을 위한 정부의 관광정책은 성적 측면에서 진행되면서 성매매를 더욱 확산시켰다.

오늘날 같은 이유로 이제는 외국의 여성들이 한국의 성매매 업소로 인신매매되고 있다. 필리핀,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지의 여성들이 이미 국내로 유입되어 있다. 경기도 내 기지촌의 현황 조사 자료²⁾를 보면 기지촌 지역 성매매 여성(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뽕집, 동거여성, 허파리 여성)은 2년 사이에 감소하고 있지만 필리핀 여성은 그 수가 유지되고, 러시아 여성의 경우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계	외국인여성			여성 합계
		필리핀 여성	러시아 여성	계	
1999년	1,269(61%)	636(31%)	149(8%)	784(39%)	2,052
2001년	386(24.6%)	671(42.7%)	512(32.7%)	1,183	1,569

한국이 국제적 인신매매의 세계적인 고리에서 본격적으로 도착국/유입국이 된 것은 1996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노동자로 입국한³⁾ 외국인 여성들 중에서 소수의 여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여성들은 공장에서 실직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내에서의 일자리를 구하였다.

그런데 1996년 미군기지촌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합법적인 조직인 특수관광업협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성매매 업소로 인신매매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이 여성들에게 E-6비자(공연예술비자)를 허가하였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조직은 1996년 봄에, 주로 미군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미군 기지촌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미리 소개비를 받고 여성을 주문받은 후, 수개월 후에 주문받은 숫자대로 필리핀 여성들을 입국시켜서 각 업소마다 할당하였다.⁴⁾ 그리고 1997년 연예인의 도입업무를 맡는 송출에이전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되면서 연예인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지역적으로 볼 때 엔터테이너 외국여성이 집중적으로 수입된 곳은 동두천, 평택 송탄, 군산, 왜관 등의 미군기지 주변의

- 1) 이 글은 독자적인 저작이라기 보다는 「이주노동여성과 국가간의 성매매」(백제회), 「한국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의 실태와 해결방안」(김현선,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공동대표),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의 실태와 해결방안」(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한국사회와 여성이주노동자」(모경순) 등의 글을 참고로 재구성한 것이다.
- 2)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에서 1999년과 2001년에 2회에 걸쳐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자료이다.
- 3) 1991년부터 한국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본의 모델을 참고로 한 '외국인을 위한 산업기술 연수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시하였다.
- 4) 김현선, 「미군 기지촌의 국가 간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실태」(2002년)

유흥업소들이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과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이태원 등이다. 그리고 동두천과 평택 기지촌 지역과 이태원은 현재 관광특구⁵⁾로 지정되어 있다.

외국여성이 한국의 성산업으로 수입될 때 이용되는 비자는 예술홍행비자(이하 엔터테이너 비자)인 E-6 비자⁶⁾이고, 이는 한국여성이 일본이나 미국의 성산업으로 이동할 때 역시 이러한 자격을 필요로 한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의 통계현황에 따르면 엔터테이너 자격으로 온 외국인이 1994년 649명에서 1998년 2150명으로, 2001년에는 858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E-6비자로 입국한 여성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필리핀(23%)과 러시아(50.4%)가 압도적인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예술홍행입국자 수, 출입국관리현황(1994~2002년)

	전체	남성	여성
2002	6,452 ⁷⁾	1,390	5,062
2001	8,586	1,615	6,971
2000	7,044	1,466	5,578
1999	4,486	1,094	3,392
1998	2,105	760	1,345
1997	2,211	983	1,228
1996	1,550	762	788
1995	1,009	664	345
1994	649	414	235

표) 예술홍행입국자 여성 대륙 및 국적별 분포(2001년)

	국가	명
아시아주계 (3,067명)	필리핀	1,599
	우즈베키스탄	904
	중국	240
	키르기스스탄	111
유럽주계 (3,804명)	카자흐스탄	74
	러시아	3,518
	우크라이나	97
	벨로루시	75
기타	100	
합계	6,971	

예술홍행비자 입국자 중에서 1997년에는 필리핀 여성이 다수였으나, 지금은 한국남성들이 선호하는 러시아여성이 크게 증가하여 미군클럽, 전국의 나이트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성매매는 인신매매조직과 포주, 손님, 정부 모두에게 큰 이득을 주었다. 인신매매 조직은 한국여성보다 이주여성들을 더 쉽게 속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에 대한 손님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큰 이득을 얻고 있다. 포주는 한 임금으로 더 많은 여성들을 고용할 수 있고, 여권만 손에 쥐고 있으면 쉽게 여성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여러 인종의 여성들, 특히 백인 여성들을 성매매하면서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자연히 이주 여성들이 인신매매된 업소와 지역에는 국내외의 손님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인신매매 조직과 포주들의 이득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제 성매매는 처음에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소수의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착되고 있다.

5) 관광특구의 목적은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전 관광 개발"이며, 내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사업자에 대한 일부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융합한 여성들, 특대를 타고 달리는』 194페이지 3번 각주)

1999년 전국 19개 관광특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 이태원, 부산 해운대, 대전 유성, 경기도 동두천, 평택시 송탄, 강원도 대관령, 설악, 충북 속리산 수안보온천, 충남 보령해수욕장, 아산온천지역, 전북 무주구천동, 내장산, 전남 구례, 경북 경주시, 백암온천, 경남 미륵도, 부곡온천, 제주도> 이중 동두천과 송탄 기지촌은 관광지가 아닌 기지촌지역으로 관광특구가 되었다. 동두천 보산동은 1997년 1월 18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6) E-6 비자가 이주 성매매를 위한 통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외에도 관광비자(B-2)나 단기방문비자(C-3)를 통해서 국내에 입국하기도 하며, 위장결혼이나 밀입국의 통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7) 2001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3등급 국가로 규정되었고, 국제인신매매 통로로 이용되던 E-6 비자 발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연에 홍행비자 발급자 수가 감소하였다.

이주 여성 성매매의 배경

0. 이주 여성 성매매를 바라보기

여성들의 이주와 성매매는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초기 단계에서 산업화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촌 출신 여성들이 성매매 지역으로 유입되었듯, 세계 경제 체제가 애기되고 있는 오늘날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서 여성들은 생존, 가족 부양이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성매매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성매매를 위한, 혹은 성매매를 통한 여성의 국제적 이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경계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여성들의 '노동성' - 빈곤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습 - 을 부정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철저히 물건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¹⁾,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 노동에 있어서 이들의 노동적인 선택만을 부각시킨 나머지 성매매 여성을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의 성매매 구조는 무시한 채 이주 노동력의 관점에서 개인 여성들만을 '자발적인' 'sex worker'로 규정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주 여성 성매매에 있어서 이주 여성은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했다는 점 때문에 언제나 sex worker로써 후자의 모습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외국 여성이 한국 성산업으로 수입되고 있는 문제를 단순히 외국노동력의 범주에서 설명한다면, 이는 외국 여성의 성매매 문제를 한국의 성매매 문제와 분리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외국여성이 한국의 성산업에서 성적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사회의 성매매의 구조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²⁾

최근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성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 성매매 여성들을 한국 사회의 성매매 구조와 분리시켜 보는 것은 이들의 이주 자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성매매였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E-6비자를 통한 성매매 지역 유입이나 우편주문신부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는 포주나 에이전시, 구매납성이 없었다면 여성들의 이주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입국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성매매 지역에 유입된 이주 여성에 있어서도 성산업으로 이주 여성을 유입시키는 한국의 성매매 구조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지 않는다면, 이주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내려질 수 있다.

가난으로 인해 가족을 부양해야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없는 여성들에게 자국 내에서의 저임금과 여성실업구조는 빈곤의 여성화를 가중시키고, 이러한 여성들에게 해외이주노동은 최선의 선택, 또는 대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해외이주노동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은 남성에 비해 제한적이고, 특별한 교육이나 기술을 갖지 못한 여성에게 외국에서 돈을 벌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경제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곤과 실업이 지속될 때, 여성매매는 더 이상 강제적 형태를 띠지 않는다. 이미 외국의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은 해외이주노동자 - 엔터테이너 - 라는 공식적인 지위와 노동계약을 하게 되고 여성과 그들의 가족의 '동의'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성이 sex trafficking 구조 안에 있을 때, 여성은 직간접적인 형태로 경제적, 성적으로 착취 받고 있으며 이주자로서의 열악한 지위 속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산업 내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동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강제성을 의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대해 주장하는 것을 주저한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여성의 성매매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매체들은 외국여성이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매춘하는 것을 주저한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여성의 성매매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매체들은 외국여성이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매춘

1) 성매매 여성을 물건으로 대상화하는 것과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로 정체화/주체화하는 것은 다르다. 성매매에 있어서 피해 여성 주체나 노동성 개념이 성매매 행위에 있어서 여성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성매매 자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경험을 듣고 위치 지우는데 있어서 피해 여성이 배제된 채 성매매에 대한 '진술'에만 - 이렇다 보면 정작 '피해자 여성'은 사라져 버린다 - 집중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주 성매매 여성을 단지 국제적으로 매매된 '물건'으로만 바라보는 순간, 이주 여성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제출국이나 비자 금지 등으로 오판될 수 있다.

2) 백재희, 「이주노동여성과 국가간의 성매매」

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AIDS와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취하고 있다. 종종 매체에서 다루는 외국여성들의 모습은 가난한 나라의 불쌍한 딸로서 일관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볼 때 - 여성들이 선택했다, 강제가 보이지 않는다 - 고 했을 때, 한국의 성산업에서 경제적 성착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적행동을 의심하거나, 매춘이나 불법체류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만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게 된다. 연구기간동안 만났던 여러 매체의 기자들은 말한다. '매춘을 강제로 시키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을 문제삼을 수 있는가. 그들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이다.³⁾

1. 이주 여성 성매매의 국가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 알아보기

이주 여성 성매매는 이주를 통한 성매매이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왜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구촌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자신이 태어난 국가를 떠나서 전혀 다른 언어,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주는 선택하기도 실행되기도 어려운 행위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어느 나라에서나 그 지위가 인정되는 선진국의 고학력 전문직 출신도 아닌, 제3세계 국가의, 그리고 여성이라는 처지는 이주민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하락시킨다. 하지만 많은 저개발 국가 사람들은 약소국 약소인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주를 결정한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밀입국선을 타기도 하고, 여행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를 하거나, 이주 노동 에이전시나 국제결혼 에이전시에 등록을 하기도 한다. 제3세계 여성들이 이주를 꿈꾸는 것은 바로 출신국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지만 이주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여성 운동가 아이다 산토스는 필리핀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⁴⁾

- 1) 필리핀 정부의 공식 이주정책이 여성의 이주를 촉진시켰으며, 다양한 정부기구들과 모집 기관과의 협력 하에 활성화되었음.
- 2)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돌보는 일과 남을 즐겁게 하는 일, 즉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성고정관념이 직업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됨.
- 3) 농촌의 피폐와 토지소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이 빈곤을 심화시키고 더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내몰게 됨
- 4)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지원체계의 붕괴에 따른 여성가장의 증가
- 5) 여성들에게 나은 직장, 나은 기술, 나은 미래를 보장해줄 취업기회의 부족
- 6) 빈곤 가정의 여성 소득 의존도 증가
- 7) 보다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의 이주 여성노동력에 대한 요구
- 8) 고용국(destination countries)의 경제성장
- 9) 출신국 및 고용국에서 여성의 재정 및 경제 그리고 자율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
- 10) 고용국에서 여성 및 남성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외국노동력 필요성의 확대
- 11) 고용국에서의 스톱워크 등 "유혹"으로 가장된 성매매 및 그와 관련한 성산업 활동의 일반화

아이다 산토스는 출신국과 고용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이주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들은 필리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한국에서 경험되는 다른 이주 여성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 의 성매매 유입 배경을 다루는 데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3) 백재희, 「이주노동여성과 국가간의 성매매」

4)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 '빈곤의 여성화'⁵⁾

'세계적인 빈곤의 여성화'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는 1%에 불과하고, 빈곤 상태의 세계 인구 중 대다수는 어린 소녀를 포함한 여성들이다. 특히 저개발 국가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을 육성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제산업의 수혜자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제외된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업 산업은 '희생양'이 되고 농촌 출신 여성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 빈민이 되곤 한다.

캐슬린 배리는 성적 착취의 단계를 4단계로 보고, 세 번째 단계를 성산업화(Sex industrialization) 단계로 보았다. 성 산업화 단계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이 대규모로 상품화되면서 산업화되는 단계이다.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여성 노동력은 주변화되거나 가치 절하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상당수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로 유입되게 만든다. 이 단계에서의 성적 착취는 신체적 강제나 노예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빈곤과 여성들의 직업기회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성매매는 강제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⁶⁾

여성들의 이주가 빈곤의 여성화와 관계되지만 이주 여성들이 출신국에서 최빈민층이기 때문에 이주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저개발 국가에서 이주는 커다란 기회로 여겨지고, 선택된 사람들만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에 이주하는 필리핀이나 러시아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 의사인 삼촌한테 한국이 좋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고 싶었어요. 친구 3명과 함께 신청을 했지만 나만 올 수 있었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운이 없었던 거죠" (Kimberly, 가명)⁷⁾

하지만 이주 성매매 여성 중에서는 부모나 친척에 의해서 팔려서 강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90년대에 들어서 태국 농촌 소녀들의 유입이 중단되자 태국의 국경지대의 가난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중국의 어린 소녀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사창가 매매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다. 1992년 현재 태국의 사창가에서 중사하는 미얀마 출신 여성과 어린이가 40,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매매촌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주로 방콕 관광을 시켜 준다면,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또는 인신매매를 통해 때로는 가족이 알선업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

5)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표현은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문제가 되어가는 것'을 관찰한 Diana Pearce에 의해서 1971년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6) 조영미, 「태국의 매매촌에 대한 연구」

7) 새움터, 「한국의 기지촌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필리핀 여성의 문제」

넘겨 이곳으로 오게 된다. 이들은 폭력조직에 의해 100달러~500달러에 강제매매에 팔리게 되는데 어두운 사창가 방에 갇혀 노예와 같은 대우를 하게 된다. 태국 말을 못하는 이들에게 도망갈 기회란 거의 없는 상황이다.⁸⁾

- 가족 부양의 책임 or 압력

동남아시아에서는 딸들에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지워진다. 여성이 상위 재산 목록이 되는 것이 이들이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태국 농촌 사회는 친족이나 가족이 여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모계제 사회이다. 개별가족 내에서 연장자 남성이 권위를 가지지만 이 권위는 부계가 아닌 모계를 통해 전수된다. 결혼은 남자가 자기 집을 떠나 신부집으로 가서 합류하고 신부집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다. 재산상속도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분배된다. 가족이 이와 같이 모계적인 유대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 생산활동에 기여를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여성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위치와 책임 때문에 태국의 농촌에서는 여성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촌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매매촌을 통해 번 돈을 고향으로 송금하는 것이나, 농촌에서 그들의 매매촌에 대해 허용 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⁹⁾

그리고 최근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붕괴되고 여성 가장이 증가하면서, 여성 스스로 동생이나 자식들의 부양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주 성매매를 하게 되기도 한다.

"난 내 딸과 가족을 위해 한국에 왔어. 내 딸이 나처럼 성장하지 않게 하고 싶어. 필리핀에서 나는 한 달에 150달러를 벌었는데, 그 돈으로는 내 딸과 동생들을 부양할 수 없었어. 난 3명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 아직 막내가 11살밖에 안됐어. 동생들은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나이이고, 필리핀에서 딸들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거든." (Jill, 가명)

한국의 성산업에 유입되는 필리핀 여성의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마쳤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 여성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다.¹⁰⁾

여성에 대한 이러한 가족 부양 책임 때문에 가족이 딸들에게 이주 노동/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다.

"저희 아버지와 삼촌이 안여사라는 여성과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전 자세한 사항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여기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춤을 춰야 한다는 것은 몰랐어요.

여기에 도착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에서 춤을 춰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그럼 취하지, 넌 이미 거기에 있잖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얘기했고, 그들은 울면서 제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들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건 너희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죠."¹¹⁾

- 국가적 차원의 이주 지원(필리핀)

필리핀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이주를 장려한다. 필리핀 정부의 이주정책은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해외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은 가정부 혹은 '연예인'으로 일하고 있다. 해외 필리핀 여성은 일반적으로 해외 필리핀 남성에 비해 더

8) 조영미, 「태국의 매매촌에 대한 연구」

9) 조영미, 「태국의 매매촌에 대한 연구」

10) 새움터, 「한국의 기지촌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필리핀 여성의 문제」

1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젊다. 여성들은 또한 어린 나이에 불법적으로 모집되고 있다. 조사들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이 18세 이하 또는 20대 초반에 모집됐고 이들은 불법적으로 모집되어 인신매매를 당했다. 합법적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더 어른스럽게 외모를 꾸며 실제 나이를 속이고 있다. 유흥업 혹은 성산업에서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도 거래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든 것으로 간주된다.¹²⁾

정부 차원의 이주 활동 지원은 해외 송출업자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만든다. 송출업자들은 한국 모집업자들과 결탁해서 보다 많은 필리핀 여성들을 한국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게 만든다.

- 한국 사회의 성매매 구조

이주 성매매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지역은 기지촌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촌 지역으로의 성매매 여성 유입 감소는 기지촌 지역 경제인들과 포주들에게 위기감을 주었다. 미군이 지역 기지촌을 벗어나 서울 지역으로 이탈함에 따라 기지촌에 경제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는 쇠퇴하고 포주들은 수입이 감소하였다. 기지촌에서 포주들은 위기 타개책으로 외국인 여성들을 대규모로 유입시켰다. 필리핀 여성들은 영어를 사용할 줄 알고, 젊었다. 그리고 미군 남성들에게 동양적이고 순종적인 성적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주 성매매 여성의 경우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인 경우가 많은데, 업주들은 이를 빌미로 이주 여성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성매매 강요, 불법감금, 협박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다. 결국 업주들에게 있어 이주 여성들은 한국 여성에 비해서 통제가 쉬운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비록 E-6 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엔터테이너'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 계약 또한 '엔터테이너'로 한다 - , 이들의 입국을 위해 돈을 지불한 성매매 업소 업주들은 이주 여성들을 '엔터테이너'로만 놔두지는 않는다.

"물 한 병이랑 채찍을 들고 미군들 앞에서 춤을 춰야 했었어. 무대에서 옷을 벗고 몸매다 물을 뿌리고 미군한테 가서 춤을 추는거야. 그러면 그들은 내 몸을 만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했어. 그리고 어떨 때는 초콜릿을 몸매다 바르고 춤을 추거든. 그러면 어떤 미군들은 그 초콜릿을 먹기도 해. 이런 쇼를 하면 월급을 조금 더 받거든." (Ellen, 가명)¹³⁾

위 사례는 비록 기지촌의 미군 대상 업소에서의 경우지만 한국인 대상 업소에 고용된 이주 여성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춤을 추는 '엔터테이너'의 실상이 한국 사회의 성매매 구조에서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클럽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요 ... 한국남자들은 왜 우리가 모두 여기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나요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성매매를 하는 몇몇 여성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안하는 여성들도 있다는 거예요..."¹⁴⁾

- 한국 남성들의 성적 수요¹⁵⁾

국가간의 여성매매의 문제를 가난과 여성개인의 문제 또는 국제적인 성산업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들의 문제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저개발국의 여성이 매매되는 것은 단지 보내는 나라의 가난과 실업, 받는 나라의 고임금과 인력난과 같은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2) 필리핀 여성운동가 아이다 산토스(Aida F. Santos)의 필리핀 상황 분석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3) 새움터, 「한국의 기지촌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필리핀 여성의 문제」

14)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15) '한국 남성들의 성적 수요' 부분은 백재희씨의 「이주노동여성과 국가간의 성매매」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외국여성의 성이 매매되는 기저에는 외국여성의 성에 대한 성애화를 부추기는 장치와 외국여성을 '새로운 성적대상'으로서 요구하는 남성의 성적수요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외국여성의 성이 매매되는 것은 그에 대한 성적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지촌의 성산업에 외국여성이 수입된 것은 미군남성수요를 위한 것이었지만, 기지촌 외에도 한국사회의 다른 성산업에는 한국남성수요에 맞추어 러시아 등의 외국여성이 수입되고 있다.

외국여성에 대한 성적수요는 새로운 성적욕망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호기심은 개인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종이 다른 여성의 육체에 대한 특정한 성적이미지를 구성하게 되고, 인종이 다른 여성의 육체를 끊임없이 상품화시킴으로써 성적욕망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이미지는 인종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지만 종종 동양여성과 서양-백인-여성이 대비되어 선호되고 소비된다. 서구남성들에게 동양여성은 오리엔탈리즘의 신비로움과 순종적인 성적대상으로 인식되고, 반대로 동양남성에게 서양여성은 포르노에서 보아오던 관능적인 배우, 개방적인 성적행위자로서 인식된다.

"서양여자들은 아주 물질적이지만 동양여자들은 attention만 주면 돼. 여기는 한국여자, 필리핀여자, 러시아 여자들이 있어. 아시아 여자들은 좋아. 그들은 남자에게 잘해주고 아주 충성스럽거든. 아시아 여자들은 아주 작고 안았을 때 품에 꼭 안기는 것도... 러시아 여자들도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부드러웠어. 다음에 내가 근무지를 옮긴다면 난 파나마로 가고 싶어. 그곳에 가면 스페인여자와 혼혈여자들이 있어. 아주 다양한 여자들이지. 피부색이나 외모, 언어도 다른 여자들이 많아.(미군)"

"러시아 여자랑 다니면 다 쳐다보죠. 특히 남자들은 부러운 듯이 쳐다봐요. 러시아 여자들은 가슴도 크고 피부색도 다르고.. 나이트클럽 같은데 가서 러시아 여자를 안고 부르스를 출 때, 그 여자 가슴이 너무 커서 가까이 안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걸 보면 남자들은 날 부러워하죠. 그러면 여짜가 으쓱해져요. 웨이터들도 대우가 달라져요... 마치 내가 007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지. 제임스 본드와 본드 걸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글래머 한 여자들이. 물론 동양여자도 본드 걸이기도 하지만 보통 금발에 쪽쪽 뽀은 여자들이 본드 걸이잖아요. 그런 외국여자를 내가 옆에 끼고 다닌다는 게 꼭 영화주인공이 된 것 같다는 거죠. (한국남자)"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종차별과 인종배타주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인종의 여성에게 있어서는 예로택한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다른 피부색과 머리색, 다른 민족, 다른 국가가 주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여성에게 있어서는 배타적이거나 거부감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은 인종에 따라 육체와 성적이미지로만 이해됨으로써 새로운 성적기호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 성매매 여성의 국제적인 이주 경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 번째,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하게 되면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

여성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공장에 취직한다고 해도 공장에서 실직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장 내에서의 폭언, 폭력, 혹독한 노동조건으로 견딜 수 없어 공장에서 도망치기 쉽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여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위험을 안으면서도 불법체류자로 남는 것을 선택한다.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다른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많은 대가 - 송출비용 지급 등 - 를 치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법 체류를 할 경우에,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합법적으로 취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라는 상태를 악용하여 공장에서도 착취당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성매매로 유입되기 쉽다.¹⁾

두 번째, 알선업체를 통해 각종 비자(연예인비자, 관광비자, 배우자비자 등)로 들어오는 경우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예인비자(E-6)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와서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되며 술을 팔거나 성적 서비스 제공, 스트립쇼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필리핀 여성들이 이 비자로 들어오며, 러시아 여성들은 관광비자로 들어오기도 한다.²⁾ 이들은 6개월에서 연장을 통해 1년까지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한국과 (이주여성들의) 본국에 각각 모집기관과 송출업체, 즉 알선자들이 있다. 흔히 agency라고 불리는 업체들인데, 그들은 조직적으로 본국의 여성들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보내어 클럽들에 분배한다. 보통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모집된다.³⁾ 먼저, 친구, 한국 클럽에서 일한 사람, 한국과 본국의 송출업자로부터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송출업자를 찾아가서 오디션이나 면접을 본다. 이 때 한국 클럽 주인이 와서 나이, 인종, 미모 등을 기준으로 직접 여성들을 고르기도 한다. 그리고 송출업자가 연예인 비자(E-6)를 얻어주면 자신의 그룹과 함께 한국으로 직접 오거나 비자를 얻기 위해 제 3국(홍콩이나 방콕)으로 간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한국의 agency, 매니저나 클럽 주인이 이들을 맞고, 이때부터는 한국 매니저가 이들을 관리하며 각 클럽으로 보내지게 된다.

알선자들이 여성들을 유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보통 한국으로 가는 것이 비교적 쉽다 - 일본의 경우 필요한 서류

- 1) 새롬터, 이주여성인권연대,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2001
- 2) 1999년 부산 성매매지역에 있는 러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대부분이 관광 및 경유비자인 B-2비자나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체류비자(C-3비자)를 가지고 입국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은 국내 시사잡지와 인터뷰에서 2001년 중반 한국에 체류하는 러시아 여성은 4,500~5,000명이고, 이들중 2,300명이 E-6비자로 입국하였고, 약 2,500명은 단기체류비자인 C-3비자나 관광비자인 B-2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내로의 국제인신매매에 관한 자료검토』 재민용)
- 3)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실태조사보고서 :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2

를 갖추는데 수개월 걸리는데 반해 한국은 2주면 가능 - 는 것, 한국으로 가는대는 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남성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그들과 춤만 추거나 이야기 상대만 되어도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많은 월급과 좋은 노동환경 제공)으로 여성들을 모집한다. 혹은 클럽에 가서 스트립쇼나 성매매를 해야 하는지 의심하는 여성에게는 자신이 소개하는 클럽은 그렇지 않다고 속이기도 한다.

그리고 알선자들이 모든 서류와 비자 신청을 처리하며, 미성년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짜 여권을 만들기도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름을 바꾸거나 가짜 여권을 만든다. 여성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적게는 US10\$에서 US1000\$ 이상을 지불하여 오기도 하며, 일단 지불은 하지 않더라도 빚으로 남아 월급에서 깎이는 방식으로 알선자들은 이득을 취한다. 계약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 여성들이 읽을 수 없으며, 알선업자가 내용을 이야기해주지만 그들을 여성들을 월급과 노동에 대해 속인다.

때로 알선업자들은 한국의 직장에 대해 속이기도 한다. 클럽이 아닌 공장에서 일하며 높은 월급을 준다고 하고 한국으로 보내어 클럽으로 바로 넘겨지기도 한다.⁴⁾

세 번째는 우편주문신부Mail-Order Brides 형태(국제매매혼)

성매매이자 중매혼의 형태를 띠는 우편주문신부는 다른 대안이 없는 빈곤한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 외국인과의 결혼하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우편주문신부는 베트남전쟁 이후부터는 중요한 성산업으로서 기능하며 서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일본, 미국 등지에서 기반을 다졌다.⁵⁾ 우리 나라에서는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예측된다. 곳곳에 붙어있는 "베트남 처녀 결혼"에 대한 홍보물들과 국제결혼중매를 인터넷사이트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사이트들⁶⁾의 증가를 보더라도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국제매매혼 역시 중간 알선업체가 있는데, 이들은 각 나라에서 여성들을 모집하고, 남성들의 구미에 맞도록 교육시키고, 중매업체에게 여성들을 넘긴다. 남성구매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중매업체들이 남성들을 각종 광고를 통해 모집한 후, 여행 형식으로 그 나라에 가서 여성들을 고르도록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의 서류 작성 등은 알선업체에서 하며, 남성들은 4박 5일 등의 관광 형식인 두 세 차례의 '맛선'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여성들을 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약혼 비자나 배우자 비자 등으로 여성들이 들어오게 된다.

- 4) "베트남의 하노이에 거주하던 20대 초반의 여성 6명은 현지한국기업(노동부에 해외인력파견사업 허가를 얻어 영업중에 있던 업체)으로부터 한국의 봉제공장에 가서 월 미화 500\$을 받고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알선을 받고, 계약금으로 각자 미화 5,000\$에서 6,000\$ 사이의 금전을 현지에서 지급하고, 2001년 중순 입국하였다. 입국 즉시 최초 계약과 달리 송탄미군기지 앞 유흥업소로 가게 되었고, 당일 저녁 송탄에 도착하자마자 유흥업소의 무대에서 속옷차림으로 춤출 것을 강요당했다. 모두 경악하여 업소를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였다. 3명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나왔고, 2명은 수차례 자살시도를 한 끝에 쫓겨났(!)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내용은 유흥업소에서 도망나온 여성중 1명이 산재보상을 받고자 여권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남은 1명의 여성을 구해달라는 상담을 받은 것이다. 본 단체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방문했으나, 남은 1명의 여성은 끝내 찾지 못했고, 당 업소주인은 베트남으로 돌아갔을 거라고만 하였다. 한편 업소주인은 수십개에 이르는 알선업체(기획사)들의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 중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하였다.
현장방문후 전화확인한 결과 베트남의 가족들은 위 여성과 5개월째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로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같은 입국을 알선한 업체가 노동부에 의해 폐업조치되어, 관련자들을 찾기가 곤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다." - 이금연(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인권연대), 『국내 이주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 5)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1
- 6) 모든 국제결혼을 국제매매혼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중간에 조직적인 브로커들이 있고, 남성과객과 이들에 의해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팔리고 있다면, 그 형태가 어찌되었든 여성매매임은 분명하다. 중매혼과 매매혼 구분의 애매함에 대해서는 대안부분에서 좀더 언급할 것이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출신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 이며, 한국 여성들 역시 호주, 미국, 일본 등에 우편주문신부로 모집되어 팔려가고 있다. 국제매매혼의 유지와 증가는 남성들의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욕구와 부합하여 굴러가고 있다. 우리 나라 국제매매혼 대행 업체들의 홍보문안을 보면 여성들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 남성들을 선호한다는 점(이 내용에서는 여성 자국의 남성들이 게으르고 무능력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여성들이 남존여비, 일부종사와 같은 가부장적 가치를 소유한다는 점, 여성이 처녀라는 점 등을 강조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는 중앙아시아이므로 아시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이므로 아직도 남존여비사상이 잔재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현지 우즈베키스탄 원주민은 아직도 일부다처제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그 옛날 30년-50년 전에 우리네 어머니 세대가 가지고 있던 아직도 때묻지 않은 소박함과 순수성이 있으며 한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옛날 우리네 여성들 사고방식과 거의 같으므로 우리나라의 남성이 전통적으로 원하는 여필종부형의 신부감이 많은 편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5%가 회교도(나머지는 불교, 기독교, 카톨릭)이므로 회교도의 여성은 어릴 때부터 여성은 남성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교육 받고 자랐다. 따라서 회교국가의 여성은 어느 나라 여성보다도 남성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다처제가 음성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은 결혼하면 숙명적으로 남편한테 예속되어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필리핀은) 카톨릭(구교) 국가이므로 헌법에 이혼이 금지돼 있으므로 여성들의 의식구조가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 따라서 한번 시집오면 평생 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일부종사한다. 필리핀 신부의 장점은 옛날 우리네 신부들 처럼 순종 복종한다는 것이다. (초혼의 여성인 경우는 거의가 순처녀이다)"

"베트남 초혼여성들은 거의 순처녀가 많으며 작고 날씬하며 예쁜 편임. 결혼을 신청한 여성들은 보통 20대이며 한국 남성은 45세까지 별로 따지지 않으며 술 담배는 거의 하지 않는 편임. 베트남 여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처럼 한번 시집오면 일부종사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으므로 한번 시집오면 거의 헤어질 커릴이 없음."

우리나라에서 서구와 다른 국제매매혼의 배경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점을 장점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남성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젊고, 순결하며, 순종적인 여성을 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타 국제매매혼의 성격-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원하는 남성들을 만족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렇게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들어왔을 때 그녀들이 처한 취약한 위치로 인해 폭언, 폭력 등에 참고 견디거나, 도망쳐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현행 국적법에는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에서 2년 이상 머물러야 귀화 신청 자격이 생긴다) 불법체류자의 위치에서 성매매로의 유입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주 성매매 여성실태 #1

여성들에게 주는 월급은 클럽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월급을 합의한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송출업자들은 여성들에게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려준다. 사실 여성들은 계약서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만을 볼 수 있다. 몇몇 여성은 클럽에서 일하면서 합의한 월급을 받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계약한 것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다. 또한 여성들은 모집 과정에서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와서 여기에 든 비용을 갚아야 한다. 이로 인해 모집 과정의 매니저들은 1~6개월 동안 여성들 월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간다. 또 일부 클럽들은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일정 기간 월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만으로 시까지 보관한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주스판매제와 주스할당제를 실시한다. 주스를 판매한 여성들에게는 일정한 액수의 커미션이 주어지는데 커미션은 클럽에 따라 다르다.

바 파인은 손님들이 클럽에 있는 여성과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고자할 때 클럽 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바 파인(흔히 한국에서 2차로 불린다)은 클럽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일종의 제도로서 업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조장하고 강제한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클럽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바 파인을 지불한다. 다른 말로 바 파인을 지불한 손님들과 나가는 여성들은 그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보통 주중에는 (월~목) 7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금~일) 11시간 일한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주중에는 보통 오후 5~6시 사이에 문을 열고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문을 닫는다.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 2~4시 사이에 문을 열고 새벽 1~3시 사이에 문을 닫는다. 일부 클럽들은 미군들이 통행금지 시간이 돼 기지로 돌아가고 나면 다른 국적의 손님들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 클럽들은 새벽 2~5시까지 영업을 한다. 또 바 파인으로 나갈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위에서 언급한 시간보다 길어진다.

클럽들은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벌칙을 적용한다. 여성들은 늦거나, 지각할 때, 근무 중 쉬었을 때, 경찰이나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 얘기했을 때 등의 경우에 벌금을 내야하거나 업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당한다. 클럽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각과 결근이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여성들이 결근했을 때 US\$2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각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벌칙을 적용한다. 주스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도 한 달에 1일 있는 휴일을 주지 않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손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근무 중 커피를 쏟거나 담배를 피웠을 때, 다른 클럽 직원과 얘기했을 때도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유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 가장 흔한 것은 언어적 폭력이다. 클럽이 정한 규칙들을 어겼을 때 가장 흔하게 이뤄지는 것이 클럽 주인들의 언어적 폭력이고 때로는 방에 감금하는 등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손님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클럽 여성들은 클럽 안에서 손님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바 파인으로 나갔을 경우 성적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성병검사나 전염성 질환(간염이나 결핵)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건강검진이 성병이나 전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 점은 이 검진이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안전한 성행위를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기검진을 받는 경우가 없다. 정기검진을 실시하는 클럽도 여성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업주가 일단 부담하고 여성들의 월급에서 비용을 삭감한다.

많은 여성들은 알콜 중독에 가까운 상태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근무가 시작하기 전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클럽에서 일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수치심을 없애주고 용기를 줘 클럽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여성들의 거주 형태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클럽 위층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클럽에서 가까운 곳에 클럽 주인이 얻어준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이다. 모두 기본적인 취사도구와 생활도구만 갖춰진 상태이고 조그만 방에서 여러 명이 살거나 침대 하나를 두 명이 쓰는 경우가 많다. 주거비용은 클럽 주인이 부담한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은 클럽 주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여성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식비는 클럽 주인이 일정한 금액을 주거나 직접 음식을 사다주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식비나 주인이 사다주는 음식이 충분치 않아서 추가로 자신들의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사다주는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들은 주로 클럽이 문을 닫는 오후 시간에 (난 12시부터 5시 사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유시간은 12~3시, 1~5시, 1~3시 등 클럽마다 다르다. 그러나 주말에는 클럽들이 일찍 문을 열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떤 클럽들은 자유시간에 여성들이 동행 없이 나가도록 허용하지만 어떤 클럽들은 동행 없이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상황에 따라 자유시간이 제약되어지기도 한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도망치는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도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클럽에서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클럽보다는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해 도망치거나 클럽과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국으로 돌아가기 싫어 도망친 경우도 있다.

현재 한국의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생활은 이러하다.

이주 성매매 여성실태 #2

- 생존여성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몇 년 사이 한국에서 이주 여성 성매매가 크게 증가했다. 지하철역, 러시아 언니들이 나이트클럽 전단지를 아저씨들에게 전해주며 "금발미녀예요"라고 발음하는 장면을 보았다. 다음메일로는 우편주문신부에 대한 자세한 광고가 도착했다.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농촌 총각과 장애인을 위한 베트남 처녀 결혼'에 대한 플랭카드가 걸려있다. 체감만으로도 알 수 있을 만큼 늘어만 가는 이주여성 성매매의 규모와 유형들. 기지촌 주변 클럽의 이주 여성성매매 실태를 살펴보자.¹⁾



1995년 필리핀 여성들이 기지촌 클럽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클럽에서 다들 춤만 댔어. 지금은 애네들 춤출 때 거의 옷을 안 입어. 어느 클럽에서 필리핀 애들이 나체로 춤을 댔다 그러면 포주가 아 이년들아 저 집은 하는데 너네는 왜 못하나 그러면 해야 하는 거야 이제."

필리핀 여성들이 처음에는 공연이나 쇼만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하여도 끊이지 않는 포주들의 압력과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 포주들의 극심한 착취도 이어진다.

"포주가 너 나체로도 춤추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술 따르고 그러면 돈도 벌고 그게 그거지하면서 몇 번 그냥 테이블에 앉히니까 돈이 더 생기거든. 그런데 주스를 100잔 팔라고 정해놓고 한잔에 3천원, 2천원을 주는 거야. (포주가 70% 이상을 갖는다.) 그러면 하루에 3만원 모아도 생활비하고 자기 돈으로 꾸미고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남아. 그래서 2차를 나가면 20만원 중에 4만원 가지고 나머지는 다 포주 몫이야."

벌금과 생활비, 옷값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포주 장부 속 빛은 쌓여가고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언니들은 버겁기만 하다. 많은 언니가 고향집에 돈을 보내야 한다.

"나랑 같이 지내던 애가 있는데 개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해서 돈을 부치라고, 부치라고 하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음청 울었다."

"필리핀같은 경우에 딸은 재산목록이야. 1호, 2호, 3호 순서대로 다른 나라에 팔아넘길 수가 있거든"

또한 포주들은 언니들이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일하기를 원한다. 또 언니들은 성폭력 경험을 반복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속에서 술을 마셔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포주는 술을 먹지 못하거나 마시지 않는 언니들에게 폭력을 가한다.

"술 안 먹으면 욕하고 문 앞 지키는 젊은 애들 시켜서 굴방에 넣고 패는거야."

언니들이 업소에서 탈출하면 포주들은 출입국 관리소에 언니들을 불법체류로 신고한다. 들어올 때 허락받은 입국목적에서

1)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매매 현장 단체 '새움터'를 구성하고 계신 언니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벗어나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 동두천의 수많은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상태다. 언니들이 업소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언니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선택중 하나는 미군과의 동거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동거는 성매매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피임을 요구하는 위치에 설 수 없는 많은 이주여성들이 지속적인 임신과 출산으로 고통 받는다. 동거자의 폭행도 빈번하다. 당장 먹을 것과 잠자리가 필요한 언니들을 동거자는 성적 대상으로, 가정부로 때로는 수입원으로 이용한다.

“클럽에 나가던 여자고 지금은 업소에 안나가는 애에게는(포주의‘보호’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미군이 넌 내 밥이다 라고 할 때...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마마상에게 넘기겠다는 협박도 하고.”

이처럼 불법체류자이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이주여성은 견고한 가부장제 틀의 ‘만만한’ 상대가 된다. 언니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적합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다. 때로는 공장에서 만난 자국의 남성이나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결코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언니들의 슬픈 경험은 언니를 닮기 쉽게 하는 협박거리로 존재한다. 동거인이나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언니들은 아이를 떠맡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자리도 제한된다. 탈출한 후에도 갖가지의 폭력에 노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언니들은 다시 성매매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여성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남성 가해자들이 삭제되어있다. 이는 언니들을 인신매매하는 포주들의 행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필리핀 여성의 E6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사실로도 금방 드러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포주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오가며 여성을 매매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규제하고 있는 것인가. 금발의 미녀에 대한 동경과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구매자들이 정상인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주여성은 왜 불법체류자가 되어 불안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까. ‘상품’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은 사회에서 무존재로 파악된다. 사회는 ‘그’들만을 존재로 전제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동두천에서 물난리가 크게 났었어. 그 때 물에 떠내려간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니깐 누구지도 모르고 수를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말 안하고 덮어두어서 그렇지 엄청 죽었어.”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깐 난로 뚜껑을 열고 연탄을 두세 개 올려놓고 안에서 문을 잠궈. 아침에 같이 밥 먹던 친구들이 저녁에 죽어있어. 많이들 죽었어. 남산머리에 가면 아직도 아가씨만 묻는 묘지가 있어.”

정말 잔인했다는 언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돈다.

이주 여성 성매매 대안 논의

0. 들어가며

성매매에서 대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 새로운 일이 아니다. 피해여성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기존의 윤방법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언니들의 죽음이 있었고, 마침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나마 피해자로서 성매매된 여성을 바라보는 성매매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제부터 쓰게 될 이주여성성매매의 대안은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성매매문제는 특히 국제적으로 여성의 거래되고 있다는 성인신매매의 틀거리에서 바라봐야하므로 대안을 논함에 있어서도 그 범위가 좀더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E-6 비자의 심사강화

E-6 비자는 국제적인 성매매를 조장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E-6 비자의 폐지는 이주여성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뿐이다. 정부가 해야하는 일은 이에 대한 심사강화와 제도 개선이다. 성매매되어지는 필리핀 여성들의 경우 공연기획사를 가장한 인신매매조직들이 모든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데 이들은 여성들을 비자가 면제되는 태국 등으로 데리고 나가 손쉽게 한국대사관에서 E-6 비자를 발급받는다. 따라서 한국대사관은 비자를 발급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에 걸쳐 공연기획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하며, 발급된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2. 피해여성 지원과 보호

강제퇴거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변의 위협에서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피해여성의 상담과 법률적 지원 프로그램, 임시거주가 가능한 쉼터를 확충해야 하며 여기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국내 성매매에도 꼭 필요한 대안이기도 하나, 이주여성의 경우는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개의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현재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되어 즉시 본국으로 추방되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실정이다. 얼마 전 주한필리핀대사관이 자국여성의 성매매 피해에 대한 손해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피해여성들의 한국체류기간을 3주 밖에 주지 않아 사건조사가 매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국제매매혼이나 산업연수생으로 이주하여 들어온 여성들이 폭력으로 부터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¹⁾

1) 이 부분은 성매매방지법의 미흡한 점이기도 하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아예 피해자가 인신매매 사업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반(半)영주권과 같은 형태의 T비자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출국은 시키지 않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는 제도 하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은 반쪽짜리 인권일 뿐이다.

3.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강화

현재 발의된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²⁾과 보호처분³⁾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구매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성구매자의 재범율이 80%인데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은 2% 밖에 되지 않았다는 SAGE(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으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남성이 외국으로 나가 성을 사는, 이른바 섹스관광에 대한 규제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섹스관광을 오는데, '수입국'이자 '수출국'인 한국은 외국인들이 섹스관광을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남성들이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 형법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속지주의⁴⁾에 속인주의⁵⁾와 보호주의⁶⁾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한국섹스관광과 한국인들의 외국섹스관광 모두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해당 나라가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형법 제7조는 범죄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섹스관광을 알선하는 업체에 대한 감시와 처벌, 그리고 대대적인 반성매매캠페인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4. 전세계적인 여성의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이 '수입국'인 동시에 '수출국'이듯이, 여성들의 매매는 단지 한 나라의, 혹은 이 나라와 저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며 전세계적인 넓고 복잡한 그물을 형성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섹스산업은 마땅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거래'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신매매에 맞설 수 있는 세계적인 여성의 연대가 필요하며, 법의 구멍을 통해, 인권단체의 감시를 피해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는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양태를 감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5. 마지막 고민,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성인신매매

지금까지 성인신매매에 대한 대안을 꼭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국제매매혼의 경우, 명확하고 깔끔한 대안을 생각해내기가 어려웠다. 현재로선 우편주문신부나 '처녀결혼' 등 결혼이라는 제도의 탈을 뒤집어쓰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수립되어있지 않다. 이것은 '알선'의 여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의식도 적으며, 외부에 잘 노출되지도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결혼제도에 중매는 물론이고 돈이 개입되는 것은 오늘날의 일만도 아니며 그것이 전통인 경우도 있었다. 국제매매혼은 오히려 국제결혼이라는 낭만적인 포장에 싸여 널리 홍보되기도 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성매매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연락금지·사회봉사·수감명령·보호관찰·교육·상담·위탁·치료·위탁

4)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법 제2조, 제4조)

5)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형법 제3조)

6) 보호주의란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형법 제5조, 제6조)

7) 물론 이 경우 성매매범죄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성매매범죄를 가벼운 절도범죄보다 못한 정도로 인식하는 판사에게서 성구매자에 대한 적당한 형벌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두 가지 주목되어지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결혼이 대부분 조직적인 알선업체들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선택되어지는 쪽은 100% 여성, 그것도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여성이라는 것이다. 알선업체들에 의해 모집된 여성들이 결혼수수료라고 불리며 지급되는 돈에 팔려간다는 것이 성인신매매와 무엇이 다른가? 이후 결혼생활이 좋으면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남성들의 욕구와 조건 - 순종적이다, '순결'하다 등 - 에 맞기 때문에 팔려온 여성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보다 얼마나 많은 권리와 행복을 손에 쥐게 될 지는 의문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회적 위치에 처하는 이주여성들은 앞서 말했듯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성매매로 유입될 확률이 크다.

결국 우편주문신부나 처녀결혼 등의 국제매매혼이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여타의 국제결혼과는 다르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동시에 돈을 매개로 하여 여성의 몸이 매매되고 상품취급을 당한다는 점에서 성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매매혼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문제에 묶여있을 수 없으며, 국제매매혼을 조직적으로 중개하는 알선업체와 구매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등의 규제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선전 또한 있어야 하겠다.

대학에서 반성매매 운동하기

고려대학교 - 여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의 반성매매 운동을 여학생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여학생위원회는 8대 여위(2000년) 때 <여성해방제>에서 반성매매에 관한 팀을 진행하고, 새오티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2년 10대 여위는 성매매에 대한 고민의 끈을 이어서, 5월에 반(反)성매매 문화제를 열었다. - 적절한 표현이 없어 문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축제'의 성격이 아님을 여위는 강조하였다. - 반성매매 문화제를 기획하게 된 의도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편견의 벽을 뚫고자 하며, 성매매 반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행사는 사흘간 진행되었으며, 영화제, 토론, 구조물 전시 등이 있었다. 영화제의 첫 상영작은 작년 한판에서도 상영되었던 라는 스웨덴 여성감독 윌프가 성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한 작품이었다. 표현의 자유와 권력의 문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이 영상물은 스웨덴 사회에서 섹스 산업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상영작은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변영주 감독의 다큐였다. 국제성매매에 관한 아시아 보고서인 이 다큐는 한국의 '기생관광'을 중심으로 다루며 국가간의 맥락과 한국의 성문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영상물을 본 후에는 관람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자료집 글에서는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각본들/성매매 합법화와 공창제에 대한 반론/이주여성 성매매 실태/성매매 방지 특별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반성매매 문화제는 나름대로 대중적인 측면에서도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고,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3년 11대 여위는 반포르노 행사를 진행하면서, 성매매 기획 대자보를 냈고, 이번 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 기획단으로 결합하였다.

학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위의 경우 내부 사정 등으로 몇 년 전부터 새활(전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서울대학교 - 관악여성모임연대

학내에서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기지촌 현장 활동이 있는 여름, 겨울이었다. 그 시기에 기획세미나를 통해 반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었고 때로는 여모 차원에서, 때로는 단위들에서 세미나를 하였다. 그리고 기획을 다녀오는 것. 이것 이상의 학내 사업을 찾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성매매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성매매에 대해 좀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다. 반성매매를 이야기하고 언니들과 연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반성폭력 운동과 달리 반성매매에서는 언니들과의 관계맺기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면, 우리의 위치라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 때문에, 언니들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이야기할 통로를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세미나를 하고, 화제 사건과 같이 큰 일이 터지면 자보를 내고,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학내에 걸어다니고 있는 성구매자들에게 하고 싶었고, 수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언니들을 비하하는 말을 그만 듣고 싶었다.

2002년에는 세미나 이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3월초부터 반성매매 기획자보를 내었다. 세미나의 팀을 정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은 "여성, 우리에게 성매매란 - 경험의 결 따라가 보기 / "그런 것"도 못하면 쪼다"? -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관점세우기 - 성매매, 어떻게 보아야 할까? / 공창제? -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접근 / 사라지지 않은, 그러나 사라질 수 있는 - 성매매, 그 실질적인 근절을 위한 여성들의 활동"이었다. 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있었

고 얼마나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달 동안 꾸준히 매주 나가서 그런대로 사람들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기획자보를 바탕으로 4.19달리기 때 반성매매 부스를 하였다. 부스에서는 지도를 두고 성매매가 일어나는 지역에 스티커붙이기와 남성고객, 포주, 경찰에게 이주시게 함기 등을 했다. 옆에서는 계속 발언하고, 그러나 4.19 부스는 정말 지나가는 한 코스일 뿐이었고, 남성들은 자신의 위치도 전혀 알지 못하고 마구 신나게 남성고객에게 이주시게 함기 등을 붙였다. 무언가 하긴 했지만, 우리가 언니들의 이야기를 전달한 게 과연 있을까란 의문과 왜곡해서 들진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다. 이런저런 학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봐도 성매매에 대해서, 여성이 매매되고 끊임없이 폭력에 노출되는 그 상황에 대해 알려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여전히 모르겠다. 그 섬세한 결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이제는 반성매매에 대해 소위 대중적인 사업은 잠시 접어두었다. 세미나 자리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작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반대"만 반복해서 외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딜레마는 남는다.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접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구매자들이 옆에 있는데, 이 놈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언니들을 이해한다면 언니들에게 힘이 되어줄 여성들이 여기 있는데...'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숭실대학교 - 총여학생회



숭실대 총여학생회는 2002년도에 숭실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페미니즘 페스티벌에서 반성매매 이야기를 꺼내고 새오티 언니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그리고 유리방을 표현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학내에 작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조형물은 1평정도의 작은 공간에 붉은 조명 그리고 그 아래 놓인 인형으로 성매매는 돈으로 여성의 성(性)을 사는 것이고, 구매자가 없으면 이러한 성매매 피해여성도 없어진다는 것을 표현했었다.

그후 선거를 거치고 나서 가장 먼저 준비한 사업이 기획이었다. 기획학교를 가고 기획을 준비하며 세미나를 이끌어 갔다. 기획을 경험하면서 반성매매 운동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 한해동안 반성매매를 큰판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학내에서 반성매매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었다.

1학기 중에 새오티로부터 '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 기획단 제안을 받고 기획단을 함께 하며 다시금 성매매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기말고사쯤에 새오티의 수수님을 초청해서 반성매매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장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는 않았지만 일선에서 활동하는 수수님의 강연은 성매매의 실태를 바로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 당일에는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원에서 광장사업을 펼쳤다. '윤곽행위 방지법'에서 '반성매매 특별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현재 성매매 실태에 대한 자보전과 성매매에 대한 오해편견을 알아보는 스티커 설

문, 지하철 노선도를 그려놓고 '당신이 아는 성매매 업소에 스티커를!!' 통해 우리 주위에 만연한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국가와 포주, 성구매자가 함께 성매매 피해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간단한 피로도 함께 진행하였다.

학내에서 주체적으로 반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가지 못한 점에서 몹시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번 한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하는 많은 이들을 만나가면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연세대학교 -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에서는 '성매매'를 독립된 주제로 큰 판의 행사를 기획한 적은 없다. 성매매와 관련해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주로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기활을 가거나 졸업식, 대동제 등의 학내 행사 때 새움터와 연대활동을 하였다.

방학 때 가는 기활은 기활 전체 교양을 통해서 기지존에 들어가는 날짜와 참가자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단 위에서 사전 교양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 세미나 몇 번 하고 5일간 새움터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난 겨울 방학 때는 '겨울 기활 학교'를 구성해서 한 달 동안 기지존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합법화론과 성매매 방지법, 언론에 나타난 성매매 등과 같은 세부 주제를 가지고 주제별 팀을 구성해서 팀별 활동을 하고, 4회 정도 전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팀별 활동 결과를 가지고 반성매매 워크숍을 하였다.

그 외의 사업들에 있어서도 '새움터'와 연대사업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였다. 대동제 기간의 연대 장터와 학위수여식 때 물품판매, 그리고 최근의 '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도 새움터의 제안으로 함께한 행사이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라는 이름으로 대동제 기간에 연대 장터를 하였으나, 성매매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보 및 장 만들어서 장터 주변에 놓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었다.

작년 14대 총여에서는 가을 여성제 기간에 '언니들과 함께하는 비즈 공예'를 하였다. 기존의 활동가들이 주로 가는 기활을 나름대로 학내에서 대중적으로 연결시켜본 것이었다. 여성제 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참가 신청을 받고 성매매와 관련해서 사전 교양을 진행한 뒤 언니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고, 언니들에게 팔찌나 목걸이 만드는 법을 직접 배우고 함께 얘기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언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얘기해줄 수 있어서 좋아했고, 참가한 학생들도 평가 자리에서 성매매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고 좀더 고민해야겠다는 얘기 등을 하였다.

하지만 역시나 학내에서 성매매에 대한 좀더 많은 얘기들은 못하고 있다. 당장 남자 화장실만 봐도 '어디가 얼마다, 서비스 좋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고, 가입자 일만이 넘는 '연세정보공유커뮤니티'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대가기 전에 어디 가면 좋으냐?'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에 친절히 답글들이 달린다.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들이 말 그대로 공유되고 있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총여나 다른 학내 여성운동 모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성매매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새움터'라는 단체와 거의 모든 학내 사업을 함께 꾸려왔다는 것은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차지하고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새움터와 실질적인 연대를 맺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학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다. 하지만 그 것에서 머물지 않고 새움터와의 연대활동을 밀거름 삼아 학내에서 자체적인 활동을 꾸리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점이다.

이화여자대학교 - 여성위원회

얼마 전 늦은 저녁에 평택역에 갈 일이 있었다. 역을 다 빠져나오기도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온통 내온불빛이다. 역 주변을 가득히 채운 불사롱, 안마시술소, 여관, 다방들의 간판이다. 붉은 색 조명이 가득한 곳은 성매매업소 집결지다. 손님을 부르는 언니들의 모습이 보인다. 채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경찰서가 서있다. 정말 이곳이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일까. 친구들이 휴연을 위해 눈치를 살핀다. 담배를 입에 물자마자 저쪽에서 남자 몇 명이 장화.홍련의 임정아처럼 걸어온다.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듯한 발걸음이다. 한 명은 불을 빌려달라고 하고 한 명은 미스코리아에 나가라고 권한다. 우리의 불손한 태도에 그 높은 한 대 치기라도 할 듯 바짝 다가선다.

몇 분간 성매매 집결지 앞에서 느껴야했던 두려움과 분노의 양은 줄이고 줄여도 예상한 서론분량을 넘어 버렸다. 언니들이 느낄 두려움과 분노는 도대체 얼마나 걸까. 성구매 경험을 늘어놓는 남자의 목소리도 없고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물고 걸어다닐 수 있는 여자대학 안에서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는 늘 멀고도 가깝다.

초대 여위의 많은 사업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법, 제도, 정부 방침 변화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화여성위원회는 학내에서 수요시위 교양학교를 진행,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알리고 이를 이화인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고자 했다. 교양학교를 마친 후에는 이화인들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여러 여운단위와 함께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학생법정을 개최했다. 대동제 때는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연대장터를 열었다. 동시에 민족담론에서 벗어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민족이 보호하지 못한 순결한 딸'이 아닌 성매매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이론화 작업도 이루어졌다. 여성주의 매체 「3차성정」과 페미니즘 문화제 자료집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제와 여러가지 형태의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했다.

케비넷에 가득히 쌓여있는 성매매 교양 커리와 시위, 학생법정 자료집, 기활 보고서들은 나에게 힘이 되지만 자료가 주는 힘은 빛 단락의 글처럼 낯설다. 현재 학내 운동에 대한 고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재학 중인 여성운동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고민을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담아내고자했다. 지난 페미니즘 문화제 때 학생문화관 로비에는 '언니들의 방'이 설치됐다.

1. 감이지 : 성매매 집결지는 성폭력과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 많은 언니들이 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 감이지 모형을 만들어서 방 앞에 놓았다.
2. 성매매 업소 사진 : 우리 주변에 한집 걸러 한집 있는 성매매 업소들과 구인광고.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지만 버젓이 광고, 영업을 합니다.
- 다방,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업소 간판을 찍기 위해 지하철역 '아무 곳'에나 내렸다. 성매매 업소는 정말 어느 곳에나 있었다. 간판 사진을 찍는 내내 어깨들과 남성 구매자들이 어슬렁거리서 위험했다. 이 사진들은 '언니들의 방'의 양쪽 벽이 되었다. 성매매 업소 형태와 성매매 시장규모, 근접성에 대해 전달하고자 했다.
3. 그림
- 우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그린 그림
- 4~5. 성매매 업소의 구인광고 스크랩 : 전부가 친구들같은 분위기라는 등의 사기 광고다.
6. 지점도 인형들: 드라마 속의 '성매매 피해여성'은 실제 언니들의 모습과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낙태, 피임 등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임신한 언니, 꽃을 파시는 모습의 나이가 많으신 언니, 뚱뚱하고 예쁘지도 않은 술 마시는 언니, 지하철 화장실에서 사기광고를 보는 고등학생을 지점도 인형으로 만들어 전시했다. 간단한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담아낼 수 있었다.
7. 월수입 500~800 보장? : 언니들의 씬숨이가 험프다구요? 천만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포주의 장부 속에 언니들의 빛은 늘어만 갑니다.
- 어이없는 실제 장부와 가깝게 만들어서 놓으려고 했으나 사실 전달 잊어버리고 못했다.
8. 광고 패러디 : 00700 성매매 조직과 경찰,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

-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00700 광고의 내용을 패러디해 만화로 전시했다. 끈끈한 '그들'의 관계를 그린 만화였다.

9. 언니들의 방 옆에서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문제를 다룬 다큐 「이방의 여인들」을 반복 상영했다.

10. 악동 : 언니들 방에 있는 갖가지 악동

- 성매매의 폭력성이 여성에게 남기는 심리적, 육체적 상처를 보여주고자 했다.

11. 자보전

- 성매매 관련 법안을 비판하며 '성매매 피해여성의 완전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 새움터에서 보내주신 글을 전시했다.

'언니들의 방'을 통해 나를 비롯한 이화인들이 남성의 언어와 사고방식으로 사회화되어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스스로를 분리시켰던 경험을 기억해내었으면 했다. 설치물 설명을 할 때에는 관객에게 들어온 성매매 제안을 상기시키거나 '이화'라는 상표를 단 많은 성매매 업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결혼시장과 성매매시장의 유사점에 대한 이야기에는 많은 공감이 있었다. 한 예로 전화방의 <남성 전용/여자는 무료>라는 간판과 결혼정보업체의 이벤트 <남자 고객은 5만원/ 이대생은 무료>라는 카피에서 여성의 욕망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인형 전시, 그 뒷이야기 - 언니들 인형 '만들기'와 '맘 들기' 어려웠던 고민을 중심으로

토마(이화여성위원회)

지난 7월 19일 열린 성매매피해여성 자립, 창업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언니에게 희망을'의 부대행사를 위해 이화여대 여성주의자들이 다시 지점도 인형들을 제작했다. 이번 지점도 인형은 기지촌 현장단체인 '새움터'에 계신 언니들이 비즈 수공예품을 만드시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었다. 이번 작품은 언니들이 가지고 계신 '일'을 하실 수 있는 힘과 전문가로서의 언니를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탈성매매 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의 한 부분이기도 했다.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작업장에서 언니들은 다른 언니들에게 희망의 웃음을 보내고 계셨다.

고민은 그 옆에 지난 페미니즘 문화제 때 만들어놓은 인형들을 함께 전시하려고 했을 때부터 시작했다.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는 고등학생부터 지속되는 임신과 낙태의 문제를 고민하는 언니, 술을 마시는 언니, 허리를 굽힌 채 꽃을 파시는 언니... 이 인형들과 저 작업장 인형들의 모습이 전시되었을 때 어떻게 읽히질까. 성매매의 시작과 끝이라는 단선적인 이해가 두려웠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모습부터 점차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그 후에는 마치 '그곳에서 벗어나니' 일자리가 주어지는 모습으로의 구도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또 하나의 고정화 작업이었다. 인형에 의해 언니들의 다양한 피해경험이 하나의 줄거리화되는 것 같았다. 만약 인형을 모두 연결시켜서 '성매매피해여성의 일생'으로 본다면 성매매라는 구조는 너무 단순해진다.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리는 성을 판적이 없다. 성을 판 것은 포주이다"라는 한 언니의 증언처럼 언니들이 성매매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형에 의해 언니는 성매매의 주체로 부각된다.

언니의 감정을 시간 진행에 따라 규정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인형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은 한 가지 뿐이지만 언니들 각각은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있다. 성매매 업소의 언니를 최대한 불쌍한 피해자로 표현하고 작업장에서의 언니를 과도하게 밝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 성매매 업소에서 웃고 계셔도, 작업장에서 판에 비즈가 잘 붙지 않아 짜증을 내셔도 언니들은 피해자이고 생존자이며, 포주와 남성 구매자가 성매매를 지속시키는 원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기대했다.

하지만 두 가지 지점도 인형의 제작 목적은 뚜렷하게 달랐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고통과 탈성매매 이후의 행복한 삶에 대한 바람은 충분한 설명 없이 같은 형태로 비교하기 버거웠다. 결국 부대행사에서 먼저 만들어진 인형을 제외했다.

'여성운동 길찾기'팀

- 늘, 이스트, 고냥, 거북, 이방, cromsin08

왜 '길찾기' 인가?

...맨 처음 한판 자리에서 '진보'라는 theme이 제안되었을 때, 나는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다 - 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진보적이라 불리우는 이들, 혹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몇몇 이들이 가끔(혹은 종종!) 보여주는 '징그럽도록 가부장적'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던 나는 나름대로 그 문제에 예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류가 아닌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미소 담긴 입술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머릿속에 과연 여성이란 있는가-하는 문제가 항상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학단위들, 또 진보의 이름으로 여성이 배제된 소수를 말하고 국민을 말하고 민족을 말하는 여러 학외 조직들과 부딪치고 부딪히는 일들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면서도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서 정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혹은 정체화하고 싶어하는 나에게는 피할 수 없는 '꺼리'였다. 여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 혹은 의문이 더더욱 컸는지도 모른다.

그 '진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히 학내에서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또한 연대가 필요한 시점에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 운동을 담보하는 방법일까...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고 무어라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이 계속 드러났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되풀이되는 이야기 끝에 우리가 발견해 낸 것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이러했고, 저들이 그러했다...는 성토와 토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겪고 있으며 온몸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 학내에서 활동하는 '여운 단위'로서 생각하고 느끼는 지점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이야기였다. 여운 단위를 주제로 놓지 않고서 이야기하는 '진보'란, 비록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당장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우선 현재 여운 단위들이 학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사실 우리는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 개인적인 친분과는 별개로 말이다.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여학생위원회, 여성연대모임, 많은 자치 단위들...같은면서도 다른, 서로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여운 단위로서 갖게 되는 고민들을 공유해 보기로 하였다. 운동을 하면서, 혹은 여성주의자로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학단위와의 부딪침, 여러 운동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 대한 고민, 학내 여운 단위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주의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서로가 서 있는 다양한 지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성주의가 교양 혹은 지식의 하나처럼 인식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고 어떤 고민을 계속해나가야 하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물론, 지금도 답인지,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아직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고민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으며,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는 정답을, 혹은 팀을 제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서로의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각자 가진 고민들을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마저 어리석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특히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매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지친 어깨를 북돋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작은 기대를 펼쳐 놓고,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금, 여기서, 같은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

-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살펴본 '어려움'

by 거북(성균관대 총여학생회)

1.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등에 따라서 각각의 여성들이 말하는 (말할 수 있는) 여성주의의 색깔은 조금씩 다르다. 마찬가지로, 학내에서 활동하는 여운단위가 갖는 형태나 학내 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우리의 고민과 문제 지점들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은 학내 여성 운동에 있어 각 단위가 갖게 되는 특수한 상황들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인이 경험한 것은 총여 활동이 전부이기때, 총여 활동을 통해 갖게 된 몇 가지 문제점과 고민지점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많은 단위의 이야기를 담지 못한 이 글의 부족함은 여기 모인 우리들의 이야기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우선, 학교 단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여성운동단위(이하 여운단위)의 형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순서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단위 소개글들을 참고하면 더욱 도움이 많이 될 듯 하다.)

> 여성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총여처럼 특별히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특별히 한 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과 운영 공간 등의 문제가 불안 해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총학과의 관계, 여위의 전통(?), 학내 상황 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계된 가장 대표적 사건은 한양대 총학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 여성모임연대

알려진 바로는, 여모의 라는 형태를 가진 곳은 관악 이다. 그 독특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악여모는 학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여성주의자 가운데, 주체 몇몇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다. 단위간의 연대 및 관악 전체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운영 및 유지된다. 관악여모에 연대하는 단위로는 인문대 여성모임연대(인연), 사회대 여성주의모임연대(사연), 동연 여성운동모임 <언니네>, 법대 놀이터, 농생대 여성모임, 공대 여성위원회, 서울대 여성주의자치연론(jouissance(쥬이쌍스) 등의 많은 단위들이 있다고 한다. 연대체가 갖는 특성상 회의 및 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반면, 연대체의 성격상 일의 배분이나 회의 주제 등이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위인 관계로 재정상의 문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다.

> 총여학생회

매해 연 말 혹은 초에 전체 여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학생회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몇 가지 안정

성을 들 수 있다. 학생회비와 약간의 교비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된 재정상태를 유지 할 수 있으며, 공간 문제 등의 기타 시설적인 문제에서도 마진가지로 그러하다. 또한, 여학우들의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성립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개입 등의 활동에 이견 없이 정당성이 부여된다. 또한 학교와 협의할 문제에 있어서는 학생 대표라는 것은 총여의 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총여가 갖는 어려움도 '학생회'라는 틀에서 기인하게 된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선거'라는 과정도 치러야 하고 (물론, 지금은 경선이 되지 않아, 선거가 당선목표로 하기 보다는 알려내기 위한 작업의 과정으로 변하였다. ^^) 무엇보다도, '대중'들, '학우'들을 기반하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하면 '여학우들도 동의 못하는데, 총여가...'라는 식의 논으로 이어져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회의 특성상 다른 단대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단대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런 것들은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 (심지어, 성대의 경우 작년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였던 단대와 올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3.

이제, 앞에서 밝혔던 바대로 현재 성대 총여학생회 상황을 중심으로, 학내 여성 운동 단위로서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 기반 단위가 점차 없어지는 상황, 그 안에서의 총여

총여의 경우 00년도 이전까지 문대 여학생회, 법대 여성학회, 사회대 여성학회, 사범대 여성학회, 여성주의 교지 편집위 정정현 등의 단위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일종의 전달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동아리 단위 안에서 그 안에서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이 많음으로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 지점들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03년도 현재 남아 있는 단위는 교지 편집위 뿐이다. 대부분의 단위들은 남아있던 활동가들이 총여 선거를 준비하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현재 총여는 기반하는 단위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 기반하는 단위가 없게 됨으로서 총여는 공중에 붕 떠있는 듯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다소 붕 뜬 느낌의 상황인 총여에서 하는 사업들은 학우들에게 가까이 전달되기 어려운 한계점들도 갖게 된다. 반면, 과/동아리 단위에서는 성폭력 성문화 관련 요구들을 모두 총여 하게 됨과 동시에 총여가 너무 멀다는 불만들을 토로하기도 한다.

> 높아져 가는 기대치, 찾아지는 충돌

학내 여성운동의 성과와 여성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학생회의 등장은 어쩌면 반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일 뿐, 실제, 그들과의 만남은 어쩌면 예상된 불협화음이었을지도.

누구나 '여성주의'를 '말'하는 시대이기때, 그리고 '여성주의'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라는 학생회 혹은 정치조직 등에서, 총여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온다. 이 곳에서 총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

> 지쳐가는 활동가와 인재(?) 발굴의 어려움

만들어야 하는 사업들 이외에도,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들과 많은 실무들 등으로 인해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총여는 내부적으로 많은 힘을 소진하게 된다. 일에 치이고, 사건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기도 하면서, 여기서, 내부 활동가들에게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며 고민하던 바를 활동하면서 풀지 못했을 시에는 다시 시작할 여력을 잃게 되어버린다. 이에 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지원이 필요 하다.

또한, 고단한 상황 속에서 집행부 결의(?)를 하고 활동하는 이가 적은 만큼, 다음을 이어가야 하는 문제 역시 커다란 숙제이다. 현재 성대 총여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반 단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 못한 상황이다. 학생회

는 자체가 업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뜻 다가오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부담없이 여성주의를 접하기 시작할 만한 통로가 없다는 것은 큰 장애요소로 보인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총여에서는 학기 초에 세미나팀 모임을 통해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들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인재들을 찾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파나 단대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통해 소개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활동가들을 찾아간다.

4.

> want U

이런 상황이기때, 현재 총여에서는 '기반 단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파나 동아리 등의 지역에 여성학회나 여성모임 등을 꾸리는 문제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고민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 이런 성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민을 키우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 뭔가 부족해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 이 문제들이 기반 단위가 만들어짐으로서 해결될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맘 편히 웃을 수 없는 것은 아마도 그 까닭일 것이다. 학내 여성운동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이제 새로운 질문이 필요한 것일까.

학생회, 그 '대표체'의 부족함에 관하여

"우리가 학생회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많은 실수와 잘못에 대한 무책임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독자적으로 수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입니다."

- 2003년 1월, 모 대학 모 단대 전체 학생 대표자 대회 문건 중 -

그럴 듯해 보이는 문장을 읽으며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낀다.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의 학생회,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학생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읽었더라면 동감과 지지를 호소함은 물론 함께 할 의지를 불태우게 했을지도 모를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 자리에 있는 것만 같아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학생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학생회에 대한 이야기 중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위와 같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학내에서 학생회 내부에서, 혹은 학생회 외부의 여운단위에서 활동하면서 '학생회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점점 명확해졌고 점점 뚜렷한 근거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 글은 그런 학생회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관계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딪치고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기 위해 시작된다. 어쩌면 낡고 닳은 만큼 오래되어서, 도저히 해법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기조차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게 고민하는 많은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또한 이 글에서 말하는 학생회는 학생회란 이름을 걸고 있는 모든 단위라기보다는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소위 '학생운동'세력을 지칭함을 먼저 밝혀둔다. 자신들을 사회변혁의 '선봉'이라고, '선봉'이 되어 언제나 선도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하는 그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학생회는 '큰' 일을 한다.

사실 학생회에서 여성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학생도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류의 질문들이 부상했던 것이다. 그들이 '전체' 학우들의 대표이기를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들의 운동에서 배제되었고 여성 혹은 여성주의에 관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흐리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매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준비하는 농환활동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예이다. 해마다 농환활동 기간 동안 무수한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지만 해결 과정을 밟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아니, 오히려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연대'를 깨버리는 몸쓸 년이 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01년 관악에서는 3개 단대 농환대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농환 기간 중간에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후의 논의 과정이 원만하지 못했다. 02년 다시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농민회와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농환을 가지 않겠다던 3개 단대 학생회는 결국 아무런 실효성 없는 규약을 어겨지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농민회는 물론 각 과반 학우들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던 상황이었고 그 결과 또 무수한 사건들을 쌓아왔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사건들 앞에서 단지 학생회가 여타의 사람들처럼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인간해방'을 이야기하는 운동세력이고 농민들과 '봉사'가 아닌 '연대'를 하기 위해 농환을 가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상황은 간단했다. 농환은 '농민-학생-연대-활동'이었고 그들이 이야

기하고 싶어하는 농민에도, 학생에도 여성은 주체로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단지 물성화된, 그러하기에 남성인 농민과 학생이 주체였을 뿐이다. 여학생들은 그렇게 학생회의 물성적인 관점으로 인해 연대 활동에서 배제되었고 농민의 남성중심성과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자 '작은' 일로 '큰' 일, 연대 활동을 망치려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없음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통일/노동운동을 최종적인 모순에 저항하는 '전체운동'으로 간주하고 다른 운동들을 '부분운동'으로 규정하는 그들의 사고체계와 이념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틀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이유로, '부분적인', '작은' 문제에 연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반복할 것이다.

학생회, 여성주의에 대해 입을 열다.

그렇다고 학생회가 자신들의 물성화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여성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사들을 꾸려나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최근 몇 년 간 반성폭력, 여성노동, 여성주의적 학생회 등을 이야기하는 단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들 나름의 고민을 담아낸 것일 수도 있지만 여운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결코 전체운동/부분운동이라는 그들의 틀을 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성과 여성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모든 모순들에 함께 하는 '전체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과 여성에 관련된 모순에 '만' 함께 하는 '부분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이라는 구도로 확대되어 버렸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학생회가, 학생운동세력이 그렇게 전화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학생회 속에서도 여성정책을 써내고 여성국을 결의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도 그만, 가지지 않아도 그만인 속에서 여성국은 모든 여성과 관련된 사안을 '오롯이' 전담하며 결국 여성은, 여성주의는 학생회 내부에서도 다시 한 번 부차화된다. 문제는 이렇게 몇 몇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성주의가 학생회의 전체 입장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그들이 여성주의를 말한다 것은 그들 학생회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내부에 여성주의자'도'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학생회의 변화된 모습은 자신들의 운동에 여성주의를 라벨링한 것, 그것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학생회 선거이다. 새로이 학생회를 수권하기 위하여 각 학생정과조직들은 자신들이 가장 나은 세력이라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학생회 선거에서 여성주의는, 여성정책은 빼놓아서는 안 될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렇게 자리잡은 여성주의는 다른 정책들과 동떨어져 존재하거나 여운단위의 내용을 별 생각 없이 가져다 씌어서 오히려 내용을 왜곡시켜서 여운단위를 골치 아프게 하고 있다. 정책 신문의 한 쪽에서 분리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옹호하는 기사를 실더니 바로 옆면에는 '제 운동세력은 반미-반신자유주의 전선에 복무하는 것이 의무이다'라는 내용을 실는 모습은 여성주의가 다른 정책들과 분리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분리주의를 토박이는 학생회 내의 여성주의자의 말은 다른 정책에까지 반영되지 못하며 그러한 신문 구성은 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두 주장이 아무런 충돌 없이 깔끔하게 양립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또한 올해 3월 선거를 진행했던 모 대학의 선본들은 발빠르게 여운단위의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가져다 썼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위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여성이기에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논지에만 그쳐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한 일상의 폭력성과 군사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왜곡해 버렸다. 그 이야기 속에서 여성은 전쟁의 피해자이면서 그에 저항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사회적 약자, 피해자로 규정될 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선본의 다른 유인물에서는 '반미 없는 반전 없다'라는 구호와 함께 당위적인 평화 담론은 구체적 실천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상대 선본이었겠지만) 그런 입으로 공격하며 여성주의는 이제 당위가 되어버려서 변혁의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들, 여성주의를 당위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고민을 발전해 나가는 여성주의자가 아니라 그 고민을 별다

른 인식 없이 가져다 쓰면서 왜곡하는 그들이다. 그들이 여성주의를 당위적으로 라벨링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여성노동도 마찬가지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가장 주변화되는 '노동자'로서의 여성일 뿐이다. 그 '노동'은 그간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재정의된 개념도 아니며 기존 남성노동자를 바라보던 렌즈로는 결코 분석해 낼 수 없는 여성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노동'이었다. 단지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 노동자의 범주 속에 여성을 끼워 넣었을 뿐이었고 그로 인해 여성노동은 길다란 정세 분석의 마지막 한 단락에 첨가되어 걸들었다. 그마저도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장 내몰린 세력으로서, 무기력한 피해자로서의 여성노동자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여성을 저항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변혁적 세력을 자처하는 학생세력이, 학생회가 여성과 여성주의에 대한 언급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학생'에, '노동자'에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독자적으로 수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입니다' 라는 그들의 선언은 그러하기에 씁쓸하다. 과연, 그 '학우'에 여학우도 포함되어 있는가.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라는 그들의 학생회가 과연 여학우들에게도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었던가.

그리고, 또 다른 길.

학생회에 여성이, 여학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 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계속 함께 해왔던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지금껏 함께 해왔던, '동지'라 믿었던 그들과의 인간관계 역시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계속 활동한다면 결국 나 역시 학생회에 여성주의를 라벨링하는 누군가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날 가만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실제로 당시의 나는 이미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다시 모두가 여성주의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듯한 학생회에 대한 환상을 심어 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당장 떨어진 일들에 급급해 하면서 싸이클에 존재하지 않는 여성주의를 풀이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만들어 내는 일들은 뒤로 미루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행동들 모두를 나 역시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학생회 외부의 여운단위를 선택했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 안에는 그 안에서 여성주의를 풀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들은 일이 말하기조차 어렵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단호히 말하기에는 여성주의자들과 학생운동세력 간에는 방식이나 인식의 차이가 크고, 함께 하는 사안들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여운단위에 결과가 축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여러 모순들에 함께 저항하며 싸워가고자 하는 여성주의자들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싶지만 여러 여건상 그럴 수 없는 여성주의자에게는 든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나에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들이 '우리가 학생회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많은 실수와 잘못에 대한 무책임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문장의 '우리'는 애초부터 여성, 여성주의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쓴 이 문장은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 학생회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일반 학우들과 여성주의자라고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 책임을 가져가야 할 사람은 '그들'이다. 전혀 다른 두 문구의 주체를 어설프게 '우리'로 묶을 수 없다. 불신과 회의는 근거 없는 의지 없음이 아니라 그 동안 구성되어 온 학생회의 '대표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복이다. 이제 여성주의자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함께 걷는 길에 대한 아쉬움

by crowsin08

내가 처음으로 접한 것은

02년도에 입학했을 때 법대 200명가량의 신입생 중 여학우는 70명 정도, 35% 정도의 비율이었다. 여학생이 1명 내지는 3명이었던 과거가 있었다는 '전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역대 최고의 여학생 비율을 기록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머리수부터 절대적인 열세였으며 그나마 신입생은 35%였다 하더라도 '선배언니'란 존재가 학회에 한두 명 있었을 뿐이었으니, 우글거리는 남학생들 틈에서 여학우들은 엄청난 소수일 수밖에 없었다. 최다 여학생 비율을 달성했던 말든, 우리는 여전히 '꽃'이 되거나, '명예 남성'이 되거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연애를 하든, 고시 공부를 하든- 'disappear'하거나 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결코 농담일 수 없는 역사와 직면해야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여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은 학운단위 내의 언니들이었다. 물론 남자선배는 새내기 남학생을, 여자선배는 새내기 여학생을 마치 분담하듯이 조직화하고-그것이 같은 성별의 후배에게 다가가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를 떠나서-, '진보'를 말하는 학생회에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여성주의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언니들(그러나 학운단위 내의 선배언니는 이 것과 관련해서 [여성주의자 개인의 활동을 조직의 성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여성주의자로서의 지위와 학단위 내의 정책 생산자로서의 지위에서 도출되는 대표성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여성주의를 풀어가야 한다는 고민은 계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이었던 점을 무시할 순 없지만 당장 숨이 막히고 답답할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02년도 (2학기 여러 정파간의 여성주의자들로 구성되었던 [법대여성주의자연대테이블]이 이맘때쯤 사라진 것으로 기억한다.)

에서부터 지난 1년간 법대 내에서 여성주의를 하나의 흐름이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좌파 학생회의 활동역량을 여성주의 운동의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이용해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고 '차악'의 선택이기도 했다. 예컨대 '여성주의적 새내기 맞이 기획단'이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의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만들고 새터와 신입생 환영회의 어찌할 수 없는 남성중심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논의는 학생회를 통해 곧바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과흡수의 문제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학정조 내에서 어느 부분에 있어 여성주의가 보유하고 있는 위상은 역학관계에서 상위에 있기까지 했다. 즉 선배언니의 말처럼 문제제기를 하면 [먹힌다]는 분위기가기도 했고 이미 학생회가 짜놓은 판을 '이용'하는 것도-사실 이쪽도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법대 여학우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친구들은 말한다.

이렇게 내가 학단위 내에서의 '여성주의 운동'이 일정정도 가능하며 어떤 부분에선 유리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즉 내가 [견딜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이 활동을 하던 친구는 [견딜 수 없으며 견디 낼 필요성도 못 느낀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견딜 수 없어!"라고 소리치는 친구의 얘기를 듣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것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서 내가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

지에 대해 질문하게 되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방식의 문제라구. 말하고 있는 내용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서라도 정상적인 남성 활동가가 아니면 남아 있을 수 없는 이 판이 견딜 수 없는 거야. 소수자가 버틸 수 있는 판이 아니라구 생각해."

학정조 내에서 똑같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의 남자선배는 남자후배를 키운다. 그 과정에서 활동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친구들도 보았다. 실제로 모범적인 활동가 상이란 것도 건강한 남성 활동가의 모습이다. 집회에 나가서 '우렁차게' 구호를 외치고, 남성중심적인 동지애를 노래하는 민가를 여전히 그들의 톤으로 불러 젖히고, 공공연하게 "여학우들은 뒤로 빼!"라고 외치는 그 집회를 '폭력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나가지 않을 수는 없다. 집회에 나간다는 것은 활동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뒤풀이에 남아 술과 함께 서로 고민을 나누어야만 가까워질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꾸만 배제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 판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상황상황마다 손을 잡고 안 잡고를 판단하겠다는 친구도 있었다. 따로 여학생들을 만날 여건도 마련하기 힘들고 여성주의를 법대사회 내에서 얘기하려면 지금으로선 어떤 부분은 학생회와 함께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또한 여성주의 운동과 함께 소위 말하는 진보적 좌파의 계급운동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대 내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 우리끼리 만든 새로운 공간(올해 초에 법대 내 02학번 여학생 대여섯명이 주축이 되어 [여성주의로 놀자! 놀이터]를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에서도 부끄럽지만 말해지기 전에는 몰랐었던 이런 갈등코드가 놓여있었다. 경계선 안팎의 긴장과 탈진.

현재 법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독자적인 여성주의운동 단위로서의 상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와 조직 내의 여성주의자들과의 관계맺음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인 난관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감정싸움 없이, 서로의 활동을 폄하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함께 쌓아왔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놓치고 싶지 않은 덜 자란 나의 철없음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 함께 무엇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나와 그녀 / 그녀와 나 : 그 미묘한 평행선

by 고냥

#1. 나비는 분리주의 여성주의를 지향한다.

나비는 대학교 3학년이다. 새내기 시절, 학기초부터 나비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선배들은 두 종류였다. 여자후배를 너무 예뻐하는 언/니/들과 대학생들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소위 운/동/권 선배들. 나비는 그다지 후자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술자리와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들은, 나비에게 대학이라는 공간에 대한 흥미를 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나 싫었던 것은 술/자/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그 자리는 나비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공간이었다.

나비가 유일하게 즐겁게 활동한 공간은 과 내에 있는 여성소모임이었다.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모두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언니들은 나비가 그 동안 부정해왔던 것들의 가치를 되살려 주었다. '여성'이라는 자각과 인정, 나의 몸의 소중함. 그것이 나비가 여성주의를 사랑하게 된 계기였다.

나비가 분리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운동권 선배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여성주의를 모두 이해하는 척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비는 그들과의 사이에 강을 두었다. 그들은 나비가 편협하다고, 감정적이라고, 그렇다고 사람마저 싫어하면 안 된다고 언제나 나비를 설득하려고 했다.

#2. 그녀와 우산은 친구였다.

나비는 어느 사이에 2학년이 되었다. 새내기를 맞이하면서 나비는 우산과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이른바 화합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이다. 나비는 우산이라면 자신의 고민을 전부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했다. 우산이라면! 그리고 한편 선배들은 나비가 이제야 파에 적응을 했다고 기뻐했다.

우산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좋아했다. 나비가 싫어하는 선배들과도 잘 어울렸고 나비가 대하기 힘들어하는 후배들과도 잘 어울려 지냈다. 나비는 우산 같은 친구를 두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비는 우산을 믿었다. 나비는 우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3. 우산은 농활을 가고 나비는 가지 않았다.

나비는 농활이 싫었다. 피곤 혹은 일정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에 대한 발언이 묵살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나비는 농활에 가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우산은 농활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나비는 그래도 우산을 믿었다. 우산이라면 농활에 가서도 나비를 실망시킬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렇지만 우산이 농활에서 돌아온 후 나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나비가 거리를 두고자 했던,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던 그들과 우산은 다르지 않았다. 우산은 그들의 문화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을 초래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나비가 우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녀에게 실망한 것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 나비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4. 우산은 선거를 뚫는다.

매년 있는 일이다. 새내기 시절 나비의 친구들은 선배의 제안으로 대부분이 단대 혹은 총학 선본원이었다. 그 시절 나비에게는 대학 내의 선거라는 것이 별다른 흥미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선배의 입장이 되고 여성주의 활동을 하면서 나비는 선거와 완벽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게 되었다. 나비는 선거에 판지를 거는 쪽인 것이 당연했다. 나비는 절대로 그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이 모두 여성주의 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나비는 나비가 사랑하는 언니들을 아프게 한 그들이 치가 떨리도록 미웠다.

우산은 선거를 뚫는 것이 당연했다. 우산의 정체성은 나비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학단위 운동가로 정해져있었다. 우산은 사교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후배들을 선거에 뛰도록 설득했다. 농활을 갈 때도 그러했다. 나비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을 누차 이야기 했지만 농활을 다녀왔듯이 후배들은 선거를 뚫었다. 나비는 우산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다. 우산은 선본 안에서 여성주의 정책을 만들어 냈다. 정책 안에는 나비와의 꿈이 그다지 깊지 않았을 때까지 둘이 함께 나누었던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비는 우산의 고민들이 마치 선본 전체의 여성주의 적 고민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싫었다. 그 안에서는 실천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그 이야기들을 나비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비는 우산이 속해있는 선본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고 우산은 그런 나비의 행동에 상처를 받고 말았다. 나비의 비판은 마치 우산의 모든 활동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5. 나비와 우산은 친구일까?

나비는 우산의 활동과 생각을 존중한다. 나비는 우산이 선택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비는 수시로 우산에게 상처를 받고, 화방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졌다. 물론 나비는 현재 화방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거침없는 고 학번 선배들과 무심히 뱉어내는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깨닫지 못하는 후배들과 대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비는 화방에 가기 힘들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비가 화방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지내는 우산이 있기 때문이다.

나비는 우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렸다. 점점 우산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요즘의 우산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배에게 예전의 선배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고스란히 해주고 있다. 너는 너무 편협하다고, 후배들에게 더 다가라라고, 나비는 고민한다. '나는 우산과 어떤 관계인 것일까.....'

여성주의 판따라가 노래를 한다

by 이스트

여성운동단위와 학생회, 둘 사이에서 무수한 갈등과 고민들이 존재해 있는 이 순간에, '다른 목소리'로 고민들을 풀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여운단위 안에서, 혹은 다른 형식의 여운단위에서, 혹은 그 바깥에서 그 어디에서건 간에, 작년 한판 문화제 때 마임을 배웠던 '정말 나쁜 새끼'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이러한 방식 - 즉,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적인' 방식의 여운단위 혹은 학생회 조직에서의 활동이 아닌, 음악, 미술, 퍼포, 연극 등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여성주의적 고민들을 풀어내려는 사람들이 이제야 보인 것이다. 이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보게' 된 것이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예술-너무 딱딱하게 느끼지 않았으면-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이 이상한 사회에, 특히 여성으로서 이 곳에서 살고 있다면 당연히도 그들의 표현에는 보다 예민하고 섬세한 고민들이 녹아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고민들이 여성학 서적에서 생겨났건, 여운단위의 활동에서 생겨났건, 혹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느꼈던 간에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당연히도 생각보다 큰, 어쩌면 당연한 효과를 불러오곤 한다. 예술인!들은 사실 범인들에 비해 더 절묘한 감정을 잡아내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절묘함으로 표현할 줄 알기 때문이다. 지현 씨를 떠올려보자.

최근 들어 대학 내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분명한 것은, 이 글을 쓰는 본인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은 존재해 왔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각 단위의 행사들에서 다양한 형식의 공연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주의가 '대중화'된다는 것은 이전보다 많은 오해와 공격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렵듯이 느끼던 고민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여성주의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공간인 대학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사실 이들과 여운단위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 왔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많은 경우 이들은 여운단위에서 활동했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단위의 고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도 있었다. 또한 관악의 여성주의자 문화집단 '난리부르쓰' 혹은 연세대 여성주의 퍼포먼스 전문집단 '페미먼스'와 같이 처음부터 문화적인 형식을 통한 여성운동을 모색하는 단위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의 인자들은 주로 여운단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고, 결국 바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여성주의적 고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다. 단지 행사 때 와서 공연을 해주는 것-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뿐만이 아닌,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도 말이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몇 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워낙 급하기도 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게 어렵기도 하고, 워낙 바빠서 사는 분들이라, 결국은 모두 이메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이자람씨는 '예술!'로 유명한 분으로 서울대 국악대학원 재학중인 판소리계의 유망주!로, "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와 안티 아라키전 등을 함께 했었다. 후추는 연세대 여성주의 퍼포먼스 전문집단 "페미먼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송여 문화제, "언니에게 희망을" 등에서 공연을 했다.

표현 방식의 다양화, 효과와 가능성

"계속해서 말하는 건 운동의 방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가 변했다는 것이겠지. 운동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학내외에서 문화운동이 성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생존하기 위한 필연적인 것입니

1)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해야 하는지는 글을 쓰는 내내 고민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특정 단어로는 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활동들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도 어정쩡한 지칭들이 많이 보이는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성주의를 풀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다." - 후추 인터뷰 중

90년대 말 이후 학생운동단위들이 '망해가는' 것은 특정 캠프, 특정 운동의 문제가 아니다. 딱딱한 회의와 문건, 피켓 등에 대해 사람들은 그다지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이 부족하고, 피드백이 부족하고,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단순한 집회 혹은 피켓, 토론회만으로는 사람을 모으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던져주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방식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며, 이 글에서 하려는 얘기도 아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졌듯이, 내용 뿐만이 아니라 여성주의를 풀어내고 표현하는 형식 역시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추의 말처럼, 표현 방식의 다양화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은다. 이는 반드시 여운단위로의 유입은 아니더라도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안티 아라키전의 문제의식과 표현, 지현씨와 안혜경씨의 노래는 여성주의와 거리를 두던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에게도 에너지를 듬뿍 선사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사실 이 멋진 분들의 공연을 보면 절로 힘이 나지 않는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졌듯이, 여성주의자들의 관심사도 다양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여성운동 방식은 이러한 관심사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난리부르쓰의 한 멤버는 주이쌍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연에 올릴 여성주의 연극 혹은 노래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2) 이들과 같이 스스로의 고민들을 직접 연극 혹은 노래로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많은 힘을 주고 새로운 생각들을 키워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 춤이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을 할 때 조금 덜 지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때론 버티는 힘이되기도 하죠." - 후추 인터뷰 중

또 다른 특징은, 이러한 활동들이 단지 학부 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졸업 이후에도 그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졸업 이후에 여성주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단체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새우터 콘서트에서 위령제 퍼포먼스를 했던 이다는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후추, 이자람씨 등 다른 사람들 역시 학부 때의 활동들을 이후에도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는 어쩌면 우연을 기다리기만 했던 건 아니었을까. 매 행사마다 어떤 사람에게 공연을 부탁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은 어느 단위나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러나 앞에서 말했지만, 꼭 여운단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름의 고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이자람 씨의 경우, 여운단위 활동 경험은 없지만 일상적인 고민들을 통해 문제의식을 키우고 창작판소리3)로 표현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사람들과 여운단위 간에 어떠한 소통의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소통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운단위에서 활동하는/했던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자람씨와 같이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은채 자생적인 고민들을 풀어내려는 사람들과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문화운동을 하기에는 몸도 따라주지 않고 재능도 없는 것이 대부분에게 슬픈 현실이다. 그렇다고 막연히 같은 고민들을 풀어내려는 아티스트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많은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말이다.

"등을 돌려 앉아있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열렬한 지지자이면서 노래로 후원하고 싶은 망인가.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 맞으면 저는 아주 기쁜 맘으로 언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 자람씨 인터뷰 중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놓고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막막하다. 계속해서 소통을 얘기하지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재능이 있어 보이는 이들을 만나 세뇌시킬까, 혹은 우리 중에 숨어있는 재능을 찾아낼까. 가득이나 힘도 딸리는데 언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둘러보면, 여성주의적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인다. 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자람씨는 여성주의를 담고 있는 노래를 만들고 있는!는 질문에 "강하게 무언가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 자극

2) 서울대 여성주의 자치연론 '주이쌍스' 5호 중

3) 이자람씨가 만든 '구지 대한민국'은 '이갈리아의 딸들'을 참고해서 만든, 현실에 대한 풍자의 의미가 강한 창작판소리이다.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본인의 고민이었지만, 여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점은, 단지 여운단위와 '아티스트' 간의 소통은 절반의 고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과의 소통은 물론, 여운단위 스스로 표현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재능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다 보면 발견하고 혹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재능이다. 어쩌면 우리는 기존의 운동방식에 갇혀 또다른 형식에 대해 고민할 겨를조차 없었던 건 아닐까.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사실, 처음에 글을 기획하면서 했던 고민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점점 복잡해졌다. 단순히 '이 사람들과 더 많은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텐데' 정도였던 생각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너무나 다양한 포지션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자람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후추와의 인터뷰를 할 때는 '이미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바뀌기도 했다. 후추가 인터뷰 중 얘기한 '문화운동'이라는 지칭이 이자람씨의 경우에도 적절한 표현인지 고민이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답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분들의 공연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힘과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여성영화제에서 봤던 "일어나라"에서 봤던 다양한 퍼포먼스들과 그 에너지, 효과들을 잊을 수 없다. 할 수 있다면 직접 하고 싶고, 그게 안된다면 그 사람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주의 매체'팀

- 수시아, 달순이, 아생, 불려디, 니나

그녀, 그녀에게 말하다 - 여성주의 매체의 의의

by 수시아(서울대 여성주의 자치언론 주이쌍스)

흔히 여성주의 매체는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주의적으로 그 경험들을 재구성하고 나누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랭보는 "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는 그 자신조차 바꿀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는 절필을 선언한다. 기본적으로 착상은 동일하다. 그녀들은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에 맞서 '운동'하겠다고 하지만, 실은 그녀들 내부에 있는 가부장적 사고틀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른다. 어느 말 많은 카운슬러처럼, 타인에게 베푸는 충고의 말 마디마디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다.

여성의 목소리는 묻혀지기 쉽다.

사실 매체의 의의랄 것도 없다. 어느 시대에서든 언론은 개방되어야 하고 실상 언론의 개방 수준이 그 사회의 진보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쟁만이 그 시대의 유일한 언론이었다고 말하여지는 조선 시대에 비해 지금은 언론이 개방되어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와 아니다. 둘 다에 해당된다.

모두들 쉬쉬했던 군사정권 독재 하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오던 남성들의 언론은 문민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으면서까지 시민들에게 열려 있지만, 정작 여성들의 언론 사정은 말쑥이 아니다. 남성들은 일제 시대 때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는 가슴 뜨끈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여성들은 사회전반에 걸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에 대해 이야기조차 꺼낼 수 없었던 가슴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오랜 세월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와 기타 국내문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유교문화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여성 억압의 기저에는 여성의 언론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도 기존 사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언제나 여성 독자들은 수면 저 깊은 곳에 잠겨 있고, 반응을 보이고 비평을 할 수 있는 권력은 남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문학권력 담론으로 한동안 시끌벅적하던 한국 문학계에서도 김정란은 오직 여성 비평가라는 이유로 다른 남성 비평가들에 비해 더 표적이 되어 왔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가운데 '리플이 많이 달리게 하려면 글에 '운동권', '여성주의'라는 단어를 집어 넣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까.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인터넷 언론이라 할지라도 페미니즘 관련 기사는 유난히 악성 리플이 많이 달리기로 유명하다.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자는 여러 종류의 사이버 폭력에 노상 시달리며, 이러한 폭력은 결국 여성의 의사 표현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일찍이 오마이뉴스, 서울대 인터넷 언론 스누나우 등 소위 진보 언

론에서 썩은 장면들을 많이 봐온 주이쌍스 편집진들은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내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로 기사 리플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여성주의 자치언론매체를 만들자는 제안서가 나가고 나서, 여기저기 항의가 들려왔다. 항의의 핵심은 '그들'- 남성들에 의해 여성의 말하기/글쓰기가 가로 막혔다는 지적이 부당한 전선 근거이며 분리주의적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표현했고 혹자는 '그들에 포함될 자격을 주어서 영광이다'며 빈정거렸다." (주이쌍스 창간호에 실린 '여성주의 매체, 날다' 중)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남성들은 여성의 언론에 남성에 의해 봉쇄된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얼마든지 여성의 언론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매우 한정적이며 그것도 문화와 같은 상당히 제한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씨네21에 실린 페미니즘 영화평언 다소 공감하면서도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 호주제 폐지할지 하는 민감한 여성주의 사안에는 지독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가 묻혀기 쉽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여성이라는 표지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주장한다. 90년대 들어 여성작가가 쓴 작품들(신경숙, 은희경, 최영미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온 점과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그러나 김정란의 말마따나 그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단지 여성에 의해 쓰여졌을 뿐이지, 많은 경우 그 내용은 지극히 반페미니즘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결국 남성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성들의 글쓰기라는 것은 정작 여성들 자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남성들 입맛에 알맞게 조절된 여성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여성주의 매체는 어떤 장이어야 하는가

여성주의적 글쓰기를 시도하는 장이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여성주의 매체는 여성의 말하기/글쓰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간이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가부장제에 의해 은폐되어 왔던가를 생각하면, 여성의 이야기를 수면 위로 띄워 올리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게다가 여성 스스로에게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치유와도 같다.

또한 이에 병행되어야 할 것은 여성주의적 여론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 조순경씨의 말을 빌리자면, '여성주의의 핵심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여성 스스로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고, 여성주의 매체의 핵심은 분명 언론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이미 기존 언론은 '남성 천국'이므로, 여성 자신이 여성의 경험을 성찰성을 갖고 이야기하기란 여간 녹록치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이미 <한겨레>, <말>지와 같은 '진보' 언론들이 여성주의를 모독하고 있는 시점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이를 풀어낼 수 있는 매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의 시각은 잘못되었다'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상처받고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경험을 표면화시킬 수 있는, 따라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사적인 공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공적인 담론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게 하는 영향력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 이에 덧붙일 것은, 각종 사이버 언어 폭력으로 온라인에서 수축되어 있는 여성들의 글쓰기 활성화를 여성주의 매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사이버 담론에서 여성들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여성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글쓰기를, 말하기를 시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제4회 여성영화제 출품작인 '행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 한 여성 시인의 말로 대신하고 싶다.

즉,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 스스로 하지 않고 타자가 그 대신을 맡게 된다면 그 크기 이상으로 여성의 이야기가 왜곡되고 변질된 채 그들의 진실을 전달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학내 여성주의 매체의 역사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by 달순이



2003년 7월 중순, 석순실 한 칸에 먼지를 조용히 먹으며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석순 1집을 꺼내어 본다.

하늘은 아직도 파란데 구름은 걸히질 않는다. 허나 우린, 영원히 그 맑고 푸른 하늘 이어라.

..... 이제 수줍음으로 첫 싹을 피운다. 그리고 물기있는 '삭'이 파란 '순'을 키우듯 그대들의 가슴이 데마른 사막이 아픔을 또한 밀고 싶다. <미>

- 석순 창간호 편집 후기에서

석순 발간호는 1983년 5월 10일이다. 그때 80학번 3명과 81학번 2명의 여학우들이 처음으로 석순이라는 여성주의 '회지'를 만들었다. 당시엔 교지가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1호를 비롯해서 독재가 살아있던 그 시절의 글들은 그만큼이나 절박했다. 그 시대에서 배어나오는 그 절박함. 나는 배부를 정도로 그 절박함이 부럽다. 그런 흔적은 당시 석순인들의 글 곳곳에서 배어나온다

'자꾸만 위축되는 어깨가 주체스럽다'

-석순1호 권두언 편집장 고재경 님의 글에서-

1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좌담회 '여학생, 여학생회지'였다. 창간호인만큼 왜 여학생 회지가 필요한지를 역설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리라.. 이 부분은 '여성주의 매체'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고민지점이다. 들어가는 말은 이렇다

'숫자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참여할 공감의 장을 갖지 못해 서로를 확인하고 인사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여학생, 이제 여학생 회지로써 첫 출발을 하려한다.(하락)

초기 석순들을 조금은 꼼꼼히 살펴보면 초기 학내 여성운동의 모습을 퍼즐맞추기 하듯이 차분히 생각해 본다.

5집, 돌고-돌고-

5집에서 인상적인 것은 총여학생회 활동 평가였다. 이렇게 총여학생회(현재의 여학생 위원회에 해당)와 여성주의 교지가 연계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인 것 같다. 석순 선배들을 만나보면 그때에는 여위와 석순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매우 그 친밀도가 강했다고 한다. 학내 여성운동의 연계지점으로 석순에도 '여학생 위원회 활동 평가'를 사진과 함께 넣으면, 여위의 고립감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을듯하다. 또, 교지는 각 시기별로 당시의 여성운동 사

건과 함께 그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5집이 만들어 진 시기에 권인숙씨 성고문 고발 사건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80년대 석순의 내용들은 부집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논문'식 형태의 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주제들도 매우 거시적이다. 예를 들면 5집에서는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이, 7집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노동운동', '교육운동과 전교조', '건강권 회복을 위한 의료 보장제도'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80년대에 찍여진 석순 5집의 아이템과 지난해 2002년에 쓰여진 석순 21집의 아이템 내용 중에 똑같은 것이 2개나 있었던 것이다. 성서와 여성, 그리고 여성과 문학이 그러하다. 물론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다름은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 것은 여전히 여성주의는 유효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5집과 22집 사이의 시간적 흐름은 있었을지언정, 여성주의적 발전이 크게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아이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고 돌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석순인 내가 초기 석순을 보면서 느꼈던 약간의 '이물감'은 80년대라는 시기를 살지 않았던 내가 느끼는 약간의 소외감 정도. 다른 말로 하면 시대성이겠지. 그때는 무척이나 치열하고 뜨거웠던 것 같다. 386이라는 신화 속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것 일수도 있지만, 책의 곳곳에서 작열하는 태양같이 뜨거운 시대에 이끌거리는 선배들의 몸부림과 발버둥이 느껴진다. '현실의 척박함' '지난 여름 투쟁의 열기' 라는 문구나 어떤 '운동권식 언어, 용어'들에서 그러한 냄새를 맡는다.

석순의 초기 활동은 1년을 주기로 교지가 발간되었다. 그래서 7집은 석순 창간 7주년을 기념하여 창간호부터 7집까지 정리하는 코너를 마련해 놓았다. 이 부분을 부분인용하면서 초기 석순의 역사를 훑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중에서 1983년 5월에 있었던 석순 정간조치 및 책 소각사건은 가히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었다.

1982. 9. 여학생 공개 토론회에서 여학생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1982. 10. 여학생지 편집부 발족. 인준 받아냄.

1983. 5. 창간호의 배부시기였던 이때 교무회의의 결정으로 단대지와 이에 준하는 여학생지 석순의 정간조치가 내려졌으나 여학생지의 특수성(단대지가 아닌 교지 차원)을 들어 정간 해제를 요구하고 아울러 단대지 정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석순에 한한 정간해제 및 암묵적인 편집활동과 발간을 보장하는 대신에 학교측은 지도 교수제와 편집위원회에 대한 지도교수 추천서 첨부를 요구하여 편집팀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84년 정식으로 정간이 해제되고 인쇄 3교단제(3번째 교정단계)에서 원고 검열을 하는 것으로 지도 교수와 합의함에 따라 정상적인 편집활동이 진행되었다. 이에 6월초 원판 복사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였으나 일부 자귀수정과 논문 '사회주의하의 여성'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편집부는 지도교수의 일방적 삭제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지도교수는 거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6. 16일 경에 인쇄 및 재본이 완료되어 석순2호가 편집실에 도착하여 편집부는 학회와 씨름에 미리 배부하였는데 6. 18일에 총 5000부 중에 4300부가 손실되었다. 이는 편집위원회 부재한 상황에서 지도교수와 여학생장, 학생처장의 권한으로 압수된 것이며 또한 석순2호의 배포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배포금지 사유는 지도교수 삭제요구 부분이 그대로 인쇄된 점이었으며 이에 편집부는 삭제요구에 동의해서라도 배포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책이 소각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석순 3호: 1985년 발간. 특집기사는 '여성, 인간, 노동' - 한국 노동 여성의 현실 / 여성 노동운동의 방향성 - 과 '여성운동론의 현황' - 서구 여성론 비판과 여성운동의 올바른 시각을 위하여 /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 여성운동론 -(하락)

석순 4호: 1986년 발간. 석순 4호는 이론적 혼란의 시기였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창간호와 2호의 여성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이론화 작업이 정제되면서 당시 여성운동계의 이론적 혼란이 그대로 4호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특집기사는 '여성모순의 본질에 관한 해부' 시사평론으로는 '86년 한반도의 정세분석' -(하락)

석순 5호: 1987년 발간. 87년은 대중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시기였다. 여성운동계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결성되어 여성운동이 대중운동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석순 역시 이러한 대중운동의 성장에 따라 그 위상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

다. 당시 이러한 변화에 따라 5집 편집팀은 '이론적인 틀의 실천적인 틀로의 전화'와 여성문제를 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소재의 발굴'이라는 편집방향 아래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특집기사는 '한국여성운동의 흐름' 기획1은 '한국 여성단체의 현황과 평가'-(하락)

석순 6호: 이제까지의 석순은 편집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편집이 끝날과 동시에 해체되는 형태였다. 따라서 계속적인 내용과 경험의 축적이 부재하였으며 이는 매호 편집진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주었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던 이론적 혼란의 한 원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6호 편집진은 편집위원의 자체 재생산 및 편집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씨름식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중략) 6호에서는 석순의 이론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막연한 문제의식만 남긴 채 이론적 성숙을 가하지 못하였다. 6호의 특집1기사는 '여성정책' 특집2기사는 '제국주의와 매춘' 기획1은 '우리시대, 우리 여성의 삶' - 우리 여대생의 삶/생산적 여성노동운동/사무직 여성노동운동 기획2기사는 '자본주의와 가족'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석순의 그간 활동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호의 문제의식을 살펴봄으로써 7호를 내는 편집위원들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알릴으로써 앞으로 안암의 여학생 선전매체의 올바른 형식과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에서 찍여진 것이다. (중략) 7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노정된 각각의 문제점이 석순인과 석순이라는 책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정체되어 있는 여성운동과 여학생 운동, 그리고 이를 목격의식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많은 여성 활동가들의 고민이라 할 때 미약한 시도나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상 석순 7집, 184쪽 석순 약사 중에서

이 초기 석순들은 현재의 석순과 많이 다르다. 내가 느낀 이물감과 색다른 감정들은 초기 석순들을 보면서 느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렇게 여성주의 매체의 역사가 시작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끈을 계속 이어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않아야겠다.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쥬이쌍스>



학내 여성주의 전영에서 근자에 제시되던 '매체 발간'이라는 화두가 기어이 2002년 2월 인문대 모처에 모인 몇몇 사람들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부터 매체 발간의 욕구는 서서히 증대되기 시작했을 터다. 왜 매체를 열원했는지는 앞에서 이미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믿고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한다. 곧 학내 자유게시판에 '여성주의 자치언론을 제안합니다'는 제안서가 뿌려지고 이를 보고 온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알아알음 모이자 제법 공동체를 꾸릴 만큼의 수가 채워졌다. 그리고 곧 이들은 매체를 만들던 그 시점에 이름에 대해 몇 번인가의 고민을 한다. 결국 '전부한' 상상력은 누군가의 말을 차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그 이름도 매력적인 쥬이쌍스(Jouissance, 열락)였던 것이다.

쥬이쌍스는 우리 말로 <열락>, <향락>으로 번역되는 불어 단어다. 불어에서 "jouir"라는 동사는 '놀다, 즐기다, 향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jouissance는 이의 명사형으로서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건 <잉여가치>라는 개념이다. 즉, 뭔가 남아돌고, 그걸 쓰면서 즐겁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성적 오르가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단어는 처음에 라캉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이리가래이, 식수스, 크리스테바 등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여성들의 열락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서울대 여성주의 자치언론>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쥬이쌍스, 굳이 자치언론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된 데에는 학내에서 여성주의를 고정적으로 발언해낼 매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창간호는 '여성과 공간'이라는 기획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내뿜었다. 인기 만화가 당근의 '옹녀 이야기'와 그림자춤의 만화평이 고정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각종 학내 문제들(예를 들어 섹터 성폭력)이 거론됐다. 당시 창간호가 발간됐을 무렵 교내의 반응은 과히 양면적으로 폭발적이었다. '분리주의'를 낱설어하는 사람들과의 일차례 논쟁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쥬이쌍스의 존재를 기뻐해주는 독자들이 있어 쥬이쌍스는 생존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치언론의 한계점이자 장점이기도 한 자본과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쥬이쌍스는 결국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나날이 늘어가는 재정상의 부담으로 인해 이것마저 지켜지지 않아 급기야는 개간지 주기를 따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언론이 가져야 할 신속성이 문제시되면서 '사이사이'라는 짧은 게릴라성 매체를 매월 내기로 합의를 보게 된다. 1호가 발간되고 얼마 안 있어 발행되었던 '사이사이 1호'는 전투적인 글쓰기라는 친인척들의 평을 들으며, 시선의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역시 구성원의 게으름과 역량의 문제로(무엇보다도 인력의 문제로) 이슈파이팅을 주안점으로 삼았던 '사이사이'는 1호로 그치게 되었고, 결국 힘을 강화하자라는 의견으로 모여져 웹진으로 거듭나기에 이르렀다.

쥬이쌍스 2호는 '여자친구'를 기획으로 삼아 여자친구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과 생각을 전달하고자 애쓴 한편, 당시 대학신문 독자 투고시 사건(?)을 비판하며 학내 이슈 파이팅 또한 놓치지 않았다. 여성들에게 거의 잊혀지고 있었던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며 공유하고자 했던 쥬이쌍스 2호의 기획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이는 당년도 가을에 있었던 관악 페미니즘 문화제 '내 여자친구 이야기'에 이어지게 된다. 당근의 '옹녀 이야기'는 쥬이쌍스의 구리구리한 흑백 인쇄 체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리며 인기를 계속 얻고 있었고, 그림자춤의 만화평과 물로의 노래평 역시 변함없는 역량을 과시했다. 1호에 이어 외부 필자 덴발이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라는 칼럼으로 쥬이쌍스에 힘을 실어줬다.

쥬이쌍스 3호는 내부적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아쉬운 책이다. 3호가 발간되던 시기는 태어난 지 반 년만에 쥬이쌍스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시기, 즉 종이매체 중심의 발간 체제에서 웹진 중심의 발간 체제로 전환하게 된 시기였다. 그에 맞춰 웹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한편 사이버 공간이 완벽한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문제에도 봉착했다. '사이비와 여성'을 기획으로 잡으면서, 사이버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그 공간 속에서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주제에 관해 필진들의 현학적인 접근이 독자로 하여금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이 3호에 대한 지배적인 평이었다.

4호부터 쥬이쌍스는 그 글쓰기의 성격에 좀 더 다른 변화를 주게 되었다. 그 이전 글들이 직접적인 계몽이나 여성주의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글이었다면, 4호부터 쥬이쌍스의 성격은 좀 더 섬세하고 내밀한 문학적 글쓰기에 천착하게 된다. 여성주의적 언어로 막 드러난 여성들의 경험과는 약간 동떨어진 가운데 개인의 농축된 의식과 친밀한 주제인 '책'을 기획으로 삼으면서, 필진들은 그냥 책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내뿜었다.

점점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와는 멀어져 가는 쥬이쌍스의 성향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5호 기획 '어머니'에서는 각자의 어머니에 관한 바닷 글은 우울한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글 내용에 관해서는 서로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쥬이쌍스의 내부적 성향으로 인해 상당히 다양하고도 속 깊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자기 지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쥬이쌍스는 또 한 번의 대전기를 맞으려 하고 있다.

쥬이쌍스가 여성주의 매체로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진들 스스로도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향유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체, 라고 애써 자위해본다.

학내 여성주의 매체, 그 한계를 넘어서

by 야생씨가지(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쥬이쌍스)

0. 들어가며

학내 여성주의 매체는 2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학내'에 속해져 있다는 것과 '여성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외부 언론들과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함께 가지고 있다. 기존에 학내에서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발행되었던 다양한 매체들을 '여성주의 매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무리한 것일 수 있다. 90년 대 초반부터 하나 둘 씩 생기기 시작한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가지고 있는 매체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는 것은 그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매몰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2003년 여성연대한판에서는 여성주의 매체라는 이름으로 한 판을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매체를 통해 운동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의미있는 시도이다.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서로 소통을 할 기회는 개인적인 친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기사를 공유하거나 '여성주의'를 '글'로 풀어내는 것이 가지는 공통된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말이다. 여성주의 매체 간에 소통을 담보로 하고 좀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또 바라고 있다. -_-; 또한 여성주의 매체가 없는 단위에서 여성주의 매체를 새로이 만들려고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소스가 공유되기를 바라면서 이 판을 준비했다.

우리(석순, 두입술, 쥬이쌍스, 일다)는 회의를 통해서 여성주의를 글로 말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입장에 기반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차이들이 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비슷한 고민 지점을 가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여성주의 매체와 그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학내 매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주의 매체의 문제점들과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사실 해결은 안된다. -_-; 그냥 해결될까라고 믿고 싶은 야생의 마음. 이 장에서는 일단 학내에 존재하는 (학외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버리자. 나는 알 수 없다. 흥흥) 여성주의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말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카아카아~

1. 이슈 파이팅, 고질적 게으름일까? -_-:

기존의 학내 여성주의 매체의 경우 언론에서 요구되는 이슈 파이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여성주의 행사나 이슈화되는 문제를 잘 알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예전의 운동을 위해 게릴라식으로 나왔던 여성주의 매체는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지속성이 없고 내부 구성원들의 대단한 양의 노가다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학내의 여성주의 매체들은 대부분 홈페이지 등 웹을 강조하기보다는 종이 매체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 대학의 사이클에 맞추어서 방학이나 시험 기간을 피해 종이 매체를 발간하다보니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내 여성 매체의 경우에 다루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으로 이슈화된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이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학내에 분절된 여성주의 단위들을 통합력 있게 묶어내고 좋은 행사를 공유하거나 필요한 사안들(교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힘을 뭉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여성주의 매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2. 여성으로서 글쓰기,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쓸 것인가

글이 여성주의 매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여성주의를 내걸고 그에 맞는 글을 쓰겠다는 이유이다. 여성주의를 알려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리고 여성주의를 가지고 글을 쓰는 방식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여성의 글쓰기, 여성주의적인 글쓰기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여성주의를 걸고 글을 쓰는 매체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는 질문이다.

특히 쥘리앙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계속해서 부여잡고 있었다. 원래 여성적 글쓰기라는 말은, 혹은 여성의 글쓰기는 문학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언론이나 매체에서도 여전히 남성들의 이슈를 남성의 언어로 알려내는 지금의 상황에서 매체가 가지는 남성중심적인 부분에 비판¹⁾을 제기하고 그 구성 자체에 대한 물음으로 여성적 글쓰기는 유효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여성주의적인 글쓰기, 소위 말하는 여성적 글쓰기, 혹은 여성으로서 글쓰기라는 말들은 비슷비슷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말이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른 글쓰기를 할 것인가, 언어를 가지지 못했던 여성의 언어를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여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삭제되고 잊혀졌던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혹은 가부장적 홍수 속에 살아가는 소수자 여성으로서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판단 내릴 것인가 등 다양한 고민을 던질 수 있다.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은 사실 '잘 모르겠다'인데(내가 잘 모르겠다고 -_-: 다른 사람은 알지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기존의 여성주의 매체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글쓰기 방식과 그 매체가 가지는 독특한 분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석순의 경우에는 '여성주의적 인식의 과학적 확산'이란 모토처럼 여성주의 교지로서 많은 대상에게 알려내기 위한 글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석순은 친절한 설명들과 주석들을 즐겨 인용하고 비교적 정치적으로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기획을 잡고 그런 글을 생산해 낸다. 필진들이 공을 들여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진 날카롭고 설득력 있는 글들이다. 두 입술을 경우에는 일상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경험과 여성주의적인 이슈들을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두입술이 보여주는 재치어린 글들과 꼭 여성주의자라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풀어낸다. 마지막으로 쥘리앙스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2학기 때 발행될 6호의 기획과 더불어 '물정세'를 표방하는 걸 보면 -_-: 여전히 바닥 긁는 우울한 글을 뱉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수필과 픽션의 경계를 넘어서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기장이나 적어야 할 글들을 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풀어내고 있는 쥘리앙스는 숨겨진 여성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 고민한다. (사실은 물정세를 숨기는 방법일지도 모르지 -_-:) 그 외에도 여러 매체가 제각각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글쓰기의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 있다.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다양하고 대중적인 글쓰기를 지향하고 폭넓은 공감을 원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성주의적인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방식을 취할 테이고 여성주의 이론들과 여성주의 자체에 대한 학술적인 고민을 한다면 논문식의 글쓰기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소수의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독자층을 바라다면 몇몇 사람들만 좋아할 자기만대로의 글을 쓸 수도 있다. 물론 여성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과 정치적 올바름을 담보해야 할데지만.

여성으로서의 글쓰기, 여성주의적인 글쓰기, 여성적인 글쓰기, 대체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매체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왕좌왕 말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글들이 답답하다고도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 재미가 없다고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대체 누가 읽지 고민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 중요한 일인 듯 하다. 그래야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서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1) 사실 여성적 글쓰기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개념이 아닌지라, 기존의 언론이나 매체가 남성중심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은 그 근거가 다소 빈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3. 매체를 대중에게 알려내는 문제, 돈 돈 돈 T.T

여성주의 매체의 경우, '여성주의는 편향되고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때문에 항상 마이너리티로 자리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지인 석순의 경우는 예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대문화'라는 교지와 비교할 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치언론의 경우 예산의 문제는 더욱 힘들다. 자치언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각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비를 들이거나 예산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방법으로 근근히 책을 발행해 오고 있다. 자치언론들이 교지대금을 나누어서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모든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친다면 교지는 남성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 아니던가! 일반적인 남성이 인간임을 기억하자) 예산을 분배할 때 편향되게 주는 경우가 있다.

기획사를 확보하는 것도 자치언론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불경기로 기획사들이 제대로 광고를 따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여성주의라는 말을 기획안에 썼다가는 그나마도 있던 광고도 잃는 판이다. 안정적인 기획사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편집이나 웹 기술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기획사에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없을 때에는 자체편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개인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고 -_-: 기획사의 전문 편집에 비해 그다지 뽐내도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슬프게도 본인의 경험이다 우엥 -T)

4. 여성주의 내부 비판과 피드백의 문제

여성주의 매체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여성주의에 대한 사안을 알려내고 이슈화시키는 것도 있다. 분절되어 있던 학내의 다양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여성주의 매체는 내부의 여성주의(어디를 내부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도 남아있겠지만) 비판에 관해서는 거의 무지한 관점을 보여왔다. 학내의 여성주의를 다룬다면 여성주의 행사를 알려내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런 여성주의적인 행사나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에 대해서 알려내는 것과 동시에 건설적인 비판은 항상 담보되어야 한다. '좋은 게 좋아'식의 내부 위안과 자기 칭찬의 분위기가 너무 강했던 것도 사실인 듯 하다.

사실 세상에 마초가 너무 넘침으로 여성주의는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하고 바라보기도 전에 마초들의 어이없는 공격을 방어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 많다. 독자들과의 피드백을 좀 하려하면 게시판에 항상 올라오는 것은 '여자는 자고로...'를 외치는 마초들의 큰 목소리가 게시판을 도배하고 군 가산점 문제로 불거진 이화여대총학생회 사이버 집단 테러나 월장의 경우처럼 여성주의에 분노하는 개마초들 때문에 여성주의는 스스로를 바라볼 시간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주의가 화석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초기의 문제의식과 세상에서 당연시되었던 틀에 저항으로써의 의미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계속되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하며 이런 역할의 중심에 여성주의 매체가 있어야 한다.

5. 여성주의자, 졸업 후의 문제

학내 여성주의 매체는 분명히 일차적으로 학교 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며 학내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 여성주의 매체에서 활동을 하던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졸업 후에는 제대로 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예로 달나라 딸세포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여성주의자들이 만든 여성주의 매체이지만 업데이트가 빨리 되지 않고 필진들 각자의 사정들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 되었죠, 훌륭하고 재미있는 글을 뱉어내는 멋진 언니들) 각 학교 간의 여성주의자들의 연계도 어렵고 졸업 한 후에 계속해서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글 쓸 공간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들어가거나 여성학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여성주의를 고민하

고 글을 쓰는 건 힘든 일이다.

6. 나가며 - 여성주의 매체, 그 한계를 넘어서!

이상에서 살펴본 학내 여성주의 매체의 문제점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여성주의를 고민하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일 것이다. 해결책은 뭘까 -_-: 이야기해보자. 과연 그런게 있을까. 사실 한계 따위는 없는 건지도 모른다. 하하하! 카아카아 좋은 생각을 해봐요. 껌

** 여성주의 매체들의 사이버 주소

여성주의 저널 일다 <http://www.ildaro.com/>
 여성주의 웹진 달나라 딸세포 <http://dalara.jinbo.net/>
 서울대학교 여성주의자치언론 juicy쌔스 <http://www.jouissance.pe.kr>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http://www.suksoon.net/>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 <http://sosim.jinbo.net/>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장 <http://home.pusan.ac.kr/~wallzang/>

'여성노동'팀

- 파문, 누에, 유키, 후네, 불랑, 호수

여성노동.. 시작글.

by 파문

우리의 고백

2003 여성연대 한판에서 여성노동을 다루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고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쉽고 빠른 것은 거기까지였다. 우선 이 부분을 '누가' 맡을 것인가 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었다. 기획단에는 자신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어찌어찌 어울어질 한 팀이 된 우리들은 어렵게 어렵게 일을 진행시켜나가야 했다.

결단과 말하건대 이번 여성노동 팀은 어떤 일에 뛰어들 때 여성주의자들이 흔히 보여주는 취약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노출시켰다. 우리는 경험이 없었고, 아는 것이 없었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난 정말 하나도 모르고 왔는데요"라고 어물어물 말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은 차별과 억압에 민감한 여성주의자로서의 감수성뿐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고백

자, 이제 우리가 고백했으니 당신이 고백할 차례이다. 지난 1년간 여성주의자들이 여성노동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실천을 했었나 스스로를 되돌아보자. 아니면 방금 전의 퀴즈에서 몇 문제나 맞췄는지 반성해보자. 여성이 독립해 잘 살아가는데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그 크기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올해의 우리는 충분한 관심을 보였는가?

뭔가 이슈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지난 1년간, 오아시스가 있었기에 장애여성 이야기가 떠올랐고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반전을 크게 외칠 수 있었다. 하지만, 기간제 여교사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보수언론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이거나 진보의 탈을 쓴 물성적 분석뿐이었다. 여성주의자의 목소리를 듣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 판

우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이 비정규직 여성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에 대해 힘주어 말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글은 한판 자료집에 들어가는 발제문임과 동시에 뒤늦은 성명서이거나, 앞으로 꽤 소중하게 쓰일 여성주의 자료일 것이다.

고 글을 쓰는 건 힘든 일이다.

6. 나가며 - 여성주의 매체, 그 한계를 넘어서!

이상에서 살펴본 학내 여성주의 매체의 문제점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여성주의를 고민하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일 것이다. 해결책은 뭘까 -_-: 이야기해보자. 과연 그렇게 있을까, 사실 한계 따위는 없는 건지도 모른다. 하하하! 카아카아 좋은 생각을 해봐요. 헉

** 여성주의 매체들의 사이버 주소

여성주의 저널 일다 <http://www.ildaro.com/>

여성주의 웹진 달나라 딸세포 <http://dalara.jinbo.net/>

서울대학교 여성주의자치언론 쥬이쌍스 <http://www.jouissance.pe.kr>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http://www.suksoon.net/>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 <http://sosim.jinbo.net/>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장 <http://home.pusan.ac.kr/~wallzang/>

'여성노동'팀

- 파문, 누에, 유키, 후네, 불랑, 호수

여성노동.. 시작글.

by 파문

우리의 고백

2003 여성연대 한판에서 여성노동을 다루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고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쉽고 빠른 것은 거기까지였다. 우선 이 부분을 '누가' 말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었다. 기획단에는 자신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어찌어찌 물어 물어 한 팀이 된 우리들은 어렵게 어렵게 일을 진행시켜나가야 했다.

결단코 말하건대 이번 여성노동 팀은 어떤 일에 뛰어들 때 여성주의자들이 흔히 보여주는 취약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노출시켰다. 우리는 경험이 없었고, 아는 것이 없었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난 정말 하나도 모르고 왔는데요"라고 물어 물어 말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은 차별과 억압에 민감한 여성주의자로서의 감수성뿐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고백

자, 이제 우리가 고백했으니 당신이 고백할 차례이다. 지난 1년간 여성주의자들이 여성노동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실천을 했었나 스스로를 되돌아보자. 아니면 방금 전의 퀴즈에서 몇 문제나 맞았는지 반성해보자. 여성이 독립해 잘 살아가는데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그 크기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올해의 우리는 충분한 관심을 보였는가?

뭔가 이슈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지난 1년간, 오아시스가 있었기에 장애여성 이야기가 떠올랐고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반전을 크게 외칠 수 있었다. 하지만, 기간제 여교사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보수언론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이거나 진보의 탈을 쓴 물성적 분석뿐이었다. 여성주의자의 목소리를 듣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 판

우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이 비정규직 여성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에 대해 힘주어 말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글은 한판 자료집에 들어가는 발제문임과 동시에 뒤늦은 성명서이거나, 앞으로 꽤 소중하게 쓰일 여성주의 자료일 것이다.

기간제 여교사 사건

by 유기(이화여성위원회)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단의 비정규직 고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란 정식교사의 휴직이나 교육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담임이나 당직을 하지 않고 수업만 하는 교사를 말한다. 비정규직의 해고가 자유롭고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노려 결원이 생겨도 기간제로 메꾸기도 한다. 이러한 기간제 노동자는 보수가 낮고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신분상의 불안을 안고 있다. 3월말에 일어난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사건'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교사 진 씨의 불안정한 신분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교장이 자살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졌고, 보수적인 언론 등에서는 이 사건을 '커피 한 잔 때문에 사람 죽은 사건'으로 몰아붙였다.

<사건의 요약>

교감은 기간제 여교사인 진 씨에게 "교장선생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차 시중을 요구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진 교사는 다음날 교감에게, 일이 많아 교장선생님께 차를 드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업 후 교장은 계약서의 '기타 업무 이행' 부분을 내보이고 "윗사람이 시켜서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교조"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결국 논란 끝에 찾잔 정리와 손님 접대 준비로 합의물을 하였다. 그 날 이후 교장은 수업에 자주 들어와 야단을 치는 등 겁을 주었고 결국 진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진 교사가 교육부 부조리 신고센터 등에 사건을 제재함으로써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고, 전교조 충남지부는 진 교사의 보성초 원상 복귀, 학교장 서면사과 등 요구 공문을 접수했다. 교장은 진 교사를 제임용하고 서면사과를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자 전교조는 학교장의 서면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이튿날 각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3일 뒤 교장은 자살하였다.

각 언론은 주로 교장이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도했다. 즉 사건의 핵심은 '여교사를 성차별한 교장의 자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성차별 여부 등 사실확인 및 본질을 뒤로한 채 전교조의 파잉대응으로 몰아간 것이다. 전교조를 매도하는 배후에는 차 심부름은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일상적인 관행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다. 한 네티즌은 "차 심부름을 시킨 것은 큰 잘못이 아니며 직장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성인식을 치르면서 성장하는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교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전교조는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이며 폭력집단"이라고 주장하였다.

4월 2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보성초등학교 관련 진상청취 및 대책의 건'을 주제로 한 자리였지만 '전교조 청문회'를 방불케 하였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교장 본인이 채용한 교사에게 커피 한 잔 먹고 죽어간 사건이다. 나도 학교를 방문할 때 여교사가 커피를 타주면 반갑게 마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커피를 먹겠냐" 등의 발언을 하였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차 시중같은 사사로운 것을 따지지 말자"고 하며 차 심부름의 성차별 여부는 아예 배제하였다. 교장의 죽음을 다루는 이들의 시야에는 기간제 여교사의 성차별적인 대우와 이의 시정을 요구했던 전교조와 교사들의 대응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있어 차 심부름은 여교사가 마땅히 하여야 했을 일인데 여교사가 대든 것이고, 전교조는 그 일을 가지고 집요하게 교장을 협박하여 결국 죽음까지 몰아간 것이다.

만약 기간제 여교사가 자살했다면?



이에 대하여, 차 시중은 권력관계의 반영이라는 주장이 있다. 권력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에게 차 시중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신분에서 있는 여성들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차를 탄다. 이렇게 되면 차 심부름은 단순히 '기타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사건에 있어 차 심부름은 교사가 수업 외에 해야 할 업무이기 이전에 명백한 성차별이다.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모아 읽으며 실감한 것은, 여교사에 집중한 기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혹 여교사에 대한 말이 있어도 대부분 여교사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전교조에 있었다. 전교조의 이제껏 활동을 모두 꼬집어내어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교장은 협박에 몰려 억울하게 죽어간 참 교육자로 비춰졌다. 교장 자살 100일에 동생 서승직 교수는 전교조 지부에 "다시는 형님 같은 불행하고 억울한 교육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여교사의 차 심부름에 대한 성차별 여부가 논란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기간제 교사는 교단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 심부름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성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요즘도 회식 자리에서 젊은 여교사나 젊은 학부모를 교장 옆에 앉히는 일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

진 교사는 여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접대를 강요받으며 상처 받는 기간제 교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올린다고 했다. 진 교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불안한 위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권력과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갖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또 여성의 직장 내에서 위치에 관하여도 사회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스 김"으로 부르며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직장 내의 가부장적인 태도도 시정되어야 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육현장에 가부장적 관행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용역직 호텔 룸메이드의 삶

by 누에(이화여대 여성위원회)

그랜드 힐튼 호텔 용역직 룸메이드 해고 사건

10년 경력의 '룸 어텐던트' 노영심씨가 계약직에서 용역직으로 내몰린 사연

노영심(52)씨는 경력 10년이 넘는 '룸 어텐던트'다. 1992년에 처음 객실관리 일을 시작한 뒤 무궁화 다섯개짜리 특1급 호텔 '그랜드 힐튼'에서만 줄곧 일했다. 처음에는 호텔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 사원이었다. 해마다 한 두 명씩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됐는데, 노영심씨가 '하늘같은 정규직'이 되려는 찰나 직영계약직이 모두 용역계약직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놈의 2000년 12월18일'이었어요. 어쨌든 그 하루 전날, 바론말 좀 하고 뭔가 제대로 알 만한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말발 좀 있는 사람들은 그날 아예 출근을 안 시켰어요. 무슨 '미팅'을 한다고 해서 내려갔더니 '회장님 결정으로 경영방침이 바뀌었다'면서 글씨가 뿔뿔이 적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좀 어리바리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장을 찍게 하고,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게 하고... '직영에서 용역으로 바뀌는 것일 뿐 아무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단물 빨아 먹히고 팽당하다

회사가 그렇게 한 것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4개월 동안 파업을 벌였을 때 회사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정반대로 지킨 셈이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호텔 간부들이 '당신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고 있으니 충분히 대우해주겠다. 나중에 정기적으로 전환시켜주거나 최소한 근로조건을 대폭 올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는 죽을 등 살 등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파업 기간에 다른 업장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객실 운영은 가능했던 거예요. '하우스 키퍼' 부서장은 파업 끝나고 나중에 오히려 승진했더니깐요. 결국 우리를 팔아넘기고 자기는 승진한 거지요. 그때 우리가 뭘 몰라도 한참 물랐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나가서 정규직들과 같이 싸우는 건데..."

그러나 노영심씨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전혀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때 우리 몇 사람이 돈을 조금 걸어서 정규직 사람들한테 전달했어요. 그 사람들이 집에도 며칠씩 못 들어간 채 주차장에서, 야산에서, 퇴약별 아래서 정말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동료 이은녀(47)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 되었다. "언니,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아직까지 까맣게 몰랐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끝내고 호텔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객실관리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모두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다. 호텔 직원에서 줄지에 용역회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우리한테 단것 다 빨아먹었으니깐 '이제 너희는 필요 없다' 그거지요. 한마디로 우리는 팽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겁을 먹고 여성노조에 가입한 거지요. 용역회사로 바뀐 이후 더 불리해지는 것들이 있을까봐... 처음에 회사에서는 우리가 여성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관리자 한 사람이 여성노조 조합원들이 있는 르네상스 호텔로 옮겼는데,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들에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계약이 만료되는 2002년 12월18일이 다가오는데, 회사가 이상하게 그에 대해 일체 말이 없는 거예요. '회사 사정상 2월7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됐다'는 말만 하고는 업무에 대해서조차 일체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셋업'이 조금 틀리거나 VIP룸 거울에 물방울 자국 하나만 있어도 특1급 호텔이라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더니 전혀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 안하던 회사의 비밀

회사의 이상한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동법 지식이 필요하다. 여성노조 서울지부는 회사가 그렇게 한 이유를 "용역 노동자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으로써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법률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수"였다고 파악한다. 그 이상한 비밀이 풀린 것은 50일이나 지난 뒤였다.

"2월7일에 일 끝난 뒤 퇴근하려고 내려가 보니까 전체 28명 중에서 우리 21명의 다음날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 21명의 이름에만 모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잘됐다'는 것도 모른 채 관리자에게 '스케줄이 왜 이러냐'고 물었지요.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하더니, 호텔 쪽과의 계약이 '아이스비스(주)'라는 다른 용역회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용역회사의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승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서 7명만 고용승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용이 승계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근무경력이 짧고 업무수행능력도 떨어지는 사람들이니 회사의 설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노영심씨의 머리에는 회사 관리자들이 그동안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노동조합에는 왜 가입했느냐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꼬박 떼어가면서 당신들에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 차려준 밥상을 왜 당신들 스스로 걷어차느냐 멀쩡히 잘 다니는 직장을 왜 스스로 걷어차느냐"

마치 인심 쓰듯 계약을 연장해놓고, 50일 동안 회사는 '아이스비스(주)'라는 새 용역회사를 물색하고, 그 용역회사가 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그것도 모른 채 자신들은 열심히 일만 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노영심씨와 동료들은 매일 아침 호텔 부근에서 집회를 연다.

"호텔 근처의 마땅한 장소에는 호텔 쪽에서 5월까지 집회신고를 다 해놓은 상태라 모일 수도 없어요. 호텔 건너편 고가다리 밑에서 집회를 열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 몇 명이 아무리 크게 외쳐봐도 호텔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집회를 마친 뒤에는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새 용역회사로 찾아가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03년 3월 5일 한겨레21 제449호 중

→ '호텔 룸메이드의 현실'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데 있어 한계를 많이 느꼈다. 한여노협, 전여노조 등의 사이트에서 자료 집이나 게시판에 마구 뒤져보아도 자료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전여노조에서는 비정규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따로 꾸려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다지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그 초점이 학교 내 비정규직 여성노동에 맞춰져 있었다. 나 또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학교의 급식이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계약직 직장여성들이 생각날 뿐이었다.

특급 호텔을 지키는 이들은 우아한 복장에 세련된 매너의 호텔리어들만이 아니다. 반들반들 윤기 나는 객실과 공용 공간은 룸메이드들의 손으로 가꾸진다. 그러나 그들의 노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보니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1) 한여노협(한국여성노동자협회) : <http://www.kwwnet.org>
전여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 : <http://kwunion.jinbo.net>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 어머니들의 방청소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내재화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로 인해 그들의 현실도 '여성노동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직 호텔 룸메이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 호텔 룸메이드의 근로시간 및 임금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이미 절반을(56.6%) 넘어섰고, 특히 여성노동자들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 시간적으로 1.5배나 더 일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고, 무엇보다 다수인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법은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호텔 룸메이드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호텔 룸메이드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새벽 여섯시부터 일곱 시이다. 공식적인 출근은 오전 아홉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퇴근시간인 오후 여섯시까지 객실 열세 개에서 열다섯 개 정도를 치우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올 9월부터 일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3% 인상된 시급 기준 2,510원(일급 2만 80원, 월급 56만 7,260원)으로 결정되었다. 용역직 호텔 룸메이드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지면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부분의 경우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 아무런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 처지

지난 2001년 12월 르네상스 호텔은 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 55살 이상은 명예퇴직을 하라고 권고했다.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했지만 객실관리·공용공간관리·기물관리 일을 맡은 여성 노동자들만 집중공략을 당했다. 권고가 아닌 반강제였다. 손님의 요청으로 급하게 방을 치울 때도 "빨리 내려와 사인을 하라"는 들볶임을 당했다. 룸메이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관리팀장에게 물었다. "팀장님도 명예퇴직 대상자인데 왜 사인을 안 합니까?"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네들과 비교를 하느냐."

상당수의 룸메이드들이 버티자, 호텔 쪽은 3개과는 아웃소싱을 할 테니 경력과 나이를 떠나 무조건 용역회사로 옮기라고 공표했다. 용역회사로 옮기는 명퇴자들에게는 2년간 같은 대접을 해준다고도 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개별 면담에서는 "호텔업에서 용역 화는 대세다. 지금 안 나가면 명퇴금도 못 챙긴다"는 말을 반복했다. 명퇴금은 16개월 치 기본급으로 결정 됐다. 호텔과 호텔노조 사이의 일방적 결정이었다.

알고 보니 용역회사를 차린 이는 호텔에서 룸메이드들을 관리하던 부장이었다. 사정은 볼 보듯 변했다. 정규직이던 신분은 하루아침에 임시직으로 내몰렸고, 명퇴를 한 부장은 용역회사 사장님으로 변신했다. 똑같은 대접을 해준다는 말과 달리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800%에 이르는 상여금은 사라졌다. 호텔 쪽 설명은 2년 치 상여금을 명퇴금으로 미리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호텔과 호텔노조는 경영이 어렵다는 말과 달리 올해 정규직원들은 월급을 11만 원가량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호텔 룸메이드의 용역 화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룸메이드를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법이나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할뿐더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일자리를 잃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회사 쪽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넣기 십상이다. 룸메이드들이 호텔과 손을 잡고 룸메이드의 용역 화에 앞장서는 호텔노조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법적 사각지대 방치된 용역직 호텔 룸메이드

이번에 그랜드 힐튼 호텔로부터 해고된 용역직 룸메이드들은 많게는 10년, 적게는 4년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일해 왔다. 이들은 처음부터 용역노동자는 아니었다. 처음에 호텔 측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였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일 때 호텔은 계약직은 조합원이 아닌 점을 이용하여 '정규직 고용'을 약속하며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호텔은 이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구조조정'을 빌미로 지난 2000년 12월 18일 30분 만에 룸메이드들을

용역 직으로 전환시켰다.

그 후, 룸메이드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호텔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낮은 입찰가격에 묶인 임금은 제자리요 바뀌는 용역회사에서 고용승계만 해줘도 감지덕지한, 고용불안의 나날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반면 이런 용역 화를 통한 최대의 수혜자는 호텔이었다. 호텔은 룸메이드에게 대부분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지만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등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회사는 계약해지나 고용승계 회피를 무기로 용역직 룸메이드를 손쉽게 해고하면서 이의 부당함을 항의하면 도리어 '내가 무슨 힘이 있냐'며 호텔에게 책임을 돌리면 그만이다.

2월 7일, 용역회사가 AMPM(주)에서 아이서비스(주)로 바뀌면서 새로 바뀐 용역회사 아이서비스(주)는 조합원들만 해고했다.

해고된 룸메이드에게 가장 분통 터지는 일은 자신을 보호해줄 '법'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고용주이지만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닌 호텔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 '고용주인 용역회사와 알아서 하라'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반면 직접적인 고용주인 용역회사는 '룸메이드를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다', '직원채용은 고유한 회사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랜드 힐튼 호텔 룸메이드들이 계약직 노동자에서 용역 직으로, 다시 '합법적인' 해고로 이어진 처지는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 전체 노동자의 52.3%가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특히 여성노동자의 70.2%가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²⁾.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을 이야기할 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는 줄곧 묻혀져 왔다. 일부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아줌마들의 비정규직 진출은 가구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며 이 같은 현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³⁾는 의견도 있다. 남자가 비정규직을 갖는 경우에는 고용상의 불안이나 낮은 임금, 노동력 착취 등이 심각하여 문제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여자들이 비정규직을 갖는 것은 문제 삼을 것 없는, 오히려 국가에 이득을 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IMF 때부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계약직의 용역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이후 가장 빠르고 쉽게 용역 직으로 퇴출당한 이들은 호텔 룸메이드, 병원 청소·관리직 등의 여성이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히 용역직이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이유는 용역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며, 해마다 바뀌는 용역업체의 입찰제도로 인해 극심한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호텔 룸메이드의 경우 종사하고 있는 자가 거의 100% 여성이며, 또한 거의 100% 용역직이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모성보호정책은커녕 받지 못한 야근수당이나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걱정하기에도 급급하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근로를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여성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보호법 마련이 시급하다.

2) 2001년 2월, 통계청

3) 2002년 9월 12일, 삼성경제연구소 강우환 연구원, 문화일보

대학. 여성. 비정규직. 시설관리용역

by 후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는 좀처럼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한다. 학생과 교수, 직원 이외에도 청소와 경비 등 시설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 역시 학교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있기 마련이다. IMF이후 신자유주의나 비정규직이니 하는 말들은 대학이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있는가. 또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비정규직 시설노동자이면서 또한 여성이라는 상황에 있는 '여성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1. 용역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는 미화원 방호원 분들은 수십년을 그곳에서 일한다고 해도 서울대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이다. 그분들을 고용한 곳은 '용역회사'이지 서울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가 비용절감을 위해 선택한 이런 형태의 고용구조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동반한다.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가능한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노동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96년 이후 해마다 대대로 지속적인 임금삭감이 자행되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늘어나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무권리' 상태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용역회사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떼먹거나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인원이 모자라도 비용상승을 막기 위해 채워넣으려 하지 않는다. 혹여나 여성노동자가 생리휴가라도 사용하겠다는 말은 일을 곧 그만 두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2. 성별분업구조

물론 교내 시설관리 노동자 분들 중 미화원과 방호원 분들 모두 부당한 노동조건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두 경우도 처해있는 상황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시설관리 노동자분들 중 방호원의 기본급은 월 67만5천원이지만 미화원의 경우는 약 5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각 학교마다 방호원들의 급여가 미화원의 경우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며 방호원의 경우 '남성노동자'가 100%를 이루고 있는 반면 미화원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80%이상이다. 이렇게 '성별분업'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가에서 방호원분들의 업무란 격투기나 특수한 근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실제로 고용되어있는 분들이 '고령'의 남성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호'는 조금더 어렵고 힘든 일이며 따라서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편견이 굳어있다. 되려 미화원의 경우 각종 위협이나 신체적 고통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란 '가사노동과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뿌리깊은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와 여성에게 최저임금의 의미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미화원 사이에도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사이에는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시설노조의 경우 학교 측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남녀구분없이 일괄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예전부터 남성노동자가 더 받아왔다'는 이유와 '남성 노동자가 여성노동자보다 현장에서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남성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자의적으로 5만원정도를 남성들에게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 차이는 노조활동에 의해 점점 좁혀지고 있기는 하나 이렇게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도 여성의 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반영한다. 여성의 노동은 가정의 생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노동,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도 상황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해고해도 되는 노동 정도로 인식되며 이것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의 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투쟁'은 그 어떠한 상황의 노동자들보다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생계달린 절실한 문제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최저가 낙찰제를 기본으로 삼는 용역업체로서는 이득을 창출하기위해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낮춰야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성의 최고임금은 곧 최저임금이 되고 만다.(아예 처음부터 여성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낙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중고령의 여성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50만원 남짓한 -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 생활비이며 최저임금의 의의에 부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 이유로 최저임금 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이름뿐인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조항

"지난 2000년 노조가 만들어져서 처음 협상할 때라서 민주노총같은 상부단위 문서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좋은 말들은 많지만 그 중에 실현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 협약 제 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장에 대한 설명이다. 여남 임금격차가 자명하고, 여성이 미화원의 80%를 차지해도 '대표'만은 소수의 남성노동자들에 의해 독점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승진 등에 여남차별이 없다는 말은 이미 아무 의미없는 것임이 자명하다. 더군다나 생리휴가 등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수준에서 하루 임금이 삭감되면 그만큼 삶이 힘들어지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5. 시설관리 노조의 실패와 성과

97년 경제위기 직후 청소부문에서 임금삭감과 해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자 비정규직의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투쟁사례로 들어났으며 여성이 집중한 청소노동자의 조직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의 경우 2000년 1월 지속적인 임금 삭감 등에 대응하며 노조를 결성한 이후 41일간의 파업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방호원과 미화원이 함께 노조를 조직하였으며 여성 청소 노동자들이 집행부의 다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노조의 핵심투쟁동력 또한 여성 노동자이다. 여남 임금격차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의 임금 및 단체 협약에서도 여남 임금격차는 핵심 사안 중하나였으나 '회사는, 여자미화원과 남자미화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02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최저임금에 여자미화원의 기본급이 미달했을 시, 기본급을 인상한다.'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 정도만 확인된 채 여남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지금 현재 2003년 7월에도 9월부터 실시되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여남 임금격차가 없어질 것이라고는 하나 그동안 남성에게만 관습적으로 지급되어온 각종 별도수당에서의 격차도 사라지는지는 미지수이다. 모성보호 관련한 부분에 대한 협상은 아직 핵심사안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노동 중 위와 같은 교내 여성, 비정규직, 시설노조 분들에게 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그분들이 강도 높은 노동을, 현재 받고있는 임금보다 높은 가치의 노동을 해왔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물론이고 자신스스로도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남 임금격차와 성별분업 구조 속에는 여성의 가사노동, 여성노동력에 대한 평가절하라는 이 사회의 시선이 녹아있는 것이며 여성 또한 가정을 이끌고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경제주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사회의 편견이 녹아있는 것이다. 중고령자, 여성,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분들. 이 분들에게는 때론 노조의 존재조차 무의미 하기도하다. 노조란 정규직, 남성중심의 투쟁이 되기 마련일 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천시 받는다고 여기는 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소리 높여 주장하기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게다가 이분들에게 노동의 공간은 비단 직장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보살펴야 할 '가정'이 존재하는 한 노조활동에 들일 시간적 여유란 극히 미미한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지속적인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을 넘어서 '여성의 노동'과 '여성비정규직노동'에 대하여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한다.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by 불량

0. 들어가며

전체 임금노동자 1,360만명 중에 56.6%인 772만명이 비정규직이고, 여성은 임금노동자 560만명 중에 70.7%인 396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¹⁾

여성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 중에 학교 비정규직은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추계선을 위한 움직임도 더딘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조리사(원), 영양사, 과학실험보조원, 사서 등 학교 비정규직은 그 수도 많을뿐더러 절대 다수가 여성이다. 이들은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노동부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들의 존재는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다.

1. 왜 학교 비정규직에 여성들이 대다수일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와 구분지어 말할 때, 그것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처한 위치를 고려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이야기할 때, 왜 이 부문에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글을 쓰기로 하면서, 여성의 특수성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다. 사실,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자료는 별로 없다. 하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물어본다면, 학교 비정규직 - 급식조리사, 영양사, 실험보조원 등의 일자리에 여성들이 왜 대거 몰려있는가? '여성들이 그런 일자리에 많이 몰리더라'와 같이 마치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인양 말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일의 성격에서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급식조리사와 영양사는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과 비슷한 성별분업의 맥락에서 여성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직종이며, 실험보조원과 학교도서관 사서 등은 학교에서 존재감조차 별로 없는 부수적인 일자리가 되어가고 있다.

83년 신설될 때부터 일용직이었던 과학실험보조원은, 예전 초등교사의 과잉 공급이 유난했던 때에는 대기직 교사들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그 후 초등교사들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지자, 그 자리는 다시 비교사 무경력자들의 임시직이 되었다. 비록 실험보조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과학교사 못지 않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일이기에, 실험보조원들은 관련 자료를 스스로 찾아가면서 공부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고, 10~20여년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그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대다수의 과학실험보조원들은 학교의 잡무를 하나 이상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방송일, 행정과 행정업무, 차 심부름, 교무실 전화 받기, 보건교사 보조 등이 그 잡일이다. 엄연히 교육종사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인정받아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부수적으로 잡일을 시킬 사람으로 전락한 과학실험보조원 의 대부분은 30~40대 여성들이다.

고등학교때 급식을 먹으면서, 넓지도 않은 식당 한 칸, 더운 김이 뿜뿜 나는 그 더운 공간에서 3~4명의 아주머니들이 몇 백명 학생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았었다. 집에서 모든 식사와 가사노동을 도맡아 할 그 아주머니들이 밖에서 일하려고 할 때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 식당에서 음식이나 청소하는 일, 파출부, 급식조리사 등 '여성의 일'이지만 '인정은 별로 안 해주는' 일자리가 그녀들이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직업일 것이다.

일용직, 잡급의 비정규직에 왜 그토록 여성들이 많은가. 노동 자체를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항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그러한 일자리들에는 유난히 여성들이 많이 있다. 혹은 여성들이 많이 있는 직종은 유난히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1) 2002년 8월 통계청

것들이 많다. 여성들이 가야 할 직종이라고 주장하고서, 제대로 대우는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IMF와 같은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들, 그 가운데에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2. 노동환경

2002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한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의 정규직/일용직 비율을 보면, 영양사는 전체 1,115명 중 91.2%가 정규직이고 8.8%가 일용직이라고 나와있다. 서울 지역 영양사는 아직까지 정규직 비율이 큰 편임을 알 수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IMF 이후 공무원수 동결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설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로 급식소 영양사를 '일용잡급'적인 임시직으로만 채용, 현재 955명 영양사의 절반 정도인 400여명이 일용직이다.

서울지역 학교 급식 조리사는 전체 1800명 가운데 정규직이 32.3%, 일용직이 67.7%이고, 조리보조원은 전체 7,405명 중 정규직이 16.3%, 일용직이 83.7%로 2/3 가량의 급식 조리사(원)이 일용직이다. 과학실험보조원은 정규직이 전혀 없고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과학실험보조원 800여명이 모두 일용직이다.

조리보조원(사)은 급식인원 200명당 1인 배치를 기본으로 하며 시설이 열악하여 여름에는 급식실 온도 40도 정도가 된다. 각종 산재 문제도 심각하고 생리휴가와 정기 건강진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휴가와 수당 - 시간외 수당, 상여금, 연차휴가, 육아휴직, 근속수당 등 - 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들의 노동강도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보았듯이 매우 높다. 1인당 급식 인원이 너무 많아 본인이 빠지면 급식이 어려우므로 휴가 사용을 할 수 없고 피치 못 할 경우에는 본인이 일당을 주고 대체인력을 구해놓아야 가능하다. 또한 방학중 급여지급이 없어 1달 평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임금이 낮다.

과학실험보조원은 1개교에 1명씩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과학실험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자료실과 업무보조를 겸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인격적 대우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또 위험한 화학 약품 취급으로 만성피로증후군 등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취약하여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영양사도 1개교에 1명씩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IMF 이전에는 정규직으로 공채하다가 IMF 이후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일용직으로 채용, 2002년부터 지역별로 약간명씩 정규직을 공채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이 발령되면 비정규직은 그 날로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고 각종 연수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받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임금 격차는 심각하다.

3. 나가며

지난 6월 14일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서울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린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서울시 교육청과 노동부 관계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시의원 등이 참석하고 서울지역 급식보조원, 영양사, 과학실험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행정 관계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해결방안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했고, 더러는 다른 부처로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참석한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거의 없었음을 개탄하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문제점을 드러내 주었다.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가장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로 떠오른 지 이미 몇해가 되었다. 하지만 그속에서도 각 부문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드러나지 못했다. 경제가 어려울때는 가장 먼저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되고, 경제가 회복될 때는 가장 늦게 해택이 돌아오거나 그나마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여성노동자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투쟁들 속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이제 온전하게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전쟁과 여성'팀

성별화된 폭력과 여성 체험

- 화, 여량, 샘, 꾸꾸

성별화된 폭력

I. 들어가며

모든 권력 관계의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별 권력이다. 권력의 집중은 약자에 대한 폭력을 부르고, 아버지 가부장제에게서 군사주의, 권위주의, 남성우월주의라는 유산을 상속받은 젠더화된 국가는 폭력을 재생산한다. 폭력은 무력 갈등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정치적 소수자의 일상에 문화1)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 '폭력의 문화'는 젠더화된 국가가 여성과 정치적 소수자에게 휘두르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그것은 여성과 정치적 소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폭력을 체화하게 만들고, 폭력이라는 반인도적인 수단을 국가와 사회의 이름으로 합법화하며, 폭력이 재편한 질서의 정당성을 공동체가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적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이며, 중앙집권화된 사회 통제의 행위자이다. 그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남성을 중심으로 그 권력을 세습하며,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약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의 장자라 불릴 만하다. 이렇듯 젠더화된 국가는 그 기원에서부터 젠더화된 권력으로 여성을 통제하려 하고, 이에 따라 여성은 국가 통제의 목표가 되었다. 젠더화된 국가는 첫째, 성적 차별성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주된 조직자이며, 둘째, 젠더화된 국가는 성적 차별성을 지닌 합법화된 폭력을 행사하면서,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비합법인가를 결정한다. 셋째, 젠더화된 국가는 성적 차별성을 지닌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폭력을 통해 제도화하거나 재창조한다.

II. 젠더화된 국가, 성별화된 폭력

1) "성별화된 폭력은 전쟁시 폭력과 구분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의 뿌리는 평화적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쟁 행위로 성별화된 폭력의 사용은 평화시와 전쟁시의 문화를 동시에 연구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성별화된 폭력은 사회적 질서에 대한 교란 도구로서 몸, 성, 명예에 대한 문화적 은유를 활용한다...(중략)...정말로 전쟁 강간은 남/동유럽 지역에서 평화시에 여성의 몸에 부착시킨 명예, 수치심, 섹슈얼리티의 개념이 없었다면, 여성에게 고통주기와 테러의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중앙유럽문화의 보편화된 명예, 수치심에 대한 문화적 특징이 없었다면, 테러 정책 뿐만 아니라 전쟁 강간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리아 올루지(Maria B. Olujic), 「테러의 체현(Embodiment of Terror):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의 평화시/전쟁시의 성별화된 폭력(gendered violence)」,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군사주의, 여성에 대한 폭력, 매매춘 관련 열린 세미나 자료집」, 2001, 49쪽~50쪽.

모든 성별화된 폭력은 성분화의 고착화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공격은 적들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며, 파괴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성별화된 폭력은 선별되고 표적이 분명한 박해이다.²⁾ 성별화된 폭력의 희생자들은 그들이 단지 여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된다.

전쟁에서의 성별화된 폭력³⁾을 논하는 데에 있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도, 여성을 희생자로 간주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려는 것도, 폭력의 피해 사실을 침묵하거나 부정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별화된 폭력의 가해자를 감싸는 것도 모두가 젠더화된 국가(남성)라는 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시나리오에는 오직 한 가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테러라는 결말을 향해 작동된다.

1. 성별화된 폭력의 시나리오

군사주의/권위주의/가부장제/남성중심주의는 모두 같은 이름의 다른 얼굴이다. 이들 시스템은 의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강자/가부장/남성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지배권을 과시하는 것이고,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6년 한총련 사태 때 진압을 명목으로 한 공권력의 폭력도, 제주 4·3항쟁(1948)이나 광주 민주화항쟁(1980) 등 국가의 내적 갈등시의 폭력도 강자/가부장/남성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관철시키고 젠더화된 국가의 약자 지배를 수월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행되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미군에 의한 성폭력, 보스니아-크로아티아 사태 등 국가간의 무력 갈등시의 폭력은 강자/가부장/남성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것은 병사의 사기를 높인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위협하거나 약자에 대한 공격을 통해 연대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의식에 가깝다.

성별화된 폭력은 전쟁이나 무력 갈등의 진행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이것은 성별화된 폭력이 결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상황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평화시에 군대에서 남성들은 그릇된 성지식을 학습하고, 음담패설을 배우며, 여성을 오직 성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함으로써 여성비하적인 의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무력 갈등 발생시에 효과적으로 성별화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적인 인식이 평화시에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력 갈등이 발생하면 강간, 살해, 고문, 구타, 학대, 강제결혼, 여성비하 등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공포의 전략으로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폭력은 집단의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위협이 되었다. 성별화된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범죄로서 인정을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이다. 피해 여성의 인권보다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앞서는 것이다. 보스니아 정부는 서구의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데에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서야, 그동안 은폐하고 있던, 강간 캠프에서 세르비아 군인에 의해 보스니아 여성들이 대규모의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범죄로서 공식화하였다.

2. '남성의 명예'를 위해 여성을 보호하라! '남성의 명예'를 위해 보복을 가하라!

여성의 몸은 남성 집단의 상징적 명예 저장소⁴⁾이다. 타민족 타국가에 (여성과 소수자들을 고문, 학대, 강간, 살해함으로써)

2) 빅토리아 리치, 「과테말라 젠더 폭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여성적 사고 지구적 저항』, 2001, 189쪽.

3) "폭력이 성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학습된 남성문화의 소산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즉, 남자다운 남자(Macho)로 길러진 남성들은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그 집단 정체성의 핵심은 '타자(여성이나 힘이 약한 남성)에 대한 (성적인/신체적인) 지배력'으로 집약될 수 있다."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편집실, 『폭력으로 말하기/드러내기 - 여성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군사주의, 여성에 대한 폭력, 매매춘 관련 열린 세미나 자료집』, 2001, 25쪽.

4) "남성 집단들 사이의 주도권 싸움에서 여성의 몸이 하나의 기표로 떠다니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여성의 몸을 지배하는 남성 집단이 상대 집단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그 집단의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폭력을 가하는 것도, 자민족 자국가의 여성을 잠재적 희생자로 간주하고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남성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 흔히 남성은 자기 민족, 자기 혈족, 자기 가족의 여성이 성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을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수치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성적인 모욕에 대한 보복 역시 상대 혈통 집단의 구성원인 여성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의 남성 구성원들이 여성 구성원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곧 그 집단의 명예의 문제와 직결된다.

윤금이 씨 살해사건 당시에 운동단체와 언론에서 사건을 '민족의 딸, 민족의 누이가 당한 수모'로 묘사하며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시킨 사건'이라 불렀다. 여기서 자민족 자국가의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서) '보호받아야만 할 존재'가 된다. 또한 미군 범죄에 대한 반감으로 남성들 사이에서는 미국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다.

전쟁 강간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역시 자국의 남성들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전쟁 강간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자국의 남성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 강간을 인정하는 것은 가부장적 공동체를 지켜오던 여성의 순결과 모성이 파괴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부장제 사회의 와해를 의미한다. 가부장의 권위와 남성의 우월성은,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을 드러내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또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같은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자학사관'이라며 교과서에서 일본군의 성노예 문제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역사적 불명예를 극복하고자 하는 젠더화된 국가의 남성적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닐까.

3. 폭력의 가해자이자, 가해자를 감싸는 젠더화된 국가

젠더화된 국가는 억압받는 자(여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배하는 자(남성/지배집단)의 이해를 대표한다. 뿐만 아니라 성별화된 폭력의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가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침묵한다. 또한 젠더화된 국가는 지배 수단인 경찰이나 군대가 성별화된 폭력을 자행했을 경우 그것을 은닉하고 가해자를 감싼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들이 현지 여성들을 강간했던 사실에 대해 한국은 침묵한다. 1986년 부천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은 사실무근이며, 운동권이 정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의도라고 밝혔다. 1991년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힘겹게 입을 연 증언자가 나왔을 당시 일본은 진상규명 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대개의 미군 범죄는 국가의 수호를 받아 미해결로 끝나거나 불구속 송치 또는 미헌병대에 넘겨짐으로 끝난다.

4. 강제당하는 침묵

성별화된 폭력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여성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집단의 명예를 욕되게 한 더러운 여자가 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그 여성이 속한 집단의 명예훼손, 수치로 인식되어 온 것은, 여성이 집단의 성원이 아니라 소유물, 교환물, 재산으로서 간주되어 왔음을 드러낸다.⁵⁾ 민족과 국가의 일개 '소유물'에 불과한 여성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와 젠더화된 국가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몸은 재생산 기능과 관련되어 '땅'의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그래서 전쟁 시기에 여성의 몸을 정복하는 것은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영토를 정복하는 일종의 '상징적 외력'로 통용되어 왔다."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편집실, 앞의 글, 33쪽.

5)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사례들』, 『군사주의, 여성에 대한 폭력, 매매춘 관련 열린 세미나 자료집』,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2001, 45쪽.

성별화된 폭력의 피해 여성이 그 폭력의 경험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고안된 장치들은 순결 이데올로기와 같이 여성의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피해 여성에 대해 '원한녀'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여성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성별화된 폭력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여성과 정치적 소수자들의 사이를 분열시킴으로써 - 너와 '기지촌 여성'들은 달라, '매매춘'과 '군 위안부' 문제는 달라 -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도 한다.

III. 성별화된 폭력을 가시화하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별화된 폭력은, 그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소수자의 일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젠더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피해자인 여성과 소수자에게 입 다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억압의 구조를 드러내기 어렵다.

본 발제문에서는 우선 성별화된 폭력의 시나리오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 4·3항쟁과 광주 민주화항쟁, 한총련 사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성별화된 폭력의 피해를 드러내기 위하여 2차대전 홀로코스트 대학살 당시의 동성애자 학살 사건을 살펴보았으며, 호모포비아와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한 동성애자의 글을 함께 실었다. 그리고 성별화된 폭력을 드러내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 발제문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폭력과 여성 체험

-제주 4.3 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96년 한총련 사태,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를 중심으로

국가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체제에 반한다고 여겨지거나 걸림돌이 되는 지역 혹은 사람들을 '공권력'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폭력 진압해 왔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러한 모습들은 쉽게 접할 수 있다. 공권력에 의한 폭력 행사가 정당한가라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곧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국가 폭력의 경험과 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폭력의 방식 역시 성별화되어 가해진다는 점이다.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은 성폭력 그리고 반공, 혹은 반체제 폭력과 더불어 일상의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폭력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복합적 희생자가 된다. 또한 여성들이 겪었던 잔혹한 국가 폭력의 경험은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의 위치, 다시 떠올릴 수조차 없을 만큼 끔찍하게 몸에 각인된 고통, 그리고 그 고통마저도 한 '인간'이 아닌 한 '여성'에게 가해진 것으로 사회적으로 읽힘으로써 증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요소들로 하여금, 그 체험이 가시화되는 것조차 매우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몇 가지 소중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함께 살펴보려 한다.

1. 제주 4.3 항쟁¹⁾

제주 4.3 항쟁은 공식적으로는 좌우익의 이념 갈등의 산물로서 반공국가체제에 대한 반란으로, 비공식적으로는 미군정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으로서 반공우익단체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제주 민중의 저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듯 제주 4.3 항쟁은 그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사건으로 해석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항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당시의 제주도민들은 어떠한 대응폭력의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던, 그저 폭력에 의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한 무고한 희생자였다는 점이다. 어떠한 유형의 권력에도 불가항력적인 주민들로서, 4.3 항쟁을 둘러싼 권력의 위계 관계(좌우익의 갈등이나 국가와 민중의 갈등)의 구조에 포섭되지 않는 타자로서, 이 사건의 희생자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재정의 하는 것이 우리가 희생자들의 폭력 경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첫 번째 요소일 것이다.

4.3 양민 학살은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 학살은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강경 진압되었다.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수행되는 동안, 130개 마을이 불태워지고, 대부분의 주민이 '빨갱이' 혹은 '폭도 가족'이라는 혐의를 받고 무차별 학살을 당하였다. 토벌대에 의한 제주도민의 수난은 또한 집단적 성폭력의 양태로 나타났다. 강간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신부와 출산중인 부녀자를 총살하였으며, 한 마을 사람들을 나체로 집결시켜놓고 가족관계를 불문하고 남녀를 지목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다가 총살하는 반인륜적이고 도학적인 행위는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집단적 성폭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과 집단 성폭행은 '빨갱이'에 대한 증오의 산물이었고, 이에 따른 '빨갱이 소탕'은 나체의 계획적인 유대인 말살과도 같은 인종 말살이라 할 수 있다. 반공주의를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중심 가치로 하는 반공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빨갱이 섬'으로 주목받아 국가 정체성을 오염시키는 열등한 인종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낙인은 생존 가족이나 친족에게까지 남아 연좌제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당시의 제주도민은 '빨갱이의 몸'으로 대상화되었다. 주민 전체는 '빨갱이 인종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빨갱이를 재생산할 위험이 있는 '여성화된 몸'으로 인식되어 반공폭력과 성폭력의 이중적 희생자가 되었으며, 특히나 여성 피해자는 이러한 폭력이 행사되는 가시적 실체로서 일상의 가부장제 폭력과 함께 3중의 고통을 받았다. 여성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강간의 경험이 가부장제 하에서 성폭력이 받아들여지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읽힐 것임을 알았고, 따라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1)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 4.3을 중심으로 (캠프 공개세미나 자료집에서 참고)

우리는 4.3사건의 여성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국가 폭력의 대상이 여성화되고 성화된 몸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실제로 고문 방법 중 연행된 사람을 모조리 나체로 거꾸로 매달아 때리고 불에 달군 쇠로 지지대는 것이 있었다. 이 때 굳이 나체로 고문하는 것은, 고문에 의해 살이 벗겨지는 피고문자의 몸이 가시적으로 드러남으로써 그 몸은 고문자가 자신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고문자의 성적 욕망이 각인되어 있는 성화된 몸으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폭력의 몸이 성화된 몸으로 전환되는 실제 여성의 몸은 빨갱이의 몸이 갖는 여성성의 실체이며 또한 기표가 된다. 또한 간통하다 들킨 여성을 용공 혐의자들이 집결한 공공장소에 데려와 성행위를 강요하고 나서 국부에 수류탄을 집어넣어 폭파시킨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빨갱이의 몸에 대한 가혹 행위 이상의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굴욕적으로 성행위를 강요당한 여성의 몸은 그 여성을 포함하는 주민 집단의 '사회적 몸'을 상징한다. 여성 개인의 수치는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집단 전체의 수치가 되고, 그녀의 몸의 폭파는 그 집단의 사회적 몸의 참혹한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2.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79년 말 박정희 군사정권의 붕괴 후 다시 군사정권을 확립하려는 신군부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시민 세력의 저항운동이었다. 신군부에 의해 군부대의 이동과 대규모 무력 진압 작전이 수행되면서 공권력은 마치 적을 섬멸하듯 시민운동을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²⁾ 사망, 부상, 구타에 더하여 여성들에게는 어느 무력갈등시와 마찬가지로 무수한 성폭행이 가해졌다. 5.18은 국가 폭력에 대한 여성 체험에 대한 조사가 따로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당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도나 양상을 파악하는데 아직 무리가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과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광주에서도 여성들에게는 각종 성폭력과 성별화된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제주 4.3때 출산하고 있는 여성을 살해한 것과 유사하게 이 당시에도 만삭의 임산부를 총살한 일이 있었다.

이날 외곽으로 철수하는 공수부대의 무차별 발포 과정에서 벗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임산부에 가해진 총격이었다. 전남대 앞 평화시장 입구 골목에 서있던 최미애는 정조준된 총격에 머리를 맞고 그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사내에서 全南大로 철수했다가 다시 광주교도소 쪽으로 이동하던 제3여단 공수부대원들이 쏜 총알이었다. 이미 숨을 거둔 최미애씨의 뱃속에는 8개월된 태아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출생을 두달 남겨둔 태아는 뱃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죽은 임산부의 배가 거세게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그만 고개를 돌려버릴 수 밖에 없었다. 총알 한방에 두 생명이 동시에 숨을 거둔 비극이었다<X창작시대사 刊 실록5.18광주민주항쟁> 3)

왜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여성마저도 죽어야 했을까? 이는 군사정권의 폭력에 저항하는 광주 민중을 '폭도'로 몰아세우고 '폭도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정권의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진압자들에게 여성은 '폭도'를 재생산하는 몸이었으며 따라서 여성과 그 뱃속의 아이까지 살해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성과 권력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었으리라. 또한 이때 역시 길 한복판에서 남겨 구별 없이 옷을 벗기고 구타하였으며, 여성의 유방을 칼로 자르는 일도 있었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방이라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도려냄으로써 군인인 자신뿐만 아니라 정권까지도 대신하여 자신들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성적인 폭력을 가하여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남성성이, 체제에 반하는 것으로 낙인찍힌 폭도를 대변하는 여성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성별화된 폭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5.18 당시 여성의 폭력 경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무력 갈등시의 성별화된 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비판의 지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이 없었던 일이 아닌, '있었던 일'로 남을 수 있기 위하여 속히 연구가 진

2) 이현숙, [여성인권 현황과 과제]-폭력의 측면에서 중 발해

3) 광주일보 기획시리즈 5.18항쟁사 제54회에서 참고

행되어야 할 것이다.

3. 96년 한총련 사태⁴⁾

흔히 '연세대 사태' 혹은 '한총련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96년 8월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범청학련 통일대추전 행사에서의 공권력과 무력 충돌 사건이다. 당시 대규모 학생들이 연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경찰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여학생들을 남학생과 똑같이 운동권 학생으로 대하며 연행한 것이 아니라, '운동권 학생의 여자'로 취급하고,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연행되는 남학생들을 모욕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형태와 운동 방식에 변화를 가하던 각 학교의 여성 운동 단위들에게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약 10여개 학교가 모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문제에 대한 문화제(너희가 X를 믿느냐?)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비판 지점은 두 곳으로 향했다. 집단으로서의 한총련을 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이라는 매개를 이용한 공권력에 대한 비판과, 남성 중심적 문화와 성폭력과 무관하지 않은 운동 진영의 남성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4.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⁵⁾

중국 요령성 영구에 생존해있는 '처녀 공출'과 연계된 변형된 형태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다. 최양순(75세) 할머니가 바로 그이다. 전라남도 광주 인근의 농촌에서 어렵게 살던 열일곱살 무렵인 1944년, 할머니를 비롯한 열여덟 명의 처녀들이 낯모르는 내몽고 개척단 남자의 짝이 되기 위해 모집되었다. 인솔자들에게 이끌려 내몽고의 척박한 사막지역으로 가는 도중 중국의 어느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 인솔자들은 여자들을 방에 가둬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당시 만주와 내몽고 지역에는 중요한 군사 요새지마다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다. 그곳에도 주변에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을 것이고, 심여 명의 여자들을 인솔하고 가는 일행들에 대한 정보가 부대 쪽에 전달되었다. 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인솔자들과 부대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만주지역으로 끌려갔던 여러 할머니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대 안에서 군인들의 빨래를 하기도 하면서, 밤에는 또 지속적인 강간을 당해야 했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잠은 언제 잘 수 있었던 말인가?) 잡역부 겸 '위안부'로 여자들을 이용한 경험에 있는 부대에서 아무 힘없는 무방비상태의 이동중인 식민지의 여자들을 강간대상으로 삼은 것은 익히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다. 지배자이자 정복자인 자신들의 성적 위안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성을 유린당하는 여자들의 고통과 이후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기억과 그로 인한 피로움과 마음 깊이 새겨진 상처에 대해서는 무감했다.

최할머니는 다른 방으로 끌려가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다른 여자들도 그렇게 한 사람씩 끌려가 차례로 강간을 당했다. 할머니는 저항하다가 쇠몽둥이로 심하게 얻어맞아 피를 많이 흘려 걸을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때 맞은 상처가 지금도 허리에 확연하게 남아 있고, 허리뼈도 튀어나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그때부터 왼쪽 다리는 제대로 쓸 수가 없었고,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졌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후들후들 떨리고 마음이 아주 미칠 것 같으며 할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는 거기서 두 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열흘 동안 그 여관에 갇혀 있었다고 하니 강간은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셀 수 없이 당한 고통을 드러내기 싫어 할머니들은 이럴 때 자신의 경험을 축소하여 이야기하곤 한다. 평생 그 피로움 속에 갇혀 살았던 할머니를 보면서 단 한차례이든 지속적인 강간이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유린을 당한 것이라면 그 피해의 상흔은 아주 오래 깊이 남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할머니의 사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대 근처에 세운 항시적인 위안소의 '위안부'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위안

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중 "성폭력 운동사", 한울 아카데미

5) 사례는 여성과 사회14호 중 고혜정, 「중국거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답사기」 중에서 발췌, 편집하였음.

부'라고 할 수 있다. 임기응변적 현지 조달형 '위안부'라고 할까. 일본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안부'를 조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산동성의 박대임(90세) 할머니는 지금까지 만난 할머니 중 최고령 할머니였다. 만주로 끌려가던 1934년 무렵 할머니는 이미 결혼을 하여 8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끌려간 것이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할머니는 종래 일본군에게 당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일본 군대들을 따라다니며 낮에는 빨래하고 밥하고, 밤에는 "잠을 안 자면('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맞으면서" 바보처럼 일을 했다. '꽃다운 처녀'뿐만 아니라, 아이 업은 여자까지도 끌려가 군대의 잡역부 겸 '위안부'로 삼았다는 사실을 이 할머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일본놈 앞잡이를 '일본개'라고 표현하며 아직도 일본사람 하면 몸이 떨린다고 한다. 머리는 하얗게 세고, 허리가 꼬부라진 아흔살 할머니가 요즘도 이따금 그때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곤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10여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 외 세 명이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개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 재판소에 제소하면서부터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범죄화'되었다. 물론 김학순을 비롯한 할머니들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힘겹게 꺼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의 여성운동과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50여년이 지난 20세기 말에 들어서야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 여성들이 입을 열게 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50여년동안 위안부 여성들이 입을 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위안부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왜 그녀들은 말하지 못하였는가? 가부장제 패러다임 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치욕'으로 이야기되며, 여성에 대한 성적 인권 침해는 남성간의 재산권 다툼으로 환원되었다. '우리' 여성의 순결을 지켜주지 못한 한국 남성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수치였던 것이다. 위안부 여성들에게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고 있는 '삼중의 범죄' 중의 하나가 바로 50여 년간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러내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전시 강간'이라는 범죄, 위안부 여성들이 간신히 침묵을 깨고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보상금을 타기 위한 거짓이라고 치부했던 범죄도 포함된다.

출처: WAW 전쟁과 여성 자료집 (미간행)

“전쟁이 싫은 한 평범한 레즈비언의 이야기”

by 케이 (끼리끼리)

전쟁은 또 일어나고

부디 전쟁만은 하지 말아 달라 했던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는 부시 행정부의 귀에 가 닿지 않았다. 달았다 해도 관료들은 그 외침을 가볍게 무시하며 귀를 씻었을 것이다. 지난 봄, 그렇게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또 한 번 '평화'를 위한 전쟁을 개시했다. 선전포고를 알리는 기사들로 모조리 도배된 인터넷 사이트의 뉴스 속보 란을 보며 내 불안과 공포의 증폭에는 몇 배로 속도가 붙었다. 나는 무작정 암담했다. 지난 시간동안 이라크 전 개전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 왔고 전쟁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까닭에 대해 주위의 친구들과 나름의 근거를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최종적 성격을 지닌 선전포고가 뿌려졌을 때는 손가락도 까딱 못 할 만큼 무력해지는 기분이었다. 개전 첫날,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 미국을 규탄했다. 그리고 개전 전부터 있었던 흐름을 이어 반전 운동은 계속됐다. 크고 작은 목소리들이 속속 터져 나왔다.

눈을 비비고 바라본 벽보 -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 내가 다니는 학교 벽에 부착된 한 벽보 앞에 멈춰 섰다. 그 대자보의 제목은,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였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문구였을 것이다. 사실 그 자보가 붙은 게 개전 전인지 후인지, 자보에 쓰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거의 생각나는 게 없다. 굵은 글씨였을 정확한 제목조차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와 유사했던 제목은 그것이 담고 있는 단어들만으로도 나에게 상당한 충격을 남겼다.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전쟁이라니. 그건, 자보가 게시된 후 포비아들이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전쟁을 반대할 줄 안다든가 동성애자라서 전쟁을 반대한다든가 하는 차원의 위앙스가 결코 아니었다.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폭력'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에 반대한다', '폭력들이 없어져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나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난 악착같이 깨물었던 이빨에서 힘을 빼고 풀어진 표정으로 한참 동안 자보 앞을 서성었다. 저 제목과 만난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저기 쓰여 있는 거 맞지? 하며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봤다.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집회에 나가서 감히 소리 높여 발음할 엄두도 못 내는 구호,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겠노라는 말에 속으로만 담아서 외칠 수 있는 구호, 그렇지만 절박했을 때 만나 더 반가웠던 구호.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가 무서운 나, 전쟁이 무서운 나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호모포비아는 아무리(!) 신경 쓰지 않고 회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때 순간 어김없이 나를 움츠러들게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만연한 것이 호모포비아이다 보니 내성도 생기고 매일의 삶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법도 한데 그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내가 남자니까 여자 입술에 입 맞추고 싶은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겠나? 욕망은 서로 다른 육체에게

6) 우에노 치즈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내셔널리뷰와 젠더, 박종철출판사, p. 97.

느끼는 거지. 허허허. 뭐 동성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 보자고'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대학생이라면 시대가 지식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한다며 침을 뱉길 때, 나는 문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동성에 코드의 장면이 스크린 지나갈 때 극장을 채우는 야유의 코웃음들에 몸이 순식간에 불덩이같이 뜨거워진다. 때때로 옆 사람을 툭 쳐서 나를 보게 만든 뒤, '왜 저 장면이 그렇게 이상해요? 나도 동성애자예요' 라고 말해 볼까, 그렇게 하면 아주 특목히 놀려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사람 당장 내일 병원 가서 에이즈 검사 받을지도 몰라. 하는 꿈을 꾸어보기도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거의 백프로 불가능한 일이다. 교실에서, 극장에서 한 번 제발이 저러 화끈거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력감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호모포비아를 심각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나는 길거리를 거니는 남녀 커플의 다정한 모습을 보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커플 땀기 코너를 보거나 할 때, 대부분 그저 무심하다가도 한 순간 갑자기 모든 나의 존재감을 박탈당한 느낌이 들면서 몹시 분노하기도 한다. 거리에서라면 보통 인파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듯 멍청하게 서서 완벽한 고립감을 맛보게 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중이었다면 마치 지난 모든 경험과 세월을 상실한 듯 막막해지는 것이다. 이런 순간들에는, 치근덕거리는 남자에게 자신은 레즈비언이라 당신과 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가 살해당한 여자아이의 사건 등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거리를 두고 반응을 한다. 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여기며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부정한다. 잠시 후에 다소 회복이 된다 해도, 그럴 때면 정말 '나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는 느낌이 강렬해서 두렵고 슬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니 나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이 당연하다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기도 하는데 그 지경에 이르면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상시적으로 닥치는 괴로움과 혼자서 치러내는 이 작은 투쟁들은 마음과 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다. 한 사람이 자신이 다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이성애중심주의는 강고한 것이다.

전쟁 역시 나에게 그런 느낌이다. 개개인의 생존의 조건을 박탈하며 궁극의 무력함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 모든 폭력의 응집체. 어떤 목적을 위해 수행되건 상관없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화 될 수 있는 무자비한 시공간.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궁지로 모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호모포비아와 전쟁은 닮았다.

어릴 때를 돌이켜 봐도, 어른들이 보는 뉴스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예닐곱 살의 나에게 아주 생생한 공포였던 것 같다. 매일 밤 집에서 가장 먼저 잠자리에 들 때면 엄마에게 "전쟁 나면 나 꼭 깨워야 돼, 알았지?" 하고 거듭 대답을 청하고서야 간신히 잠이 들곤 했으니까. 그 일종의 '잠들기 전 확인 의례' 는 꽤 오래 지속됐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라는 걸 알고는 더 심하게 불안해하기도 했다. 휴전은 곧, 언제라도 다시, 말로만 들던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피난을 가던 중에 온몸에 땀띠가 나자 여섯 살도 안 된 여자아이였던 엄마가 사지를 남자 어른들에게 붙들려 마취도 못 한 채 환부를 절개하고 고름을 긁어냈다는 이야기며, 갓난 아기였던 엄마의 여동생이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마에 죽어간 이야기들은 어린 나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이기도 했지만 그에 앞서 무서움이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거란 소리가 아닌가. 일상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그때도 가졌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런 거였다. '전쟁이 나서 도망가야하게 되면 혹은 집에 폭격을 맞으면, 오늘 아침처럼 엄마랑 물을 뛰어가며 세수를 할 수도 없고, 집 앞 구멍가게도 들락거릴 수 없게 될테니까 먹을거리가 금세 떨어져서 얼마 안 가 완전히 굶게 될 거고, 총이나 대포에 맞아 상처가 아픈데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서 점점 더 아파질 터' 인데 어떻게 하나. 정확하지 않았던 느낌의 결을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부시가 이라크 공습을 끝내 감행하겠다고 결정하고 최후통첩을 했을 때, 나는 전신이 옥신거렸다.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한 절망과 어떻게든 유효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 전쟁을 실제로 막지 못한 나 자신의 미약함에 대한 새삼스러움이 겹쳐 쇼크가 왔고 몸이 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건디기 힘든 무엇에 대한 민감하고 적나라한 반응은 그러한 반응을 유발한 어떤 특정한 상황을 사이에서 서로 통하는 맥락을 갖게 마련인데, 그 때도 저리고 쭈시고 피부 밑이 간지

러워 살갓을 잡아 뜯고 싶어지는 그 통증이 낫설지 않았다. 수시로 엄습했던 '정상성' 의 중량감이 바로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혀 왔던 것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임박했을 때, 2차 대전 시기의 나치에 의한 동성애자 대학살 등을 굳이 떠올린 것도 아니고 다만 모종의 괴로움과 유사한 패턴의 아픔을 느꼈을 뿐인데도 나는 전쟁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된다 .

어제도 오늘도 전쟁 발발 위기에 대해 각종 매체에서 떠들어 댄다. 미국의 대북 전쟁에 대해서도 심심치 않게 언급되고 있다. 어릴 때는 개념이 희미해서 그저, '휴전 상태니 언젠가 전쟁을 재개하여 결판을 봐야만 하는 거구나, 무섭다' 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속셈이 조금씩 보이고, 점점 그 국제 정세의 동학이 재수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계속될 전쟁 속에서 자잘한 저항들 역시 이어질 것이다. 어떤 명분도 전쟁을 옳게 뒷받침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아프거나 무섭지 않고 살 수 있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저항들은 계속 되어야 한다.

생존자의 증언, 어떻게 들을 것인가 - 50년간의 침묵 그 이후

전쟁을 비롯한 무력갈등 시 발생해 온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들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전쟁 시 몇 명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자원이 파손되었는지, 전체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대중이라도 산출해낸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성이 겪은 폭력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전쟁 시 성별화 된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여성은 스스로의 경험을 드러내기조차 쉽지 않다. 적군과 아군의 구별 없이 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험들은 묻혀지고, 없었던 것이 되는가하면 적군에 대한 적개심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이용' 된다. 민족의 아픔과 수치를 드러내는 기표로 이용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담론 속에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 여성에게 말을 걸고, 말을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침묵 되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재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침묵과 망각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기억은 파편화되고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기억은 선택적이고, 상상과 해석이 개입하게 된다. 이 가운데서 생존자의 증언으로 그 당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존자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담고 있는 증언은 객관적인 자료로서가 아닌, 그 여성이 경험과 삶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민중을 주체로 한 민중사에서 지식인은 민중을 대표, 대변하면서 타자화하였다¹⁾는 말에서 생각해볼 수 있듯이 생존자의 증언을 '누가' '어떻게' 듣고,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들의 증원활동과 증언집에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해방적 구술서사 방법론의 문제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첫 번째 문제영역은 할머니는 '왜 지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의 서술은 왜 어떻게 억압당해 왔나 라는 서술 맥락(narrative context)의 문제와 관련된다. 여기서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의 진실성을 밝히지 못한 것은 여성 경험과 여성 경험 이야기 자체의 '주변성'에서 기인한다. 50여년 동안 침묵된 그 경험은 일제하 특수한 민족적 상황과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의 축도판과 같은 '의미있는 사건'이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위안소 경험이 금단의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여성의 정조에 대한 가부장적 문화이데올로기 때문이다. 할머니에게 위안부 경험의 '그 깊은 이야기'는 수치스런 과거로 각인되어 있었으며 그 폐해는 지난 50년간 스스로 '역사없는 존재'로서 가족이나 친지로 부터도 소외된 삶으로 이어진 것이다. 가부장적 순결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침묵과 망각의 힘은 할머니들에게 '부끄러운 죄인'의 자아상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증언자 할머니들은 '들음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극구 침묵을 지키려 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들음만한 이야기의 의미는 이야기 내용이나 형식보다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상호적인 서술행위의 과정에서 구축된다.

두 번째 문제영역은 할머니의 위안부 경험이 증언의 형식으로 텍스트화되는 방식 곧 서술 형식(narrative form)의 문제와 관련된다. 증언에는 서술자 할머니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이미 내포되어있다. 경험한 것이 모두 사실적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증언하는 의도가 무엇이나, 증언의 효과에 대해 증언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험 이야기의 내용은 '쓸만한 이야기'로 전형화된다. 할머니 이야기의 사실성과 전형성의 문제는 여성 경험 이야기의 재현과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경험의 재현은 피해경험의 주체로서 할머니들이 새로이 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위안부 할머니 증언집을 만든 연구자의 후기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있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서술 과정에서, 할머니들은 자신의 경험을 일제의 구조적인 성폭력의 피해로서 의식하게 되고,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감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의식'은 할머니들이 성폭력의 '피해자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토대가 되며 할머니들의 폭력적 경험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권투쟁에 참여하는 동인이 된다.

세 번째 문제영역은 할머니의 증언이 일제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느냐 하는 서술적 진실성(narrative truth)과 관련된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증언행위를 통해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일제 성폭력의 피해자 집단의 역사로 전형화된다. 증언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의미있는' 데이터로 역사화한다. 할머니 이야기는 모두 경험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실적 진실성(factual truth)과 서술적 진실성(narrative truth)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언 혹은 구술서사는 단순한 역사적 도큐먼트가 아니다. 기록이 곧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역사는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각과 통찰력의 결과이다. 즉 할머니의 증언은 실재로서의 역사적 과거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에 의해 재구성된 역사에 대한 담론이다. 역사적 실재를 문제 삼는다. 기존의 공식화된 역사적 실재가 점유한 공간을 끊임없이 교란시키며 그 한계를 문제화한다. 그래서 구술서사는 반역사(counter-history)이며 위법적인 서사(out-law genre)라 할 수 있다.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은 역사에 대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침묵을 교란시켰으며 세계적으로 국가폭력과 전쟁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여성인권의 문제로 담론화하는 실질적인 정치적인 효과를 가졌다. 증언은 사실이나 사건을 보고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적 진실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적 활동이다.

마지막 문제영역은 할머니 이야기 텍스트의 저자는 누구인가라는 증언과 구술서사의 저작권(authorship)과 구술텍스트의 생산과정과 관련되는 영역이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의 주체이며 이야기에 담겨있는 진실의 증언자로서 담론적 권력의 주체이다. 그러나 증언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이며 그런 의미에서 개방적 서사이다. 할머니들의 '그 깊은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고통의 이야기이다. 고통의 이야기는 강요된 망각의 지층에서 기억의 방을 헤집고 밝은 세상에 나오기까지에는 단태의 신곡에서처럼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 그 가이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청자이다. 청자가 이끄는 대로 구술한 이야기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위치를 갖게된다. 할머니는 문학작품의 작가처럼 비특정 독자를 향하여 이야기를 독점하는 권위적인 저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특별한 청자를 필요로 하는 화자이며 할머니 이야기는 청자의 협력적인 매개를 통해 '들음만한 이야기'로 텍스트화된다.

특히 할머니들의 피해자 의식의 형성과 성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에서 여성 조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경험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이야기이다. 특히 고통의 이야기는 그 고통이 부당함을 억울함을 고발함으로써 폭력에 저항하는 정치적 함의가 이미 이야기 안에 내재해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정치적 함의는 고통의 부당함에 공분하는 유사한 고통의 경험자만이 간파할 수 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 그리고 이웃이라 해서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운 가족일수록 위안부 할머니의 경험은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수치스런 것으로 인식되어 할머니들은 스스로 혹은 강제로 부모형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떠나야 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고통의 경험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³⁾ 그러나 기억하기조차 고통스런 경험 이야기를 말하는 할머니와 그 이야기를 '의미있는 이야기'로 정형화하는 여성 증언채록자 사이에는 '그 깊은' 고통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고통받는 여성의 이야기로 듣는 여성주의적 경청의 태도에 의해 가능해진다. (여기서 할머니들은 고통을 일반적으로 범주화하기 보다는 특정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사건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라는 정관사를 붙인다.) 이야기의 화자와 청자사이의 연대는 할머니의 사적인 혹은 집단적인 구술이야기를 역사적 증거로서의 객관적 의미를 가진 구술서사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매개고리가 된다.

'기억의 정치학'은 역사적 지식이 갖는 권력에 대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과거에 대해 구술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누가 과거를 기억하는가?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의 관점에서 그러한가?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로 구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억들이 문제가 되는 때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질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1) Spivak : 윤택림 1996 등

2) 여성의 언어 해석에 대한 방법론적 이슈들: 무당의 언어와 정신대 할머니 증언을 중심으로, 김성례

3) Elaine Scarry, *The Body in Pain*, Oxford U Press, 1985 참조.

'정보수집'팀

- 독, 파문 이스트

전국 여성운동여성주의 모임 정리

- 2003년 현재 지역별, 대학별로 주로 총여학생회나 여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성주의 자치단체들도 함께 학교별로 분류했습니다.
- ** 인터넷 커뮤니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낸 내용이기에 때문에 단위 정리에서 누락된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도 지역

국민대	여성학회 페아레	female21.cyworld.com	
동국대	17대 총여학생회 비대위	myhome.naver.com/dguwom	02) 2260 - 3614 / dguchw@naver.com
연세대	15대 총여학생회	www.yonsei.ac.kr/~ysfem	02) 2123-3645 / feminist@yonsei.ac.kr
	여성자치언론 투입술	언니네 '투입술' 커뮤니티	
	문화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언니네 '모반' 커뮤니티	
고려대	* 여학생위원회		
	법과대 여학생회	www.kulawfem.or.kr	
	여성주의 교지 석순	www.suksoon.net	
숭실대	총여학생회	femi12.ssu.ac.kr	02) 820-0867 / 12th_femicy@hanmail.net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02) 3277-4708
성균관대	19대 총여학생회	www.bigschool.co.kr/fenergy	02) 760-1430 / happyfenergy@hanmail.net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	sosim.jinbo.net	02) 760-1417 / skdujh@hanmail.net
	Femi-Land in Skdu	skdufemi.cyworld.com	
서울대	관악 여성모임 연대	언니네 '관악여성모임연대' 커뮤니티	
	주이앙스	http://www.jouissance.pe.kr/	
	인문대 여성모임연대	언니네 '사연커뮤니티'	
	사회대 여성주의모임연대	언니네 '인연커뮤니티'	
	법대 여성주의 놀이터		
명지대	18대 자주적 본론 총여학생회	www.bigschool.co.kr/명지대학교총여학생회	andoli@empal.com
성공회대	결반의 가능성 12대 총여학생회	green.skhu.ac.kr/~be_equal	
홍익대	총여학생회		02) 320-1449 / 016-283-6966(부회장)
한공대	여성학회	www.feminist.wo.to	016-733-9628

한공대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위원회	www.hauch29.net/spel.htm	02) 300-0235(총학)
경희대 서울	총여학생회	gender.khu.ac.kr	02) 961-0667
	법대 성평등위원회	cafe.daum.net/happygender	
한양대	총여학생회 준비위원회	cafe.daum.net/HYwomen	016-286-1464(양희석)
장로회신학대	총여학생회	jangwoman.cyworld.com	
감리교신학대	20대 총여학생회	www.misw.net	
	총대학원 여학생회	cafe.daum.net/Sisters	
한성대	총여학생회		02) 760-4183
중앙대 안성	Tele-Vitamin 총여학생회	home.freechal.com/cauchw18/	031) 670-4503 / baboto81@freechal.com
외대 울산	여우시대 총여학생회		
경희대 수원	14대 총여학생회		
용인대	공/여/공/이 9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www.0woman02.eg.ro	0woman02@hanmail.net
아주대 수원	여유만만 총여학생회	cafe.daum.net/AjouGirl	
경기대 수원	구국경기 당찬우의 총여학생회	kwomen.com.ne.kr	

충청도·대전 지역

KAIST	KAIST 여성학 모임 '비상구'		kyauou2@kaist.ac.kr(조향현)
배재대	19대 좋은느낌 총여학생회	cafe.daum.net/pcu19woman	042) 520-5291(총학)
한국기술교육대	9대 함께가는 총여학생회	kitere.kut.ac.kr/~women	041) 560-1361 / flynalla@hanmail.net

경상도·부산·울산·대구 지역

울산대	19대 2979 총여학생회	www.bada-ie.com/~kkwak7/bbs/no1.htm	
영남대	여인천하 총여학생회	cafe.daum.net/yuwomen	053) 810-3739 / 016-9567-3669
안동대학교	마이너리티 총여학생회	wom.woorizip.com	053) 820-5342 / anu-wom@hanmail.net
경남대(마산)	19대 함박웃음 총여학생회	cafe.daum.net/kuwomen	
창원대(창원)	19대 달려라 총여학생회	cafe.daum.net/19drl	055) 279-7962
동아대(부산)	민족동아 18대 자신滿 총여학생회	cafe.daum.net/dacy	
부산대	생존전략 총여학생회		051) 510-1924 / yaya2002@freechal.com
	월장	home.pusan.ac.kr/~wallzang home.freechal.com/wallzang	ddosily@freechal.com
	기행동아리 히스테라	www.hystera.wo.to	

전라도·광주·제주 지역

원광대	원대사랑 비권연합 18대 총여학생회	women.wonkwang.ac.kr	kimsw98@hanmail.net
전북대	총학생회 여성국		063) 270-3637 / nativity1225@hanmail.net
조선대	총여학생회	hajahaja.org	tctc00@hanmail.net
전남대	총학생회 여성국	ch.jnu.ac.kr	062) 530-0591 / 062)530-1083(학생처)
광주대	14대 우리 총여학생회	www.kjwomen.wo.to	062) 670-2548 / 019-9293-0903
동신대	총여학생회	cafe.daum.net/dswoman	018-651-3285(이주영)
제주산업정보대학	총여학생회	cafe.daum.net/totalwoman	

여운단위 지난 활동보기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 소개와 1년 간 평가

고대 여위는 고대 법대 여학생회, 석순(여성주의 교지)과 함께 척박한 고대 내 여성운동의 맥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총여체제와 달리 대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성격 유지라는 장점, 총학 사업과의 독자성,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위 체제를 고수한 지 어느덧 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여위는 나름대로 이 남성중심적인 고대 내에 전위적이고 급진적인 여성운동 담론들을 생소하게 하던 에너지가 많았다고 자부합니다. 과거의 맹렬한 여위의 활동의 기세와 그 과업들에 기대 얻은 고대 내의 명성(아명^^)이 그를 반증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선배들의 노력 덕분에 가해 단위 재교육 세미나 같은 것도 한결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위에 대한 학내 학우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여위가 굴러온 일을 의무적으로 굴러감으로써 내부 각 개인의 일의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발생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부터 새로운 체계 모색과 학내 여성주의자와 여성주의단위들과의 꾸준한 연대를 통해 이 어려움을 타개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과도기에 있는 듯 합니다.^^

▼ 여위 1년간의 발자취(작년 한판 이후)

9월: 안티연고제 공동 주최

2회째를 맞은 안티연고전은 여위 독자사업이었던 1회와는 달리 연고전에 반대하는 여러 자치단체들과 개인들의 연대로 이루어졌다. 이는 연고전에 대해 기존에 비판되어져 온 지점들이 공동의 장에서 서로 소통되고 더욱 강한 비판담론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학벌주의의 폐해, 고대문화의 남성주의, 비장애중심성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우들에게 다가갔다. 자료집, 공청회, 길거리 토론회, 제철라 선전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같이 즐거울 수 있는 문화제로 구성되었다. 매우 강력한 반대들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는 고대에서 연고전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만인가를 실감케하는 일례들이었고(대자보가 화형당하기도 했다), 우리들은 그것에 과감히 '반대'를 외쳤다.

또한 안티연고전의 경험은 자치단위들간의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후에 자치단위연대회의가 발족하게 되는 귀중한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10월: 총학생회 선본별 공약 평가

선본의 여성정책을 규합하고 이를 평가하여 대자보하는 작업을 벌였다. 무대책적으로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선본, 유일한 여성공약으로 단대별 파우더룸 설치라는, 치마 입에도 올리기 부끄러운 공약을 내놓은 선본들과 싸우느라 소진했던 선거기간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좋은 점수를 준 선본이 총학생회에 당선되었다. ^^;;

11월 : 제7회 여성해방제

여위의 일년나기중 가장 큰 행사인 여성해방제는 "시일야방성대곡 여성의 독립선언"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었다. 여성의 독립을 가로막는 경제적인 문제와 불합리한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취업문제와 비혼을 소재로 하여 풀어내었다. 여성의 독립선언서와 독립수첩 발간, 영화제, 취업간담회 등이 마련되었다.

12월~1월: 22기 여성문제연구회

방중 집중 여성학 세미나 프로그램인 여문인이 총 7반으로 진행되었다.

1월: 총장후보 질의서

총장 선출에 앞선 총장후보 선출에 있어 11명의 후보들에게 총학&자치단위들과 함께 공동의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에 대한 평가를 자료화하였다. 질문은 학내 성폭력 상담소의 내실화와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여대생 취업문제, 여교수 임용, 여성학 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이 작성되었다. 더불어 비민주적인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한 비판 대자보도 함께 게시되었다.

12월~2월: 평가와 이월

여위의 10년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여위의 재구조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 와중에서 특별기구로서의 여위 위상에 대해 외부 이야기가 들어와서 내부 회칙 제정을 완결했고 내부 체계 논의 등을 했다. 그와 함께 이월 세미나를 통해서 10대에서 11대 여위로의 이월과 LT 등을 갔다 왔다.

한편 2월 말 새터 지킴이 교육 자문 및 단대별 이관 사업을 추진했다. 단대별 새터 지킴이를 여위가 전적으로 주관하던 체제에서 직접적인 손을 떼면서 각 단대별로 독자적으로 꾸러가게끔 이관하는 것을 했다. 문의가 들어올 때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생리대 자판기 스티커 사업 등을 추진하다 무산됨.

3월

3.8 새내기 맞이 교양학교 및 자고집 발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새학기 첫사업을 무사히 치러냈다. 토론회에서 여운단위와 진보진영과의 연대방식 등이 논의되었는데, 앞으로의 출발점을 짚어냈다. 전여노조에서 주최하는 전국여성노동자 경기 대회 참가하는 등 기존의 전여노조와 여위가 가져온 연대를 올해 노동국에서도 가져가려는 희망 하에 시작된 사업이었다.(그러나 그 이후 주체국이 제대로 꾸러지지 않았고, 전여노조와의 끈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음)

총학생회와 특별기구 간담회 제안 및 회칙 개정 작업에의 참여, 특별기구로서의 여위 위상과 학내 발언권 확대를 위해 특별기구 장에 대한 전학대회의 투표권 확보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특별기구연석회의라는 미약한 연대 고리가 마련된 것이 미약한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다. 또한 학내 여성주의의 소모임 부흥 기반 마련을 위한 취지에서 열악한 재정 상태의 자치단위들의 공동 관심사였던 여자제 문제 등에 대해 함께 총학에 문제 제기했다. 그럼으로써 특별기구 지원 및 총학과 연대 방식에 대한 고민을 진행했다.

4월

- '전쟁과 여성' 행사

'전쟁과 여성'이란 주제의 조순경 교수님의 강연회를 개최하여 이라크 전쟁 당시 불꽃이 일어났던 반전담론의 문제점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짚어보았다. 그 강연회를 전후로 일주일간 1인 피켓팅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면서 가판 차리고 자료집 배부 및 홍보를 진행했다. 평화인권포럼과의 연대 하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반전위원회와 같은 곳에 대해 연대를 제안하는 등 우리의 취지를 살린 '차별화된 반전담론'을 학내에서 일으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오아시스 포럼'에의 참여

비장애중심적인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해서 장애인권위와 Oib팅을 중심으로 진행된 첫 사업 '오아시스 포럼'에 참여했다. 우리는 장애 여성의 성폭력을 주제로 하여 발제하고 여성단위와 장애인권위 등과의 토론회를 공동 준비했다. 오아시스 포럼은 우리가 하는 여성운동의 맥락을 짚어주는 좋은 성찰이 되었다.

- 자치단위연대회의의 참여

학내 자치단위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고민하는 자치단위연대에 들어감으로써 공동의 연대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발걸음을 시작했다.

5월

- 안암여성주의자연대회의 소집 및 정기화 논의

안여연이 여성주의에 관한 한 척박한 고대 내 지형에서 유일한 연대체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단위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채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다. 안여연에서 독자 사업을 추진하고 정간들을 만드는 것은 어떨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제안하였다.

- 대동제 기간에 총학 여성국과 함께 스티커 설문 및 자보 등 광장 사업 공동 개최

대동제 기간에 맞춰 광장 사업 및 여성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춰, 총학 여성국과 광장사업을 공동주최하려했으나 상당부분 여성국 사정에 맞춰 무산되었고, 스티커 설문 및 자보 개제 동안 이뤄졌다.

- 여우당 관리 등.

6월

- 반포르노 강연회 및 영상물 상영과 토론회 개최

'어느 소녀의 포르노 보고서'라는 다큐를 같이 본 후 토론회를 열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 후 로리주희씨의 강연회를 열었고, 안티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자료집으로 배부하는 등 홍보에 신경을 썼다. 기획 자보 시리즈의 취지 자체를 반성때에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잡았다. 포르노 문제에 대한 남학우들의 성찰이 진행되는 계기 마련이 목표였는데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 가로등 설치 사업 건의.

7월

- 제 23기 여성문제연구회 진행 중

6반으로 여문연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편집 자체가 군사주의, 민족주의 담론 속에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낮은 목소리' 비디오 보고 토론회를 하는 등의 각 반 별로 공통적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 시위 공동 참가 및 여운(여성학 학회/여위주관)에의 제안과 각종 실천으로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에 역점을 두었다.

- 자치단위연대의 공동 사업인 자치공간확보투쟁에의 참여.
- 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 참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Artemis 여학생회

2002년 10월-12월

- 19대 여학생회 세워짐
- 여섯번째 법대 여학생회 여성주의 축제 <나올제> 개최

2003년 1월-6월

- 36대 법대학생회와 <제1회 성폭력사건해결주체교양학교> 개최
- 2003년도 새내기 새로배움터
- 여학우공간관리
- 여성영역 진행 : 성지식OX퀴즈, 성감대스티커설문, 콘돔실습 등
- 전체판연극 <사소한 이야기>

- 정기여성영화제 3회 진행
- WAW 반전시위 참여
- 여학우휴게공간 <나올터>개보수 공사비용마련을 위한 대중제맛이 여학생회 일일캠프

2003년 7월-

- 여학우휴게공간 <나올터> 개보수 공사 진행중
- 여성학세미나 진행중
- 여성연대한판 기획단 참여
- 안암여성주의자연대회의의 매체 <나비의 꿈> 준비중
- 여학생회 소식지 <나올터> 준비중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 관악여성모임연대를 소개합니다!

관악여모는 성 소모임, 성정치위원회, 여성국, 여성주의 학회, 여성운동체, 여성주의자 연대 등의 다양한 이름을 걸고 각 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자 들 가운데 활동 주체 몇몇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입니다. 관악여모는 단위간의 연대 및 관악 전체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굴러가는 모임입니다. 몇몇이 힘들게 여성운동을 하는 상황일수록 서로간의 운동정보 및 활동공유는 절실해집니다. 또한 관악 전학우를 대상으로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관악여모에 연대하는 단위로는 인문대 여성모임연대(인연), 사회대 여성자연대(사연), 동연(동아리 연합회) 여성운동모임 <언니네>, 법대 놀이터, 농생대 여성모임, 공대 여성위원회, 서울대 여성주의자치연론(jouissance(쥬아앙스) 등이 있습니다.

연락처: 언니네(www.unninet.co.kr) 커뮤니티 "관악여성모임연대"

▼ 관악여성모임연대 활동

- 9월 여성의 일할 권리를 위한 전국여노 서울지부 연대모임(울/밀/대) 재결성(?) 및 주5일제 비판자보, 여성노동 세미나 12월까지 진행
- 전국여노 선전전(11월까지 결함)

- 맛돌굴리기, 교성투연, 강철구토론회준비팀 결함 지속
- 10월 제5회 관악 페미니즘문화제 "내 여자친구 이야기"
르네상스 호텔 토크이드 집회 결함
정총장 교수성폭력가해자 두둔 망언, 규탄 자보, 총장 면담실폐
학생은 이런 강의를 원한다-페닐참여(강의실 내 성폭력 문제제기)
- 11월 총학선거 관련 자보(여모 자보기획의 의의, 45대 총학생회 평가 간담회 준비, 여성국/캘린더사업과 여성정책, 여성후보에대한사선, 여성정책 제안), 총학 간담회 준비단위 결함
맛돌굴리기 거리전 기획, 참가
- 12월 장갑차 사건 집회 참가
기활교양학교, 기활 참가
- 1,2월 여모 오픈세미나(자매애에 대한 몇가지 질문/ 문학과 여성/과학기술과 젠더/ 국가와 여성)
울밀대 해체
- 3월 행동하는페미니스트연대 기획,참가/ 색다른 어울림 3.8무지개시위 기획,참가(다름으로 달은 연대와 함께)
전국여노 주최 3.8 걷기대회 참가
새내기 길라잡이 준비(총학과 함께)
새움터 콘서트 기획단(이름만 올리고 다른 일 못했음-T)
- 4월 반전 강연회(with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
반성대매 강연회(with 새움터)
WAW연대반전시위참가 학내 반전선전전성명서 및 자보전, 반전전사회(여학생휴게실에서 소윤과 함께)
서울대 의대 이모교수 학생대책위(간호대, 의대, 관악여모) 결함, 자보, 성명서, 서울대병원 보건의료노조와 학내선전전
장애여성의 날 행사 참가
총학생회 플레이스테이션 설치 비판 자보
자치도서관 서평경연대회 준비
'전쟁을 반대하는 메이데이 여/상'기획단, 여/성 무산된 후 토론회 준비, WAW 및 여/성 준비했던 단위들과 연대 반전선전전, 학내에서는 영상물(아프간 관련 영상물)보고 토론, 반전/기간제 교사/동성에 관련인권위 조치와 언론에 관한 글쭈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교양 시간 가졌음
거북이시스터즈 상영회(with 장애여성공감)
- 5월 '나와 부엉이'상영회
성폭력피해자역고소 기금마련 연대장터
- 6월 동성애바로알기강좌(with 한동연)
'퀴어문화축제 무지개2003의 '동성애자 색다른 도발挑發' 토론회를 비판하며' 자보
서울대의대교수장정제관련 자보
- 7월 여름 새움터활동 교양학교참가, 새활 참가, 반성대매 세미나 진행, 상반기 여모 옐티

▼ 관악여모라는 연대체형식은...

연대체라는 형식의 특성상 회의 및 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주체들의 경험과 고민이 회의 시간을 통해 풀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사업방식도 각 주체들의 의견에 기반해서 모아지기에, 그만큼 활동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집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관료적이지 않다는 민과 여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모에서 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모가 '관악여모'라는 이름을 걸고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체제인데, 연대체의 성격상 일의 배분이 나 회의 주체 등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두기도 했었는데, 그럴 경우 집행부인 여모 사람과 집행부가 아닌 여모 사람들 간의 괴리가 커지고 사업이 집행부에게만 집중되는 단점이 있었죠. 연대체는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악여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같은 수위에서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관악여모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관계로 실제로 활동을 할 때 어느 수위에서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대강 '눈대중'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부와 비슷한 느슨한 운영위원(6개월)을 두고 있으며 관악여모 단위의 일은 운영위원을 결의(?)한 사람들이 주도하여 일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을 두고 있어도 두기 전과 별 차이가 없어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서울대학교 인문대 여성모임연대

▼ 인연 소개

인문대여성모임연대는 우선 다른 목소리/ 뿔/ 슬로즈/ 퍼즐/ 나부/ 이수라/ 여담/ 소피아 라는 과/반 소모임에서 활동하는 친구들과 그 밖의 여성주의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꾸려나가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한주에 한번씩 모여서 소모임별로 활동하면서 생기는 애로 사항이나 팁을 공유하고, 과/반에서 하는 세미나보다 좀더 심도있는 세미나를 하는것이 일상의 활동들이랍니다. 그외의 큰 행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지난활동 정리

2002

- 9-10월 반성폭력 학칙개정운동
- 10-11월 그림자선본 '아궁이' 활동

2003

- 1월 페미니즘 캠프
- 2월 성학교 준비
- 3월 행패 참가
- 4월 여/성 참가
- 5월 페미니즘 문화제 '가화만사상'
- 6월 농활성폭력 자료집 준비
- 7월 새활세미나
- 8월 T.S예정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Fenery

사회에서 혹은 성균관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산다'라기 보다 차라리 '견딘다'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어렵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환경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가시화 되지 못한 채 묻혀 버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이고 또한 능력보다는 '절모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에서의 여성은 어머니로서 딸로서 일상적인 차별적 환경 속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경험과 이야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연결하기는 것으로서의 '여성주의'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학우들과 에너지 나누는 총여를 그림니다.

1학기 활동

- > 새내기 새로 배움터
- > 여학우 새내기 새로 배움터 "꼬마마녀, 여행을 떠나다!!"
- > 세미나팀 공개 모집, 1학기 새내기 세미나 진행
- > 화장실 게시판 "달맞이 토크"
- > 총여산문 "달거리 소식" 발간 (4월 창간호, 5월호, 여현제 특별호)
- > 여성현실제 대중 기획단 모집
- > 여성현실제 "팔귀, 콩귀와 손을 잡다."
- > 성폭력 사건 지원 및 처리(?)

- 10월 제5회 관악 페미니즘문화제 "내 여자친구 이야기"
르네상스 호텔 룸메이드 집회 결합
정충장 교수성폭력가해자 두둔 망언, 규탄 자보, 총장 면담실패
학생은 이런 강의를 원한다-패널참여(강의실 내 성폭력 문제제기)
- 11월 총학생회 관련 자보(여모 자보기획의 의의, 45대 총학생회 평가 간담회 준비, 여성국/캘린더사업과 여성정책, 여성후보에대한사선, 여성정책 제안), 총학 간담회 준비단위 결합
땃들굴리기 거리전 기획, 참가
- 12월 장갑차 사건 집회 참가
기화교양학교, 기화 참가
- 1,2월 여모 오픈세미나(자매애에 대한 몇가지 질문/ 문학과 여성/과학기술과 젠더/ 국가와 여성)
울밀대 해체
- 3월 행동하는페미니스트연대 기획, 참가/ 색다른 어울림 3.8무지개시위 기획, 참가(다름으로 달은 연대와 함께)
전국여노 주최 3.8 걷기대회 참가
새내기 길라잡이 준비(총학과 함께)
새울터 콘서트 기획단(이름만 올리고 다른 일 못했음...T)
- 4월 반전 강연회(with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
반성때매 강연회(with 새울터)
WAW연대반전시위참가 학내 반전선전전성명서 및 자보전, 반전전시회(여학생휴게실에서 소울과 함께)
서울대 의대 이모교수 학생대책위(간호대, 의대, 관악여모) 결합, 자보, 성명서, 서울대병원 보건의료노조와 학내선전전
장애여성의 날 행사 참가
총학생회 플레이스테이션 설치 비판 자보
자치도서관 서평경연대회 준비
'전쟁을 반대하는 메이데이 여/성'기획단, 여/성 무산된 후 토론회 준비, WAW 및 여/성 준비했던 단위들과 연대 반전선전전.
학내에서는 영상물(아프간 관련 영상물)보고 토론, 반전/기간제 교사/동성에 관련인권위 조치와 언론에 관한 글들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교양 시간 가졌음
거북이시스터즈 상영회(with 장애여성공감)
- 5월 '나와 부엌'상영회
성폭력피해자역고소 기금마련 연대장터
- 6월 동성애바로알기강좌(with 한동연)
'퀴어문화축제 무지개2003의 '동성애자 색다른 도발挑發' 토론회를 비판하며' 자보
서울대의대교수경쟁제관련 자보
- 7월 여름 새울터활동 교양학교참가, 새활 참가, 반성때매 세미나 진행, 상반기 여모 열기

▼ 관악여모라는 연대체형식은...

연대체라는 형식의 특성상 회의 및 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주체들의 경험과 고민이 회의 시간을 통해 풀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사업방식도 각 주체들의 의견에 기반해서 모아지기에, 그만큼 활동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관료적이지 않다는 믿과 여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모에서 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모가 '관악여모'라는 이름을 걸고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체제인데, 연대체의 성격상 일의 배분이 나 회의 주제 등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두기도 했었는데, 그럴 경우 집행부인 여모 사람과 집행부가 아닌 여모 사람들 간의 피리가 커지고 사업이 집행부에게만 집중되는 단점이 있었죠. 연대체는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악여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같은 수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관악여모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관계로 실제로 활동을 할 때 어느 수위에서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대강 '눈대중'으로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부와 비슷한 느슨한 운영위원(6개월)을 두고 있으며 관악여모 단위의 일은 운영위원을 결의(?)한 사람들이 주도하여 일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을 두고 있어도 두기 전과 별 차이가 없어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 > 학칙 제정 이후 성폭력 대책위원회 참여
- > 여성학 도서관 운영
- > 총여 홈페이지, 여성주의자 커뮤니티
- > 방중 업그레이드 세미나
- > 여자 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칸막이 교체 신청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기활 1월 초 & 7월 말

03년 겨울과 여름에 동두천과 평택에 있는 새우터를 다녀왔지요. 숭실에서는 기활을 처음 준비한 것이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카드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번 여름에는 종전의 [기존 활동]이라는 말 대신 [새우터 활동]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진행되었어요.

페미니즘 캠프 [백마탄 공주와 잠자는 왕자] 2월 중순

입학하기 전 새내기 여남학우를 대상으로 캠프를 갖는데요, 가까운 경강 역에 있는 봉나루집에서 다같이 모여 어릴 적부터 들어온 동화들을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도 무기력했던 공주들을 만들어낸 남성들에게 분노하며 그 동화들을 각색해서 역할극을 꾸며보기도 했습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부규약 2월 말

새터에서 무수히 벌어지는 성폭력들. 아직도 새터에서의 성폭력은 끝나지 않았죠. 이번에 숭실에서는 처음으로 각 단과대에서 새터를 준비하는 분들을 전부 만나가면서 새터 반성폭력 내부규약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새터 장소에 성폭력 신고함을 설치했고요. 각 단과대별로 "새터지킴이"를 세우고 각 단위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수히 벌어지는 성폭력들은 여전히군요.

여학생 휴게실 개장파티 3월 초

작년까지 철골로 만들어진 이중 침대와 덩그러니 굴러다니는 소파들, 그리고 널찍한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이던 여학생 휴게실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3월5일 여학생휴게실 개장파티를 했지요. 여학우들간의 문화를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신에 많은 여학우들이 함께 모였구요. 그 자리에서 생리주기 판매도 같이 만들고, 떡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3.8 여성의 날 3월 초

3.7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행패]에서 준비한 여성주의자의 날과 3.8 여성의 날 행사에 참가했었죠.

새내기 여학우 환영회 3월 중

여학우들만의 공간인 여휴에서 새내기 여학우들과 함께 자매애를 키워보는 자리로 만들고자 준비되었던 환영회였어요. 많은 여학우들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만나야 뽀뽀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비밀이야기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4.30/메이데이 기획단 - "난동" 4월 말

노동절을 준비하면서 여성노동이나, 장애여성, 그리고 전쟁안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학내의 광장사업에서는 차도르를 몸에 두르고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 락을 나눠주기도 하고, 학내 동아리나 다른 단위들과의 교양대회도 가져갔답니다.

노동절 당일에는 피악발 아래에서 검은 피씨천을 온몸에 두르고 (얼굴까지 꼭꼭 숨기고) 이라크 여인들을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하고는 대학로에서 시청까지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여성주의 매체 <여줄> 발간 5월 말

작년 <여갈리아>에 이어 두 번째 여성주의 매체<여줄>이 나왔습니다. 숭실에선 찾아보기 힘든 여성주의적 목소리를 담은 매체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아직은 너무도 어설픈 매체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줄>은 계속됩니다.

여남이 함께하는 운동회 - "질러" 5월 말

그동안 남학우 중심의 체육대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여남이 함께 하는 운동회 "질러"가 5월말에 숭실의 민주로를 가득(?) 메웠죠.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팀보, 땅따먹기 등 여학우들이 어릴적 즐기하던 놀이들을 다시금 추억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종강영화제 6월 말

한경직 기념관에서 [질투는 나의 힘]을 상영했어요.

언니에게 희망을 7월 19일

성매매피해여성 자립창업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에 기획단으로 참여해서 가슴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숭실은 콘서트 전에 콘서트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서 신촌의 공원에서 반성매매 이야기를 물어보는 광장사업을 마련하기도 했죠. 신촌 한복판에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지하철 노선도로 보는 성매매 지역 조사도 해보고요. 아주 흥미있는 사업이었어요.

여학생 휴게실 관리위원회

여휴 개보수 공사를 마친 뒤에 여휴를 여학우들의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고자 모인 사람들이랍니다.

하지만 관리보다는 함께 그 공간을 가꾸어 나가면서 여성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 위원회가 아닌 여학우 모임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중이랍니다.

세미나

지난 겨울 방중부터 계속 되어져 오는 세미나는 총여 집행부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위에 속해있는 친구들과 함께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커리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세미나를 이어받아 [철계반]과 [땅파기반] 두개로 나누어 진행 중이죠.

홈페이지

1학기가 끝나갈 즈음 문을 연 홈페이지입니다. 아직 이곳저곳 공사 중인 곳이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예요~ "femil2.ssu.ac.kr" 이거든요~ 자주 놀러오세요~

화장실신문

여학우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바로 화장실인건 아니죠? 화장실에서 혼자 고독을 즐길 때 눈앞에 무언가가 있으면 꼭 읽어보잖아요. 화장실 신문 옆엔 꼭 모나미 불펜이 함께 하는데 많은 여학우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적어주곤 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 총여학생회 소개

총여학생회는 학생회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로 여성주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총여학생회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내에서 기독교 세력도 강했는데, 2000년 이후로는 기독교 학생들은 더 이상 총여 선거에 나오지 않고 있다. 비교적 많은 자치모임이 활동했던 연세대에서 이제는 학내 여성주의 활동이 총여로만 집중되고 있다. 몇몇 자치모임들은 인자부족으로 사라졌다. 총여는 정말 많은 일을 한다. 학내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총여로 신고되고 해결된다. 과반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과반학생회나 단대 학생회에서 논의 되고 해결되기 보다는 총여로 들어온다. 학내 여학생 관련 복지 사업도 진행해야 한다. 여학생 휴게실, 여자 화장실, 생리대 자판기 등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 총여 2003년 활동

2003 겨울 기활학교(12/27~1/24)

겨울기활학교에서는 기지촌/외국인 성매매 여성,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성매매금지법, 언론 비평 이상 네 개의 팀으로 나뉘서 주제와 관련해서 팀별 활동을 진행하고, 각 팀 활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성매매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성매매, 성매매 합법화론, 민족주의와 여성, 군사주의와 여성 등의 주제로 반성매매 세미나를 실시하고 동두천 새우터에서 1주일간 기활을 진행하였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1/28)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대학 문화인 오리엔테이션과 새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내규 제정 이후 발생한 사례들을 추가하고 내규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여학생 수첩 발행(2/18)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새터를 맞아 여학생 수첩을 발행했다. 기존에 학생수첩을 총학생회에서 발행하는데, 내용이나 디자인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해서, 학생수첩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학생을 위한 수첩을 구성했다. 여학생 휴게실, 성폭력, 성지식, 학내 여성관련 단체 및 모임, 가볼만한 카페식당술집, 영화, 만화, 음악, 여성학 도서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발행하다보니 독자적인 내용을 구성하지 못하고 이전의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실게 되었는데, 그래도 학생수첩과는 차원이 다른 '여학생수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 전체 발행비용이 한학기 총여 예산의 2/3에 이르렀으나 전체학생회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큰 무리 없이 발행 가능했다.

학위수여식 새우터 물품 판매 연대 활동(2월)

새내기 여성학 학교(3/11~4/1)

새학기를 맞이하여 여성학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즐겁게 여성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 위해서 새내기 여성학 학교를 진행하였다.

데이드림 DayDream 발행(3월, 5월, 6월)

작년 총여학생회에서 '백북이 수다'라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였다. 15대 총여 또한 선거 공약으로 여성주의 매체 발행을 내세웠고, 올해는 '데이드림'이란 제목으로 발행되었다. 데이드림은 백수에 비해 편집을 백백하게 했고,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무거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정기적인 잡지 형태로서 매 호마다 기획, 특집이 있고 반성폭력, 여성학서평, 미디어 비평, 남성이 바라본 세상 등의 고정작지가 들어간다. 3호에 걸쳐서 사이버스페이스 문화, 여성의 노동, 반전과 여성, 그 '진보' 등을 다뤘다. 매체 발행을 위해서 총여에 소속되어 예산과 공간 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매체편집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인자 부족으로 인해 몇 명 안되는 총여 집행부가 떠맡게 되면서, 거의 매달 발행해야 하는 잡지가 총여 활동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 하지만 한호씩 만들고 나면 뿌듯함이 있고 학내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점에서 총여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 토론회(3/3)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불안정노동철폐연대회의(여성노동권팀), 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전국학생연대회의와 함께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 전망과 이와 관련한 운동전영의 대응을 평가하고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총련의故윤금이씨 주검 사진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서(2/19)

한총련에서 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수련회 기간에 맞춰 발행한 <반디 새내기> 신문에서 '알려지지 않은 미군 범죄' 중의 하나로 윤금이 씨 살해사건을 다뤘다. 새벽 세시쯤 총학실에서 이 신문을 발견하고 총학에 배포 중지를 요청하고, 한총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를 쓴 자료가 밤중에 훼손되고, 이것을 다시 펴서 붙이고, 한총련 입장을 나오고, 총학에서 총여 비판 입장을 내고, 총학에 사과요구 공문 발송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 3.8 여성의 날 행사

북카페 & feminary 오픈(3월)

총여학생회실 방 하나를 북카페로 만들어서 개관하였다. 이후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리와 함께 페미니리 도서를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이버 공간의 마초리즘과 여성매체 토론회(3/27)

사이버 공간이 기존의 권력관계가 무화되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는 환상 혹은 기대와는 다르게, 여성이 사이버 공간에서 배제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심각성과 여성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발생과 문제점, 대처법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Feminists Speak Against the War 여성주의 反戰 토론회(4/10)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라크전 지지선언, 한국군 파병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총여는 학내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전쟁에 반대하는 이/중'을 구성해서 학내외에서 반전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여성주의 관점에서 반전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이외에 반전 집회 참가, 영화 상영, 피씨 선전전, 팻 제작, 반전 퍼포먼스, 걸개그림 등의 활동을 하였다.

'전쟁과 여성' 영화 상영(4/11)

전쟁에 반대하는 여/중 활동으로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50년간의 침묵>과 <이방의 여인들>을 상영하였다.

교수 성폭력 토론회(5/22)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수업 중에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하거나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업 중에 발생하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발언들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일 다른 대학교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터지고 있을 시점에서 수업중 성폭력적,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교수성폭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시간 동안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성폭력 유형 분석 대안 제시하였다.

여자 화장실 성폭력 예방 비상벨 설치(5월)

중앙도서관, 대강당, 학생회관 여자 화장실에 성폭력 예방 비상벨이 설치되었다. 지난 2000년부터 총여에서 요구했는데 올해에서야 설치가 된 것이다. 다른 몇몇 대학교에서 이미 오래전에 설치했는데, 새삼스럽게 설치된 것 가지고 TV, 신문에서 인터뷰가 많이 들어왔다. 물론 이런 것과 별개로 학교 게시판에는 학생들을 성폭력범으로 보라는 식의 총여 비방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 새움터와 성매매 피해여성 돕기 연대장터 실시(5/15)

대동제를 맞이하여 총여와 학내 여성주의 자치모임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센터인 '새움터'와 함께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 연대장터를 열어서 행사 수익금을 새움터에 지원하였다.

법과대 폭순근 강사 사건 관련 문제제기 및 대책 마련 요구

여성.육망.말하다(6/3~5)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남성적 시선과 사회적 규정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여성의 선택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규정성으로부터 다양한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섹슈얼리티 문화제를 기획하였다. <본노를 터뜨리라! 트라이브 8밴드에 관한 다큐멘터리>, <에로미고> 상영과 주유신씨 강연, '드래킹 퍼포먼스', 페미언스의 '여성.육망.이루다' 공연, 민주광장의 자보전 등이 진행되었다.

법과대 여성 교수 채용 요구, 실질적인 교수 채용 방안 마련 요구

연세대에서 의료원을 제외하고 여성교수는 11%이고 이중 음대 생과대를 빼면 5%에 불과하다. 학기초에 총장실 점거 및 교육 투쟁 과정에서 '단대별 여교수 20%'채용 요구를 했고 학교측과의 협약서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얼마후 교육부에서 국공립대 여성 교수 20% 채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런 시점 여성교수가 한명도 있던 법과대에 여성이 지원하였고, 연구 심사나 교수 인터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법과대 교수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 때문에 교수 임용이 거부되었다. 학교 본부에서 20%를 채용하겠다고 해도 남성교수가 대부분인 단과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거부하면 여성 교수의 채용은 불가능하다.

다같이 놀자 여성주의자! 연세 여성주의자 체육대회(7월)

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3~7월)

성매매 피해여성자립기금 마련 콘서트 '언니에게 희망을' 기획단에 참여해서 콘서트를 준비하였다.

여성부 여대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7월)

새움터 환경 개선, 도서 구입, 기발 등의 내용을 가지고 2003 여성부 여대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공모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2002.9.28 사이버테러 대응, 자보전과 공개토론회

9월 스무살의 페미니즘 - 사이버, 또다른 현실 속에서

11월 2002년도 이화 총학생회 선거 - 그림자 선분-출마 <릴리스 페어>

34대 중선관위의 공청회 거부 - 비판 자보와 공개질의

성폭력 사건 지원

2003.1.2월 지역여성에서 도서관 개방하는 올리버 프로젝트 참여

2월 새움터활동 참가

행패 기획단 참가

성폭력사건 지원

연세 애널즈의 성폭력에 대한 사과요구

2.18 반디새내기 규탄 성명서 연대

2.21 새터 여위 홍보 영상물 제작

3월 총학 비판 자보 및 공개 질의와 대답

범대위 규탄 성명

3.7-8 여성의날 다름으로 담은 연대 무지개 시위 참가

3.25-28 제8회 페미니즘 문화제.영화제

'봄바람 나다.- 봄 바람 난 자매들,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

첫째 날: 장애여성- '오아시스에 빠져있다' / <기적이 SISTERS> / 둘째 날: 아내폭력- '어제 밤에 우리 아파가...' / <가을 소녀들>

셋째 날: 성매매- 'I'm not that kind of girl?' / <이방의 여인들> / 그 외 강연회, 영화상영, 토론회, 퍼포먼스, 전시 등 행사 기획

3월 페미니즘 문화제 피드백/양광 문화제 및 전시

성폭력사건 지원

새움터 공부방 운영 참여
안티 아라키전 관련 기사 투고
연세에널스 성폭력 사건 비대위 조직 및 이대학보 기사투고
반성폭력 학칙 개정에 관한 성명 및 제개정 요구 자보전
금혼제 폐지 관련 성명 및 자보전
학내 반전 행사 연대 및 여위 차원의 독자적 행사 기획
'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 기획 회의 시작
여성영화제 새움터 부스 지원
WAW연대 시위 참여

4월 성폭력사건 지원
국가인권위 지지성명

5월 성폭력 사건 지원
레이데이 여/성을 대신하는 토론회 참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 날다 주최
레즈비언문화제 참여-피포먼스, 토론회 발제
영산줄다리기와 여성운동에 대한 자보전 / 영산줄다리기와 고사 및 이화 대동계를 위한 토론회 발제 및 패널 참여
아웃팅 사건 지원 및 자보전 / 아웃팅 사건 비대위 조직 / 아웃팅 관련 총학에 사과 요구 / 아웃팅 관련 학보에 사과 요구
대동계 기간 중 경영대와 연대하는 새움터 후원 장터

6월 이화 대동계 상업광고 비판 자보전 및 총학 사과 요구
지역여성과 함께하는 도서관 개방운동 올리버 연대 회의
여성연대 한판 기획단 회의 시작
성폭력 사건 지원

7월 2003 무지개 뛰어 페스티벌 움직여 새움터 부스 지원
'언니에게 희망을' 학내 티켓팅 및 새움터 홍보
'해나 그려주기' 행사
언니네 파티 새움터 부스 지원
장애여성 공감의 도움으로 장애여성 행사 기획 / 이화인과 먹꼬치들-장애여성 행사 참여 시 먹꼬치 증정
'장애여성 - 다양한 몸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 장애여성 역할극과 '정상성 강요하는 사회' 전시
이화인의 피드백 전시
<스무살의 페미니즘> 발간
'언니에게 희망을' 부대 행사를 위한 인형제작 / '언니에게 희망을' 기획단 및 자원 활동 참여
성폭력 사건 지원

8월 2003 여성 연대 한판

▼ 반성매매

한소리회 <http://www.han-sori.org/>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홈페이지. 회원단체 중에는 홈페이지가 없는곳도 많아서, 일단 이것만...:

새움터 swoom@chol.com

홈페이지는 없다. 동두천과 평택에 각각 센터가 있고 기활을 많이 가는 곳. 최근에 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를 치러낸 그 곳이다.

▼ 여성주의자 모임터 ^

언니네 <http://www.unninet.co.kr>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다른 말이 더 필요할까?^^

여성문화동인 살류쥬 <http://salluju.pe.kr/>

▼ 여성주의 언론

여성주의 저널 그 여자들의 물결 일다. <http://www.ildaro.com>

여성주의 최신뉴스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여성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달나라말세포 <http://dalara.jinbo.net/>

여성주의 웹진. 지금은 활동정지상태이지만 과월호도 아주 재미있다

성명서 모음

여성신문 마산지사의 입장 - 이계경 전 사장의 한나라당 입당에 대하여

여성신문 마산지사는 한 인터넷신문에서 여성신문 전 사장 이계경씨가 여성신문 대표직을 사임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는 사실을 지난 28일 처음으로 알았다.

여성신문 마산지사는 사단법인 경남여성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여성회는 87년 창립하여 여성권익과 인권향상을 위해 일해온 마산 지역의 여성운동단체이다. 우리는 여성신문 창간 때부터 계속 여성언론사의 탄생에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힘이 되자는 의미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을 지역에 설명하고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92년 부터 여성신문 지사를 설립하여 10년간 활동해왔다.

우리는 어떤 사회단체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에 지사 보증금을 만들어 여성신문에 맡겼다. 그것은 회원들과 실무활동가들의 땅이었다. 우리가 여성신문사와 지사의 형태로 연대한 이유는 여성신문이 존재하는 이유, 평등 평화 인권 등 민주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의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계경씨가 그 신문사의 대표로서 신문사의 설립목적에 대해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이계경씨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그럴듯한 허울을 쓰고 호주계 관련정책을 비롯하여 여성정책에 가장 반여성적인 한나라당에 입당함으로써 각 지역의 지사를 비롯하여 기자, 주주, 독자를 모두 배신했다. 우리는 한번도 이계경씨가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것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없으며 그와 비슷한 내용의 생각도 해본 적 없다.

그는 자신의 이번 행보를 철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거창한 대의명분을 벗어나, 단지 여성운동가로서의 소신과 당신에 대한 후배들의 믿음을 냉혹하게 저버린 변절자로서만 한나라당에 남으라.

그것이 아직도 어려운 여성의 현실 속에서 무겁고 두려운 일 마다 않고 곳곳히 처나가는 여성언론인 후배들을 좌절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그것이 여성언론의 출범을 기뻐하며 아이처럼 돌며 당신과 연대한 우리 여성신문 지사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그것이 여성신문을 보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슴 누르며 키워온 우리 독자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길일 것이다.

2002.11.1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신문 마산지사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테러에 관한 성명서

현재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는

요즘 사이버상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랭귀라는 이름으로 테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조를 보면,

'여성'이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

특히나 여성들만의 공간인 '이화여대' 총학생회에서 이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랭자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군대에 대해 문제제기한 여성공간에 대한 테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령,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대신 '이제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제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게시판에 테러를 가하자'는 제안에 '그곳은 아니다' 라고 반대하는 모습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나 이화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화이언에 테러를 가하자는 이들의 속성에서 우리는 여실히 이러한 작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에서는 분명히, 한국사회에서 징병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징집대상자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강제 징집, 한달 16500원의 노동착취, 군대에서의 수많은 폭력과 인권유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싸움은 군사주의와 징병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땅의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화인 여러분,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통신테러는 엄연히 여성공간에 대한 네티즌의 성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이화이언에 대한 테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을 엄중히 경고 합니다!!

해방이화 34대 PRAXIS 총학생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지지 기자회견 이후 발생한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전학협의 입장

지난 9월 27일 이화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성운동단위는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실현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징병제 폐지와 군사주의문화적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 여성의 금기-군대

여성들의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다.

군가산점제 위한 파동이 있었을 때에도 여성들은 군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 문제'와 '군가산점제로 인한 여성의 공직진출의 원천적 봉쇄'라는 문제의 핵심은 여성과 남성의 성차가 아니라 군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남성의 문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의 문제였지 결코 여남의 성대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이기에 정당한 보상을 해줄 의무, 여성의 공직진출을 평등하게 만들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도 국가라는 것은 자명하다.

군가산점제 이후 군대 문제에 대해 다시금 여성들이 발언을 시작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이화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성운동단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문제 그리고 징병제와 군대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제기였다.

▶ 금기를 건드리면 다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햏햏"채를 쓰는 소위 "햏자"들이 9월 29일 오후 7시부터 이화여대 총학생회, 이화이언, 양심에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홈페이지에 집단으로 접속해서 의미없거나 성폭력적인 발언이 담긴 글들을 수천건 게시했다. 동시에 접속자수가 폭증함으로 해서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을위한 연대회의의 홈페이지 등이 다운되었다. 이는 군대라는 금기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 집단적 반감을 일으킨 것이다.

▶ 활발한 논쟁은 득이 되지만, 테러와 성폭력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막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라면 보다 활발히 벌어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이 아닌 무조건적인 테러로 비화된다면 이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막는 일일 것이다. 그것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정당한 논쟁이 아니라, 논쟁점에서 빗겨나서 우리사회 군사주의 문화의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한 집단적인 테러로 번진다면 이는 올바른 사이버 상의 교류와 소통을 막는 일이 될 뿐이다.

더욱 큰 문제인 것은 일련의 "햏자"들이 여성 그것도 이화여대사람들 일반에 대해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정치적 사회적 소수자이며, 여성들 또한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해도 모자란 현실 속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와 총학생회 게시판에 의도적인 도배를 넘어선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 성폭력적인 발언을 수차례 올린 사실은 전혀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마초들의 행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화여대 커뮤니티인 이화이언에 개인의 신상을 퍼다가 다른 사이트에 게재하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는 일도 발생한 것은 현재의 사태가 단순히 폭과할 수 없는 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할 자유를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모독한 행위인 한편, 여성문제가 이슈가 되면 으레 발생했던 이화여대 학생들에 대한 집단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테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 싸우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사개진이 아닌 소수자들에 대한 집단적 성폭력, 집단적 탄압을 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다름아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이화이언,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을위한 연대회의 등에 사이버 성폭력을 가한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여성들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임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군대에서 양심의 이유로 징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현재 지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역입영대상자는 물론 현역병의 처우개선과 맞물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실현되면 군대 내의 인권 문제도 동일하게 개선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지하고 함께 하자는 것이지 고위층의 병역기피와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알았으면 한다.

징병제가 도입된 이후 50여년간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일에 가려져 왔다. 데려갈 때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군대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나물라라 했던 군대의 문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필두로 해서 바뀌어져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때도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피해를 밝혀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햏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일이다.

다시한번 이번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테러에 대해 자성과 반성이 있길 바라며, 한국사회에서 시작된 사이버 행동이 소수자들에 대한 집단적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정신으로 옮겨가 지켜나가기 바란다.

민중에게 평화! 민중에게 권력!

4기 전국학생회의회의

다름으로 담은 연대의 3.8성명서 - "색다른 어울림 3.8 여성무지개 시위 2003"을 열며

2003년 다름으로담은여성연대가 태동하였습니다. 우리는 제 95회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연대단위들과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95년 동안,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은 차별과 폭력에 맞서서 싸워왔고 수많은 제도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남성중심적 권력과 문화를 바꾸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성노예가 되어 팔려 나가고, 아내들은 10분에 1명 꼴로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때 시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성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은 최대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상'이라는 기준은 수많은 장애여성들과 성소수자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다시 국제 사회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위협으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약자와 소수자에게는 정당한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최후에는 차별과 폭력을 감수해야 하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만이 남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우리는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전쟁 도발과 폭력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 성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어떠한 폭력도 반대합니다.

장애여성에 가해지는 일상적 전쟁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다름'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수많은 장애 여성들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부정되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장애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한 끔찍한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물성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어떠한 권리도 가질 이유가 없는 2등 시민으로 평가절하 되고 일상적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있는 우리, 장애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여성들은 여성이란 이름으로 정상성에 도전하고 비주류 여성세력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장애 여성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다름'을 긍정하지 않는 사회, 이성을 강요하는 사회는 우리, 성소수자 여성들을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벽장 속으로 쳐넣어 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차별과 폭력이 이유가 되는 현실에 대해 맞서 싸우려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력과 강간 등의 혐오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차이를 가졌을 뿐인 우리 성소수자 여성들은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성권력을 뺏아내고 있는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부장제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 사회는 교육의 장인 학교라는 공간에서부터,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자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육의 커리큘럼과 가르치는 이들에게 뿌리깊게 박혀있는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 그리고 모든 종류의 권위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을 끊임없이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교육이 담보해야 할 기능은 차별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없는 시각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교육만이 농사라는 이유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쟁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부정하는 그들,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작지만 큰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심으로 편입해서 권력에 의존하고, 권위적이며, '다름'을 묵살하는 운동방식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중심과 주변의 위계를 허물며 다름을 인정하고 긍정할 것입니다.

성별, 정체성, 장애, 나이 등에 기반한 '다름'으로부터 비롯되는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전쟁과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에 저항해갈것 입니다. 우리가 가진 '다름'은 우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는 모든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우리들과 같은 여성들과 연대해 나갈것입니다.

2003. 3. 8.

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관악여성모임연대,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여성풍물패 바람소리,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 총여학생회,소녀들의 페미니즘, 여성주의커뮤니티 언니네, 여성영상집단 음,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름, 여성주의저널 일다, 짧은페미니스트미술가연대

3.8 여성의 함성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

1908년 미국의 한 피복공장에서는 146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불에 타 죽은 참혹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먼지와 악취가 가득 찬 지하실에서 출입문조차 잠긴 채 가혹한 노동착취에 시달리다 참사를 당한 당시의 여성 노동자들은 피땀 흘린 절규와 함께 일어섰다.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임금을 인상하라!" 는 그들의 함성은 무장한 군대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울려 퍼졌고 이는 2년후 1910년 3월 8일 코렌하겐 여성대회로 이어졌다. 이것이 3.8 여성의 날의 시작이며 95년이 지난 지금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전에는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들의 절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 용역 노조에 속해 있는 3명의 청소 아주머니들이 화재에 희생되었는데도 대구지하철 공사는 홀대로 일관하였는데 다른 희생자들과 달리 조문조차 오지 않은 공사 측은 경향이 없다거나 용역업체 직원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비정규직의 확대와 맞물려 있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고도의 생산력을 자랑하는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노동강도의 강화와 유연화를 꾀하는 비정규직의 무제한적인 확대를 통해 넘어서려 하며 이는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주 5일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그 개량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악화된 노동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외관상의 개선은 비 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의 고용조건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성차별과 가사노동의 굴레에 억압당해 왔다. 그리고 이는 신 자유주의적 공세 하에 오히려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위에 서 말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소외된 여성 노동의 결합은 그 차별과 억압의 가장 은밀하면서도 핵심적인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하에 여성 장관이 수명이나 등장하는 외관을 보이면서도 노동현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8 여성의 날의 함성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여전해야 한다. 우리는 여성의 해방이 보편적 인간해방의 지표라는 충고를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오랜 굴레와 싸워온 여성들의 가열 찬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3년 3월 8일

노동자의힘

[민노당여위 3.8성명서] "여성정치세력의 강화로 평등과 평화를 넓혀 내자,"

- 3.8국제여성의 날 95주년을 맞이하며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섬유노동자 1만 5천여명은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생존권과 노동권과 평등한 선거권을 외치며 투쟁했다.

이 날의 투쟁을 기리며 시작된 3.8 국제 여성의 날이 올해로 95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동지들과 함께 국제 여성의 날을 경축하며, 선배노동자대들의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여 여성해방과 평등세상의 길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횡포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더러운 전쟁책동을 여성의 이름으로 거부하면서 한국의 모든 여성동지들에게 다음의 의제를 제안한다.

1. 노동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권을 강화하자!

가정과 공장과 농토와 감옥과 거리에서 우리 노동여성들은 온갖 차별과 억압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왔다. 그러나 여성의 삶과 직결된 많은 정책들은 여전히 여성의 요구와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 돈과 관행과 인식의 장벽에 막혀 여성들은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95년전 차별과 억압에 맞서 여성의 선거권 쟁취투쟁에 나섰던 여성노동자들의 전통을 이어, 노동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권 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여성들의 요구와 정책을 법과 제도로 정치적으로 확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노동하는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강화하자.

2.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여 신자유주의를 저지하자!

신자유주의는 부자들에게만 "착취의 자유"를 확대시켜줄 뿐,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수탈과 고통이다. 무한 경쟁의 시장 논리 속에서 여성은 일차적인 탈락자이며, 더 낮은 임금과 개악된 노동조건으로 감수하는 굴욕과 박탈을 강요당한다. 2002년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에 불과하며, 여성노동자의 80% 가까이가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여성노동자들을 거대한 절망의 늪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소수민족, 종교적 피억압자, 이주노동자, 성매매 피해여성들, 장애인, 동성애자 등- 억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 민중의 연대에 앞장선다.

3.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서 평화를 갈망하는 여성의 이름으로 세계 민중과 연대하자!

이라크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전쟁책동은 석유와 패권을 위한 추악한 전쟁이며, 여성들과 아이들을 최대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대한 폭력과 사기극에 불과하다. 부시의 이라크 공격이 초읽기 들어간 지금, 우리 여성들은 세계의 민중과 함께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의 연대를 더 넓게 확장해나가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전쟁야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떠한 지원과 지지도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8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의 진보적이고 다양한 여성운동전망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전 세계 여성동지들의 연대에 선도적 단결과 공동의 의제로 보다 폭넓게 함께 설 것을 이 땅의 여성동지들에게 제안한다.

2003년 3월 8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한국교육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1만5000여명은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하늘 아래 남성과 여성이 다를 수 없다"며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이날을 '세계여성의날'로 정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와 집회가 진행되면서, 여성노동권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성매매나 전쟁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 등 억압받고 소외받는 여성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행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교육의 모습을 돌아보자. 한국 교육 속에서도 가부장제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중고등 교육 커리큘럼 어디에서 올바른 성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어릴 적부터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게 되고 있다.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교육과정은 체벌이나 위계질서 속에서 반여성주의적인 군사주의 문화가 아이들의 머리 속에 깊이 박히게 된다. 또한 어머니는 밥하고, 아버지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문구나 그림이 교과서에 일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교육내용에 있어서 여성/남성을 이분화하고 한국사회 전반에 성별역할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학교라는 성역 역시, 성폭력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개되지 않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위계적인 학교 사회 내에서 이것을 신고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한국교육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초중고등 교과서에서 반여성주의적인 부분을 수정하고, 커리큘럼에 성교육과 여성학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위계적인 학교질서를 바꾸어 내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할 성폭력상담소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5기 전국학생회의의 교육위원회(준)

한총련의 故윤금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1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에서는 '반미 새내기'라는 제목으로 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수련회기간에 맞춰 발행된 이 신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군 범죄' 중의 하나로 윤금씨 살해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윤금씨가 죽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그 장면의 처참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단지 전라의 상태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만을 소개함으로써 희생자였던 윤금씨가 기지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받았던 고통과 비참하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이미지를 통한 감정적 분노 유발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기지촌과 그곳의 여성들을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식 속에서 성매매 여성의 죽음과 죽은 여성의 몸에는 여성으로서 받았던 고통의 기억보다는 인위적으로 부여된 의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군 철수와 반미 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의 처한 살해 장면을 담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민족적 분노를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 여성의 죽음을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공개적인 매체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폭력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윤금씨의 사진이 미군 범죄에 대한 민족의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존재가 배제되고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금씨가 살해당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지촌 성매매 여성이 겪는 피해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여성의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한

총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문을 발행하고 죽은 윤금씨의 사진을 사용한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여성의 몸에 새겨진 고통과 죽음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관악여성모임연대, 연세대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서울대인문여성모임연대, 서울대사회대여성주의자모임연대, 서울대동아리연합회여성모임연대, 서울대공대여성위원회, 상원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여성주의 자치 언론 두입술, 여성학자치도서관 페미니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인권 없는 반여성적 반전운동 반대한다.

우리는 작년 故 신효순, 심미선 씨 사건 이후 일어났던 촛불시위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전시위에서 보여지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남성주의를 반대합니다. 그 공간에서는 종종 성조기를 훼손하고 'Fucking USA'라는 노래를 불렀으며, 故윤금씨를 비롯한 미군 범죄 피해자의 참혹한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성조기 훼손과 'Fucking USA'라는 구호는 그 집회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와 미국 자체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반미'의 구호와 이어지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개인을 국가로 환원시켜버림으로써 모든 개인을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의 여러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며, 사회적 약자들간의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성조기를 미국패권주의의 상징으로 만들면서 태극기를 진보적 운동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은 같은 국기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또한 '미국에 반대하는 한국'이라는 등식을 만들으로써 전쟁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며,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즉, 전쟁이라는 것이 일상적, 구조적 군사주의를 통해 가능해지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 및 폭력과 이어져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식의 '반전주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 'Fucking USA'라는 구호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반전운동이 급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故 신효순, 심미선 씨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있었던 추모, 반미 집회에서 그녀들의 주검 사진은 故윤금씨 씨의 사진과 나란히 전시되어 왔습니다. 범대위 관계자들은 피해자 사진 사진 사용이 초래하는 거둬들이는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충격적인 사진을 걸 수밖에 없었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투쟁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진들은 운동의 효과를 위해 '이용'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故윤금씨 씨의 주검 사진은, 사진이 찍힌 각도 자체가 이미 주검이 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사진이 찍혔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근본적인 폭력과 군사주의의 문제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충격을 유발하여 분노를 이끌어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운동은 그 충격이 완화되는만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검 사진 전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합니다. 故 신효순, 심미선씨의 주검사진 옆에 故 윤금씨 사진이 나란히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힘없는 한국이 여성 이미지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신체가 참혹하게 피해를 당한 장면이 (남성)민족의 치욕으로 치환되어 (남성)국가적 분노를 자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故 윤금씨 살인 사건을 불평등한 국가간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故 윤금씨의 죽음을 반미운동에 '이용'하는 것이며, 그 죽음을 가능하게 한 여성에 대한 국가 내 남성의 지배와 폭력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미군과 한국 여성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존재하고 군사주의가 팽배한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반전운동을 위해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대항해 나갈것입니다. 여성의 반전은, 힘의 논리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 군비를 증강하는 것, 여성과 소수자의 주체성을 삭제해 버린 채 그들을 보호막에 가두고 동시에 지배하는 군사주의와 남성지배체제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강화되는 '어머니/창녀' 구도의 여성에 대한 이분법을 거부하며, 모성만을 여성이 말할 수 있는 평화로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어머니가 '군대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으로써 반전평화를 외친다는 것은 '어머니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수한 폭력의 피해자였던 지난 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전쟁의 부당함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왔고, 전쟁과 폭력의 오랜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말하지 않고 은폐하는 전쟁의 진실을 알고있습니다.

여성은 증언합니다. 여성으로서 증언합니다.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현 시기 진행 중인 전쟁을 반대하는 실천을 벌여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근본원인인 군사주의와 남성지배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겠다고 충격적인 말과 영상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전쟁 전쟁을 반대한다면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고자 합니다.

2003년 4월 7일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관악여성모임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일다성명서] 전쟁불감증 부추기는 한국언론의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이라크전이 사흘째 접어들었다. 오늘 새벽 미군과 영국군은 이라크 바그다드에 대한 '충격과 공포' 작전을 개시했다. '충격과 공포',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신음하는 이라크 국민들의 처절한 얼굴은 없다.

전쟁을 보도하는 한국언론도 다르지 않다. 미국의 대대적인 폭격에 대한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언론들은 그 폭격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주류언론들은 이번 전쟁으로 누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보도하기에 급급하고 심지어 공개된 양국의 미사일 성능이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았다는 논평을 거리낌없이 표시한다. 현장 기자들은 주말을 맞아 케이프데이비드로 옮긴 부시 동정에 대한 질문을 해내고 있다.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 오늘 다우지수는 공습이 격화되는 데 비례해 상승폭을 늘리며 또 한차례 빅벨리를 보였습니다. (2003-03-22 07:03)"

"본격적인 공중전을 선언한 미국은 바그다드와 모술 등지에 대한 공습에서 가공할만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 첨단 장비와 무기가 총동원됐습니다. 오늘 새벽 공습에는 영국 페어몬드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폭격기 8대가 선봉에 섰습니다. 스텔스기능을 갖춘 B-1, B-2 전투기……." (2003-03-22 05:52)

이것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는 잔악한 전쟁 현실에 대한 보도인가? 이것이 이라크 다음으로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한국 상황에서 철실하게 요구되는 뉴스인가?

언론은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전쟁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및 미국과 북한의 대결적인 구도는 이라크에 이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더러운 전쟁'

은 이라크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국민은 결코 구경꾼이 될 수 없다.

만약 이라크 전쟁에 대해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위협의 칼날이 우리들에게 향할 때 우리에게는 그 전쟁을 막을 어떠한 명분과 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우리가 침묵해선 안 되는 현실을 보여줘야 한다.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기만해서는 안된다.

언론은 반인권적인 뉴스 보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원해야만 전쟁은 끝날 수 있습니다."

2003년 3월 22일

그 여자들의 물결, 여성주의저널 '일다' <http://www.ildaro.com>

서울대학교 본부가 L교수 성희롱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대 의대 L교수는 수술 중 남자 환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며 간호사에게 "송이버섯을 먹으라"고 하거나, 간호사의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자행해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간호사가 기계 조작을 잘 못한다며 수술 도중 간호사를 때리는 폭행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해자 간호사들이 L교수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L교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은 서울대 병원 노조와 함께 "이교수의 해임과 교수 퇴진, 병원 측의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L교수를 보직 해임과 결직 해제하여, L교수는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직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직이 남아있는 한 병원 복직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문제삼았을 때만 해도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느끼게 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나의 언행에 대해서도 죄송하다. 내가 차신을 잘못해서 간호사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L교수가, 점차 "(성희롱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희롱 사건)은 낱조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을 볼 때, 이번 폭행 사건이나 일상적인 성폭력에 대한 L교수의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울대 본부가 L교수를 복직시키거나 경징계로 마무리한다면, 그간 서울대 본부의 성희롱 근절 및 가해자 처벌 의지가 무색해질 것이며,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의혹들-병원 내 L교수 지지세력의 조직적인 환자 명단 유출 의혹, 교수윤리위원회의 편파적인 사건 조사 의혹 등-이 사실로 굳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본부는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L교수를 해임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을 정립하고 교수 성폭력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3년 5월 23일

L교수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 공동대책위원회 / 관악여성모임연대 /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 마음 005 / 여성해방연대 / 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WAW / 서울대 인문대여성모임연대 / 서울대 동연여성운동모임 연인

네 / 서울대 여성주의자치언론 주이쌍스 / 서울대 여성주의문화집단 난리부르스 / 서울대 종교학과/상상반 여성운동모임 나무 / 서울대 동양사학과/용화반 여성운동모임 아수라 / 서울대 국사학과/새날반 여성운동모임 여담 / 서울대 영문과/생동반 여성운동모임 풀 / 서울대 동아리 통합과학연구회 / 서울대 미학과/모반 여성운동모임 퍼즐 / 서울대 국문과/난장반 여성운동모임 다른 목소리 / 서울대 정치학과/일치단결 여성주의모임 WHISPER / 서울대 인문대 독문과 아우토반 성과 사회를 생각하는 모임 슬로스/사회철학회 / 서울대 인문대 서양사학과 역동반 여성운동모임 바램 / 서울대 인문대 노래패 합성 / 서울대 교지관약편집위원회 /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안동대학교 총여학생회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두입술 /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여학생회 / 안암여성주의자연대 /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 고려대학대 여성주의 교지 석순 / 고려대학교 마실 / 치과의사 최진우 / 전해은 / 서울대 정치학과 지선 / 서울대학교 사회대 여성주의 연대 의논이

[성명서]'스톤월항쟁 33주기 기념 토론회'를 비판한다

-누구를 위한 운동이며, 누구의 목소리로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2003년 6월 20일, '무지개2003 퀴어문화축제' 기간에 열린 '스톤월항쟁 33주기 기념 토론회'는 동성애자가 자긍심을 갖고 사회의 차별에 맞서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의 발제자 중 한명은 동성애자의 운동사를 계급운동과 관련된 것만 언급하고 의미를 두고, 다른 운동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던(발제자는 분리주의와 자율주의로 칭함) 동성애자 운동은 운동을 축소시켰다고 평가하며, 동성애운동은 전체운동에 어떻게 연대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동성애자의 삶을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대중투쟁에 뛰어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일어난 한국사회의 반전운동에 동성애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운동에 다른 시민사회가 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발제자는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10년사를 정리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시기는 1996년 경제위기와 총과업 등과 맞물려있고, 자본주의로 인한 차별은 동성애자를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전체운동에 참여해야하며,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억압과 그 억압에 항거하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갈 수 없으며, 분리주의는 바로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 권력적 불평등이 있거나 목적을 같이하지 않거나 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는 위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한다.

-동성애자운동을 비롯한 소수자의 운동은 전체운동에 편입하는 방식의 '연대'로 가능하지 않다. 성별, 인종, 장애 등 여러 소수자의 운동은 역사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2003년 한국의 반전운동을 스톤월항쟁과 계급적 관점으로만 연결지어서 의미화하는 것은 오히려 동성애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이다. 반전에 대한 급진적인 담론은 소수자들의 삶에 기반한 관점이 만들어내었다. 전쟁이 성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적 차별과 폭력에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 것은 레인보우 깃발 아래 모였던 노동자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다.

-“계급해방이 되면 동성애자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전체운동을 계급운동으로, 부문운동을 여성, 동성애자 등의 운동으로 상정하는 것은 사건일뿐 아니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정해져있는 전체와 부문은 없을 뿐더러 그러한 구분이 운동의 순서와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일때에는 소수의 주변화된 운동은 부차화된다.

-동성애자들의 적은 노동계급의 적과 일치한다? 물론 동성애자들은 차별의 구조로 인해서 낮은 계급에 머물기가 쉽다. 그러나 왜 여성성소수자들은 계급을 막론하고 단지 성적정체성을 이유로 성폭력을 당하는가? 이것도 '자본주의를 위한 핵가족'을 만들지 않아서 당하는 차별인가?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억압과 그 억압에 항거하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갈 수 없다”? 누가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투쟁'의 유무로 결정하는가? 더구나 이러한 기준으로 실행되는 분리주의는 정당하고, 가부장성을 비판하며 다른길을 선택한 분리주의는 왜 부당한가?

동성애자에 의한, 동성애자를 위한 토론회에서 특정 단체의 입장으로 동성애자 운동의 역사를 전유하고, 어떤 존재를 배척하고 폄하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투쟁'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하고 반문하게 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반자본주의 운동인가? 왜 그들은 일상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당하고 있는 아웃팅과 사기, 폭력 등의 차별등을 종식하기 위해 싸우는 단체를 부차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는가?

소수자의 운동은 전체에, 중심에 편입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 평등한 연대는 소수자들의 구체적인 현실, 삶을 떠나서 가능하지 않다. 삶에 기반한 운동은 일부 활동가들의 투쟁결의로 하는 운동이 아니다.

소수자들의 운동이 주류운동과 평등하게 연대하는 방식은 편입하거나 공평하게 자원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가 가진 권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이 소수자들의 정치를 배우고 공감하여 연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진정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단체라면 '계급결정론'의 일면성을 자각하고, 보수와 진보진영을 막론하고 뿌리깊게 박혀있는 동성애 혐오와 이성애주의에 대항해서 싸우고, 아직 드러나지조차 않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평등하게 연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른 역사를 배울것을 권한다.

2003년 6월 24일

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

[성명서]"노동해방 없는 동성애자 해방 없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각성하라

노동자 해방 없는, 동성애자 해방 없다!??

지난 6월 20일,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스톤월 항쟁 34주년 기념 토론회-동성애자, 색 다른 도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퀴어문화제 기간 중 행사로 기획된 이번 토론회에서 그간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평가하고,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토론회를 기획하다.

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는 "노동자 해방 없는 동성애자 해방 없다", "전체 운동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부문 운동일 수 밖에 없다."는 등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또한 "퀴어 퍼레이드의 퀴어 뽀내기도 좋지만, 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한 투쟁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퀴어문화축제 기간 마련된 토론회 자리에서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평가 절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스톤월 항쟁과 반전운동"이라는 주제 발제를 맡은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은 "동성애자 운동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반 신자유주의 운동에 연대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동성애자의 삶을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발제자는 "동성애자는 왜 억압 받는가"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동성애자가 해방되었다고 할지라도 장애인, 여성, 흑인, 노동자는 해방되지 않는다"며 체제에 대항하는 운동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스톤월 항쟁 34주년 기념 토론회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이다.

인권운동 단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활동하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대표가 수백명의 동성애자들의 길거리 행진을 운동이 아닌 단순한 "뽕내기" 시간으로 평가 절하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퀴어문화제 조직위의 지원 속에 이루어진 토론회 자리에서까지 수많은 동성애자들의 자긍심 행렬을 대중운동이 아닌 하나의 쇼로만 평가 절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계탄을 금할 길이 없다.

'노동운동만이 살 길이다'라는 폭력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존 운동세력이 여성운동이,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부문운동이 아닌 독립적인 하나의 섹터로 존재함을 역설하는 시점에 '노동운동 없는 동성애자 인권 운동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동성애자 인권운동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운운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연상하게 한다. 또한 대표는 초동회의 해체 이유를 "공동의 정치적 견해가 없었으므로 함께 할 이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편의를 위한 활동의 분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토론회 참가자 중 다함께 소속 회원은 "노동자가 해방되면 여성도 해방된다"는 망발을 했다. 3인의 발제자의 발제 핵심도 바로 그것이었다. 노동자 해방을 최우선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고, 대항하기 위한 연대를 지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전체운동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각성하라!

한국사회 동성애자 억압의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다. 동성애자 억압의 역사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든 전자본주의 체제하에서든 유지되어 온 하나의 억압 기제 즉, 남성권력 일반에 의해 기획된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존재한다. 동성애자 억압의 기원을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해 온 수많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침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운동에의 복귀가 아닌 운동은 운동사회의 내부를 분열시키고, 편의를 위한 활동 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민주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시민사회단체 영역의 양적/질적 증가가 보여주듯이 이는 사회적 피억압 계층은 하나의 이론/하나의 이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나아가서 해방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80년을 전후로 한 한국사회의 격동기 속에 이루어진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운동에의 복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각의 소수집단이 갖는 특수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그리고 동성애자운동이 개별화하여 하나의 운동 섹터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는 1993년에 조직되어 두 달여 간 활동한 한국최초의 인권운동모임인 초동회의 역사적 의의를 "공동의 정치적 견해가 없었으므로 함께 할 이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사회 동성애자인권운동의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음을 드러내주는 결정타이다. 여성운동이 하나의 운동 섹터로 존재하며 기존 운동세력이 가진 가부장성과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고, 자체적인 운동이슈 생산과 억압현실을 가시화하는 것은 여성인권 일반이 갖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운동이념 속에서 드러내고 차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현실과 맞닿아있다. 즉, 모든 소수집단의 운동 영역이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주장대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운동에 복귀하더라도 남편으로부터 구타 당하는 여성, 성폭력 피해를 겪는 여성, 성매매 산업으로 끌려들어가거나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동회 해체는 '동성애자 해방'이라는 하나의 운동이념만으로 묶일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성애자 해방이 곧 강간당하는 레즈비언의 해방까지 담보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비롯한 한국사회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시도하고, 현실화했다. 노동억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억압 상황에 놓인 다양한 소수집단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나름의 운동목표 수립을 통해 투쟁해 온 역사를 가진다. 각각의 운동은 상하 위계적인 복부 형식의 운동이 아닌 수평적 연대를 통해 개별/통합적인 인권사안을 위해 연대해 왔다.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이러한 물 역사적인 운동이념이 동성애자인권운동의 가치를 저해하고, 다양한 인권향상을 위한 모색과 실천의 의미를 평가 절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인권운동에 대한 물 역사적인 관점을 수정하고, 소수집단의 운동성과를 평가 절하하는 망발을 중단하라.

2003년 6월 24일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퀴어문화축제 무지개2003의 '동성애자 색다른 도발挑發' 토론회를 비판하며

토론회 '동성애자 색다른 도발挑發'은 퀴어문화축제 무지개2003의 첫 번째 행사였다. 토론회는 스톤월 항쟁 34주년을 기념한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무지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주관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 고려대 사람과 사람, 서울대 마음 005, 중앙대 레인보우피쉬' 주최로 열렸다. 그러나, 토론회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전반을 두루 살피지 못하는 내용과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없음으로 인해 무수한 평가의 지점만을 남기고 말았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동성애자들은 사회변혁(?)의 핵심(?)인 전체운동(?)에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가 이번 토론회의 주된 맥락이 되어버렸던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 토론회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두루 회자되며 짙게 짙어져야만 한다. 토론회 장 내에서도 다시 한 번 차별받고 배제되었던 '동성애자'들, 그리고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1. 동성애자 인권 운동=부문 운동, 노동 운동=전체 운동?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은 끊임없이 '부문 운동' 취급을 받았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 단체들이 스스로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부문'으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한 발제자는 '전체 운동만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고 우리의 문제는 부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운동 속에서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인가가 우선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서 '전체 운동과 부문 운동이라는 말이 모호한데 대체 무엇을 전체 운동이라고 하시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자본주의가 모두의 삶을 강력하게 구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운동이 전체 운동의 핵심이다.'라고 답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제자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동성애 운동은 전체운동이 성장하고 상승하는 시기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관건은 동성애 운동이 전체운동에 어떻게 연대하느냐이다.'고 말이다. 또한 그 발제의 결론은 '신자유주의는 동성애자의 삶을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反신자유주의 운동에 연대해야'하며 '동성애 운동이 대중투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발제자들 외의 여러 발언자들의 논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부문 운동과 전체 운동을 규정할 수 있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 다양한 억압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사회 구조란 대체 무엇인가?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발제자들과 발언자들 대부분은 토론회 내내 계급결정론적인 시각을 보이며 다른 운동들을 모조리 부문 운동 취급하는 오만함을 감추지 않았다. 계급 모순과 그에 대항하는 노동 운동의 대중투쟁은 그들이 생각하는 운동 그 자체였고 그러한 논리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동성애자 억압의 고유한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성애자는 왜 억압받는 것이며 한국 동성애자의 운동과 그 미래는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급한 과제들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아웃팅 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도! 만연해 있는 일상적인 차별의 공포에 숨죽이고 침묵한 채 살아가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기존의 '대중투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동성애자들에게는 스스로의 문제를 갖고 '대중투쟁'을 벌여내고자 했을 때마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장벽이 있다. 이렇듯 전형적인 운동의 방식으로부터도 배제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한계들과 그에 대한 대응들 혹은 새로운 운동 방식의 모색에 대한 고민을 결여한 채

로 소위 '전체 운동'에 종속적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면 결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동성애자 인권'을 간파하는 꼴이 되어버릴 것이다. 온갖 투쟁들에 연대하고자 하지만 그 와중에 '동성애자 인권'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해방은 호모토피아를 퇴치시키는데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2. 토론회 주최측의 소수자 감수성 없음

토론회에서 또 한번 놀랐던 것은 최근 조선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이 조직의 뿌리 깊은 가부장성을 비판하며 한총련을 공식 탈퇴한 것에 대한 한 발제자의 태도였다. 발제자는, 한 총여학생회장의 용기있는 행동을 마치 '단순한 편의를 위한 활동의 분리'에 지나지 않는 양 취급하고 그 총여학생회장의 문제의식을 가지 절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의 인권 운동을 한다라는 이가 견지하고 있기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관점이다. 다양한 억압의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진정한 해방도 그 다양한 억압의 고리들에 대한 싸움에 연대할 때라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가 어떻게 오랫동안 활동해오던 조직의 여성배제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위계적 분위기를 참다 못해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여성 활동가를 대의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할 수 있는가? 호모토피아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체라고 해도 그 단체가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단체이기만 하면, 더 이상 그 단체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동성애자에게 '당신이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발제자는 한 질문자가 제자 확인을 위해 총여학생회장의 한총련 탈퇴에 대한 입장을 한번 더 물었을 때도 너무나 당당하게 '그런 행동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여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3. 나가며

'전체 운동'에 어떻게 연대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을 가두 투쟁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다양한 차원의 적대와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소수자들의 입장에 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각각 다른 억압에 대항하는 싸움들과 연대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소수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 주최측에게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다.

2003.6.24.

관악여성모임연대

2003 여성연대한판
자매들,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

퍼넬날 : 2003.8.1
퍼넬곳 : 2003 여성연대한판 기획단